

1974년 5월 6일 인쇄
1974년 5월 10일 발행

공민

〈제 138 · 139 합병호〉



1974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 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장군 및 대령 진급자 신고

1월 1일부로 장군 및 대령 진급을 한 〇〇명의 진급자들이 옥만호 참모총장에게 진급신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옥총장은 이들의 진급을 축하하고 중임 완수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군 지휘관 회의 개최

74년 제1차 전군 지휘관 회의가 지난 1월 8일 옥만호 참모총장의 주재로 공본 회의실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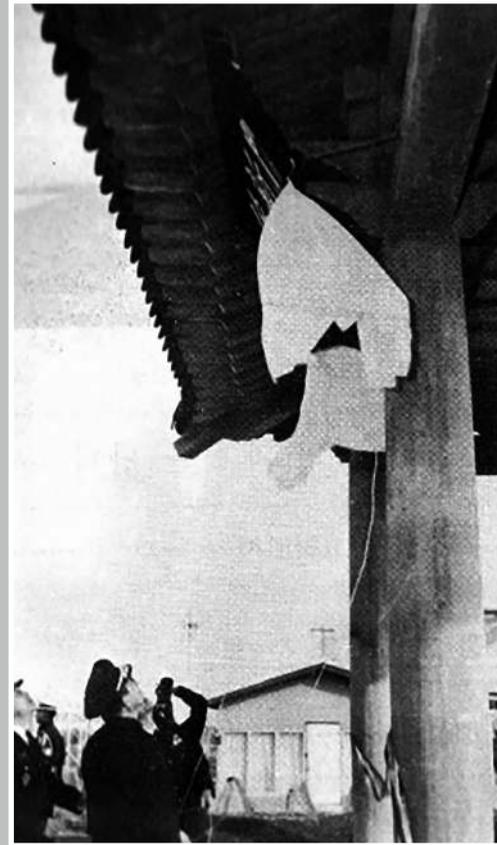


미 공군 참모총장 「브라운」 대장 예방

미 공군 참모총장 「브라운」 대장이 지난 1월 30일 공군본부로 옥만호 참모총장을 예방, 환담하였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보우트 대장 예방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보우트 대장이 지난 1월 10일 내한 인사차 공군본부로 옥만호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유신문」 준공식

제5236부대서는 지난 2월 21일 옥만호 참모총장의 참석하에 「유신문」 준공식을 가졌다

그런데 이 유신문의 현판은 박대통령각하의 친필로 쓰여진 것이다.





권두언
 권두시 1974년 새날의 새벽을 난다
 처칠의 방위 의욕
 73년,국제정세의 특징을 회고하면서

정훈감 신 찬 (10)
 박목원 (12)
 허돈구 (14)
 신상초(20)

특별정훈교육 자료

대통령 긴급조치 해설
 에너지 절약
 정훈 욕구 분석
 군 새마을운동의 방법론적 고찰

편집실(27)
 편집실(39)
 김세환(49)
 김의승(59)

특집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자유에 대한 책임
 권리에 대한 의무
 한국적 민주주의

김성국(68)
 장 룡(80)
 김영국(85)
 최창규(91)

국난을 극복한 조상의 발자취
 한국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국가관
 주체성과 조국근대화
 전력강화와 인화단결
 군대에절의 준수

한경수(98)
 송대성(106)
 김영태(114)
 홍종도(121)
 손행남(130)

특집 젊은 지성이 본 공군

이성위 중앙대 (138)	정동순 경희대 (143)
황종선 홍익대 (140)	이남신 성균관대 (145)
박부리 이화여대 (141)	

북한의 현실- 군사력, 군사전략, 군사기능	양홍모(147)
남북대화 중단 이후의 북한 동향	양세환(156)

● **논단**

새마을운동과 군인의 정신자세	조정기(166)
-----------------	----------

만화 공군만상

박진래(189)

항공 군사 과학

월남 항공전 <1>	이명완(177)
항공 발달사	심사수(191)
-연재- 공정작전 <2>	유순근(204)

군중 코너

변천하는 사회와 성윤리	고영복(225)
성의 기독교적 이해	허경삼(233)
사도 바울의 종말사상	김두식(239)
자주국방을 위한 PPBS	국특명검열단(248)

취미 코너 교양으로서의 독서

정성환(277)

단편 두꺼비 생관

김병로(286)

공군

제 138·139 합병호 1974년 제 5 호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략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총화유신을 생각하며

정훈감 공군대령 신 찬

스산했던 겨울이 가고 어느 사이엔가 따사로운 기운이 땅 밑에서 껍질을 뚫으려 꿈틀거리게 되면 거의나가 춥고 눈많은 지난 겨울을 난생 처음 겪은 겨울인 양 을씨년스러운 눈으로 돌이켜 보게 된다.

“에너지”위기라는 새로운 굴레가 우리 모두의 위를 짓누르면서 왜 우리에게만 우리들이 쓸만한 유층(油層)이나 주어져지 않았는가를 안타까이 여기며 불행한 우리라고 생각들 한다. 미국이 고철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나라의 철근이 갑자기 씨가 마르거나 한 듯이제는 고층집은 다 지었구나, 연탄집게도 사기 힘들게 되었나 보다 아우성을 치면서 고철수집운동으로 아이들이 멧모르고 수도꼭지, 부지쟁이까지 들고 나섰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서해와 남해에 몇천ft씩 “파일”을 박아보고 난 뒤의 얘기일까? 태백산 깊은 줄기의 광원을 다 파헤쳐 본 뒤의 얘기란 말인가?

영국이 그 얼마나 많은 철광을 가졌기에 6대양을 지배하던 육중한 군함들을 만들어 냈으며, 화란이 무어 그리 훌륭한 땅덩이 위에 자리했기에 세계 제일의 분유(粉乳)와 “치이즈”로 부를 누리고 있다는 말인가.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끈 것은 “스핏트. 화이어”기도 아니요 성능 좋은 “레이다”망도 아닌 “As Usual”(평상과 같이)라는 구호였다고 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독일기의 야간폭격으로 밤의 “런던”이 새빨강게 불타올랐을 때도, V-I·II에 의해 육중한 석조건물이 바로 옆에서 무너져 왔을 때도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자고 매 일같이 신문이, 방송이 “As Usual”을 되풀이 했단다. 음울한 안개 속의 겨울을 지나면서 귀가 아플 정도로 자식에게 “Be Patient”(참으라. 인내하라)를 가르쳤던 흐름이 이런 차분함을 길렀으리라고도 생각은 든다. 그렇다고 “Common Sense”와 “Humor”의 나라이기에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해 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 해학과 재치는 우리도 넘치고 남는 민족이다.

인간의 역사를 무기 의 발달과 견주어 풀이한 학자가 있다. 돌맹이로부터 수폭, 「미사일」에 이르기까지의 갖가지 공방수단이 생존을 위한 필요, 그것만에서 나왔고 나은 수단은 보다 나은 수단을 낳지 않고는 도시 역사란 존재 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겨울이 춥고 여름이 더워지 않았던들 운대인들이 열대인들에 비하여 그렇게 월등하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또 그들을 지배하여 지금의 부를 쌓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기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As Usual”과 “Be Patient”로 집약되는 영국인의 생활철학에서 우리만의 춥고 눈많은 겨울이, 우리만의 “에너지”위기가 내심 우스웁게 보여지지 않을까?

“사라센” “터키” “마잘” “놀만”으로 그리고 1·2차 대전으로 혹독한 삶과 죽음을 겪었던 서구인에게 “병자호란”, “임진왜란”을, 6·25를 견디면서 고생한 것은 우리만인 듯 입에서 침을 튀긴들 도리어 웃음만 살 것같은 생각이 든다. 고난은 그 나름대로 누구에게나 있는 것. 그러나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그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는 자만이 고난에서 참 가치를 찾아 살아남는 것일 게다. 고난이 있어 이를 이겨왔던 운대인 열대인보다 더 수(壽)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그 고난과 무슨 연관이냐 있는 듯이 자꾸 느껴진다.

이제 총화유신이라는 “스크램”을 짜고 “에너지”팀을 힘껏 밀어 체치려다. 만만치 않은 상대에게 한 번 해볼만하지 않은가. 얼마 후 두 손을 높이 들어 승리의 겸손을 허리굽혀 모두에게 보낼 때 살갓에 영킨 흰소금을 닦아가며 우리를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느끼리라. 새로운 가치가, 인식, 자신이 어느 틈엔가 같은 크기의 내 몸 속에 샘솟듯 넘쳐흐름에 놀라고 말리라. 새삼스레 총화유신을 외치게 되는 당위가 온몸을 휘감듯내 가까이를 죄어온다.

1974년 새날의 새벽을 난다

박 목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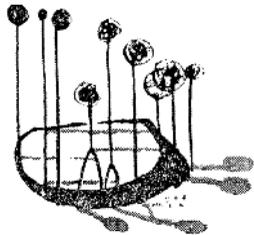
구름을 뚫고
수직으로 솟는다.
1974년
새날
장미빛으로 밝아오는
새벽을 나는
찬란한 편대.
구름 아래서
영원으로 출렁거리는 바다는
아직도 짙은 포도빛으로
잠잠하고
조국의 산하는
어둠에 잠겼는데
운모(雲母)빛으로
이마를 밝히는
눈덮힌 산봉우리를 굽어보며
우리는
난다.
하늘을 지키려는
우리들의 의지만이
강철같이 빛나는
1974년의
첫 새벽을 난다.
우리는

장미꽃다발을 수없이 엮어
구름 위에 얹는다.
오늘을 나는
우리들 이마 위에
투명한 조국 하늘.
순금의 햇살이
부채살로 방사하는
1974년
오늘의 새벽을 나는
은익 편대의
차가운 의지.
조국수호의 소명감 속에서
초특급의 장미로 꽃피는
우리들의 젊음.
겨레와 함께
숨쉬는
우리들의 벽찬 보람.
왕성한 투지.
지금.
장엄한 천상주악이 울리는
1974년
새날의 광명 속에
조국-자유대한의 상공을
우리는 난다.

- 새해를 맞은 우리의 결의 -

「처칠」의 방위 의무

허 돈 구



민에 기본을 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국가방위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아니면 안 된다. 국민총의의 지지가 없이는 국가방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가방위의 성과도 올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대중은 구체적인 위협이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한 무엇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자기네들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둔갑하기 쉽다. 국가방위라는 것을 구호로써 처리하고 실

제적인 행동적 국가방위가 자기네들의 실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그것을 내심적으로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조성되기 일쑤다. 무저항적 무방비가 평화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길이라고 이상 아닌 공상에 사로잡히는 우중(愚衆)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있는 것이다. 무턱대고 국제정세에 영합하고 자주적인 신조가 없는 외교에 우왕좌왕하는 무질서한 국가방위가 역시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일어나기 쉽다.

자유국가라든가 또는 서구적 정치이념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자유주의적 민주정치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중점을 으레 비침략, 비군사적 평화에호에만 있는 것같이 생각하고 전제, 독재, 전체주의와는 상용될 수 없는 대조적인 존재인 것 같이 믿고 있다. 동시에 통제적 경향을 갖는 군비와는 필연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신봉하기 쉽다. 자기네 스스로가 남을 침범하지 않으면 남이 왜 자기네들을 침범하겠느냐 하는 식의 안이한 사고가 만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에는 원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대는 바뀌어지게 마련이다. 군비를 하게 되는 목적 자체에 많은 변천이 있었다. 항상 그 시대의 정세와 국제적 추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서는 자유국가라 할지라도 국가방위가 무엇인가를 논의할 수 없게끔 된 것이다. 자유국가라 하더라도 그들이 표방하는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의 침략과 파괴

처칠의 방위 의무

를 방지하지 않는 한 사실상의 국가방위는 존립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즉 자유민주체제와는 전혀 판이한 주의와 주장이 구축되고 그들의 공략적인 힘에 의한 위협을 받게 된 시대가 온 것이다. 즉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군비에 의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양두구미의 침투적 수단에 의한 위협을 받게 되는 복잡미묘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지 않으면 아니 될 처지가 된 것이다. 민주주의체제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침략과 내부로부터의 파괴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자유국가들이 국가방위를 소리 높여 외쳐야 할 현대적 군사목표인 것이다.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군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실례는 하나 둘이 아니다. 영국을 하나의 좋은 예로서 들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있어서도,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나 특히 그 2차에 걸친 전쟁의 중간 기간에 있어서 국가방위에 대한 용의가 부족했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가 영국의 국가방위에 대한 만심(憐心)을 가져왔고 그 전쟁을 치루느라고 지칠대로 지친 피로가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인류최후의 치루었다고 믿었고 그렇게까지 갈망하던 인류의 항구적 평화의 애원이 이제서야 사라졌다고 환호의 희열 속에서 안일만이 그들의 유일무이의 희망이었고 미래를 장식하는 경상(景象)만이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운이 차차 “도바” 해협을 뒤통게 되자 그들의 평화에로의 영상과 기대는 희미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공상만은 버릴 수가 없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외국과의 마찰을 회피하는 유화정책에 집념하였다. 온화한 외교, 현실에 대한 낙천적 견해, 미래에 대한 감미로운 매력에 사로잡혀 국가방위를 위한 군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로지 군축제적이고 구체적인 대비를 하지 않았다.

소위, “평안하기 때문에 위태로움을 몰랐고 존립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잊었고 다스려지기 때문에 난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안존평치의 시기에 있어서도 위망패난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계율은 그러한 시대의 그러한 인심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상례일지도 모른다. 평온한 가운데 번영만 있으면 그저 무사함만이 기쁘고 닥쳐올 재해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정인 것 같다. “꽃구경을 갈 때에도 반드시 칼을 차고 가라”하는 선현들의 교훈도 있다. 평정하기만 한 세상이라고 믿는 마음 속에는 난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도시 있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염원이 강하기 짝이 없다 하더라도, 추구하는 이상 이 높고 또 높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 까지나 염원이고 이상이지 현실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현실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에 대처하는 착실한 방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한다.

영국은 제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도 전비에는 불충분한 점이 많았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제 판시인이었고 많은 애국적인 시를 쓴 “키플링”(Kipling)이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그 때의 영국은 국위와 번영을 마음대로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강한 망념에 사로잡혀 그저 거짓만을 믿고

나라에 올라타기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허송세월만을 일삼으며 허술한 기적을 기다리고
그 누가 구해주리라는 희망을 걸고서

허물어진 전선에 불어오는 바람 속에 게으르고 또 게으른”(영국어어)

“Given to strong delusion, wholly believing a lie Ye saw that the lund lay feneeless, and ye let the month go by, Waiting some easy wonder; hoping some saving sign Idle openly idle in the lee of the forespent line.”

청천의 벽력과 같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의용병제도에 있었다. 영국의 위기를 타개하려고 응모한 병사는 주로 대학생이었고 각자가 한 자루의 총을 멘채 “벨쭈”의 전선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그들이 국가의 수호를 위하여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전쟁을 치루어야 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 1차 세계대전 후부터 제 2차 세계대전까지의 약 20년(1918~1939)간에 있어서의 처칠의 국가 방위의욕에 관한 역설은 특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평시에 있어서의 국가방위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이었다.

이씨조선의 이율곡 선생과 영국의 “처칠” 수상의 지론(持論)에는 공통점 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당시의 영국에 있어서의 전비의 경시와 국가방위의 노력의 결여를 지적 한다면 국민이나 위정자의 불평을 사게 되는 시대였다. 국가방위에 대한 대비책을 역설한 “처칠”에게 있어서의 그의 정치생애 중에서 가장 불우한 시대였다.

특히 1930년경부터 그를 괴롭힌 것은 “나치” 독일의 재군비였고 특히 독일공군의 증강은 영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었다. 그러한 사정 하에서 “첸바란” 정부의 유일한 대책은 일반군비의 축소를 주장하는 이외에는 하책의 묘안이 없었다. 처칠은 정부의 그러한 태도에 몹시 불만을 가졌다. 그는 주장하기를 독일이 갖는 불만을 완화시킬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방책으로서 독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 도리어 군비를 강화해서 독일의 불만을 자제하도록 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독일을 상대하는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국민과 위정자의 자신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다 해도 또는 자기 자신이 불평의 대상자가 되고

정치적인 불우를 초래한다 해도 국가방위에 대한 그의 집념은 강렬해서 냉평과 냉우(冷遇)를 온몸에 지니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그 당시의 그의 모습이었다. 그러한 때 일수록 그에게는 이색적인 창의성이 발휘되었다. 어떠한 전기작가는 그러한 인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인류의 경험이 풍부해졌고 인간 역량의 위대함이 무한이라는 것을 인류에게 알려주는 제기가 되었다고 평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후세에 길이 길이 기억하고도 남을 여러가지의 명언을 남기게 된 것도 그 시대와 그 때부터 계속된 제 2차 세계대전 중이었다. 1930년대 의 초기에 친히 나치 독일을 시찰하고 돌아온 “처칠”은 “나치” 독일의 높은 전의(戰意)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그것이 심상치 않은 징조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나치 독일은 무기를 구하면서 패전의 참화에서 일어서고 있다. 그들 조국을 타국과 평등한 지위로 만회시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국난에 목숨을 바치 겠다는 마음으로 가두를 행진하고 있다. 그리 고군죽이 라는 명분을 내세워 승자의 힘을 값내내려고 한다. 그러한 야망이 달성되는 날 구주는 다시금 전란의 마당이 되어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는 평화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저항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합지중으로 전략하는 것만은 면하게끔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약해서가 아니라 힘과 강함을 가졌으므로 그들과 교섭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라의 힘을 결집시킨 힘으로써 정의의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나치” 독일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부에 대어들었을 때 그에게서는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태도 이외에는 아무 것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

“결정해서는 안 될 것만을 결정하고 결의해서는 안 될 것만을 결의하며 떠나려 보내야 할 것에만 집착하고 변화시켜야 할 것을 그대로 가지려고 고집하며 무력한 것에 강한 체면을 하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간에 형세는 최악의 사태로 급변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가 합병당하고 “문헨”에서의 유화조약이 체결되고, “체코슬로바키아”가 괴멸되고, “폴랜드”에 대한 군사침입이 개시되는 등, 즉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다.

처칠은 정부에 대한 비평만을 일삼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짓어낼 때는 아니고 적을 몰아 쓰러뜨려야 할 때가 되었던 것이다.

개전 다음 해의 봄, 불란서군의 저항력은 결정적으로 붕괴되는 운명이었고 영국군은 “단젤크”에 몰리어 고립되었다. 이 때에 처칠은 국민이 최후의 유일한 희망을 잃어지고 “첸바렌”으로부터 수상직을 물려 받게 되었다던 것이다. “처칠”은 결국 국가존망에 관한 운명을 건 책임을

인수한 것이다.

취임 후 3일째 되는 날 그는 의회에서

“나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다만 있다면 피와 땀과 눈물과 노고를 바치는 것 이외에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다.”

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고뇌에 찬 그의 말이야말로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이 세월만을 보내온 의회나 국민이 듣고 싶어했던 말이었다.

일체의 허위와 낙관과 의지심은 사라졌고 그저 슬픔과 절망 속에서의 절대절명의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심만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절망적인 전황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폭격 속에서 실망에 차있는 국민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일이었다. 그는 싸워야 한다는 결의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필요하다면 몇년이 걸리더라도 또는 영국만이 남게 되더라도 이 섬을 지켜 전화를 극복하고 공포의 정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들은 꺾이든가 주저앉든가 힘을 잃든가 해서 안 된다. 최후까지 싸워야 한다. 불란서에서 싸우고 바다 위에서 싸우고 공중에서도 싸운다. 어떠한 값을 쳐주더라도 이 섬을 지켜야 한다. 바다를 건너오면 바다에서 싸우고, 상륙해 온다면 상륙지점에서 싸운다. 언덕에서 싸우고 거리에서도 싸운다. 결코 굴복이란 있을 수 없다. 만일 이 섬이 적의 손에 들어간다면 해외의 우리 국토에 가서 몇 년이라도 이 섬을 되찾을 때까지 싸운다. 신세계가 전력을 다해서 우리를 도우러 올 때까지 싸운다.”

결국 불란서는 싸움의 대열에서 이탈했다. 믿어서는 아니 될 자를 믿었다는 슬픔도 있었지만 영국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굳게 함으로써 위안으로 삼았던 것이다. 영국을 굴복시키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믿었던 나치 독일의 침공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점 멀어져 갔다. 치열했던 영국 본토 상공에서의 공중전도 여름철을 고비로 가을에 접어들면서 차츰 약화되어 최악의 위기는 일단 극복된 셈이 되었다. 마침내 국가방위에 대한 자신이 서서히 높아졌고 결과는 나치 독일이 영국 본토의 침공의 야욕을 버리게끔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은 국가방위의 위대한 과업을 수행(遂行)했고 영광된 전통을 이어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한나라의 대외적인 관계가 중요한 시기에 국가방위를 위한 방비를 소홀히 하고 그것을 경시한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1930년대의 영국의 실례로서 입증하였다. 저지할 수 있는 전란을 그대로 당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평화를 잃었던 한 나라가 위대한 지도자의 지도력에 의해서 방위 의욕이 고취되어 국난을 극복한 슬픔과 기쁨의 교차를 살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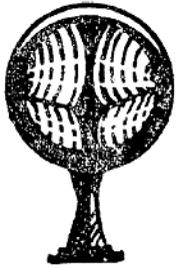
무방비 상태의 영국을 침략의 위기에서 구출하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방위의 잠재력을 발휘케 한 것도 “처칠”이라는 지도자가 있음으로 해서 가능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 국민이 가지

고 있는 국민성이 없었더라면 “처칠”이 있었다 해도 전쟁은 패전이라는 형태로서 일찌기 끝났을 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국가를 방위하는 데에는 위대한 지도자의 역량 방위 의욕에 투철한 국민이 결과하지 않는 한 국가방위의 실패는 거두기 어렵다는 하나의 교훈을 찾아보았다.

국가를 방위하는 일, 즉 국방과 국민성의 관계는 융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불의의 것이다. 국방은 국민과 국민성에서 이탈될 경우 그것은 흘러가는 뜬 구름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민주국가의 이상과 현실은 이것을 방위하는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대비 없이는 실제적인 국가방위가 있을 수 없고 국가의 존립이 보장될 수 없는 시대인 것이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방위의 욕을 갖는 국민과 국민성이 없다면 결코 국가방위의 실패를 기할 수 없는 것이다.

73년, 국제정세의 특징을 회고하면서



신상초
〈중앙일보 논설위원〉

(1)

73년 1월 27일 역사적인 「파리」 평화 협정이 성립되었다. 72년 「크리스마스」까지 평화협정이 성립되리라는 설이 널리 유포되었는데 그 후 사태는 또다시 역전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73년대 초를 장식해서 월남에 휴전이 성립된 것이다. 「베트남」전쟁의 휴전 성립은 평화의 틀을 만들어 놓았지만 평화 자체를 달성한 것은 아니다. 군사문제의 해결이 곤란한 데다가 정치문제가 되면 더 한층 곤란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는 정전 직후 교전 쌍방이 서로들 유리한 진지를 차지하기 위한 군사충돌을 벌였다. 그러나 그 후 국제관리 감시위원회(ICCS) 4자 합동군사위, 2자 합동군사위(3월 18일 개설) 등의 견제로 인해 분쟁은 축소하고 충돌의 규모는 적어지고 전반적으로 군사정세는 진정화하게 되었다. 「베트남」정부는 미군 철퇴 후에도 군사상 자신을 갖고 있고 정국도 안정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전화의 깊은 상처 때문에 금후의 부흥이 긴급한 과제로 등장되어 있다.

5월 17일 「키신저-레·독·토」회담이 파리에서 열렸는데 6월 13일에는 공동 「코뮤니케」가 발표되었다. 「코뮤니케」는 「캄보디아」 「라오스」에 관해서는 파리협정 제20조의 규정을 재확인했지만 월맹이 「호지명 루우트」를 통해 무기병력의 보급을 금지한다는 데 대해서 구체적 언급이 없다. 그리고 미국의 정찰비행의 정지, 미국에 의한 기뢰 철거작업의 실시, 「미·월맹 합동경계위」의 재개 등을 약속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파리 협정의 주요 문제점을 재 확인했다는 인상이 짙다.

이처럼 베트남 사태는 휴전성립과 미·월맹 협상으로 말미암아 일단 안정되었다. 그러나 금년 가을 공산측이 군사 공세를 취하고 「베트남」정부가 위협을 받게 되자 미국이 북폭재개를 불사한다는 태도를 보이게 됨으로써 재 긴장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설령 미국의 북폭재개로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전쟁이 재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이 가까스로 성립된 월남휴전-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쟁취한 평화를 깨뜨리

73년, 국제정세의 특징을 회고하면서

고 또다시 전쟁에 개입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뿐더러 현재의 「닉슨」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대외 군사개입정책을 전개 코자한다면 대통령이 일부러 「스케이프-고오트」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단호한 행동은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에 베트남 사태가 심히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은 베트남 정부군에 대한 원조 강화나 대 「하노이」협상을 통해서 사태를 수습코자 할 것이요 적어도 전면 재 개입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로 끝난 베트남전쟁은 막강한 미군사력을 투입 해가지고서도 전쟁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입증해 주었다. 문명사회에서 세련된 백마가 「정글」 깊숙이 뛰어 들었다가 독사한테 물려 허둥지둥 간신히 발뺌을 하고 만 격인 이 전쟁에서 미국이 입은 손실은 크다. 베트남전쟁 개입정책의 실패는 태평양 바다 건너 진흙을 개속하던 서진(西進)프론 티어 정책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 말미암아 미국이 세계정책에 있어서 후퇴의 경향을 현저하게 드러내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국의 조야(朝野)는 아시아의 지상전에서처럼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재 확인하게 되었다.

「베트남」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은 미국으로 하여금 그 세계정책을 전반적으로 재 검토하고 전개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했다. 말하자면 종래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준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정책 재건의 여유를 갖게 되었지만 세계적인 책임 점감(漸減)의 경향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60년대 초반 해도 미국 총생산이 세계 총생산에서 정하는 비중은 50%였었는데 70년대에 들어서 그것이 35%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다가 미국민들 자신이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계속 무거운 부담을 지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 유럽 관계나 대일 관계를 조종하는데 있어서 동맹국의 책임이나 부담 가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제국으로서의 미국의 찬란한 꿈은 깨어진 것이요, 이 영광된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희생을 미국은 정부도 국민도 과거처럼 많이 지출할 생각이 없어지고 만 것이다.

(2)

73년 한해 전체를 두고 미·소의 평화공존관계는 그 기초(基調)에서 유지 발전되었다. 작년 5월 「닉슨」방소에 답례하기 위해 73년 6월 「브레즈네프」가 방미했다 방미중 벌인 「미·소정상 회

담)에서 미·소는 72년 5월 모스크바 정상회담 때 합의된 사항이 잘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데 대해서 만족의 뜻을 표시했고 앞으로 평화공존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절대 필요하다고 했다. 「브레즈네프」방미 중에 행해진 일련의 정상급 회담은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기보다는 제반 세계정세의 움직임에 대해서 양자의 의견차를 줄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공 접근 화해경향이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과 평화공존할 필요를 통감케 하고 있는 것이다. 미·소 양국 체제가 무너진 오늘의 세계정세 하에서 소련은 단독으로 중공과 대결할 결심을 하고 그 태세를 세우는데 부심하고 있다. 이 대결태세에 있어서 미국과의 평화 공존 관계를 유지하고 최소한 미국의 중립을 확보해 두는 것은 이미 「그로발」 한 규모로 발전한 중·소 대립에 있어서 소련이 승리를 바라보기 위한 대전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7월 3일 「헬싱키」에서 「알바니아」를 제외한 전 구라파 33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합계 35개국의 외상이 모여서 「전구안보협력회의」를 열었다. 「나폴레옹」 전쟁의 뒷처리를 한 「비엔나」회의 제1차대전의 결말을 지어버린 파리 회의와 마찬가지로 금차 회의는 실질적으로는 제2차 대전의 결과를 국제적으로 확인 시키는데 소련의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원래 이 회의는 소련이 1966년에 내세운 구상에 따른 것인데 유럽의 현재 국경의 법정고정화야 말로 전후 소련이 근 30년을 두고 추구해온 목표라 하겠다. 소련은 이 회의에서 각국의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국경 불가침, 무력 불행사, 인적 문화적 교류 등 그럴듯한 원칙을 내세웠다. 소련으로서는 현상동결과 유럽안보를 실현하여 후(後)의 염려를 없애고 전력(全力)을 대중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소련이 내세우는 원칙이 동구제국에 대한 「브레즈네프·독트린」과 근본적으로 관련되고 또 아직도 서구제국이 소련에 대한 불신감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나 사회체제의 차이 동맹관계의 대립을 넘어 동서구 제국의 외상이 한 자리에 모여 전구안보문제를 토의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탈(脫) 「냉전과정」의 세계정세의 특징 봄 몇볼 수 있다.

11월 말「브레즈네프」는 인도를 방문 하여 「간디」수상과 회담을 벌였다. 여기서도 「브레즈네프」는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참가하는「전아시아 안보체제안」을 선물로 내놓았다.「전 아안보체제」안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후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미의존에 안보의 핵심을 구하고 있던 나라들이 불안 중요하고 있는 오늘의 정세하에서는 확실히 구미에 당기는 안이다. 그러나 중공이 이 체제를 가리켜 대중공 포위고립망의 포진으로 간주하고 격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동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이 구상에 적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 전아안보체제가 먹혀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지만 적어도 인도에 관한 한

이 나라는 소련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중공에 대한 안보태세를 강화할 결의를 굳히고 있다.

중동문제 협상 때문에 현지와 모스크바를 바삐 들렀던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11월 중순 북경에 들러 주은래와 4차에 걸쳐 장시간 회담을 했다. 「모스크바」에서의 흥정이 중공의 의혹을 샀기 때문에 그 흥정이 중공의 국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 회담의 막간에서 주은래는 「미군이 대만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자기는 절대로 방미초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공은 계속 화해와 국교정상화를 위해 달려가고 평화공존을 심화하자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중공으로서는 지금 현재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것은 그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므로 대미 화해 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이 미국과의 국교정상화의 전제로 내세우던 4개 문제, 즉 대만문제, 한국문제, 베트남문제 그리고 주태미군 문제 등은 공히 미군이 이들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함으로써만 중공의 체면을 세워 주는 방향으로 대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중공은 이들 지역에서 미군의 조속한전반적인 철수를 원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베트남문제는 일단 휴전이 성립되었으니 별개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중공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형식으로 국교를 개시하는데 동의한 사실이라든가 또 11월 키신저·주회담 직후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 있어서 한국문제에 관한 설전이 급전직하로 결론지어졌다든가 하는 사실을 고려해 넣는다면 중공이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미군사력의 급속한 후퇴를 원치 않고 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중공은 동아시아로부터의 미 군사력의 급속한 철수가 「힘의 진공상태」를 조성해 소련의 군사력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결과적으로는 소련이 내세우는 전아안보체제안이 통할 수 있는 구실을 주게 되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의 제일가는 가상 적국은 물론 소련이다. 따라서 중공 중앙의 수뇌들이 이 적국을 견제코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이용코자 한다 해서 조금도 해괴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미 「그로발」한 규모로 확대된 중·소대립은 73년 한해를 두고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북경측의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소련군은 1~2월에 「우스리」 「나무울」서강의 분쟁지역에서 대 규모의 기동연습을 했고, 3월 몽·중 국경에서의 연습에는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의 기갑 병력마저 참가하여 신형 전술핵무기의 효과를 「테스트」했으며, 또 소련 핵폭격기 편대(약 30대)가 중공영공에 침입하여 수차에 걸쳐 위력과시를 했다고 한다. 73년 현재 소련군 정예 100만 병력과 중공군 120만 병력이 가능한 모든 최신병기로 무장하여 국경선에서 대치하고 있다고 전한다. 영국의 「전략문제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소련이 중공에 대해서 안전하게 예방전쟁을 치

를 수 있는 기한은 앞으로 2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같은 조건하의 소·중의 화해란 무슨 기적이라도 생겨나지 않는 한 바라기 어렵다.

오늘의 세계는 오강지배하에 놓여 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미·소·중등 3대 핵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3대 핵국의 세력대결을 기초로 해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세계평화는 이 3대 핵국 사이에 평화공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 절대로 안정하지 못한다. 미·소간의 평화공존이 양립하여 적절균형의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간에도 평화공존이 성립되어야 한다. 73년 한해를 두고 중·소간 평화공존이 성립된 전망은 대단히 어두웠다. 3대 핵국 간의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역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 그 중에서도 특히 동아시아 지역이다.

3대 핵국 사이에 세력균형이 잘 되지 않는 한 이 지역의 정세는 계속 불안 동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여기서는 미·중, 미·소, 소·중 관계에 사소한 변화로 예민한 반응을 일으킬 것이고 그 변화가 자아내는 현상타파는 격심한「알레르기」작용과 반「알레르기」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3)

73년 10월 이스라엘·이집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미·소의 대립, 아랍 진영 내부에 있어서의 보수와 혁신의 대립, 이스라엘·아랍의 대립 등 3대 대립이 일키고 설켜있는 중동에 또다시 전쟁이 발생했다 해서 이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번 전쟁은 이집트가 오랜 전쟁준비 끝에 선제공격을 가했는데다가 아랍 진영이 굳게 단결하고 있었고 또 중근동 일대에서 미·소간에 세력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조건하에서 열렸으므로 67년의 「6일전쟁」처럼 속전속결로 끝나지 않았다.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우세를 보였으나 전쟁은 분명히 지구전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미·소는 각각 「이스라엘」 「아랍」에 압력을 가해 개전 후 18일만에 휴전을 성립시켰다. 양대국(兩大國) 공히 각각 자기가 밀어주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아랍」이 군사적으로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전쟁이 지구화(持久化)하면 미·소 평화공존의 기본관계에 금이 가고 나아가서는 양대국이 국지전쟁의 형식으로 열전을 벌이게 되는 것을 우려했다. 여기 휴전이 성립된 국제정세상 요인이 있다.

휴전성립 후 군사정세는 일단 안정되었지만항구적인 평화수립 문제는 그해 결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휴전협정은 항구적 평화수립을 「이스라엘」 — 「아랍」간의 협상에 맡겼는데 4반세기를 두고 미해결로 남아있는 이 지난 한 과제가 이번이라 해서 쉽사리 해결될 리 없는 것이다.

중동전쟁을 벌이고 평화를 협상하는데 있어서 아랍진영은 아랍산 석유를 정치무기로 사용하는 전략을 공공연히 전개했다. 이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석유파동이 일어났고 아랍산 석유를 쓰던 나라들에 있어서는 심각한 유류난이 조성되었다. 석유를 정치무기로 사용하는 전략 전개 때문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아랍산 석유에 대한 연료 의존율이 높던 일본과 서구제국 등이다. 미국은 아랍산 석유에 의존하는 율이 원래 낮은 데다가 국내산유를 증가함으로써 석유 부족을 메우게 되어 있다. 석유파동이 장기화 하는데 따라서 대 이스라엘 정책을 둘러싸고 미·일 간에, 미·서구 간에 상당히 큰 의견차이가 벌어졌다. 일본과 서구는 미국이 강경정책 고집 때문에 자기네들이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하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이요, 아랍진영 산유국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여서라도 현재의 유류난과 그것이 자아내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11월말 「알제」에서 열린 「아랍」16개국 정상회담은 대이스라엘 전쟁 재개불사의 강경한 태도를 표명하는 일방 석유를 정치무기로 사용하는 전략을 지속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 전략을 전개하는데 우호국, 중립국, 적대국의 구분에 따라서 석유판매를 조종할 것 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책의 채택으로 앞으로 중동전쟁에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문제나 중립의 자세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케 한 것이다.

아직 평화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의 전망이 서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동전쟁이 재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만약에 또다시 전화가 일어나면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측이 우세할 것이나 「아랍」에 대한 소련의 군원강화 때문에 승리를 얻기는 곤란할 것이요, 그 뿐더러 지금 자유주의 세계를 휩쓸고 있는 유류파동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과반 10월의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조기 휴전성립 노력의 주효는 군사적으로 열세에 빠진 「아랍」을 배후에서 밀어주고 있는 소련의 체면을 크게 세워주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석유파동 때문에 궁지에 빠져있는 미국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소련이 아랍진영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야 할 차례이다. 소련은 석유파동 이 미·서구관계, 미·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내심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소련은 대공공 「전력대결(全力對決)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평화 공존관계의 기초유지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탓으로 결국 대미협조의 선에서 중동의 불을 끄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중동전쟁과 석유파동은 우리 국민에게 좋은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신속히 우리에게 밀어 닥쳤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한 것이다. 그만큼 세계는 비좁아진 것이다.

자연과학의 대상으로서 지구가 아니라 「사회과학의 대상으로서 세계」가 비단 관념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생활 영역에서 실재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20년 전부터이다. 「뉴스」의 세계 동시전달을 가능케 한 매스컴—미디어의 놀라운 발달, 우주여행이 단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바 공간 거리의 말살, 핵과 미사일의 포화상태가 조성한 인류전멸의 위기, 국가생활권의 세계적인 확대 경향 등이 세계를 인간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실재케 했다. 그러나 이 세계의 생활상 실재를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 세계란 모퉁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모든 국가, 모든 국민의 생활에 대해서 순식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된 것이다. 이 세계의 실재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우리 정부나 국민의 국제적 감각을 날카로이 하는데 좋은 「모멘트」가 될 것이다. 세계를 떠나서 개별국가는 존재치 못하고 또 개별국가를 떠나서 세계는 존재치 못한다는 이치의 자각이 우리 국가정책을 세계정세 상황에 적합케 하는데 큰 작용을 해 주었으면 한다.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민족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덩굴이 어떠한 풍파와 격랑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태양에 나선 개척선이라면 응당 각오해야 할 역사 필연의 장애인 것이며, 온 국민이 공동 운명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내와 용기로 이를 극복하고 힘차게 전진 해나간다면 우리 앞에는 반드시 자유와 번영이 충만하는 영광된 조국이 전개될 것이며 우리의 숙원인 국토통일의 날도 그만큼 단축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1967. 4. 28 충무공 탄신일 기념사에서 -

대통령 긴급조치 해설

박정희 대통령각하는 지난 1월 8일 하오 5시 헌법 제53조에 의거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②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등 일체의 행위 ④ 이상의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는 내용의 대통령 긴급조치를 발표했다.

1. 긴급조치권의 법적 성질

▲ 헌법 제53조의 규정

1.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 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 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6.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국가긴급권의 근거

- ① 민주적 입헌국가의 정치조직은 대체로 그 본질상 정상적인 평화적 상태하에서만 가능하

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한 국가적 위기가 존재 할 때에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② 따라서 전쟁의 위협을 포함한 모든 새로운 유형의 현대적 국가위기는 민주주의적 수단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가 없다.

③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국가든지 국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위기 극복과 정상상태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도의 차는 있을지언정 위기극복에 필요한만큼 정치조직은 개편되고 정부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은 보다 적은 자유를 잠정적으로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나 1933년대의 경제공황시 또는 세계 제2차 대전시 및 불란서 헌법의 비상대권 등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④ 현대적 국가긴급권은 사후대책 성격보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

현대적 국가위기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공황 사회 내부의 분열과 혼란, 재정적 위기 등에까지 광범하며 따라서 이같은 위기 극복도 사후대책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사전 예방적인 대책이 불가피하다.

⑤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국가의 독립과 안전 및 헌법수호의 책임을 지며 전 국민적 정당성을 대표하고 있는 대통령 고유의 전속권한에 속한다.

▲ 긴급조치권의 발동요건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①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 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②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③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④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좀더 부연 설명하면 대통령은 이미 중대한 위협을 받은 후에 있어서의 사후대책적 긴급권 발동뿐만 아니라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사전예방적 긴급조치를 발할 수 있다. 이때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여부나 중대한 위협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위임되어 있는 이른 바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 긴급조치의 선포 절차

- ① 헌법 제66조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한다.
- ② 긴급조치의 불가피성은 대통령 특별담화로서 국민에게 널리 알린다.
- ③ 긴급조치를 선포한 후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한다.

▲ 긴급조치의 법적 효력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또 명령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법적규정이 아닌 사실상의 처분일 수도 있다.

2. 긴급조치 제1호 해설

▲ 목적

작금의 사회질서의 동요와 혼란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헌법 제53조에 따라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금지된 행위

현재의 상황 아래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이 긴급조치가 발효한 직후부터 일체 금지한다.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토착화하여 안정과 번영 위에 영광된 통일조국을 이룩하자는데 근본 취지를 두고 주권자인 전 국민의 총의에 따라 결단 정립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하여 그 성립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내용을 왜곡하거나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등 그릇된 논의는 일체 하지 못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국민총의에 따라 결정되고 정당하게 성립된 현행 헌법을 개정하자거나 폐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헌법개정안, 헌법수정안 또는 신헌법안 등을 제안하거나 그러한 안이나 주장을 국가기관에 청원할 수 없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는 사회를 혼란시키고 민심을 동요시키는 방법의 하나란 점에서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를 엄금했으며 따라서 앞으로 근거없이 터무니 없는 소문을 만들거나 이를 타인에게 알려 널리 전파하지 못한다.

④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선동·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금지된 행위를 하도록 권유·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나아가 이같이 금지된 행위와 금지된 행위를 하도록 권유·선동 또는 선전 하는 행위를 방송·방영·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이 금지된다.

여기에서 방송·보도·출판은 알리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고 구전이나 서면에 의한 전달 등도 모두 이에 포함한다.

또한 타인의 개념에는 불특정 다수인은 물론 특정된 1인까지도 포함된다.

⑤ 이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도 처벌된다.

▲ 긴급조치 위반 및 긴급조치 비방시의 벌칙

이 긴급조치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여 긴급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와 이 조치를 비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

①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긴급조치 위반사범은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므로 그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없이 가능하다.

② 그 심판과 처단은 비상군법회의에서 한다. 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는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사범을 심판 처단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경우에 따라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이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이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범한 행위는 일체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이 긴급조치가 발효 시행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이 긴급조치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받게 된다.

3. 긴급조치 제2호 해설

▲ 목 적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심판할 특별법원인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고 그 소송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비상군법회의의 설치

대통령 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에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

비상군법회의는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제 1심 법원인 비상보통군법회의와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항소심법원인 비상고등군법회의로 되어 있다. 비상군법회의의 상고심은 일반법원이나 군법회의와 같이 대법원이다.

▲ 비상군법회의의 관할

① 비상보통군법회의의 관할 : 전국에서 발생하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건과 대통령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다른 모든 범죄사건을 관할 심판한다.

② 비상고등군법회의의 관할 비상보통군법회의의 재판에 대한 모든 항고사건을 관할 심판한다.

▲ 비상군법회의의 심판부의 구성

비상군법회의의 심판권은 심판부에서 행한다. 비상보통군법회의에는 심판부를 3부 둔다. 각 심판부는 군장성 2명, 군 법무관 1명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2명 모두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 5명 중 선임 군장성은 재판장의 임무를, 군법무관은 법무사의 임무를, 나머지 재판관은 심판관의 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비상고등군법회의에는 심판부를 1부만 둔다.

심판부는 군장성 3명, 군법무관 1명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명 등 모두 7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 7명 중 최선임 군장성은 재판장의 임무를, 군법무관은 법무사의 임무를, 나머지 재판관은 심판관의 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 비상군법회의의 검찰부의 구성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에는 검찰청에 해당하는 검찰부를 둔다.

지방검찰청에 해당하는 비상보통군법회의의 검찰부에는 12인 이내의 검찰관을 두고 고등검찰청에 해당하는 비상고등군법회의의 검찰부에는 3인 이내의 검찰관을 둔다.

▲ 재판관과 검찰관의 임명

비상군법회의의 검찰관은 비상군법회의의 관할사건을 수사하고 그에 대한 공소권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한다.

그러기 위하여 비상군법회의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검찰관은

첫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한 행사의 직무와 권한과 군법회의법에 정한 군검찰관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고

둘째, 군사법 경찰관리를 포함한 모든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감독을 하며

셋째, 검사 또는 군 검찰관에 대한 수사협조 요구를 할 수 있다.

▲ 비상군법회의의 소송절차

비상군법회의의 소송절차는 이 긴급조치에서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 법회의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소송절차와 대체로 같다.

① 비상군법회의는 국방부 본부에만 설치하고 전국을 관할하며 재판관과 검찰관도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와 심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② 대통령 긴급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법에서 관 할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검찰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였다.

③ 구속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고 소수의 재판관과 검찰관으로 구성되는 비상군법회의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 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이거나 감호자를 두어 병원, 주거 기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주거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제한 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거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였 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상의 특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절차가 군법회의의 절차와 같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고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도 가능하며 심판은 재 판관이 증거에 의하여 행하고 최종심인 대법원까지의 상고도 가능하다.

4. 대통령 긴급조치 선포의 배경

① 우리는 준전시하에 있다.

포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동족상잔의 피비린내나는 6·25 동란은 1953년 휴 전만 성립시켰을 뿐 전쟁은 종결되지 않은채 20여년이 흘렀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난 평화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1백 55마일 휴전선 너머 북한땅에는 우리의 약점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 공산군이 재침의 야욕을 안고 버티고 있다.

최근 북한 공산군은 서해안 사태를 비롯, 휴전선 일대에서의 도발행위를 간단없이 감행하고 있고 대남 전화전락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려는 조짐마저 농후해지고 있다.

② 지금은 초비상시국이다.

현 시국은 정상시국이 아니다. 초비상시국이다. 우리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비상시국을 맞아 조국의 운명은 백천간두에 서있다.

우선 국제정세를 살펴 볼 때 미·소·중공·일본 등 강대국들의 화해공존의 평화지향적 세계 조류에도 불구하고 국지전의 발발가능성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인도·「파키스탄」전쟁 이나 월남전, 그리고 최근의 중동전 등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국지전의 가능성을 계속 안고 있는 가운데 초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 추구정책에 혈안 이 되어 있어 그 틈바구니에 낀 중소국들은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으며 특히 극동에 있어서는 열강들의 이해상충과 힘의 균형을 위한 상호견제 및 그 중 미국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후퇴와 이에 따른 영향력 감소 등으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다음 국제경제의 조류를 살펴보자. 최근 국제경제는 중동제국의 이른 바 자원 「내셔널리즘」에 의한 석유 무기화정책으로 치열한 자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에 따른 경기후퇴 조짐으로 경제의 범세계적 위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이같은 세계적 경제위기의 파급적 영향으로 일찌기 없었던 심각한 경제위기에 부딪치고 있다.

③ 국력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맞고 있는 미증유의 급박한 위기 속에 민족의 생존 권을 수호하고 안 정과 번영 및 평화통일이라는 국가 지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국력의 배양과 조 직화가 절대적으로 긴급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국력의 시급한 배양과 조직화를 약화시키거나 저해하는 요인은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받고 삼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험난한 국제적 생존경쟁 속에서 자멸의 길을 걷지 않고 잔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국력이 배양되고 조직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사정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안정된 바탕 속에 전 국민이 총화단결하여 국력을 배양하고 조직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일부 인사들의 망동으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에 따라 10월 유신으로 착실하게 다져져 오던 국력배양과 조직화 작업은 결정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급히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비능률과 낭비요소를 우리 주변에서 말끔히 제거해야 하며 그 뒤 이 안정을 바탕으로 하루 속히 국력을 배양하고 조직화 해야 한다.

④ 왜 국론분열을 시키려 하는가.

오늘의 우리 헌정질서는 주권자인 대한민국 전체국민의 총의에 의해 확정된 전 국민적 정당성을 갖는 헌정질서이다.

따라서 이같은 군민총의에 의해 확정된 유신헌법을 일부 극소수 인사들이 부정하고 있음은 전체국민을 모독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받아한다.

유신헌법은 안정과 변영 위에서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이 응결된 가장 한국의 실정에 맞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며 따라서 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이같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확정, 발효하고 있는 유신헌법을 그 정당성을 무시 부정하고 있는 「소수는 다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몰각한 처사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유신헌법에 바탕을 둔 유신체제는 종래 관념적이고 모방적이었던 구체제에 비해 우리가 처한 특수한 여건에 가장 잘맞는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체제로 안정과 변영의 바탕 위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격동하는 국제사회에 능률적으로 대처하여 영광된 민족적 생존을 향유하자는 체제이다.

이같은 헌법질서와 체제를 부정하고 있음은 헌정 질서는 수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다.

⑤ 지금이야말로 안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은 유신헌법 질서 아래 자기 직분을 충실히 지키면서 유신과업에 매진, 국력배양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인사들은 국민의 청원권을 정당하게 행사한다는 이름 아래 이른 바 개헌 서명운동을 벌임으로써 현행 헌법질서를 뒤집어 엮고 유신체제를 전복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들 인사들은 10월유신에 의해 주권자인 전국민의 총의로 확정된 유신헌법을 반대, 부정, 비방, 왜곡하면서 현시점에서 개헌을 주장 선동하고 있음은 「국민총화에 의한 국력의 배양 그리고 안정과 변영 위에서의 조국의 평화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사회 질서의 혼란과 동요 그리고 국민총화의 저해와 분열 등으로 국가의 기본질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단정치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정부가 이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없어 12월 26일에는 김종필국무 총리가, 12월 29일에는 박정희대통령 각자가 각각 이 같은 행위를 중지토록 간곡히 설득 경고한 바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더욱 지하와 음성화 지능화한 수법으로 개헌 서명공작을 계속해 왔다.

특히 이들 인사들은 일부 불순분자들과 연합해서 나이 어린 미성년 학생들을 억지로 서명운동에 끌어들이며 연초 학교 구내에서 삭발선동을 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태를 점차 악화시켜 왔다.

이들의 이같은 선동과 주장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선량한 국민들마저 본의 아닌 현혹을 당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사회의 공공질서를 뒤흔들어 견잡을 수 없는 혼란과 무정부 상태를 빚을 것은 분명하다.

국민 전체의 이익과 행복이 이같은 일부 인사들의 망동으로 희생될 수는 없는 것이다.

⑥ 침략은 기어이 막아야 한다.

북한은 20여년 전 휴전협정 조인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또다시 남침야욕을 달성해보려본 전쟁준비에 광분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휴전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재침하기 위해 수많은 도발을 해왔지만 5·16군사혁명 후 우리 대한민국정부의 철벽같은 대공방위 태세 때문에 번번히 좌절되곤 했다.

북한 공산집단은 휴전선 일대에 최신무기를 배치하고 비무장지대 내에 진 지구축을 하는가 하면 휴전협정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등 그들의 재침의사를 노골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북한의 도발행위는 최근 북한의 김일성이 그의 신년사에서 이른 바 혁명완수를 다짐하고 전쟁준비 강화 지시를 공공연히 한 것을 감안 할 때 앞으로 더욱 격화가 예상되며 언제 기습적 공격을 가해올지 모를 일촉즉발의 전쟁 일보전 사태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같은 북한의 전쟁도발행위에 대비, 하루속히 국민의 단합된 총화적 안보태세의 구축이 시급한 것이다.

⑦ 북한은 한국정부 전복기도를 가중

북한의 대남 기본전략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남 적화통일이다.

이같은 그들의 기본전략은 조국이 해방을 맞은 뒤 북한땅에 김일성이 들어오면서부터 수립, 오늘날까지 일관해 내려오는 불변의 전략이다.

김일성은 최근 대한민국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일부 인사들에 의한 개헌서명 공작 등 일련의 사태를 절호의 기회로 판단,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혼란 조성과 민중봉기를 공공연히 선동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반정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선동, 내부봉기를 성원하고 이 같은 사태가 낫을 경우 대한민국 내 불온불순세력을 총동원해서 공산 혁명을 기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예의치 않을 경우 혼란을 틈타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일거에 기습 점령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일성의 이같은 저의는 최근 김일성이 그의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적 활동에 대해 지지 성원을 보낸다는 선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점과 대한민국에 있는 진보적 세력과 역량을 결집, 기어이 혁명과업을 완수하자고 선동한 점 등을 보면 명백해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일부 분별없는 소수 인사들의 망동이 국가안정에 얼마나 중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⑧ 남북대화에서 약세에 설 수는 없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이 있은 뒤 4반세기만에 단절되었던 거래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상이와 함께 오랜 단절에서 생긴 여러 가지 이질적 요소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무성의와 불순한 전략적 이용 등으로 남북의 대화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 본래의 속성대로 한편으로는 대화와는 상반되는 전쟁준비에 광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에도 응하는 위장전술을 보고 있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계속되어야 하며 이것이 평화통일이라는 우리의 국가 지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판단에서 정부는 그 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하여 72년 10월 17일에는 남북의 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위해 10월유신을 단행했던 것이다.

이것은 대화가 어디까지나 힘의 뒷받침, 다시 말해 정치 사회적 안정의 바탕 위에 굳건히 배양된 국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⑨ 자유민주주의의 토착화 되어야

그러나 이같이 구축해 놓은 남북대화의 뒷받침은 최근 일부 무책임한 인사들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다시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득이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화를 위한 뒷받침을 튼튼히 받쳐주어 기어이 이 민족적 대화를 결실토록 해야 할 것이다.

10월유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풍토에 토착화시키려는 것이 그 중요한 목적의 하나다. 따라서 이번의 대통령 긴급조치도자유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려는 10월유신의 보호적 성격을 띤 조치인만큼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맞도록 좀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려는 배려다.

자유민주주의란 급세기 최대의 석학중의하나인 「이놀드·토인비」 교수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절대적인 하나의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자체는 서구에서 배태된 것이지만 그 개념을 세계 곳곳에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려는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영국은 영국 풍토에 맞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미국에 맞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다. 따라서 우리 한국도 우리 풍토에 맞는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박게 하자는 것이다.

⑩ 대통령은 국가보위의 책무를 지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진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이 중대한 위협을 받아 국가보위가 위태로와 지고 공공의 안녕질서가 극도로 어지러워져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이 위협을 받게 될 때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보위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이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에도 국가보위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그 책무를 게을리 한다면 그는 국민으로부터의 수입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지금의 사태를 보자.

일부 무책임한 인사들이 주동이 되어 국민 총의로 정립된 우리의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다.

남침 기회만 보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이 이들의 움직임을 고무 선동하는 지지성원을 공공연히 외치며 나섰다.

이럴 경우에 국가보위에 책임을 진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일부 무책임한 인사들이 헌정질서를 뒤엎으려 하고 북한의 김일성이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 판에 국가를 보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대통령은 수수방관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견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 전국민에게 불행을 초래케 해야 할 것인가.

박대통령 각하는 심사숙고 끝에 부득이 국헌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권 발동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에너지 절약

편집실



에너지가 우리 생활에 있어 절대 필요한 점점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의 빈약한 실태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을 밝힘으로써 에너지를 아껴써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동시에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의 실천방안을 깊이 새겨 장병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겠다.

1.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빈약하여 매년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해서 이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80년대 초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00불 수준으로 높이고, 100억불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나는 에너지 자원만으로는 수요를 충족 할 수 없으므로 에너지 자원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연 11%로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수요증 가율은 연 10.3이며 이러한 추세로 증가한다면 81년의 소요 에너지는 11,200만톤(무연탄 환산)으로 추정 된다. 이 중 원유수입 등에 따른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는 73.3%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석유시대에 대비한 에너지대책은 긴급을 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나라의 에너지자원 실태를 알아보자.

① 나무

나무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에너지자원이었으며, 장기계획이 수립되기 직전인 61년까지 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에너지자원의 대종(大宗)을 이루어 총 에너지의 58.1%를 나무로 충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임산자원이 줄어들어 남벌이 금지되는 한편,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민경제의 향상으로 에너지의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점차 석탄과 석유로 대체되어 나무의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비중은 점차 감퇴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72년도의 에너지 총수요 4,363만톤 중 나무의 의존도는 18%이며 81년도에는 총 에너지에서 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18%에서 5.1%로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석탄

석탄은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발전의 큰 에너지 자원이 되어 왔다.

그러나 72년도에는 1,236만톤이었으며 에너지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3%로 낮아졌다.

그런데 중화학공업의 건설에 소요되는 에너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81년도에는 2,265만톤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에너지 총수요에 대한 석탄의 비중은 20.1%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량은 5.5억 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것도 유연탄은 하나도 없으며 무연탄 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매장량은 72년도의 수요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45년 정도 밖에 채굴할 수 없으며 매년의 수요증가를 감안한다면 30년 남짓 밖에는 채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③ 석유

석유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에너지 자원의 총아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그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가 우리나라에서는 한방울도 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61년까지만 해도 에너지 총 수요에 대한 석유의 비중은 8.1%에 불과했으나,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에 연평균 30%씩의 수요 증가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72년도의 에너지 총수요에 대한 석유의 비중은 52.2%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석유 수입에 소요되는 외화는 72년도에 2억2,107만불에 달했으며 81년도에 가서는 석유 수입액은 약 15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④ 수력

우리나라의 포장(包藏)수력은 300만 kw에 달하고 있으나 72년 현재 34만 kw 밖에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72년말 현재 우리 나라의 총발전량 387만kw의 발전 시설용량의 9%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의 총발전 시설용량을 81년도까지 1,078만kw로 확대할 계획인데 그 중 수력발전은 170만kw의 발전 시설용량을 증설하여 총204만kw로 늘림으로써 수력 발전의 비중을 현 9%에서 18.9%로 높일 계획이다.

⑤ 원자력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원자력이 에너지로서 사용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현재 76년 완공목표로 59만천kw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계획 중에 있다.

2. 에너지자원에 대한 세계적 관심

1980년대에 있어서의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120억톤(석탄환산)에 이를 것이라는 학계보고와 에너지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석유의 매장량이 70년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36년이면 바닥이 난다는 보고에 따라 전세계는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일어난 중동전쟁의 부산물로 석유가 무기화됨에 따라 에너지의 절약운동은 더욱 가열 되었으며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①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실태

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6초6억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것도 미국과 소련, 중국 등지에 편재되어 있다. 70년도의 전세계 생산량 21억 톤을 기준으로 한다면 향후 3,000년간 사용하는데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세계적 수요 증가추세인 연 평균 3.3%의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전 세계의 석탄 매장량은 훨씬 더 앞당겨서 다 소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유의 세계 확인매장량은 6,334억 「배럴」로서 70년도의 생산량 175억 「배럴」을 기준으로 하면 36년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석유의 매장량도 전세계 수요 증가추세인 연평균 8.0%의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아주 비관적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확인된 천연가스는 1조725억 입방 「피이트」로서 기년의 세계 생산추세로 계산한다면 약38년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천연가스도 연평균 수요증가를 8.6%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머지 않아 다 사용되고 말 것이다.

② 세계 각국의 에너지절약 추세와 새로운 에너지개발 노력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정책이 강화되자 세계 각국에서는 유류 배급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석유 소비절약운동을 펴는 동시에 아랍 이외의 다른 석유 공급원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자원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석유파동에 따른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향후 1년간 7%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실내온도를 섭씨 22.2도에서 20도로 내리는 한편, 공무원들의 출장횟수를 감축하고 휘발유 저소비 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소비절약과 병행하여 새로운 에너지정책으로서 국내 에너지자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대륙붕 개발을 한층 서두는 한편, 원자력, 태양열, 지열(地熱) 등 새로운 에너지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일본에서는 석유절약을 위해 일본 최대의 공급원인 「동경전력」이 전력 공급량을 10% 줄이기로 결정하였으며 네온 사인을 규제하는 한편, 실내온도를 섭씨 23도에서 20도로 낮추기로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는 가정난방을 억제함으로써 석유소비를 10%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자동차운행을 꼭 필요한 때에만 한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운행속도도 시속 100km 이하로 내리도록 장려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자동차의 면허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텔레비전 방영시간을 줄였으며 가로등과 네온사인의 조명도 제한하였다.

「네델란드」에서도 일요일에는 모든 자가용의 운행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와 같이 지금 전세계는 에너지 소비 절약으로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③ 정부의 에너지 소비절약 방안

정부는 지난 10월 수출 100억불, 국민소득 1,000불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체계 확립을 위해 1981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는데, 동(同) 대책은 다음과 같이 3대 기본방향에 입각하고 있다.

① 첫째, 안정·저렴·양질의 에너지 공급체제 확립

② 둘째, 국내 에너지자원의 최대한 개발 활용

③ 셋째, 에너지 이용의 과학화와 소비 절약의 에너지 소비 절약운동을 추진

그런데 최근 중동사태 등에 따른 세계 에너지 사정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제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소 없지 않았던 낭비를 일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에너지 소비 절약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운동은 국민경제 및 사회활동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으로 막고, 모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구체적인 추진 목표로 삼고 있다.

첫째, 모든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체는 차량 및 난방용 유류 소비를 5% 절약하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한다.

둘째, 모든 생산업체는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소비절약을 위한 열관리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강구, 5% 이상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기하도록 하며, 기타 일반 사업장도 실내온도의 섭씨 18도 기준 조정, 영업시간 단축, 사치성 에너지 소비와 「네온사인」의 신설 억제 등 에너지 소비 절약에 적극 호응토록 한다.

셋째,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낮 전 등불 안 켜기」, 「2km 이내 걷기 운동」, 전등 한등 털켜기 운동」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촉구한다.

넷째, 정부 내에 에너지 소비 절약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범국민적인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에너지 소비 절약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그 실천운동방안을 1,2단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제1단계는 즉시 실시하되, 그를 영속적인 운동으로 전개토록 하고, 제2단계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한 후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4. 범국민적으로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하자

인류문명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석탄, 석유, 전력 등 에너지자원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은 그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대로 채굴을 계속한다면 머지 않아 그 자원은 보갈될 운명에 있다.

그리하여 전세계는 다투어 해저에서까지 그들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려고 치열한 경재를 벌이고 있고 원자력이나 태양열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아랍」산유국들이 석유를 전략무기로 이용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세계적인 에너지자원의 수요 증대와 그 자연자원의 감량 추세에 근거 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생산에서 단연 세계 제1위를 차지 하고 있으면서 「낭비가 미덕」이라고 물자의 대량소비를 구가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여러나라에서까지 「석유를 아껴 쓰자」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외국의 실정을 본다면 석유 한 방울 생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철저한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① 우리의 실정을 똑바로 직시하자

우리나라는 현대적 에너지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 석유, 전력 등 모든 자원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상태이다. 석탄이 좀 나기는 하나 공업 용에는 부적당한 무연탄이 대부분이며 전력에 있어서도 유류나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이 전체의 91%에 해당되고 수력발전은9%에 불과하며, 아직도 개발도상에 있는 상태이다.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 1,000불 소득과 100억불 수출을 이룩해서 하루 속히 후진의 낡은 껍질을 벗어 던지고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하겠다고 피 땀 흘려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찌하여 지각없이 낭비와 사치를 하여야 하겠는가?

사치와 낭비의 추방은 비단 유류나 전력 등의 에너지 소비면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면에서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고 우리나라의 실정과 자기 자신의 분수에 맞는 겸소하고 건전한 생활을 해 나갈 마음가짐을 다져야 하겠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생활주변을, 그리고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가지 실정을 직시하고, 지각있는 국민으로서의 정신자세를 가다듬어 나가자.

② 석유 한 방울도 우리의 피 땀의 대가임을 알자

자동차나 항공기, 화력발전 그리고 사업소나 가정에서 쓰는 기름은 우리들 온 국민이 피 땀 흘려 벌은 외화로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수출고는 해마다 엄청나게 늘고 있지만 그를 위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단돈 1달러인들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다. 물론 우리가 힘들여 노력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은 보다 잘 살기 위한 것이니만큼 벌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을 조금도 탓할 수는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무엇이나 마음대로 쓸만큼 넉넉하지 못하다.

절약은 곧 버는 것이다.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재화를 아껴쓰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절약은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것이다. 3천만 국민이 하루 10원씩만 절약한다면 국가적으로는 3억원이란 돈이 절약될 것이고 한사람이 한 「리터」 씩의 기름을 덜 쓴다면 전국적으로는 3만kl의 기름을 절약하게 되어 결국 그만큼 힘 안 들이고 외화를 버는결과가 될 것이다.

한 방울의 기름에도 우리의 피와 땀이 어린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고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다소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지각있는 생활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에 다 같이 호응하자

정부에서는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 여러가지 시책을 펴 나갈 방침이지만 그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함으로써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 절약운동은 결국 국민 각자의 건전한 생활에 유익한 것이니 만큼 바로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부보다 앞질러 국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그 동안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온 국민이 한결같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총화된 단결력으로 경제 건설에 피 땀을 쏟아 온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일부 국민 중에는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경박하고 퇴폐적인 풍조가 남아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 보면 우리는 좀 더 자각있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줄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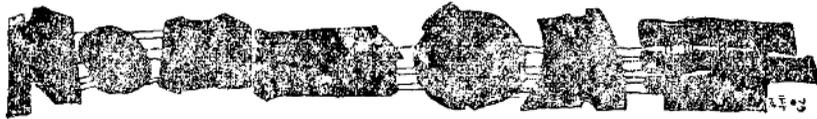
우리가 하루 속히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고 남과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내핍과 절약을 미덕으로 삼아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하고 온 국민이 다함께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오히려 국민 스스로가 앞장 서서 정부에서 기대하는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범국민적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다.

개선되는 변화를 요구할 것인가, 유지되는 현상을 요구할 것인가에 따라 집단의 욕구가 달라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집단의 욕구가 변화와 현상을 선택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하는 것이 급선부다.

정훈요구 분석

김 세 환



1. 문제추출의 방향

집단의 욕구를 가려내기 위한 방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집단의 욕구가 대형(大形)으로의 변화를 거쳐 집단위기(集團危機)가 형성되면, 욕구의 형태를 가려내기 위한 방법의 접근보다는 오히려 해결의 방안에 부분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근본적인 욕구의 해결을 외면한 채, 위기조성을 무마하기 위한 소극적 욕구해결에 급급하게 된다.

이와같은 사실은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공통히 적용되는 일이며, 소극적 욕구해결로서 일시적 안정을 구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집단붕괴를 일으키고야 마는 것을 누구나 부정못한다.

따라서 집단의 욕구를 분석하기 위한 여론조사(輿論調査)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문제를 추출하고 있다.

첫째는 표현의 수단으로써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집단의 평가를 알아냄으로써 집단의 교욱향상을 기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정훈고시와 함께 실시한 정훈 여론 조사는 어느 범주에 속하는 것인가?

둘째의 분석, 세째의 집행 수단을 혼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훈욕구를 분석 측정하고, 측정 가치를 분석해 냄으로써 정훈활동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이다.

2. 욕구대상의 분석

정훈욕구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에는 총 1,177명이 참가하였는데 학력을 무시한 신분별 통계는 장교 213,영외하사관 276,영내하사 및 병 585,군속 103명으로서 다음과 같은분포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1).

표 1. 여론조사 대상

100%			
영내하사 및 병	영외하사관	장교	군속
50%	23%	18%	9%

다시 1,177명에서 신분별 비율로 평균 27%씩 무작위 추출하여 총 318명을 정훈욕구 분석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분포비율은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신분별 욕구대상>

장교	영외하사관	영내하사 및 병	군속
60명(19%)	80명(25%)	144명(45%)	34명(11%)
318명(100%)			

표1의 여론조사 대상과 표2의 정훈욕구 대상을 비교하면 장교는 11%, 영외하사관은 12%, 영내하사 및 병은 15%, 군속은 12%의 오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비행부대, 전술지원부대, 후방부대로 구분하여 욕구대상을 추출함으로써 생긴 것이었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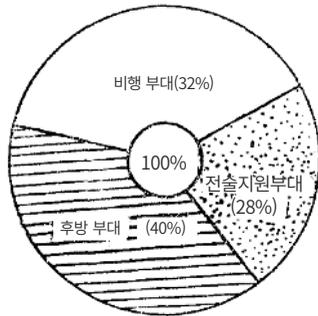
<표 3. 신분별 •부대별 욕구대상>

신분별 부대별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사병	군속	계
비행부대	18	28	45	10	101
전술지원부대	19	23	39	9	90
후방부대	23	29	60	15	127
계(명)	60	80	144	34	318

표 3을 보면 전체 욕구대상은 공군 전 인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대구분 욕구대상의 분포비율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표4), 앞서 기술 한 분석의 수단으로써 문제를 추출하고 또 욕구대상을 삼는다면, 크게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또는 개인의 의사가 묵살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

<표 4. 부대구분 욕구대상>



3. 문제 유형(類形)의 결론

<문제 1> 요즈음 새로운 소식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대개 어디서 많이 알게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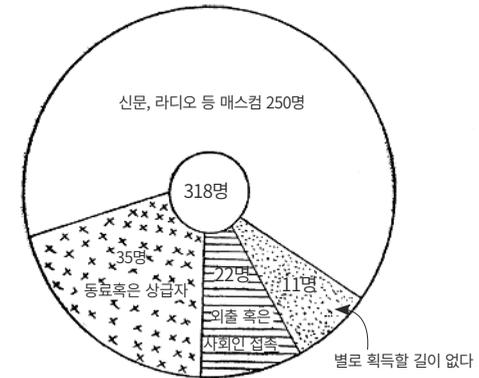
(가) 외출시 또는 사회인 접촉으로

- (나) 부대나 지휘관, 상급자나 동료들로부터
- (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간행물 등을 통하여
- (라) 뚜렷한 길이 없다.

<문제 1에 대한 응답>

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한 소식 획득이 전체의 79%인 250명으로 가장 많고, 동료나 상급자로부터의 소식획득이 35명(11%), 외출 혹은 사회인 접촉으로부터의 소식획득이 22명(7%), 별로 획득

<표 5. 세상소식의 획득(전체)>



<표 6. 세상소식의 획득(부대별)>

부대구분	획득 경로	인원	부대내 비율 (%)	전체 비율 (%)
전체	신문·라디오 등 매스컴	250	79%	79%
	동료 혹은 상급자	35	11%	11%
	외출 혹은 사회인 접촉	22	7%	7%
	별로 획득할 길이 없다	11	3%	3%
비행부대	신문·라디오 등 매스컴	77	77%	31%
	동료 혹은 상급자	15	15%	5%
	외출 혹은 사회인 접촉	4	4%	1%
	별로 획득할 길이 없다	4	4%	1%
전술지원부대	신문·라디오 등 매스컴	76	76%	31%
	동료 혹은 상급자	10	10%	3%
	외출 혹은 사회인 접촉	11	11%	4%
	별로 획득할 길이 없다	3	3%	1%
후방부대	신문·라디오 등 매스컴	80	80%	32%
	동료 혹은 상급자	9	9%	3%
	외출 혹은 사회인 접촉	8	8%	3%
	별로 획득할 길이 없다	3	3%	1%

신문·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한 획득
 동료 혹은 상급자를 통한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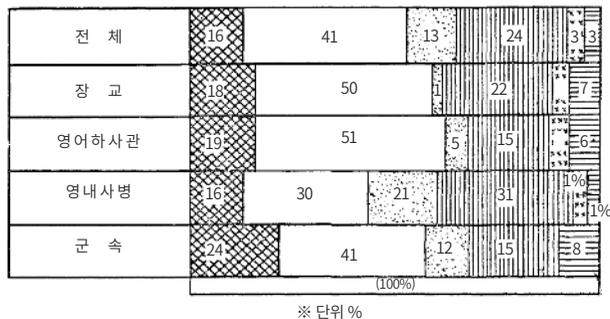
-  외출, 혹은 사회인 접촉을 통한 획득
-  별로 획득할 길이없다.

할 길이 없음이 11명(3%)으로 나타나는데(표 4), 계급별, 부대별 상황은 총 체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표 5).

신문, 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한 소식획득에 있어서 후방부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으로 비행부대, 전술지원 부대의 순위이나, 동료 혹은 상급자로 부터의 소식획득에 있어서 전술지원부대의 높은 비율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영내사병이건, 영의사이건간에 세상소식의 획득에 있어서 매스컴을 통한 획득이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는 것은 공군이 갖는 특성이라 하겠다.

<표 7. 가장 빠른 부대 내 소식통>



-  지휘관 훈화
-  직장, 상관의 교육과 대화
-  내무반장 교육과 대화
-  동료
-  특별교육
-  기타

<문제 2> 우리에게 가장 소식통이 빠른 부대 내 소식통은?

- (가) 지휘관 훈화이다.
- (나) 직장, 상관의 교육 또는 대화 이다.
- (다) 내무반장 교육이나 대화이다.
- (라) 동료들이다.
- (마) 특별교육이다.

<문제 2에 대한 응답>

영의자는 직장 혹은 상관의 대화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127명, 73%) 주고 있으며, 영내사병은 내무반장 혹은 동료의 대화에 가장 많은 응답(74명, 52%) 을 보이고 있다(표 6)

따라서 영내자 교육은 현행 중인 정훈조 운영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

장교나 영의하사관, 군속에서 나타나는 내무반장 교육과 대화는 직장별 정훈 조장의 교육과 대화로 해석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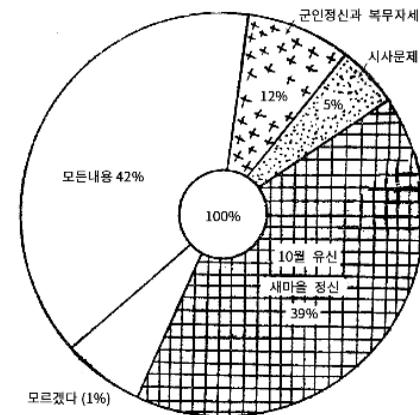
<문제 3> 우리가 흔히 지휘관 기타 상관들로부터 듣는 이야기(정신훈화 포함)의 내용은?

- (가) 군·민 정신과 복무자세 에 관한 내용이 많다.
- (나) 시사에 관한 내용이 많다.
- (다) 10월유신과 새 마을정산에 관한 내용이 많다.
- (라) 위의 내용을 골고루 듣고 있다.
- (마) 잘 모르겠다.

<문제 3에 대한 응답>

모든 내용을 골고루 듣고 있다가 134명, 10월유신과 새마을 정신이 124명, 군·민정신과 복무 자세가 40명, 시사가 15명, 모르겠다가 5명으로서 모르겠다 5명 중 4명이 비행부대의 영의자임은, 교육불참 혹은 교육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영의자에 대한 교육 참여의식 고취가 요망된다(표 7).

<표 8. 지휘관 교육내용>



<문제 4> 우리 부대의 정훈활동을 가장 많이 담당하게 되는 사람은?

- (가) 정훈관실장
- (나) 정훈장교
- (다) 정훈지도 장교
- (라) 정훈지도 하사관
- (마) 정훈조장
- (바) 직장상관
- (사) 내무반장

<문제 4에 대한 응답>

정훈관실장 및 정훈장교의 활동이 압도적이고(50%), 다음으로 정훈지도장교(18%), 내무반장(13%), 정훈조장(9%) 직장상관(6%) 이고, 정훈지도 하사관은 극히 부진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4%).

정훈지도 하사관의 활동이 더욱 있어야 되겠다.

한편, 정훈관실장의 활동은 전술지원 부대, 후방부대, 비행부대의 순서로 활발하고, 정훈장교의 활동은 비행부대, 후방부대, 전술지원부대의 순서로 활발 하다.

<문제 5> 정훈교육을 받아보면 교관의 활동내용으로 보아 대체로

- (가) 풍부한 자료에 의한 많은준비를 하여 교육한다.
- (나) 적당히 준비하여 크게 힘없는 교육을 한다.
- (다) 별 준비없이 시간만 채우기에 급급하다.
- (라) 정훈교육이기보다 잡담만 하고 가는 경향이 있다.

<문제 5에 대한 응답>

대체적으로 교관의 교육을 열성적이라고 보고는 있으나, 적당히 한다는 응답이 12%(40명)씩이나 되고 있음은 정훈장교들의 성실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영내사병들은 적당히 한다는 응답이 20%(29명)나 되고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이다(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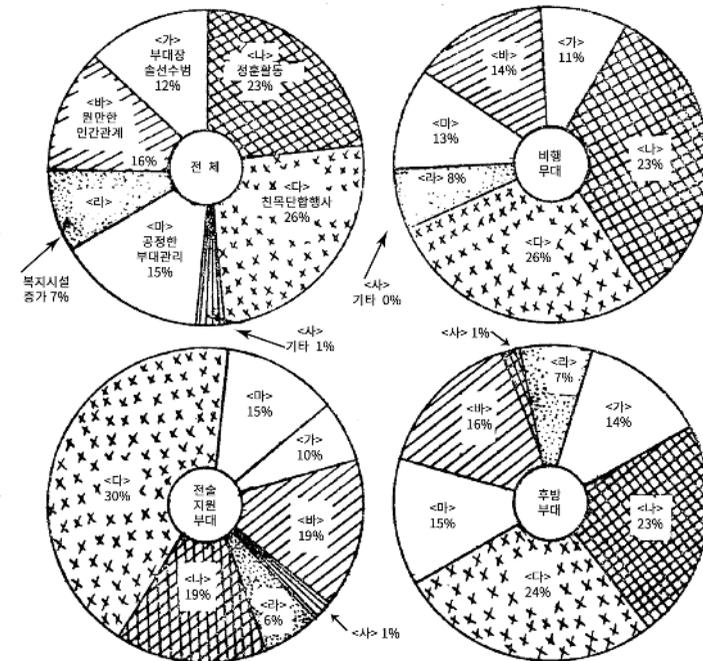
<문제 6> 부대의 단결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 (가) 부대장의 솔선수범 행동
- (나) 정훈활동을 통한 일체감 형성교육
- (다) 정기적인 운동시합 등 친목 단합 행사
- (라) 복지시설의 증가
- (마) 공정한 부대관리(인사관리, 외출, 외박, 휴가 실시 등)

<표 8. 정훈교육에 대한 교관활동>

구분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사병	군 속	계
풍부한 자료에 의한 준비교육	51	69	110	29	259
적당히 준비한 힘없는 교육	1	6	29	4	40
준비없이 시간만 채움	7	4	1	1	13
교육보다는 잡담	1	0	4	0	5
기타	0	1	0	0	1
계	60	80	144	34	318

<표 9. 부대단결 요소>



<표 10. 부대단결 요소(계급별)>

구 분	(100%)					
장 교	19	24	22	3	15	17
영어하사관	9	28	21	11	18	13
영내사병	8	20	30	7	13	21
군 속	23	23	31	6	14	3



(바) 원만한 인간관계
(사) 기타
<문제 6에 대한 응답>

장병 특히 영내사병은 부대 친목단합 행사야말로 부대단결의 제1요소라고 보고 있으며, 영외하사관 및 장교는 정훈 활동에 의한 일체감 형성이 바로 부대단결의 제1요소라고 보고 있다. 그 중 영내사병들의 원만한 인간관계 요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 7> 다음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 어느 것을 제일 먼저 해결해 주었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개만 고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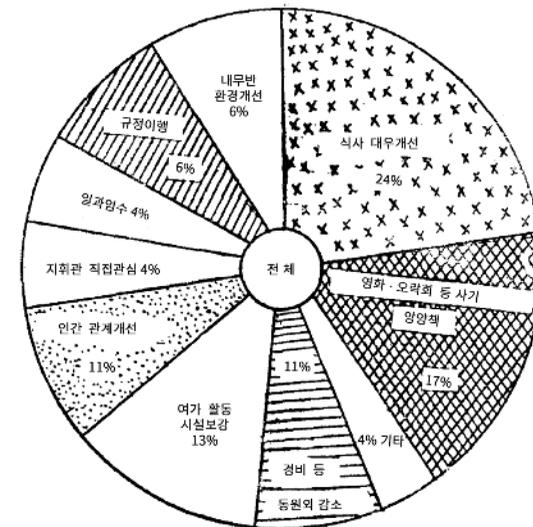
- (가) 내무반 환경개선
- (나) 식사대우 개선
- (다) 상 하급자간의 인간관계 개선
- (라) 휴가, 외출, 외박 등을 규정 대로 이행.
- (마) 영화, 오락회 등 사기양양책 강구.
- (바) 인사관리의 공정
- (사) 일과의 엄수
- (아) B·X, 휴게실, 오락실 등 여가 활동 시설 보강

- (자) 새마을 교육의 강화
 - (차) 지휘관의 직접관심
 - (카) 보급품의 적시지급
 - (타) 작업경비 등 동원의 감소
 - (파) 기타
- <문제 7에 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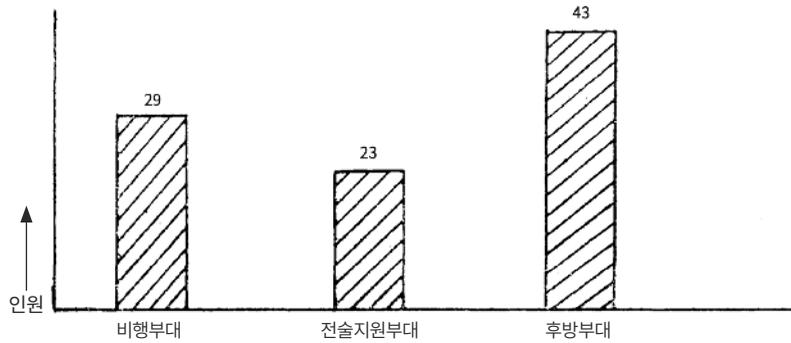
전체적인 욕구의 순위는 식사대우개선 — 상 하급자간의 인간관계 개선—영화, 오락회 등 사기양양책 강구—BX, 휴게실, 오락실 등 여가활동 시설 보강—작업, 경비 등 동원의 감소 순서이나, 영 외장병은 상하급 자간의 인간관계 개선— 영화, 오락회 등 사기양양책 강구—인사관리의 공정—BX, 휴게실, 오락실 등 여가 활동시설 보강—일과의 엄수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인간적이고 규칙적 인 것을 바라는데 반해, 영내사병은 식사대우의 개선—영화, 오락회 등 사기양양책 강구—BX, 오락실, 휴게실 등 여가활동 시설보강—상 하급자간의 인간관계 개선—작업, 경비 등 동원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 병영생활의 직접적인 부족감 충족을 바라고 있다(표 11~14).

이 밖에도 9개의 문제유형이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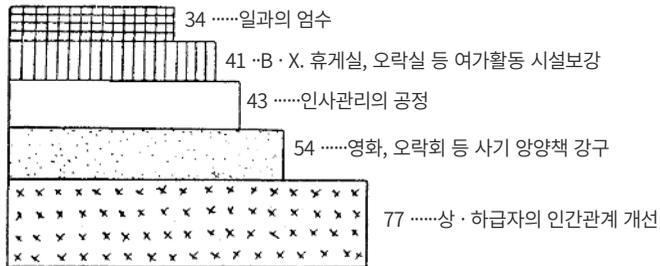
<표 11. 해결 요구 문제(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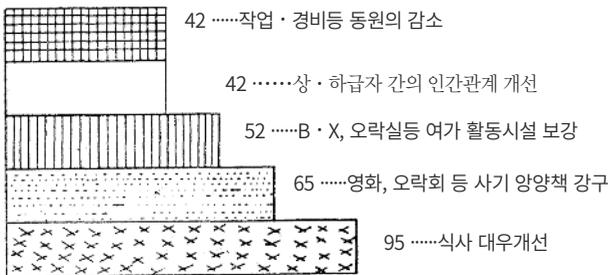
<표 12. 식사대우 개선요구(영내사병)>



<표 13. 해결 요구문제(영외장병)>



<표 14. 해결 요구문제(영내사병)>



정훈교육 분석의 직접적인 것이 아니어서 본문에서는 제외하였다.

4. 방향설정의 제시

문제추출의 방향에서 언급하였지만 욕구분석은 객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곧 집행으로 연결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욕구분석 조사에서 작성된 여러 문제의 결과는, 다음번의 욕구해결 방향에는 참고가 될 수도 있으며 어떤 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다음의 욕구분석 자료는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동료 및 상 하급자간의 신뢰성 해결이다.

부대내 소식, 사회소식 혹은 부대단결을 위한 요소로서 상 하급자간의 인간 관계 개선과 동료간의 신뢰성 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접근방법은 직장별 정훈조에 의한 토론식 교육이다.

명령적이고 주입(注入) 적인 교육이 아닌, 소단위 직장별 토론식 정훈교육이야말로 동료 및 상 하급자간의 신뢰성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이다.

둘째, 정훈지도 하사관의 자질향상이다.

장교와 병과의 교량 역할, 병의 상담자 역할, 병의 영내생활 선도자 역할이 하사관일진대, 특히 정훈지도 하사관의 자질은 많은 향상이 있어야겠다.

정훈요원의 활동 중, 정훈지도하사관 활동이 4%에 머무르고 있음은, 정훈지도하사관의 자질이 향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훈지도 하사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정훈지도하사관의 정훈교육 직접 참가 기회가 증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훈교육 담당교관의 성실한 자세문제 해결이다.

대부분의 정훈교육 담당교관은 물론 성실한 자세로, 교육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지만, 일부 교관의 무성의한 교육태도로 인하여, 정훈교육에 대한 장병 인식이 그릇되고 있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내사병들에 대한 교육태도가 피교육자의 20%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은, 교관들의 성실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시간의 교육을 위하여 1주일을 준비하는 교관의 자세가 매우 아쉽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종 정훈교육 요원들은 우리 공군의 학력 수준이 94% 이상 고졸 이상임을 알아야

하겠다.

네째, 여가선용을 위한 친목단합행사의 증대이다.

할일없는 시간이 많을수록, 게을러지고 서로 불평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운동을 통한 친목 특기개발을 위한 경쟁교육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내사병에 대한 식사대의 개선이다.

영내사병들의 식사 대우개선 요구가 66%에 이르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사실인 것이다.

이를 세분하면 비행부대의 영내사병은 64.4%, 전술 지원부대의 영내사병은 59.0%, 후방 부대의 영내사병은 71.7%가 식사대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각 부대의 철저한 부식검수, 새마을사업에 의한 부식 향상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체감 형성을 위한 정훈교육의 강화이다.

영외장병의 26%가 정훈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만하다.

신축성 있고 실정에 알맞는 정훈교육을 강화하여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을 때에 무형적 정신전력은 유형적인 전력으로 변위되어 전력 극대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 세계 명언 ◎

◇ 우리는 전쟁을 정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전쟁이 우리를 정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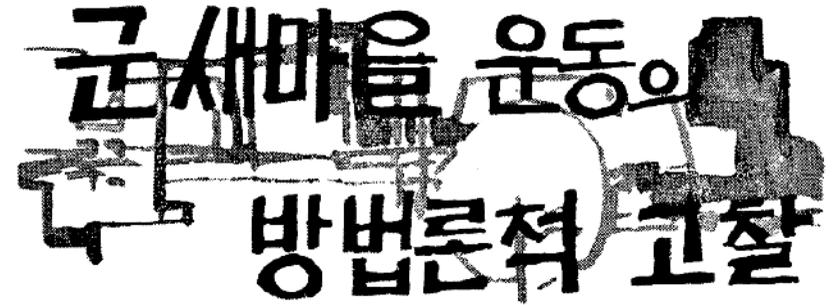
-E. 켈버트슨-

◇ 전쟁은 냉혹하다. 그것은 무자비한 구제로 양자택일하게 된다. 멸망하거나, 아니면 앞선 나라들을 따라잡아 경제적으로 앞지르는 것이다.

-N.레닌-

◇ 함께 공부할 수는 있어도 함께 같은 길을 가기는 어렵다. 함께 같은 갈 수 있어도 같은 칠판에 서기는 어렵다. 같은 처지에 설수는 있어도 함께 안을 도모하기는 어렵다.

-공자-



김의승

----- 차 례 -----

- 1. 군 새마을운동의 필연성
- 2. 군 새마을운동의 본질
- 3. 군 새마을운동의 정신
 - 가. 근면정신
 - 나. 자조정신
 - 다. 협동정신
- 4. 군 새마을운동의 생활화
- 5. 결 언

1. 군 새마을운동의 필연성

1950년대의 혼란했던 정치와 사회상을 타파하기 위한 5·16 국민혁명 이후 60년대에 걸쳐 정치적 안정 기반이 구축되었고, 경제발전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는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안정된 기반 위에 제 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싹텃으며, 지금 현재까지 급속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민족의 자아발전과 주체성을 확립 하여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역사적 10월유신의 결단이 있는 후 온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국력배양에 매진하고 있다. 이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상으로 도와주던 시대는 지났다. 자국의 이해와 관련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의 원조도 하지 않으며 따라서 한 나라의 발전은 그 나라 스스로의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힘이 없는 나라는 쇠하게 되고 힘이 있는 나라만이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 자립경제의 확립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평화를 짓밟고 민족의 양심을 붉게 물들인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남침으로 6·25의 참화가 일어난 것은 누구나가 잘 아는 사실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이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한 용감한 전투로서 그들을 격퇴시킨 것도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일고의 반성은 커녕 오히려 재침의 기회를 엿보며 소위 4대군사노선 등 군비를 확충하였으며 전쟁준비를 완료하였다고 호언 장담 하고 있다. 이땅에 다시는전쟁이 없어야겠으며 평화통일을 이룩해야겠다는 5천만 민족의 염원인 남북대화도 그들의 무성의와 불합리한 주장으로 결렬 되었고, 평화의 가면을 벗어 버린 그들의 전쟁위협은 더욱 증가되었다. 이럴수록 자주국방확립태세는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며 절박하다. 우리의 국방태세가 철통같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무모한 야욕은 억제될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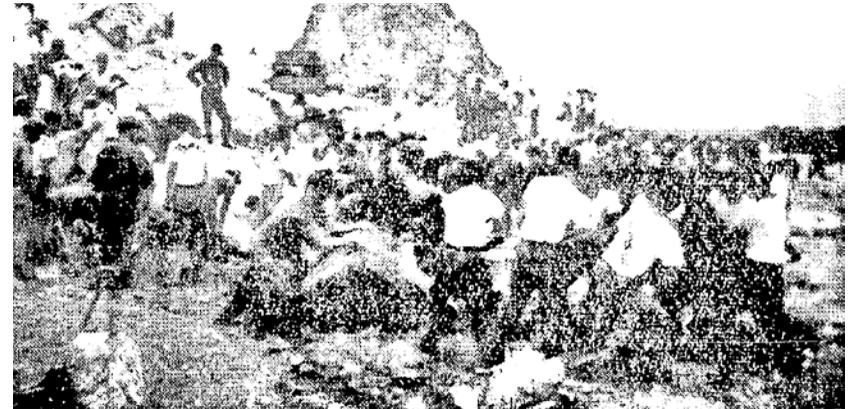
군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필연성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물결은 전국에 확대되었고 국민 모두는 잘 살아보자는 굳은 신념에 불타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누가 시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을과 사회, 국가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 아래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완수하며 민족중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제 건군 25주년을 맞이한 국군의날 행사 때 말씀하신 박대통령 각하의 군 새마을운동 촉구 유시를 중심으로 그 본질과 특성을 밝히고 행동화의 방법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2. 군 새마을운동의 본질

군 새마을운동이란 한 마디로 유신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주,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며, 새로운 전술·전기를 개발하고, 과학적이며 경제적인 군 운용을 이룩하는 것이다. 10월유신의 역사적 필연성은 타 지면을 통해서도 여러번 언급이 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군 새마을운동의 중심되는 사상과 전개 방향 및 목표가 바로 유신이념의 구체화라는 것을 강조해둔다. 또한 지금 전국적으로 파급되어가는 새마을정신과 군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본질적인 면에서 똑같은 것이지 결코 이질적인 것이 아니다. 자기의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땀흘려 노력하는 근면정신과 주어진 목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며 개척해 나가는 자조정신, 서로의 힘을 보완하고 수정하며 일치단결하여 과업을 수행해나가는 협동정신은 국가와 민족을 번영시키는 새마을 정신이며 곧 군 새마을운동의 본질적인 힘인 것이다. 이와같은 정신이 확립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첫째 자주적 창의성을 발휘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훈련과 전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창의성은 모방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남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다.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는 것에는 약간의 노력이 따른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만들고 정립하는 창의적 노력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렇다고 무관심하거나 방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훈련이라는 것은 군인을 양성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교육이 없이는 올바르게 적응하며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할 수가 없다. 국가와 민족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지닌 자신과 궁지의 군인을 만들기 위한 교육훈련은 다른 어떤 훈련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군인으로서의 기초가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고 적합한 교육훈련의 방법을 연구하여야겠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에 있다. 1953년 7월 27일의 휴전협정 이후 아직까지도 휴전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중대 사실을 망각하고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안일하고 해이한 상태를 가진 자가 간혹 있다. 물론 세계 조류로 볼 때 냉전의 시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분적인 국지전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최근의 중동사태를 보아 충분히 간파하였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면 무력 행사를 서슴치 않고 사용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전략 전술이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역시 여기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국제적 여론에 못이겨 마지못해 평화를 가장하면서도 상대방에 조금의 빈틈이라도 노출되면 무력침략을 서슴치 않고 행사하는 것이다. 북한은 전쟁준비를 완료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우리의 허실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남침해 올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시한 없는 돌발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필승의 정신자세와 장래전에 적응 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개발과 전술교리를 발전시키는데 가일층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전은 공중전이라고 일컫는다. 제공권의 제압은 승리를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공군으로서는 잠시도 경계태세를 게을리 할 수 없다는 다짐을 새로이 하여야겠다.

또한 80년대의 선진공업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보다 더 과학적이고 보다 더 경제적인 군대로 성장해야겠다. 지금 모든 국민 각자가 한가지씩의 과학기술을 익혀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과학화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유신 한국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유신 한국이 지향하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어촌의 혁신적 개발, 중화학공업의 육성,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 등 제3차 5개년 계획의 목표달성은 그 어느 것이나 과학 기술의 개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공군은 과학군이라 할 수 있다. 임무수행을 위한 대부분의 장비가 정밀한 과학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장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과학은 어느 특정한 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1인1기의 훌륭한 과학자인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장비에 대한 깊은 애착을 느끼며 유지 및 관리에 지대한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태도이다.

또한 거국적으로 보급경제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물자를 아껴쓰고 낭비를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상식적인 일이지만 실질적 으로는 무의식 적으로 이러한 낭비요소가 많이 잠재해 있다. 한장의 종이, 한방울의 기름이라도 아껴 쓸 줄 아는 절약 근검의 생활자세가 속히 정립되어야겠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우리 군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보급경제운동을 활발히 벌여야겠다. 폐지 및 고철수집, 유류절감운동, 차량통제 등,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경제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우리 주변의 비능률, 비생산, 부조리한 모든 반경제적 요소의 철저한 제거에 가일층 노력해야겠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의 구체적인 군 새마을운동이 생활화 되었을 때 명실공히 완벽한 자주 국방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3. 군새마을운동의 정신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대로 군 새마을운동의 근본정신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되어 온 새마을정신과 다른 것이 아니고, 일치되는 것이다. 즉 군내에서 새마을정신을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마을정신을 다 사금 간략히 살펴보는 것도 의의있는 일 이라 할 수 있겠다.

가. 근면정신

새마을운동은 근면의 정신을 기르고 실천하는 운동이다. 즉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근면이란 자발적인 노력을 말한다. 스스로의 마음에서부터 우리나라 뜻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근면이다. 남에게 강요받고 마지 못해 하는 일은 근면이 아니며, 일을 부지런히 한다고 해도 유익하지 못하고 뜻이 없는 일일 경우에는 근면이 될 수 없다. 자발적인 노력에는 창의성이 따르게 마련이다. 창의성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도 이 창의성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치나 역사를 만든다는 것은 발전한다는 뜻과 같다. 따라서 근면하지 않고서는 발전이란 이룩될 수 없다. 새마을운동이 어제보다는 오늘을, 오늘보다는 내 일을 더 잘 사는 것으로 만드는 발전운동이고

보면 발전의 원천이 되는 근면이야말로 새마을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정신인 것이다.

다른 사람이 길가에 심어놓은 꽃은 누가 꺾더라도 관심을 안 가지게 되지만 자기가 심어 놓은 꽃은 항상 가꾸고 지키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참여하고 가꾸어 놓은 자기 마을에 대하여는 진한 향토애를 갖게 되듯이 부대의 모든 활동에 스스로 참여할 때 진정부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며 부대애를 갖게 될 것이다.

나. 자조정신

새마을운동은 스스로 돕는 정신, 즉 자조정신을 기르고 실천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정신은 자신을 아는데서부터 생긴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임무를 알 때 자조정신은 발휘 된다. 자기를 아는 것이 바로 자아의식이다. 자아의식은 자조정신을 길러준다. 남에게 의존하거나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자기의 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기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지도자 한 사람에게 자기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자기가 잘못사는 것도 전부 지도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쉽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국민이 정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달라고 한 케네디 대통령의 말은 이러한 자주성을 강조한 것이다. 자주정신은 주체정신을 뜻한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임을 알아 모든 일을 자주적으로 처리 해 가는 정신을 뜻 하며 한 민족으로 볼 때는 민족의 자주적인 힘을 드높이는 민족주체주의를 말한다. 민족의 살 길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어제치고 민족의 번영과 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하겠다는 10월유신은 민족주체주의의 집약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조정신은 자립하는 의지를 키워 준다.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고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립의 모습이다. 검약과 검소를 생활신조로, 합리와 책임을 사과의 신조로 삼아 사회와 국가를 자립 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자조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 협동정신

새마을운동은 협동정신을 기르고 실천 하는 운동이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는 것이 협동이다. 흔히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한다. 이 말은 사람은 공동사회에서 고립되어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수천년을 전해 내려왔던 공동의식과 협동의 미풍양속을 되살려 서로 돕고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협동사회를 재건해야 한다. 협동하면 일의 능률이 오른다. 하나에 하나를 합하면 둘 이상의 힘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일을 하면 두 사람이 각, 일하는 것보다 몇배의 능률이 오르

는 것이다. 또 협동은 단결심을 높여준다. 협동 자체가. 단결을 뜻하기도 하지만 협동을 통해 이루어 놓은 결과에 보람을 느낄 때 부대의 단결심은 더 한층 높아지게 마련이다. 부대원들이 협동하고 단결하여 커다란 일을 해 냈을 때 어떤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 자신이야말로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력이 되는 것이다. 능률과 단결과 자신이 합쳐질때 안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협동정신을 기르고 실천하는 운동인 것이다.

4. 군 새마을운동의 생활화

군 새마을운동은 구호에만 그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구체화되고 행동화되며 생활화되어야 한다.

부대마다 맡은 임무는 각각 다르며 특수성을 띠고 있다. 부대 실정에 따라 군 새마을운동의 전개 방법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마치 토양에 따라 심는 식물의 종류가 다른 것처럼, 부대의 발전과 임무완수를 위한 촉진으로서의 군 새마을운동은 여러 양상을 띠고 추진되어야 한다. 군 새마을운동은 하향식의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부대 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다. 크게는 국력배양·자주국방·정예공군을 위해서, 작게는 부대발전과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주변의 생활태도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유실수 심기운동을 전개하며, 가정 의례준칙을 이행하는 것도 군 새마을운동이다. 또한 폐지와 고철수집, 유류절감, 절전, 절수 등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도 군 새마을운동의 행동화며 생활화인 것이다. 이와같이 장병 개개인이 조국의 현실을 바로 보고 경제자립과 자주 국방의 사명감을 지닌 근본적인 생활태도가 확립되었을 때, 맡은 바 고유의 임무와 책임은 충분히 달성 될 수 있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본질인 자주적 창의성과 전술 전기 개발, 과학적 경제적 군대의 육성은, 새 마을정신으로 무장된 각자의 능동적 참여와 노력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행동화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하며 그 목표의 근저에는 철학적 사상이 배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와 사상적 배경은 이미 정해져 있다. 경제자립과 자주 국방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조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과업 달성을 위한 유신이념이 곧 철학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제 목표에 따른 행동화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성패의 관건이 달려있는 것이다. 행동화는 곧 생활화를 의미하며 정신요소를 생활요소로 전환 표현하는 것이다. 국가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자각하며, 부대의 책임과 나의 임무를 일치시키며, 유신이념을 나의 사상으로 인식하며, 새

마을정신을 나의 행동 철학으로 받아들일 때 정신과 행동이 일치된 군 새마을운동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될 때에 생산적이며 능률적이고 과학적인 군 운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내의 정세는 우리의 안일과 대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가일층 긴장된 정신무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적화통일야욕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기회만 있으면 무력침략을 감행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5환만 거리의 영원인 평화통일을 목살한 채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결렬시켰으며 그들의 기본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이 된 정신자세를 가진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힘있는 자에겐 두려운 것이 없으며 힘이 없을 땐 항상 불안한 것이다. 이러한 힘은 강한 정신력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군 새마을운동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군 새마을운동의 생활화를 통해서 유형적, 물량적 결과뿐 아니라 무형적인 정신전력은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5. 결 언

우리는 정신력으로 조국의 근대화를 달성한 예를 이스라엘, 덴마크 등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새마을정신인 것이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이 확립 되지 않는 한 어떠한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며 조국의 영원한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새마을정신을 통한 국력의 배양과 자주국방의 힘을 기르는 길 밖에 없다. 완전 자립경제가 이루어지고, 어떠한 적의 침략도 분쇄할 수 있는 완벽한 자주국방의 태세가 확립될 때 온 국민이 안정과 번영의 복지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신이념의 구현이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

세계적 석유파동으로 다시금 우리 생활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심각한 경제문제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우리 공군 역시 최대의 절약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군 새마을운동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다. 군 생활에 직결되는 것은 어느 것이나 해당되는 전체적인 것이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공동운명체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나의 행동이 바로 국가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긍지와 자신을 가져야 한다. 이와같이 장병 각자가 국가와 민족에의 뜨거운 열의와, 소속된 부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때 군 새마을운동은 확고한 뿌리를 박게 될 것이며 보람찬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특

집

□...어느제도이건간에 견고하려면 뿌리 깊은 확신이 있어야 한다.특정사회의 신앙과 열망과 이상이 여사(如斯)한 열망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그로부터 생겨난 질서는 안정성있고 합리적이며 정연하게 보인다.

-할로웰(John H. Hallo well)....□

●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김성국

● 권리에 대한 의무

김영국

● 자유에 대한 책임

장 룡

● 한국적 민주주의

최창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 자유와 평등과 책임과 실현 -



1. 개념의 정립

민주주의(Democracy)란 무엇인가, 그 어원(語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대중적인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어원은 국민(Demos)과 권력(Kratia)이 결합된 「국민의 권력」이라는 그리스 말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즉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국가의 지배권력이 특정계급(= 일부 소수계급 혹은 다수 폭력계급)이 아닌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정치형태라는 것이다.

이 정치형태는, 국가권력을 일부의 독점으로 하여 국민대중을 한갓 권력의 대상으로 삼는 전제정체에 대위한 정치형태이며, 일반국민이 보통 평등의 선거권을 가지고 사상, 언론, 집회, 결사(結社)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그 위에 자유로운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운용되는 정치 형태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적 궤범(軌範)이 통치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참여에 의해 자율적으로 제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이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존중』이라는 법률적 해석과, 사회구성원들의 상호 의견의 차이를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유스러운 교섭의 결과로써 조정해야 되는 『민주적 태도』에 대한 도덕적 해석이 뒤따른다.

김성국

또한 혈통, 재산, 계급 등의 차별없이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인격이 존중되며, 법률, 정치, 경제, 종교 및 교육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적 해석이 덧붙여진다.

그러므로 민주주의(Democracy)란 정치형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쓰이는 시대, 장소 또는 제도, 사상에 따라 각각 그 개념이 달라진다.

이와같이 민주주의란 절대 불변한 정의(定義)를 가질 수 없으나, 공통적 특질을 얘기한다면,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향유케 하는 사상에 근거한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뒤니스」(Ferdinand) TÖnnis, 1855~936 독일의 사회학자, 민주정치의 의회제도에 대하여 권위, 대표저서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Gemeinschaft und Gesellschaft)가 있음 같은 이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보다는 단체주의를 지향하지만, 국민 전체의 의사를 기만한 민주정치형태, 예컨대 투표에 의한 단일 지배권력의 형성을 배척하기도 하였다.

2. 자유와 평등

미국의 정치학자 「할로웰」(John H. Hallowell) 켈리포니아 및 시카고 대학교 교수 대표저의로는 「현대 정치사상의 주조(主潮)」 「민주정치의 도덕적 기초」가 있음은

『민주주의는 말하자면 자유주의의 정치관(政治觀)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가 그 이념에 있어서 인간의 존귀성을 최고도로 존중하여, 정치행동을 구성원 각자의 자유로운 이성적(理性的) 판단과 자발적 활동에서 기대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이성과 양심적인 책임의식을 토대로 하여 활동하는 자유주의와 그 이념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민주주의란 자유주의 사상의 성장과 함께 발달하고, 자유주의의 변질 쇠퇴와 더불어 민주주의도 변질 쇠퇴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적 「민주주의 = 자유주의」라는 관계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할로웰」은 인간의 책임을 내포하는 자유주의와 그렇지 않은 개인주의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자유란 무엇인가?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영국의 경제학자, 대표적 저서로는 「경제학 원리」 「부인론(婦人論)」 「자유론」이 있음은 「자유론」(On Liberty, 1859) 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개인으로부터 구별된 사회가 다만 간접적인 이해관계밖에 가지지 않는 행동의 영역이 있으니(실사 어떠한 이해 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행위중 오직 그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모든 부분과 또한 만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그리고 참된 동의와 참가를 얻어서 그렇게된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자유의 본래 영역일 것이다. 이것은 첫째, 의식의 내용적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니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양심의 자유를 요구한다. 둘째, 자기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자유와 탐구의 자유를 요구하며, 또한 우리들의 생활을 우리들 자신의 성격에 알맞도록 설계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한다. 셋째, 바로 이와같은 자유로부터 개인과 개인과의 단결의 자유가 생긴다.』

따라서 「요구된 자유」는 두개의 공리(公理)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개인은 그 행위가 그 자신 이외의 어떤 사람의 이해에도 관계되지 않는한, 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관해서는, 개인은 당연히 사회 세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한 사회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옹호해 주기 위해서 사회적 또는 법률적인 형벌을 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어느 것에 처해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즉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홉하우스」(Leonard T. Hobhouse, 1864~1929, 영국의 사회학자, 대표적 저서로는 「자유주의」가 있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신념을 말한다. 즉 사회는 인격의 자발적인 목표설정의 능력을 토대로 건설되어야 확고하고 안전하며, 이 토대 위에 의존함으로써만 진정한 공동사회가 건설될 수 있으며, 그렇게 건설됨으로써 그 기초는 깊고 넓게 자리를 잡아 그 구조의 확대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신념이다. 사회가 이와 같이 되면 자유는 개인의 권리라기보다 사회의 필요성이 된다. 즉 자유란 A란 사람이 B란 사람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요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B가 A를 합리적인 존재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무에 의존하게 된다.』

자유는 지배관 다름 아니라 합리적 방법의 적용을 말한다. 그것은 이성, 상상력, 사회적 감정의 호소에 문을 열어주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호소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사회의 진보(進歩)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고 있으며, 「지적자유」(知的自由)로서 표현되고 있다.

「지적자유」라 함은 「사상과 발표(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신의 장유를 위하여 최초로 싸운 사람은 「소크라테스」(Sokrates, 기원전 약 470~399, 그리스의 철학자, 저서는 없으나 그의 제자 플라톤에 의하여 승계됨)였고, 이것을 논증적(論證的)으로 체계화 시킨 사람은 「밀」(J. S. Mill)이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도 「밀」도 개인의 자연권을 무제한 주장하지는 않고 있으며, 진리와 정의의 위해서는 「독설과 가설」을 배척하고 있다.

평등은 또 하나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요소이다. 평등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평등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능력을 가졌거나, 또는 동일한 개인적 매력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법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다 시민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일부 사람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절대로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법은 원조, 보호 또는 처벌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이던 간에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카안」(Edmond Cahn, 대표적 저서로는 「민주시민의 곤경」 등이 있음) 교수는 「평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정치적 및 법적 활동에 있어서 자유민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다.

이 권리는 부정할 나위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정치적 및 법적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 말이다. 공공 문제를 이성적으로 토의하기 전에 배를 채워야 할 것이며, 사리를 분간하여 투표하기 전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직장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자유 사회내에서 공직(公職)을 갖기 전에 물심양면에 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심적요소(心的要素)가 소극적 평등(消極的平等)을 구성한다.

즉 사회의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와 최저의 지위만은 유지하도록 보장해 주는 정치적 및 법적 대우와,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결연이나 버림받은 자

또는 공권상실자(公權喪失者)의 신세를 면하게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보장책을 써서 구제책을 강구하는 일들을 말한다. 민주사회하에 사는 사람들은 시민이건 외국인이건 간에 이러한 평등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소극적인 평등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보장해 주는 것에 머무른다.

이에 대하여 인간 개개인의 개선(改善)과 향상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적극적 평등이라고 한다.』

「카안」에 의하면 소극적 평등이 인간생활의 최저 한계선을 그어주는데 그 친다면, 적극적인 평등은 자기능력이 허용하는대로 얼마든지 그 선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소극적인 평등은 인간의 공포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이며, 적극적인 평등은 인간의 희망을 무제한으로 높여주려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및 경제적 변동에 처해 있는 사회에서는 극히 적극적인 평등이라는 이념이 적절한 것이어서 발견이나 발명 또는 일반적인 발달에서 오는 이윤은 공동체내의 모든 성원들이 다 같이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소극적 및 적극적 평등에 대하여 미국의 독립선언서(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 대륙회의서 채택됨. 후에 미국 제 3대 대통령을 지낸 Thomas Jefferson(1743~1826)이 작성했음)는 아주 간략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자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도(不可讓渡)의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것. 그중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정부는 스스로의 정당한 권력을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도출(導出) 한다는 것』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으로 향유하는 완전한 민주주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인간은 무한한 노력을 경주하여왔다.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영국왕 John이 봉건귀족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약속한 문서 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의 권리보장의 문서와는 다르나, 국왕의 절대적 지배권을 제한한 점에서 큰 뜻이 있음), 1628년의 권리청원(權利請願) Petition of Rights, 영국의회가 국왕Charles 1세의 악정에 대하여 인민의 헌법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출한 청원서), 1689년의 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 명예혁명으로 즉위한 영국왕 William 3세에 대하여 영국의회가 요구한 법률 의회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를 획득한 데서 큰 뜻이 있음)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人權宣言) 등

1848년 3월 혁명 후,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채택한 독일 인권선언은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 모든 독일인은 제국내의 어떤 지역에서든지 체재하거나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지 부동산을 획득하고 이를 관리 할 권리, 어떤 직업에든지 종사할 권리, 지방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모든 독일인은 언론, 저술, 출판 또는 회화적(繪畫的)인 형태로서 그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독일인은 신앙과 양심의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학문과 학문의 교수는 자유다 어떤 계급적인 특권도 법앞에서는 무효다. 모든 독일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사유재

산은 불가침이다.....』

3. 민주주의의 실현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하는 민주주의는 「어떤정체」(a form of government)가 아니고, 「정치하는 방법의 하나」(a way of governing)로서의 정치 형태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다.

그렇다면 정체(政體 = 政府 = Gov't)란 무엇인가?

민주정치의 실천기구로서 정체가 있으며, 그 정체는 민주정치를 포괄하는 전체 사회의 문화형의 특정 횡단면(橫斷面)이다. 정체의 목적은 외부적인 안전 내부적인 질서, 정의(正義), 일반복지, 자유 등이다.

따라서 정치현상으로서의 기초적인 제화합현상(諸和合現象) 저항과 혁명, 제권리장전(諸權利章典)여론·투표와 정당, 공적 정치체와 사적 정치체 이 모든현상은 정체의 제목적을 실현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의한 정치체제에 대하여 「강베타」(Leon Gambetta, 1838~1882, 프랑스 제 3공화제 창설자, 대표적 저서로는 「정치 이론과 변화가 있음」)은 일명 「빌르비유(Belleville) 선 언」(1869)에서 다음과 같이 주창하였다.

『여러분과 더불어 나는 인민 이외에 달리 주권자가 있을 수 없으며, 이 주권의 도구인 보통선거는 그것이 급진적으로 자유롭게 행해지지 않는 한 아무런 가치도 토대도 없는 것이며 아무런 의무도 수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긴급한 개혁은 보통선거를 모든 관(官)의 보호, 모든 속박, 모든 압력 모든 부패로부터 해방 시키는 것이다. 여러분과 더불어 나는 보통선거가 이렇게 해방되어 주인석(議員)을 차지하게만 되면 여러분의 계획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일소할 것이며, 나아가서 모든자유와 또한 우리가 수립하려는 모든 제도를 확립하는데 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대 다수의 도덕적, 물질적인 해방을 달성하며 법률, 행위 및 관습에 있어서의 사회적 평등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뛰어난 정치체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점진적인 실현은 정치체제와 정치적 개혁에 완전히 달려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형태가 본질을 결정한다는 것이 나의 신조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내용이 아니고 형태라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는 「질켈」(Hans Kelsen, 오스트리아 정치학자, 법학자, 대표적 저서로는 「법과 국가의 일반 이론」)이 있음도 마찬가지다.

「뮌헨」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단체주의라고 한데 반하여, 「랜겐」은 민주주의의 본질은 내

용이 아니고 형 태이며, 개인의 자유가 근본요소이고 단체주의와 평등은 제 2의 요소라고 하였다. 따라서 국민 전체가 치자(治者)인 동시에 피치자이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의 의회정치, 권력의 분립, 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나 사회적 현실적인 기술상의 요청에 의하여 의회 민주정치를 취하기 때문에 지도자 교육, 분업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한편, 「스트레이치」(Evelyn John St. Strachey, 1901-1963, 영국의 정치가, 학자, 대표적 저서로는 「사회주의 이론과 실제」 「위대한 각성」 「민주주의에의 도전」 등이 있음)가 국민의 완전한 선택에 의한 대의정치를 주장 하면서 정부 스스로의 「법의통치」(The Rule of Law)를 주장하는데 대해서, 그의 동료였던 「라스키」(Harold J. Laski, 1893~1950, 영국의 사회정치학자, 대표적 저서로는 「위기에 처 한 민주주의」 「국가구조에 관한 고찰」 「현대 혁명의 고찰」 등이 있음)는 동의에 의한 혁명만이 국가구조를 민주화 시킬 수 있다고 주창하면서 「자유에의 계획화」, 즉 계획적, 민주주의(Planned Democracy)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고찰해 보면, 민주주의의 실현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낭만적 주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평등」의 구현을 위한 사회의 도덕적 책임을 묻는 현제에 이르고 있다.

「마키버」(Robert M. MacIver,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 대표적 저서로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도전」, 「현대의 학문자유」 등이 있음)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충분히 확충된 민주정치는 최근세에 와서야 비로소 출현했으며, 이것은 오로지 확대된 중산계급의 수중에 들어간 사경제력(私經濟力)의 힘에 의해서였다.

즉, 민주정치는 오로지 산업이 발달한 서구 여러 나라와, 동일한 전통을 이어받은 기타 여러 나라에서 발달했는데, 이것은 중산계급의 대두와 그 경제력에 의한 계급타도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실현은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평등」의 구현이 아니라, 평등한 정치권리와 동일한 기본적 자유를 모든 계급이 누릴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능력 있는 평등의 구현이며, 「공정한 행정을 맡아줄 공정한 관리(官吏)」의 사회도덕적 책임(社會道德的 責任)이 뒤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도덕적 기준으로써 「세계 인권선언」(世界 人權宣言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10일 제 3차 국제 연합총회에서 58개국의 참여로 선포됨)은 국가 공통목표를 잘 표현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위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천부(天賦)의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애의 정신으로써 서로 대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性), 언어, 종교, 정치적내지 기타 의견 국적 및 사회성분, 재산, 출생, 또는 지위 등

에 구애됨이 없이 이 선언 속에 설정된 모든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의 정치적, 법적 및 국가적 지위여하, 즉 독립국가나, 위탁통치령이나, 비 자치령이나 또는 주권에 기타 제한을 받고 있느냐등 등으로 차별을 두어서도 안된다.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인신(人身)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아무도 부당하게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않는다.

..... 아무도 그의 사생활, 가족, 가정내지 서신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공격을 받을 일이 없다.

..... 모든 사람은 이동의 자유와 각의 영토 내에서 거주에 대한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자국(自國)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든지 이를 떠났다가 귀국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타국의 박해로부터의 피난처를 구하고 이를 향유 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성년에 달한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기인하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에는 종교 또는 신앙을 변경할 자유가 포함된다.

..... 모든 사람은 의견과 발표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고, 권한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모든 사람은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인민의 의사로서 정부 권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평등한 보통선거와 비밀 투표, 또는 이에 준할 자유로운 투표절차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기적인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의거하여 각자의 위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노동권과 직업의 자유 선택권, 노동의 정당하고 유리한 조건에 대한 권리, 그리고 실업(失業)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 분량의 노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 보호의 기타 방법에 의하여 보

충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휴식과 오락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주기적인 유급휴가가 포함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과 그의 가족의 건강과 유복을 위하여 식량, 의복, 주택, 의학적 치료 및 기타 필요한 사회적 용역을 포함한 적합한 생산 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실업, 질병, 불구, 과부, 노년 또는 그의 능력을 초월한 사정으로 인한 생계수단의 결여 등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머니와 미성년자는 특별한 배려와 원조의 대상이되며, 모든 어린이는 적출(嫡出)과 서출(庶出)의 구별 없이 사회의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사회의 문명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고, 과학의 발전과 혜택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그의 인격의 자유로운 완전한 발전이 유일하게 가능한 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만 고찰하였지,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주주의의 파생원리(派生原理)는 살피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유 민주국가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의 원리는 알아야 할 것 같다.

자본주의에 대하여 「헤일 브로너」(Robert L. Heilbroner, 미국의 경제학자, 대표적 저서로는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있음)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인류의 생존문제 — 독립된 개체로서의 생존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존문제 — 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각종 필요한 직업을 습관과 관계에 의해서 한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만, 시장(市場)제도에 관한 개념이 생기게 될 때까지는 생존문제의 근본적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없었다. 토지와 노동과 자본 없는 중세기에는 시장이 없었다. 시장이 없는 곳은,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경제 수단이 이루어졌다. 토지, 노동, 자본의 3대 요소를 가진 시장제도는 13세기에 시작한 고난 속에서 출발했으나 19세기 중엽까지도 제길에 들어서지 못했

다.....생존문제가 전통이나 명령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로지 시장 그 자체의 제도하에 조직된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런 행위로 해결 되는것,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이다.

또한 이 글에서 주요하게 빠뜨린 것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비난과 비평이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간단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는 「다중의 전횡」(多衆專橫: Mass or Majority Tyranny)이라는 것이다. 이는 「밀」(J. S. Mill)이 지적했다.

둘째, 민주주의는 「중우정치」(衆愚政治: Rule by the Average Man) 혹은 「폭민정치」(暴民政治)라는 것이다. 이는 파게트(Emile Faguet: 1847~1916, 프랑스의 비평가, 대표저서로 「19세기의 정치사상가 및 도덕론가」가 있음)가 맹렬히 주장했다.

세째, 「부르주아 민주주의」(Bourgeoisie Democracy)라는 비난이다. 이는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 독일의 사상가, 대표저서로는 「자본론」, 「신성 가족」 등이 있음)가 주장했다.

넷째, 민주주의는 「비능률과 부패」를 축적한다는 것이다. 이는 「레닌」(Nikolai Lenin, 1870~1924, 러시아의 혁명가, 본명은 Ulijanov Vlazimir Iljich, 주요저서로 「러시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달」이 있음)이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언급돼야 할 문제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민주시민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기원전 384~322, Platpn의 제 Peripatitai(소요학파)의 개조(開祖), 형식 논리학의 성립자, 주요저서로는 「철학의 권유」 「이상사회」가 있음)는 「이상사회」(理想社會: Politeia Athenaion)의 구성원이 될 사람은 「지성과 기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성과 기백」은 그후 「몽테스큐」(Charles Louis de Montesquieu, 1689~1775,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주요저서로 「법의 정신」이 있음)에 계승되어,

「군주국가는 명예를 존중하며, 독재국가는 공포가 필요하며, 공화국의 국민들에게는 덕(德)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발전하게 되었고 「제퍼슨」(T. Jefferson)은 「德」에다 「재주」를 더하고, 다시 「용기」를 첨부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용기나 명예는 어떤 사회에 사는 인간을 막론하고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며, 그것들이 없이는 시민의 자질이 될 판단력이나 덕성도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민주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것은 「판단력, 명예(용기), 결사성(結社性)」의 세 가지 자질을 갖춘 시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자질에 있어서의 판단력은,

첫째,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처리할 때 선행(先行) 기준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명료한 것이었던가를 분명히 하고, 부득이 한 제한성에 대하여 재 고려의 아량을 갖추라는 것이다.

둘째, 판단할 때는 연민(憐愍)을 베풀어야 한다. 여기에서 연민이라 함은 정치적 감상주의(感傷主義)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더욱 개발시킨 이지적 의견 절충주의를 뜻 하는 것이다.

세째, 판단 할 때는 신념의 등급(等級) 을 매겨야 한다. 우리의 신념 가운데 어떤 것은 이미 증명되었고, 어떤 것은 부분 증명이 되었고, 어떤 것은 증명중에 있으며, 어떤 것은 증명될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내용의 성질상 증명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록크」(John Locke, 1632-1704, 영국의 철학자, 주요 저서로는 「관용론」, 「인간 이성론」 「정치론」 등이 있음)와 「흄」(David Hume, 1711~1776, 영국의 정치, 경제 사상가, 대표적 저서로는 「인성론」 「도덕 및 정치론」 「인간 오성론」 등이 있음) 을 비롯한 여러 경험주의 철학자들의 주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격있는 시민은 언제나 계속해서 그의 신념을 활용할 때 마다 자기의 신념이 확고한 근거 위에 세워진 것인가를 다짐한다.』

시민 자질의 또 한 부분인 명예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 용기, 곧 생명 그 자체를 값 없이 희생시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명을 희생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원리의 타당성이 다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킬 정도로 심각한 원리란 그리 많지 않으며 죽음으로서만이 시민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신념의 등급을 매기는 일은 무의미해지고 만다. 시민 자질의 마지막 부분은 결사성(結社性)이다.

이 결사성은 한 집단이나 기관 내에서 일할 때 동등한 한 사람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질을 말한다.

「카안」(Edmond Cahn) 교수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결사성을 가진 사람이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 사용할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전체 구성원 앞에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기 전에 심사숙고하고, 집단 전체가 내린 결단을 쾌히 용납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바 일을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질들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 구성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는 이 세계의 역사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스트레이치」(E. J. S. Strachey)의 결론으로 맺음말을 대신하면,

『전쟁의 원인은 폭군 정치(Tyranny) 나 전제정치(Autocracy), 혹은 여타(如他)의 자의적(恣意的)인 독재정치에 있으며,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 화할때에, 비로소 모든 국가 는 평화 애호국이 되며, 전쟁의 위험은 없어질 것이다.』

◎ 속담풀이 ◎

- ◇ 시리베장단에 호박국 끓여 먹는다 …… 실없는 짓으로 엉뚱한 일을 저지른다.
- ◇ 시르 죽은이 …… 몰골이 초췌하고 초라한 행색을 눌러 이르는 말.
- ◇ 꼭 뒤에 부은물이 발뒤꿈치로 내린다 …… 불미한 행동은 곧 아래 사람에게 영향한다.
- ◇ 볶은콩 먹기 …… 그만 먹겠다면서 결국은 다 먹어버림.
- ◇ 세말(歲末)에 팔리다 …… 누구에게나 약감을 사다.

자유에 대한 책임

장 룡
 <한양대 교수 신문학 박사>



모든 사물에는 음양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음양이 있으며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음양과 같이 상대적인 것들이 존재한다.

상대적인 존재, 즉 남자와 여자, 극우와 극좌, 북극과 남극 등 여러 가지 물질적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있듯이 우리 주변에는 상대적인 존재가 많다. 자유와 책임도 따지고 보면 이 상대적인 존재 또는 상대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우선 우리가 흔히 듣고 또 쓰고 있는 낱말인 자유가 무엇인냐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얼른 답변하기가 힘들다. 것처럼 자유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면서도 실제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위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자유를 구사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을 깨닫게 되고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려 노력한다. 허나 그 노력 가운데에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를 행사하고자 노력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지만 자유의 행사에 수반되는 책임을 등한하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의무와 책임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의 주변을 보면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혼동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랑곳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광경을 우리는 흔히 본다. 그러나 담배를 피운다는 것과 사회의 윤리나 도덕 및 질서를 지킨다는 문제를 관련시켜 볼 때 자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유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

면 버스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팔을 휘두르는 자유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 허나 「버스」 안에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자기 마음대로 팔을 휘둘러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팔을 휘두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의 코를 깨거나 뺨을 치게 되니 자기 마음대로 팔을 휘둘러 수가 없게 된다.

말하자면 「버스」 안에서 팔을 휘둘러 수 있는 자유는 옆에 서있는 다른 사람의 코앞에서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 한계선을 넘어서면 팔을 휘둘러 수 있는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유행사를 위하여 「버스」 안에서 팔을 휘 두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팔을 휘두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옆 사람의 얼굴을 갈리게 되며 또는 코를 때리게 됨으로 자기 마음대로 팔을 휘둘러 수 있는 자유는 옆 사람의 코앞에서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코 앞에서 한계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에 따른 책임이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유란 것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수반된 책임이 뒤따르는 것으로 모든 사물이 다 양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도 그 다른 면이 즉 상대적인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한한 자유란 있을 수도 없겠지만 설사 있다 할지라도 자유는 행위자가 살고있는 환경에 따라 제약을 받으며 제약이나 자유의 한계선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유를 행사하는 데 대한 책임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한선과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는 인간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그 자유는 한계가 있으며 남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또 자유를 행사하는 이상 행사한 자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동으로 살아 나가지 않을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살고있는 우리로서는 자유만을 주장하고 이를 행사할 것이 아니라 남도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남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하여 어떠한 침해도 깨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바 있는 「이슈」의 우화에 나오는 「어린 양치기」의 얘기가 바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인간은 다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니만큼 말이나 약속을 지키며 생활을 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이 행동을 하다보면 남에게 해를 끼치게 마련이며 자유로이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되고 만일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므로 때에 따라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을 암시하는 교훈이 바로 「이슈」의 우화에 나오는 어린 양치기의 거짓말이라 하겠다.

즉 한마을에 같이 사는 양치기들이 양떼를 망보는 것을 어린아이에게 부탁하여 양을 돌보게 하였다. 이때 망보는 일에 대하여 어른들과 어린아이 간에는 하나의 언약이 맺어졌던 것이다. 만일 양을 잡아먹으려고 늑대가 나타나면 우각 피리로서 신호를 하라고 어린아이에게 당부하였던 것이다.

하나 양떼를 망보게된 어린이는 어른들이 말하고 간 신호방법을 한번 시험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며 한번 우각 피리를 불어보는 자유가 자기에게는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자유로 이 피리를 불어 신호를 보내면 마을에서 사람들이 달려올 것이며 늑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피리 신호를 한 것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과의 언약대로 피리신호를 하였더니 마을에서 사람들이 양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 왔던 것이다. 그러나 늑대는 커녕 늑대의 그림자도 없었으며 단지 양을 지키는 어린이가 웃고 있을 뿐이었다. 이를 보자 마을사람들은 어린 양치기한테 속은 줄 알고 야단치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 것을 타이르고 마을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치기는 마을 사람들을 놀린 것이 재미가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의 자기 자유만을 생각하고 또 다시 장난을 하였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피리소리를 듣고 또 산으로 뛰어 올라가 양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으나 양들은 평온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으며 늑대의 흔적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린 양치기가 또 속였구나 하는것을 깨닫고 꾸지람을 한 후 다시 마을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런 거짓이 있는지 얼마 후 정말로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으려 몰려들었다. 이에 당황한 어린 양치기는 급히 우각피리를 불어 댔으며 마을에는 또 다시 우각피리소리가 심각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또 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한사람도 사실로 믿지를 않았으며 양떼와 어린 양치기를 구하기 위하여 언덕으로 달려오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양들은 늑대들에게 당하고 어린양치기는 혼이 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 대략 말한 「이슈」의 우화는 개인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와 공동생활을 하는 사회에서의 말과 약속을 의미하며 언약을 마음대로 어길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적인 우화의 한 토막이다.

마음대로 말하고 언약을 어길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러한 자유행사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은 지지 않을 수 없다. 「이슈」의 우화가 바로 그러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어린 양치기가 언약을 어기고 마을 사람들을 놀려주기 위하여 늑대가 몰려온 것처럼 거짓 신호를 보내는 행동의 자유는 있지 만 자유행사의 결과는 마을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피리 신호를 허위로 믿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어린 양치기

를 불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바로 이런 자유 행위에 따른 결과는 남을 해롭게 함은 물론 자기 자신도 해로움이 된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유 행사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지 않을수 없다. 즉 자유행사의 그릇된 행위는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마저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말을 마음대로 하고 약속을 어기고 제멋대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자유는 있으며 그 자유를 일단 행사하였으면 행사한 이상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인간사회인 것이다.

말이나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것과 그에따라 말이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공동생활을 하기때문에 인간간에 있어서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이나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유라는 것도 인간간에 있어서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이나 태도에 따라 그 한계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자유에 따른 책임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와 책임은 양극적인 동시에 상대적인 것으로서 개인을 포용하고 있는 사회가 질서있게 유지되려면 자유도 있어야 하지만 자유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무슨 말이나 할수있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유도 남의 귀에 도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남의 귀에 도달 하였을 때에는 이미 자유를 벗어나 책임을 져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남을 도둑놈이라고 욕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자유도 자기의 혀끝에서 그 한계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석동이라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도둑놈」이라고 말하였다면 그때에는 벌써 그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근대 시민 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 발전을 촉진 시키는 소인(素因)으로 서인은 누구나 다 선량하다는 전제하에 「개인인 만물의 척도」라는 자연법사상에 따르면 그 개인은 평등한 자유이므로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면서까지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한예로 석동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누가 「도둑놈」이라고 하더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는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위하여 그리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위하여서도 도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한 사람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 추궁에 대하여 「도둑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함부로 말한 자유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남의 명예를 훼손 하였으므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도 따지고 보면 앞에서 말한바 육체적인 행동과 자유와 마찬가지로 그 한계가 있는 것이며 또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하겠다.

끝으로 자유라는 것을 의무와 관련시켜 말해보고자 한다.

「개인은 만물의 척도」이며 개인은 평등하고 자유이며 개인의 의사는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생각한다면 자유와 의무는 국민 각자가 사회계약에 의하여 상호계약을 받게 되는 것이니만큼 자유나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무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계약하에서 국민 각자가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본래의 자유를 또는 자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공동체인 국가의 통치권이 형성된다는 이른바 제도적인 것으로서의 의무와 자유가 양립하게 되는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자기의 자유를 구사하기 전에 자유 행사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유만을 제창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장면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 범위는 넓어지는 반면 책임의 범위도 넓어지며 의무도 확대되고 범위도 넓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유와 의무, 책임이란 삼자의 관계는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개인의 생활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는 전제하에서 의무와 책임도 추궁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고 개인의 활동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의무와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계약에 의한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책임이나 의무의 수행을 강요할 수도 없으며 이의 실천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끝으로 천부의 자유란 권리가 보장 되어야 인간은 마음대로 사고(思考)하고 말하고 비평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모든 자유행동을 하는 가운데에도 의무와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명량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고 또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한반도의 장래에 관한 문제는 열강이나 국제 조류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과 자주적인 결단에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민족의 주체성을 견지하고, 변천하는 세계조류에 능동적이고도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면서 평화적인 국토통일의 길을 넓히고 다져 나가야 하겠다.

- 1971. 8. 15 광복절 경축사에서 -

권리에 대한 의무

김영국
(서울대 교수)

머리말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보호 및 신장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를 의미하며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모든 권리중 자유를 가장 으뜸가는 권리로 인정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자유의 보호와 신장도 자유에 상응하는 의무가 따르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가 없는 법이다. 자유를 포함하는 인간의 모든 권리도 그에 상응한 만큼의 의무감이

없이는 실효성을 거둘 수는 없다. 여기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권리가 어찌서 의무를 수반하는가를 밝히고 특히 자유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어찌서 더 많은 의무를 수반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권리의 뜻

가장 넓은 의미의 권리란 우리가 자연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소유를 뜻한다. 가령 미국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이 경우의 권리는 생명자유 및 행복추구는 우리가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임을 뜻한다. 재산권, 언론 자유권, 명령권 등의 제권리도 같은 뜻을 갖는것이라 하겠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기본 철학으로 삼고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존엄성과 가치를 주장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다. 이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함에 기본이 되는 제 권리를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개인의 기본권이라 한다.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개인의 기본권으로서는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을 들 수 있다. 자유권은 그내용으로 볼 때 신체의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로 나누어지며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신체나 생명이 어떤 이유에서건 침해되어서는 안 됨을 뜻하며 사회·경제적 자유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등을 뜻하며 정신적 자유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등을 뜻한다. 생존권은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 조건을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확보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이 인간 운 생활을 할 권리를 뜻한다.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가족의 보전과 혼인의 순결 등에 관한 권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청구권은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내용으로는 청원권, 소원권, 행정 재판청구권, 헌법 재판청구권, 사법재판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등을 들 수 있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무원의 선임과 파면에 관한 권리, 공무담당권,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표결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고전적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개인이 국가권력으로 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가 기본이 되었으나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개인이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을 벗어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에 참여하여 국민 주권의 이념을 현실화함을 기본으로 한다.

현대의 민주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이상과 같은 권리를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통해서 보장하고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권리는 개인의 주장과 소유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개인이 무제한 한 주장만을 일삼게 되고 무한한 소유만을 주장할 경우 사회질서란 성립될 수가 없다. 또한 개인이 무제한한 주장과 소유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의 문제가 파생된다. 인간의 권리도 따지고 보면 사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며 만일 사회가 없었다면 권리의 문제도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로빈슨크루소와 같이 사회와 절연된 고도에서 고독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권리의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에 있어서나 권리와 의무는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권리가 크면 클수록 권리에 따르는 의무가 그만큼 큰법이다. 다음에는 우선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개인에게 요청되는 의무의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2. 사회적 측면에서 본 의무

권리는 사회생활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까닭에 인간은 권리주장에 앞서 사회를 지키는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없다. 민주사회에 있어서도 개인이 사회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권리가 크다면 그만큼 의무도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에게 막중한 의무를 과하고 또 국민이 그 의무를 감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절대 군주국가나 현대의 독재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이 사회적 의무를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 가령 절대 군주국가에 있어서는 모든 권력이 군주에게 집중되어 있고 또 모든 권리는 군주만 이 행사할 수 있는 까닭에 일반 국민에게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없다. 현대의 독재정치 체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의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발적 의사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자발적 의사가 존재할 수 없는 곳에는 의무감도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져야 할 의무로서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 융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재산권 행사의 공공 융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는 앞서 말한 권리와 표리의 관계를 가지는 반면 납세와 국방의 의무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까닭에 치루어야 할 의무임을 알 수 있다.

납세와 국방의 의무는 인간이 국가 생활을 누리는 대가로 지는 의무이다. 현대국가는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이다. 오늘날 세계는 무수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의 모든 인류는 국가를 단위로 조직화 되고 있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도 이제는 국가를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게 되었다.

개인의 생명도 재산도 또 행복의 추구도 이제는 국가의 보호가 없이는 이룩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럼으로 개인은 재정적으로 국가의 밀받침이 되어야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국가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현대의 자유 민주주의는 이 점에서 이중적 의무를 개인에게 부담시킨다고 볼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모든 가치중 자유를 가장 으뜸가는 가치로 인정하고 자유를 말살하려는 어떤 이념이나 세력에 대해서도 과감히 도전적 태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와 다르다. 전통적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모든 이념이나 세력에 대해서 자유를 인정하였다. 그것은 모든 자유를 인정하려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자체를 파괴하려는 이념이나 세력에 대해서도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민주질서를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나치즘이나 파시즘 그리고 오늘날의 공산독재주의의 도량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나치즘, 파시즘등은 2차 대전중 세계의 모든 인류를 불행으로 몰고 특히 독일, 이탈리아 및 일본의 피해는 형용할 수 없이 컸다.

인류의 이런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자유와 질서를 파괴하려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은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 스스로가 지켜나갈 때 그 존립이 가능하며 만일 국민 스스로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반민주 세력에 의해서 유린될 수 밖에 없다. 자유민주국가에서의 국방의 의무는 이같이

민주질서를 지키는데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이다.

3. 의무의 도덕적 측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권리는 본질적으로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민주적 권리의 근원은 서양사회의 자연법에 있는 까닭에 우리는 자연법의 본질에 관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주장하는 권리는 영어로 “right”라고 표기된다. 프랑스어로는 “droit”로 독일어로는 “recht”로, 스페인어로는 “derecho”로 각각 표기되고 있다. 이같이 표현은 다르지만 본래의 의미는 모두가 “정당한 것” “옳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영어의 “right”를 우리는 권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법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권리와 법을 같은 “right”로 표기함을 볼 때 법과 권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권리와 법은 모두가 “정당한 것” “옳은 것”으로 상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옳은 것, 정당한 것이 아니면 법이 아니고 권리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권리와 법에 관한 해석은 기원전 로마 시대 그리고 더 멀리는 그리스아의 도시 국가시대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로마시대의 “ius”는 오늘날의 영어의 “right”와 같은 뜻을 갖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정의(Justice)와 상통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권리는 이같은 서양사회의 오랜 도덕의식에 그 근원이 있다고 하겠다.

권리는 정의 옳은 것, 정당한 것인 까닭에 부정부당한 것과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개인이 원하는 것이 모두가 권리가 될 수는 없다. 개인은 정당한 것에 한해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정당하지 못한 것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 이 같이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주장을 할 수 있음에 반해서 정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주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에 민주적 권리의 도덕적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것과 정당치 못한 것의 구별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다수결 원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보다 많은 국민의 의사속에 보다 많은 진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민 주정치와는 다른 절대 군주정치나 독재 정치의 실태를 상기에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절대군주정치나 독재정치에 있어서는 모든 진리가 군주나 독재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그들의 진리가 국민의 진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민에게는 그 진리를 따라야 할 도덕적 의무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공산독재 국가에 있어서의 진리는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구체적 의미는

공산당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간부, 더 나아가서는 독재자 자신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러므로 법률도 공산당 간부, 더 구체적으로는 독재자 개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까닭에 독재자의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편리한대로 제정되고 집행 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삼게 되고 국민에게 법을 지킬 의무를 가하는 이유는 이같은 독재 정치의 실태를 볼 때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 국민이 법을 지키고 다수결 원칙을 따라야 함은 기초적 요건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더욱 근본적인 도덕적 의무를 요구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률이나 다수결은 항상 옳은 것이 되어야만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수의 의사가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법도 나쁠 수가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국민이 법을 만들되 옳은 법,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절대적인 요청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법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국민 개인의 도덕적 양심에 있는 것이다. 정치직 차원에서의 도덕적·양심의 핵심은 공공 정신이다. 개인이 사리와 파당심을 버리고 자기가 사는 사회와 공익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법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공공정신으로 무장된 국민이 사리와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국가적 결정에 참여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국민대표를 선출해 낼 때 옳은 법이 제정될 수 있고 그 법은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권리도 진정한 의미의 권리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권리는 자기가 해야 할 일 또는 자기가 지켜야 할 일을 주장하는 속에 있는 것이며 사리와 사욕을 위한 파당적 주장 속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러므로 민주주의에서 자기의 권리를 옳게 주장하고 옳게 행사하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의 권리를 옳게 찾자면 우선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4. 자유와 책임

자유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으뜸가는 가치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이념도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가 없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라는 말이 세계적 유행어가 됨에 따라 본질적으로 반민주적 사상이나 이념까지도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도용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 민주주의는 개념상으로는나 실제면에 있어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혼란은 자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기본권이다. 즉 자유는 권리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권리는 옳은 것이라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권리로서의 자유는 옳은 자유라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자유란 옳은 일을 할 경우에 한해서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종이 되

는 것이다. 자유가 방종으로 변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가 아니라 방종한 사회가 됨은 물론이다. 자유사회가 인간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 사회라면, 방종한 사회는 인간을 가장 큰 불행으로 몰아넣는 사회이다. 방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동물과 동물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의 장으로 만들고 인간사회를 항구적 불안과 공포의 사회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자유의 가치가 큰 만큼 자유를 잘못 누리는 사회의 희생은 그만큼 큰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자유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건설하고 거식면에 있어서 높은 교양과 판단력이 있고 또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이런 일은 모두가 개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이런 여건의 구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자유는 더욱 많은 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요구한다. 19세기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주의 이념이나 세력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자유를 인간의 천부의 권리로 인정하고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는 가장 간섭이 적은 정부가 자유정부가 되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이 또 정신적으로는 모든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관용이 자유의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유는 인간에 의해서 수호되고 개척되는 자유이다. 자유는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 하는 것도 아니며 자명한 것도 아니다. 오늘의 공산 독재국가는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만을 말살하고 있지 않고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까지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런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는 국내 외의 반민주 세력에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자유민주국가 반민주적 사상이나 정당등을 불법화하는 이유도 바로 이점에 있는 것이다. 반민주 세력은 자유 사회의 모든 혜택을 받아가면서 집권을 한 후에는 자유사회 자체를 말살하려는 무서운 흥계를 갖고 있다. 자유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까지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전투력으로 대항하는 도리밖에 없다.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가 국가 안전보장에 역점을 두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일인 까닭에 개인에게는 그 만큼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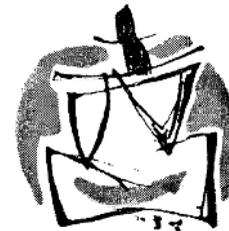
맺는 말

권리는 당연히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권리의 주장에 앞서 우리는 무엇이 권리인가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속에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권리와 의무는 표리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권리는 이같은 도덕적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자유는 자유 수호를 위한 개인의 더욱 큰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보았다.

한국적 민주주의

- 그 주체와 본질 -

최창규
(서울대 교수)



1. 민주주의 사상과 민주정치 역사

인간이라는 주체 앞에서는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도 그것이 이룩한 역사 때문에 소중하다. 한편 그 같은 역사는 또한 인간이란 주체 앞에 구체적 행복을 실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더욱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다. 그래서 민주주의 이념은 이제까지 인류가 체험한 많은 정치이념 중에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주저없이 승인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상이나 이념에 있어서도 앞에서 든 우리의 전제에서 결코 벗어날수는 없다.

즉 민주주의 사상도 그 사상 자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그것이 실천한 역사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며 또 민주주의 역사도 그것이 단지 민주주의에 의하여 실천된 역사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같이 실천된 역사가 구체적으로 인류에게준 활력과 행복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없이 소중한 것으로 된다. 여기에서 민주주의 신화는 구체적으로 인류라는 주체와 그것이 실천한 역사 뒤에 머무르게 된다.

우리는 한민족(韓民族)이라는 역사 주체임을 자랑한다. 이렇게 내세우는 역사 주체는 우리가 남보다 잘살기 때문에 소리쳐보려는 안락한 환상 때문이 아니며 또 우리가 남보다 잘살기 때문에 뽐내보려는 황홀한 자기도취 때문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남보다도 그 역사가 어렵기 때문에 역사의 더 많은 창조력이 요구됨을 자인하려는 알뜰한 주체이며 또 현실이 그 어느때 보다도 괴롭기 때문에 괴로워도 결코 살아나기야 함을 다짐하려는 절박한 주체인 것이다. 이같이 알뜰하고 절박한 주체인 한국인에게로 서구로부터 배워온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경험은 근 30년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그 30년은 한국사에

서 민주정치의 역사가 싸여온 귀중한 30년인 것이다.

사실 우리는 30년 전 그같은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한국의 모든것이 해 결될 수 있다는 과도한 낙관도 가져 보았고 또 오늘도 여전히 그 민주주의 사상을 떠나갈때에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싸여 온 저 30년 민주정치의 역사가 한민족 앞에 완전히 바람직한 그대로의 것이 되지 못하였다는 회의가 따르고 또 그 민주정치 역사의 활력이 완전히 한 민족이란 그 주체의 행복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제약이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민주주의 사상도 중요하지만 그 민주정치에 의하여 싸여질 역사의 활력이 더 소중하게 되고 또 민주정치에 의하여 싸여질 역사의 활력도 소중하지만 그 역사의 활력으로 살아가야 할 주체 한민족의 행복이 더욱 절실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정치사상으로 신봉하는 민주주의 사상 앞에 서 그것이 이룩하여야 할 구체적인 활력으로서의 한국사와 또 그것이 보장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복의 주체로서의 한민족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앞에 한국이란 상징이 강조되어야 할 근본적 이유인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이념은 출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앞에 한민족이란 그 실천 주체를 확인한 것이고 또 그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국이란 역사적 토양을 제공한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오늘의 한국사 앞에 가장 합리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이념이요 또 그것은 민주주의가 그 주체인 한민족의 행복을 최대로 효율적이기 위한 창조의 공식이기도 한 것이다.

2. 한국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곧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적 연속이다. 따라서 한국적 민주주의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대치하는 한국이 아니요 자유를 그 속에 담고 더욱 강조하는 한국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자유 민주주의 개념을 탄생시킨 민주주의 앞에서의 자유라는 접두어부터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민주주의 개념이 없건만 왜 민주주의는 근대 역사에서 자기앞에 다시 자유라는 접두어를 달아야만 하였을까? 그것은 한 마디로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도 자유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서독의 헌법이 제정되고 있던 당시 가장 합리적이며 민주적이라던 바이말(Weimar) 헌법 체제 하에서도 민주주의에 가장 역행하는 나치즘(Nazism) 독재의 쓰라린 현실을 체험하였던 독일인들에게는 어떠한 민주주의도 반드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에서 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밑에서 그들의 기본질서를 민주주의 앞에 다시 자유를 강조하여 자유민주주의로 표방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접두어가 붙여진 이래 거기에는 다시 그 환경과 현실의 요구에 따라 교도니(教導民主主義), 기독교니(基督教民主主義)하며 민주주의 앞에 붙여진 민주주의의 접두어는 근 3백개나 달하고 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기초 민주주의(Basic Democracy)니, 일당 민주주의(One Party Democracy)니 또는 무정당 민주주의(Partyless Democracy)니 하는 민주주의의 그 자체에 대한 사생아(死生兒)들 도 들어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 사상은 그것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역사의 토양(土壤) 위에서 그 현실의 요구가 항상 합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만약 그것이 그현실의 요구를 기능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잘 못 연결될 때에는 민주주의 자체를 한없이 약화시키는 변질과 사생아가 나올 수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자유민주주의는 1948년 서독의 헌법에서 자유라는 접두어가 붙은 이래 좁은 의미의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서구의 근대 역사를 수백년간 이끌어 온 합리적인 민주전통으로서의 그것인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자유 민주주의에도 본래 그 국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즉 자유민주주의의 주체는 근대 서구인 들이었고 그것이 성장된 토양은 바로 18~19세기 근대 서구의 역사였다. 다만 이같이 서구라는 문화권을 그 국적으로 하고 근대 서구사라는 역사를 토 양으로 성장된 자유민주주의가 근대 서구인들을 더없이 행복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것이 주는 효율과 합리성이 다시 세계 인류 앞에 설득력을 갖게 되었을 때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앞에 보편성을 갖는 민주주의 전형으로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과 그 민주주의 전형으로서의 성격만을 강조하기 이전에 그것을 진정으로 성장시켰던 서구근대사라는 그 구체적 토양과 그 위에서 역사의 활력을 얻은 근대 서구인들의 행복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이 자유민주주의와 뒤에서 확인되는 근대 서구사라는 권적(困籍)과 근대 서구인들이라는 주체에서도 그 자유민주주의의 구체적 실천력은 다시 18세기 프랑스인과 17세기 영국인이라는 보다 개별적인 국적과 연결을 맺고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자유민

주주의라도 그 영국형과 프랑스형은 서로 다른 것이다.

즉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의 절대적 보호를 주장하여 민주주의를 개인 중심적 합리주의에서 강조 하였던 「J·록크」에 의한 영국형은 어떻게 해서라도 절대군주로부터 개인의 자유보호가 절대 요구되던 17세기 영국적 상황의 산물이었으며 전체의 평등과 국민들간의 조화를 강조하여 민주주의를 전체 중심적 낭만주의에서 주장하였던 「J·록크」에 의한 프랑스형은 당시 농업 사회의 기반에서 민족의 통일은 있었으나 그 국민적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던 18세기 프랑스적 상황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앞에서 한국적 국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근세 서구라는 역사의 토양에서 핀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꺾으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그와 똑같이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한국사라는 우리 토양 위에서도 피고 자라게 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봉과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같이 한국에서 피어야 할 한국적 민주주의의 꽃은 도대체 자유민주주의의 그 어떠한 꽃일 것인가?

3. 한국적 민주주의의 본질

한국적 민주주의는 문자 그대로 민주주의 앞에 한국이란 주체가 상징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이란 주체는 한국사의 주체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실천주체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 앞에 붙은 한국이란 상징은 이제까지 자유를 비롯하여 민주주의 앞에 붙여져온 근 3백개의 그 어떠한 접두어와도 다르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붙여져온 접두어들은 그것이 자유든 교도든 모두 민주주의의 성격을 설명하고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붙여진 수식적이며 종속적인 접두어에 불과하다.

즉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강조되어도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교도 민주주의에서 교도가 아무리 강조되어도 그것 또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종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적 민주주의에서 한국은 민주주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붙은 단순한 설명적 접두어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실천 주체를 뚜렷이 밝히기 위하여 강조된 민주주의의 주체와 국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은 민주주의의 실천 주체인 것이며 민주주의는 그 실천 주체에 의하여 성장되고 인도될 문화이며 역사인 것이다. 그 결과 한국적 민주주의에서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식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민주주의가 그 실천 주체인 한국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고 공헌해야 할 공식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민주주의는 그 민주주의 속에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이란 주체의 행복에 최대한 봉사하고 한국이란 역사의 토양에 최대한 효율적이기 위한 창조공식의 공식인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적 민주주의의 기본적 성격은 우선 그 주체성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주체성은 민족이라는 주체가 갖는 최대의 창조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가 한국이라는 주체 앞에서 최대한 창조력을 지니기 위하여 당연히 민주주의 앞에서 그 주체인 한국의 주체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이 한국적 민주주의의 성격이 지니고 있는 민족적 주체성은 바로 자유 민주주의 앞에서 그 주체인 한민족의 창조력이 최대한 되기 위한 창조적 주체성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 민주주의의 한 주체인 한민족 앞에서 그 자유민주주의의 효율이 최대한 봉사하기 위한 효율적 주체성인 것이다.

또한 민족이란 주체가 지니는 주체성은 바로 국가란 주체가 가져야 할 정통성을 확인시키는 기반이 되기에(국가적 정통성과 민족적 주체성은 상호비례) 이같이 한 민족의 주체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려는 한국적 민주주의의는 당연히 그것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연결되어 지게된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기본 질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그 국가적 정통성의 기반으로 확인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적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민족적 주체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보다 효율적이고도 긴밀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연결될 수 있다 면 우리는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서도 자유민주주의에 우선하여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분단된 양체제 위에서 통일을 놓고 벌이는 경쟁은 결국 통일된 이후 한민족 앞에 하나밖에 없을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벌이는 경쟁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벌이는 경쟁은 결국 양체제가 지니는 국가적 정통성의 경쟁으로 또한 요약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이 통일 앞에서의 민족사 정통성의 경쟁에서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면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선택은 그 상황적 이유에서도 이미 자명하여지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통일이라는 한민족사의 사명 앞에 자유민주주의가 지닐 그 역사적 기능을 그만큼 효율화시키는 것이 된다.

이같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표방한 민족적 주체성 위에서는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과 한 민족이 역사 앞에서 지닐 민족적 효율성이 함께 수반되어 나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적 민주주의와 성격이 다시 제시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곧 총화성이라 할 수 있다. 총화성은 곧 자유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자유의 원리를 주장하되 [즉, 화(和)] 그것을 다시

전체주의에서 강조하는 평등의 효율(즉, 총(總)과도 연결시키려는 조화의 가치에서 나온 것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에서 강조되는 자유와 전체주의에서 강조되는 평등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 양(兩)가치이지만 그러나 이 양가치는 하나로 합일하지 못하고 끝내 평행선을 그어오고 있는 것이다. 즉 자유가 강조될 때 평등은 파괴되며 평등이 강조될 때 자유는 제약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우리의 민주적 전통에서 가장 특징적인 경애 사상과 한열 사상을 그 예표 들어보자.

경애사상은 도덕적인 가치에서든 화합적인 가치에서든 서로 차등이 있는 개인 사이를 조화시켜온 사상이었고 한열 사상은 하나(-)와 큰 하나라는 즉 개인과 전체를 조화시켜온 사상이었다.

즉 경애 사상에서는 100이라는 가치를 가진 인간과 50이라는 가치를 가진 인간이 똑같이 개인이라는 양(兩)주체로 성립하는 개인주의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때 100의 개인은 50의 개인에게 애(愛)로써 연결하고 또 50의 개인은 100의 개인에게 경(敬)으로써 연결될 때(공경) 그것은 이미 차별적인 별개의 개인은 아니다. 즉 100은 50을 자기와 같이 사랑할때 이때 50은 이미 차별적 50이 아니고 100과 똑같은 수준에서 100속으로 조화될 수 있으며 50은 자기가 50이라는 부족한 개인을 승인하되 항상 자기 이상인 100을 공경할때 그 50은 항상 100으로 향상될 수 있는 조화적 향상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곧 개인을 중심으로한 자유의 가치와 전체를 중심으로한 평등의 가치를 하나의 가치로 상호조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총화성은 자유민주주의가 강조하는 개인의 자유에다 전체주의가 강조하는 전체의 평등이라는 효율을 조화시킨 것이며 또 3명의 의사가 2명의 의사보다 반드시 선(善)하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근대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의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효율이기도 한 것이다.

4. 맺는 말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도 그것이 실천한 구체적 역사를 통하여서만 인간의 의식 속에 파고 들 수 있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가 인류의 의식 속에 보편화된 그 민주주의의 신화 뒤에는 앞서서도 이야기 하였듯이 근대 수백년 서구의 그 민주주의가 인류 앞에 보여준 행복스러운 민주주의 역사가 주는 설득력이 전제 되고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도 결코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즉 여기 오늘의 한국 상황에서 제시된 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그것에 의하여 실천된 구체적

역사를 통하여 인류 앞에 그 보편적 합리성이 호소될 때 그것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형, 새로운 사상체계로 정립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후세 사상사에서 민주주의의 개념은 반드시 그 한국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양정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70년대 한국의 토양위에서 돌아난 한국적 민주주의의 싹이 비록 상상이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역사 실천을 통하여 민주주의 정당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한민족의 활력을 더욱 감소시킨다 한다면 그때 그러한 한국적 민주주의는 부득이 민주주의의 사생아로 타락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까지 역사를 통하여 확인된 민주주의의 일반적 개념에서 제외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같이 한 민족에 의하여 주장되고 또한 민족사의 방향 앞에 비쳐진 이념으로서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있어도 구체적인 역사 실천을 통하여 한민족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인류의 사상속에 체계화 되어진 사상으로서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혁명 이후 프랑스 사람들에 의하여 표방된 자유·평등·박애의 이념에서는 근대 수백년 동안의 프랑스 민주주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 나왔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제시된 한국적 민주주의는 이미 실천된 민주주의를 앞에 놓고 정립하려는 안이한 사상적 정립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실천하기 위한 무거운 역사실천 의지로서의 그것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한국이라는 민주주의의 그 실천 주체를 중심으로 부각시켰다. 따라서 그것은 오늘의 한국이라는 그 실천 주체의 역사적 성취에 따라 주체적 민주주의도 될 수 있고 총화 민주주의도 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능률에 대한 실천적 보완인 동시에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역사적 수용 능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 세계 명언 ◆

◆ 지식은 잔식되어 무게 뿐 아니라 윤기도 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이라기 보다는 납으로 여겨지기가 일쑤일 것이다.

— 체스터필드 —

◆ 진정한 지식은 겸손하며, 세심하다. 면면하고 주체넘은 것은 무식한 것이다.

— J. 글랜빌 —

◆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 J. 랜돌프 —

- … 우리 배달민족의 반만년 역사 중 국난극복의 역사를 통하여 … □
- … 불굴의 민족정기와 살신보국의 거룩한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 □
- …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을 죽음 속에서도 건져낼 수 있었고, 또 … □
- …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간 우리 조상의 위대한 얼이었던 것이다. … □
- …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위대한 조상의 얼을 배워야 한다. … □

국난을 극복한 조상의 발자취



한경수

우리 배달민족의 반만년 역사는 멀리 거슬러 올라가 한무제의 한사군 설치에서부터 36년간에 걸친 일제의 침략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의적의 침략을 받아온 수난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구국을 위한 결사적인 겨레의 항쟁과 뛰어난 민족의 예지로 국난을 극복한 역사이기도 하다.

이에 국난에 처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 항쟁했던 우리 조상의 발자취 중에서 살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 장군과 구주대첩의 명장 강감찬 장군의 행적을 더듬어 보고 그 교훈을 따라 오늘의 우리 군인이 취하여야 할 정신자세에 대하여 서술코자 한다.

1. 을지문덕 장군과 살수대첩

가. 수의 침입과 고구려의 항쟁

한반도에 외적이 최초로 침입한 것은 고조선에 대한 한무제의 침입이었다. 한의 끊임 없는 침략에 고조선은 1년을 버티었으나 한에 비하여 후진이었던 고조선으로서는 한에 대항하기는 벅찬 상태여서 항전의 보람도 없이 결국은 패전하고 말았으며 한은 고조선의 땅에 한의 군현을

설치하니 이른바 한사군이다. 그러나 이 한사군도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항쟁에 못이겨 점차 소멸하여 나가다가 결국은 고구려에 의해서 그 최후의 군현인 낙랑군이 멸망함으로써 종식을 고했다.

그 후 중국에서는 한이 망한 후 200년간 분열과 혼란이 계속되다가 북에서 수(隋)가 일어나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하여 강력한 전제왕국으로 등장하였다. 수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자 그 세력은 고구려의 사정을 긴박하게 하였으며 이에 고구려는 수에, 대한 경계와 방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수의 침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군사행동을 취하게 되자 수는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었다.

고구려 영양왕(嬰陽王) 9년(598)에 수문제(文帝)는 30만의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요하(遼河)지방에서 고구려군이 공격으로 저지되고 그 위에 장기간에 걸친 풍우와 질병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수문제의 패배는 그의 아들 양제(楊帝)로 하여금 설욕전을 꾀하게 하였다. 허영과 야심이 만만했던 양제는 612년, 드디어 수륙 113만 3천의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양제가 거느린 육군은 2월에 요하 강변에 도착하였다. 이미 고구려는 수의 전쟁 준비를 정보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을지문덕의 지휘하에 요하 일대에 완강한 저지선을 펴고 수군의 도하를 기다려 일제히 진격하여 무찔렀다. 수군은 필사적으로 부교를 만들어 도하작전을 시도했으나 고구려군은 높은 곳에 올라 맹반격을 가하여 수군의 공격을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많은 희생자를 내고 강의 서안에 부교를 건설한 수군이 마침내 요하를 건너는 데 성공하자 고구려군은 난공불락에 자랑하는 요동성으로 철수하여 그 곳에서 수 개월 동안 수군을 저지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한편 수의 해군은 3백여 척의 병선에 분승하여 황해를 건너 대동강에 이르러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나 왕제 건무(建武)가 이끄는 고구려 해군의 유도작전으로 말미암아 전멸하고 말았다.

초조해진 양제는 우문술과 우중문을 좌우 대장으로 삼아 30만의 별동부대를 이끌고 평양성을 급히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을지문덕은 교묘한 소모작전을 수행하면서 대담하게도 거짓 항복하는 체하고 적진을 방문하여 적의 동태를 살핀뒤 교묘히 빠져 돌아왔다. 피로에 지쳐 적군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전의를 잃고 있음을 간파한 을지문덕은 진중에 돌아와 계속 패하는 체하고 철수를 거듭하여 적군을 살수를 건너 평양성 근처까지 유 하였다. 그제서야 유인당하여 위급함을 깨달은 적군이 황망히 철수하기 시작하자 미리 매복하였던 고구려 군사는 적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수군은 무수한 사상자를 내며 살수에 도착하였다. 을지문덕은 적군이 도강하기를 기다려 정예군을 준비했다. 고구려군은 적군이 강을 건느기를 기다렸다가 적군이 반쯤 강을 건넌을 무렵 일시에 들이치니 전사자와 익사자가 속출하여 30만 수군은 궤멸상태에 빠지고 수

의 장수 진세웅도 죽었다. 지리멸렬한 수군의 전열이 살수를 건너서 패주하자 을지문덕은 계속해서 적군을 추격했다. 수군은 또 다시 무수한 희생자를 내며 밤낮 하루사이에 압록강까지 460리의 길을 도주했다. 그리하여 30만의 수군 중에서 살아 돌아간 자가 불과 2,700명이었다고 전한다. 이것이 유명한 살수대첩으로 이진투야 말로 역사상에 빛나는 역사적 대승리였던 것이다.

살수에서의 참패는 수군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케 하여 양제는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양제는 몇차례 고구려 침공을 거듭하였으나 고구려는 번번히 이를 격퇴하였다. 고구려 침공의 실패는 618년에 수가 드디어 멸망하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나. 을지문덕 장군의 생애

세계전 사상 그 유례가 드문 살수대첩은 우리 역사상 찬연한 사실로 빛나고 있지만 그 전투의 총지휘관이었던 을지문덕 장군에 관하여는 우리의 기록이나 중국의 기록에도 별로 나타나 있는 것이 없어 그의 생애 및 인품, 공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굳이 그의 생애를 추정해 본다면 그는 평양에서 출생 하였다고 전하며 성은 「을지」로서 고구려 5부 중의 계루부(桂婁部) 출신의 왕족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구려에서는 처음 소노부(消奴部) 출신이 왕위에 올랐으나 뒤에 계루부 출신이 대대로 왕위를 계승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또한 고대 귀족사회에서 그 나라의 대신이 되려면 먼저 신분이 귀족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역시 그는 왕족 출신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의 생몰연대도 미상하며 살수대첩 이전이나 이후의 행적도 전혀 알 길이 없다.

단지 <그의 자갈은 침착하며 지략이 있었고 겸하여 문장도 뛰어났다>는 간단한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침착하고 용감하며 담대한 무장이었을 뿐 아니라 문장에도 꽤 능숙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그가 적진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수의 장수 우중문을 조롱한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신묘한 그대의 작전 천문지리를 통달했도다.

싸움마다 이겨서 공은 이미 높았으니,

족한 줄 알았거든 원컨대 이 싸움 그만 두기를.

이 얼마나 적의 신경을 괴롭히는 멋있는 시였던가.

결국 이 시로 인해 적장은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평양성으로의 진격을 서둘러 결국은 대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을지문덕의 위대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능숙한 소모작전 그리고 유인작전과 기습작전 등 뛰어난 전략, 전술을 자재로 발휘한 데 있다.

물론 을지문덕이 자신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인의 강인한 투지

에 힘입은 것이었겠으나 만일 을지문덕이 국민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일개 장수에 불과했다면 고구려 국민들이 그의 지휘에 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이고 또한 살수대첩과 같은 역사적 대승리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2. 구주 대첩의 명장 강감찬 장군

가. 거란의 침입과 고려의 항쟁

고구려가 망한 지 30여년 후에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호영이 만주의 길림(吉林)을 중심으로 발해를 세웠다. 그러나 발해는 200여년을 계속하다가 만주별판을 근거로 해서 새로이 대두한 거란에 멸망하고 말았다. 한편 한반도 내에서는 신라의 뒤를 이어 고려가 건국하여 고구려의 영토 수복을 이상으로 삼아 북진정책을 쓰고 있었다. 이에 만주에서 세력을 펴고 있던 거란과 고려의 대립은 필연적인 것이었으니 드디어 고려 제 6대 성종 12년(993년)에 거란의 장수 소손녕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의 서북변에 침입해 왔다. 고려군은 거란군을 맞아 싸웠으나 형세가 불리하여 패하고 거란군은 청천강 북안에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거란군은 더 이상 남하하기 어려움을 알고 고려에 항복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려의 조정에서는 주·화(主·和) 양론으로 갈리어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서희의 담판으로 오히려 압록강선까지 고려의 영토로 확장하고 거란을 철군시켰다. 고려가 이 땅에 성을 쌓으니 이른바 강동 6성이다.

그 후 두 나라의 관계는 원만했으나 기회를 엿보던 거란은 고려의 내정 문제인 강조의 변을 트집 잡아 고려 현종 원년(1010년)에 그 황제 성종이 친히 4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침입해 왔다. 고려에서는 이를 예견하고 강조를 행영 도통사(行營 都統使)로 삼아 30만의 대군으로 통주에 나아가 지키게 하였다. 거란군은 압록강을 건너 등화진을 공격, 포위하였으나 양규의 선방으로 실패하고 다시 통주로 쳐들어 왔다. 강조는 통주에서 거란군을 맞아 싸웠으나 사로잡혀 피살되었다. 거란군은 다시 남침하여 작산·안주 등 서북의 여러성을 굳게 지켰다. 고려 조정에서는 강조가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조건 항복하자는 의론이 지배적이었으나 강감찬의 제의로 현종은 멀리 나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이것은 먼저 거란군의 예봉을 피한 다음에 전력을 가다듬어 적을 섬멸하자는 계책이었다. 거란군은 개경에 돌입하여 분탕과 약탈을 자행하였다.

현종은 하공진을 적진에 파견하여 강화를 청하고 철군을 요구했으나 거란의 성종은 국왕의 무조건 친조를 조건으로 군대를 철퇴 시켰다. 거란군의 철퇴를 계기로 양규 등은 다시금 이들을 맞아 구주 등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거란의 성종은 본국으로 돌아간 후 고려왕이 친히 조공할 것과 강동 6성의 환부를 요구해

왔다. 고려가 이를 일축하자 거란은 다시 전쟁 준비를 하면서 압록강 연변을 공격했으나 고려군의 반격으로 그때마다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거란은 현종 9년(1018년)에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으로 제3차 침입을 단행하였다. 고려에서는 강감찬을 도원수,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20만대군을 거느리고 안주에 나아가 대기케 하였다. 강감찬은 압록강을 건너 홍화진으로 남침하는 거란군을 북병으로 요격하여 이를 대파하고, 강민첨이 이끄는 부대는 그대로 남침하는 거란군에게 곳곳에서 큰 타격을 주었다. 후퇴조차 자유롭지 않게 된 거란군은 바로 개경을 향하여 남침하여 다음 해 정월에는 개경 부근의 신계에 이르렀다.

이때 강감찬은 기민하고 뛰어난 전술로서 개경의 방위를 강화하여 방비태세를 갖추었다. 형세가 불리함을 깨달은 거란군은 개경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퇴로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군은 적의 퇴로를 지켜 곳곳에서 이를 요격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그 중에서도 강감찬·김종현 등이 구주에서 거란군을 맹렬히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으니 이 전투가 바로 구주대첩으로 살수대첩과 함께 우리 민족이 외적에 대하여 거둔 2대 승리로 꼽는 것이다. 10만의 대군으로 침입하였던 거란군이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을 넘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거의 30년에 걸친 고려에 대한 거란군의 침공은 결국 고려의 혁혁한 승리로 매듭을 짓게 되었다.

그후 두 나라 사이에는 국교가 재개되어 정기적인 사신의 왕래가 시작되고 대체로 평화적인 관계가 지속되었다.

나. 강감찬 장군의 생애

구주 대첩의 명장 강감찬은 948년 금주(현 서울 봉천동)에서 부유한 지방 호족인 강궁진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강궁진은 일찌기 고려 태조를 도와 훈공이 높아 <삼한벽상공신>이라는 칭호를 받은 지방 호족이었다.

강감찬의 성장 과정에 대하여는 전하는 바가 없으나 원래 영특한 자질인 데다가 학문을 좋아하고 가정의 생활환경이 부유하였으므로 아무런 부자 유없이 학문에만 정진할 수 있었다. 그는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982~997년 사이에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였다. 그의 나이가 서른을 훨씬 넘어서었다.

그의 관료로서의 출세는 늦은 편이었으나 그는 그 후 관료로서의 순조로운 길을 걸어갔는데 그것은 타고난 자질의 우수성과 유복한 환경 때문이었을 것이다. 1010년, 현종이 즉위할 때 그는 이미 <예부사랑>(외교와 문교의 행정 사무를 맡은 예부의 차관)이라는 높은 벼슬에 있었다.

현종 2년에 그 <국제주>(지금의 국립 대학 총장의 지위)가 되었고 그 후 한림 학사승지 좌산

기상시라는 벼슬로 전임되었다가 이어 중추사로 승진하였다. 중추사로 있던 그는 현종 7년에 다시 승진하여 <이부상서>(문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수석 장관)가 되었으며 현종 9년에는 서경유수에 임명되었다. 서경은 고려 3경의 하나로서 서경유수라는 직책은 결코 단순한 지방 장관의 자리가 아니었다. 당시 고려에서는 서경 유수라는 직책을 극히 중요시하여 장관급 이상의 인물을 파견하는 것이 상례였던 것이다.

나이 70이 넘는 강감찬이 유수로 임명되어 서경에 부임 하였을 때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한창 위급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려왕이 친히 조공할 것과 강동 6성의 환부를 요구하는 거란의 제의를 고려가 일축하여 양국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처했던 시기였던 것이다.

강감찬이 서경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현종 9년 12월에 예기했던 거란의 침략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예견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도원수가 된 강감찬은 처음 안주에 본영을 두어 20만 대군을 전선에 동원 배치하였다. 20만 군대라면 이것은 당시의 고려가 전방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대의 병력이었다. 그때 고려의 인구가 모두 200만을 조금 넘을 정도였으니 총 인구의 약 10분의 1이 전쟁에 징발된 셈이다. 그야말로 고려는 국력을 총동원하여 거란의 침략에 대항했던 것이다. 동원된 병력의 수도 많았을 뿐 아니라 그들을 지휘하는 도원수 강감찬의 작전과 전술이 또한 탁월하였다. 그는 안주에서 상세한 적정을 수립하고 적군의 주력이 집결되어있는 홍화진으로 진격하여 매복작전으로 거란군을 대파했다. 이 전투에서 강감찬은 우선 기병의 정예부대 1만 2천명을 선발하여 산골짜기에 매복시켜 놓고, 굵은 밧줄로 세가죽을 꿰어 흐르는 냇물을 막은 다음 적군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적군이 이르자 막았던 물을 트고 또 북병이 돌격하여 적을 크게 무찔렀던 것이다. 그러나 거란군은 계속 남침하다가 도처에서 격파 당하자 공격을 포기하고 철퇴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퇴각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던 강감찬은 패주하는 적을 요격하여 먼저 개천, 영원 등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혼란에 빠져있던 적군이 구주를 통과하자 강감찬은 그들을 맞이하여 일대 섬멸전을 벌였다. 때마침 폭풍우가 남쪽으로부터 몰아치는지라 강감찬은 그 기세를 타고 군사를 몰아 격전 분투하여 적군을 무찔렀다. 이리하여 석천을 건너 반령에 이르는 동안 적군의 시체가 들을 덮어 땅이 시뻘겍게 물들었으며 인마, 병기등 전리품은 셀수가 없었다. 거란의 10만 대군은 완전히 섬멸을 당하여 이때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명을 넘지 못하였다고 하니 고려측의 승리가 얼마나 빛나는 것이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 가 있다. 이렇듯 위대한 전승이 애국심에 불타는 장병들의 용감한 전투와 그들 장병을 지휘하여 탁월한 작전을 감행한, 강감찬의 무공에 의하여 거두어졌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리하여 3차에 걸친 거란의 침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무력으로 고려를 정벌하려던 그들의 야욕은 철저히 분쇄되고 말았다.

전승의 영웅 강감찬은 개선해 돌아온 후 온 백성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현종은 그의 공로를 찬양하여 은퇴를 정하는 그를 만류하고 <검교태위문하시랑 동내사문하평장사 천수현개국남>에 봉하여 극진히 대우하였다. 그후 현종 11년 그는 72세의 노령을 이유로 왕에게 은퇴를 청하여 겨우 승락을 받아 조종에서 물러났다. 그와 동시에 그의 벼슬과 작위는 더욱 높아졌으며 그는 덕종 원년(1031년) 8월까지 성남의 별장에 돌아가 학을 벗삼아 독서와 저술로서 유유자적의 생애를 보냈던 것이다.

향년 84세, 그가 죽자 조정에서는 3일간 정사를 폐하고 백관에 회장(會葬)을 명하여 장례를 두터이 지내 주었다.

고려를 국난에서 구출한 강감찬은 그의 경력과 업적이 너무 위대했던 것에 비하여 지극히 겸손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치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일찌기 자기가 가졌던 진도를 나라에 바쳐 군호(軍戶)에 나누어 주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강감찬의 고결한 인격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은퇴 후 초야의 생활을 하면서도 촌시도 국사를 망각한 일이 없었다. 개경의 방비가 소홀한 것을 걱정하여 나성을 쌓게 한 것도 그 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은퇴한 후 만년의 저술 <낙도교거집(樂道郊居集)>과 <구선집(求善集)>을 내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이와같이 강감찬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문무를 겸전한 위대한 인간이었다. 다시 말해서 강감찬은 외적의 침략에 처해지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조국을 구출한 명장이요, 평시에는 고결한 인품과 위엄있는 태도로 정사를 이끌어 나간 우리 민족의 위대한 별이었던 것이다.

3. 오늘의 군인정신

이상에서 말한 을지문덕 장군과 강감찬 장군외에도 우리의 역사 속에는 국난에 처하여 구국을 위해 자신을 바쳤던 인물이 무수히 많다. 가까운 예를 들더라도 임진왜란 당시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말할 것도 없고 진주 대첩의 김시민 장군, 행주대첩의 권율 장군을 비롯한 무수한 진용(眞龍)의 별들이 이 땅에 우리 조상의 빛난 얼을 새겼던 것이다.

이들의 정신은 명예,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 책임감등 오늘의 군인정신에 통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피속에 맥맥히 흐르고 있는 이러한 조상의 위대한 얼을 되새겨 우리 세대의 숙원이요 사명인 통일 대업을 이룩하고자 말겠다는 굳센 결의를 가다듬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100% 완수하겠다는 정신자세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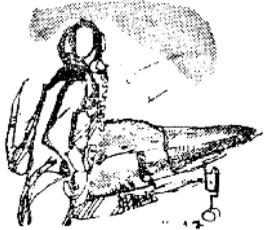
다듬어 굳건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여 우리의 영광된 역사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국가

송대성

1



우리 군인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둘째, 한치의 땅이라도 우리 땅이 우리 이외의 어떤 무리에게도 이용 내지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함이고, 셋째, 우리 국민의 삶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노력하는 온갖 사람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일할수 있도록 굳건한 방패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즉, 이 땅에 우리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국민+영토+주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러한 군인이 존재해야 할 지고의 가치 때문에, 비록, 국민들은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군복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먹을 식량을 마련해 주고, 우리가 잠잘 수 있는 숙소를 지어주고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돈푼이나 있다고 까불면서, 게다가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세계시장을 누비던 모 이웃 국민도, 기름 한 방울 얻으려고, 국제적인 우의고, 무엇이고 다 버리고, 변절하여 애교를 부리는 이 판국에, 생각할수록 미안하다. — 기름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이땅에서, 기름을 아끼느라고 콩나물 시루같은 버스 속에서 고생하는 국민들이 준 기름으로 출퇴근 버스를 편안하게 타기가, 조용히 생각할수록 감격스럽다. — 한국인으로서 이 시점에, 국민들이 지어준 군복을 입고 있다는 자체가— 군인이 국가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국가가 군인을 보호할 줄 모르고, 국민이 군인을 좋아할 줄 모르면, 뭐니뭐니 해도 그것이 바로 국가가 망 하고, 국민이 망하고, 주권이 무너지고, 영토가 없어지는 첫째 조건이다. 이렇게 따져볼 때, 국민이 군인에 대해서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갖고서 대하느냐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 존망의 온갖 열쇠를 쥐고 있는 군인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국가 전체의 사활(死活)의 문제라고 아니 할수 없다.

군인이 가지는 국가관이 바람직하면 할수록 국가도 번영하고 군대도 보다 큰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국가도 망하고 군대도 힘이 없어진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이다. 예를 들면, 신라군인의 정수인 화랑도의 바람직한 국가관은 신라 사회 전체를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여, 결국 삼국통일의 위업까지 남겼고, 이순신 장군의 바람직한 국가관은 당시의 국난 극복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의 삶에 자신과 용기를 준 영원한 활력소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원군의 바람직 하지 못한 국가관은 당시 수군의 멸망은 물론, 하마터면, 국가까지 송두리째 망해 버릴뻔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 일본의 최근 세사에서 볼 수 있었던, 젊은 소장층 장교들의 황도주의(皇道主義) 국가관은 일본 역사의 수레바퀴를 종전의 궤도에서 완전히 탈피시켜 일본민족의 혼을 일깨워주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따져볼 때, 군인이 갖는 국가관이 어머니에 따라 국가의 번영과 민족의 삶의 방향이 발전을 향하여 줄달음칠 수도 있고, 혹은 퇴보의 구렁텅이로 빠져 버릴 수도 있다.

국가는 국가끼리, 민족은 민족끼리, 생존(Survival)이라는 문제를 두고 이토록 심각해지는 요즘, 천혜(天惠)의 조건을 힘입었느냐 힘입지 못하였느냐에 따라, 이처럼 뽐낼 수 있느냐 혹은 서러움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환희와 불안속에 법석을 이루는 요즘, 우리 한국인으로서 느껴지는 감회도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군복을 입고 있는 청년장교라는 입장에서 조용히 생각해 볼 때, 골수에 사무쳐오는 감회가 또한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감회는 세계 강국으로 행세하는 미국의 청년장교가 느낄 수 있는 감회가 아니며, 경제동물이라는 별명 속에 돈맛에 톡톡히 넋을 잃고 흥청대고 교만을 부리는 일본의 자위대 간부들이 느낄 수 있는 감회도 아니며, 세계사 속에 멋진 이미지(Image)를 심어준 덴마크나 이스라엘의 청년 장교들이 느낄 수 있는 감회는 더구나 아니다. 그것은 자꾸만 주먹이 쥐어지는 감회요, 혹은 답답한 감회며 분단된 한반도를 내려다 볼때, 가슴 아픈 감회다.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 몸이 동강나고 싶은 감회며,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통곡하고 싶은 감회며, 옛날의 조상들이 유린당한 사실을 회상할 때는 칼로 배를 가르고 싶은 감회다. 온갖 자기 이익 계산에 밝아 「내가 왜 군에 가서 일생을 손해보니?」 하는 풍조속에서도, 각종 유혹을 물리치고, 한 줌의 흙으로 변해갈 때까지, 죽어도 국가를 생각하면서 살아도 국가를 생각하면서, 살다가 가기 위해 사관학교를 지망하여 오는 학생들을 볼 때, 눈물 나는 감회다. 이런 감회들은 단지 한 청년장교만이 느낄 수 있는 감회는 아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다 잠시 생각하면 금방 느낄 수 있는 감회다. 이러한 감회들이 오

직 감회로서만 끝나서는 결코 되지않는다. 조용히 정리하고 음미하여 군인 된 자는 누구든지 가슴속 깊이 가치체계(Belief System)로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군인이 갖는 국가관이라고 할수 있다.

내 땅을 지키고, 내 민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文) 보다는 무(武)의 편에서서, 뛰고, 달리고, 몸부림치다가 일생을 마치고간 수 많은 무인(武人)들! 혹은 군인(軍人)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 시대가 요청하는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국가관이 있었으리라. 그러면 조국도, 민족도, 국가도, 국민도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땅을 지키고, 이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군복을 입고 있는 우리 한국 군인들이 가져야 할 국가관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할까?

2

첫째 : 민심(民心), 천심(天心) 천명(天命)의 입장에서……국가를 보호하자.

맹자(孟子)의 진심장구하십사(盡心章句下十四)에 보면 「인민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社稷)이 그 다음이고, 임금이 가장 경(輕)한 존재다.(民이 爲貴하고 社稷이 次之하고 君이 爲輕하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이 없으면 국토(國土)도 존재 할 필요가 없으며, 국민이 없다면 정부(政府)도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만약 국민이 없다면 군인도 존재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다. 국토가 필요한 것도, 정부가 필요한 것도, 군인이 필요한 것도 오직 『국민의 삶』의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국토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은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정부의 힘도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서 바쳐져야 하며, 모든 군인이 가진 힘은 더구나 송두리째 내국민의 삶을 위하여 헌신되어야 한다.

어떤 군대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겸비하여야 할 요소들이 여러가지 있다. 물질적인 장비도 갖추어야 하고, 군기(軍紀)도 엄하여야 하고, 평소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훈련도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적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도 있어야 하고 … 이밖에도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民心)을 사로잡고 있는 군대야말로 가장 강한 군대다. 민심을 바탕으로 하여 자라는 군대는 만고창성(萬古昌盛)이요, 영구불멸(永久不滅)이다.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군대와 공산주의 군대가 맞붙어 싸운다면 반드시 민주주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생도 교육에 자신 있게 임하는 사람이다. 공산주의 군대의 최대의 약점은 민심을 배반한 군대다. 오직 강압적인 명령만 지상 최대의 생명으로 삼고, 폭력(Power)에 의해서만 몰고 가려고 발버둥 치는 군대다.

그래서 일단 일이 터지면(전쟁이 벌어지면) 초기 단계에는 잘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심을 배반한 군대는 한갓 소모품으로서 숫자가 줄어들고, 어느 곳이든지 명령체통이 한 군데만 두절되면 전부가 마비 상태가 되어 버린다. 평소 인민들을 놀러대기 때문에 인민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동원체제(動員體制)가 이룩되지 못하며, 결국은 패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 — 진정으로 온 국민의 내 나라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대가 제일 좋은 군대라고 생각하는 — 군대는, 존재 이유 자체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국민과 군인은 심적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버린다. 민심을 기반으로 한 군대에게 가는 곳 마다 보급품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우(戰友)가 되어 버린다. 군인이 죽어 넘어질 때, 국민들은 가슴아파 하기에 스스로 온 국민들은 전장(戰場)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게 된다. 월남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전쟁에서 민심이 어느정도 중 요한, 승리의 요인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래서 옛날부터 민심은 천심(天心)이라고까지 하였다. 맹자(孟子)의 만장장구상오(萬章章句上五)에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인민들이 보는 것을 따르고 하늘이 듣는것은 우리 인민들이 듣는것을 따른다(天祖自我民視하며 天聽이自我民聽이라)」라고 이야기한 것만 보아도 민심의 위력이 어느정도며 민심은 바로 천심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알 수있다. 민심이 천심일진대 민본주의(民本主義)는 천명사상(天命思想)과 결부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심을 받드는 군대는, 천심(天心)을 받드는 군대며, 천심을 받드는 군대는 천명(天命)을 받드는 군대다. 국민이 배고파 할 때, 군인도 같이 굶을 줄 알고, 국민이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을때 사랑하는 내 국민이 다칠까 두려워 군인은 초개같이 목숨을 버릴줄 알며, 사랑하는 내 국민이 이민족(移民族)으로부터 어떤 수모(受侮)를 당할 때, 내국민을 아끼는 마음에서, 투쟁의 대열에 용감히 달려가서 피를 흘릴줄 알며, 내 사랑하는 국민이 건설의 꿈에 무한히 부풀어 있을 때, 한없는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북을 치면서, 찬가를 불러 줄 줄 아는 군인이야말로 천명을 받드는 군인이다.

군인은 생명을 다하여 국가를 보호 하여야 한다. 그 보호하는 자세는 천명의 사상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천명 은 천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천심은 민심에서 흘러 나와야 한다. 민심(民心) — 천심(天心) — 천명(天命)의 입장에서 국가를 보호할 때, 군인도, 국민의 군인이 될 수 있고, 국민도 살 고, 군인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둘째 : 내 땅을 지키다는 입장에서 극도로 국수주의(國粹主義)적인 입장에서…… 국가를 보호하자.

예나 지금이나 세계사의 흐름속에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세계 역사의 수레 바퀴를 돌리는 국

가는 강대국들이며, 그렇게 강대국이 된 저변에 깔려있는 사상은 『내 민족 혹은 내 국가가 어느 민족 혹은 어느 국가보다도 제일 좋고 훌륭하다. 이는 국수주의 혹은 민족주의 속에서 국민 혹은 민족전체가 미쳐서 뛰고 달렸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정치는 강대국 중심의 정치였으며, 강대국이 되는 필수적인 조건은 국민 혹은 민족전체가 고도의 국수주의 혹은 민족주의 속에서 목숨을 걸고서 단결하였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국제정치사상에서 국수주의니 혹은 민족주의니 하면 그것은, 즉시 독재주의적인 방향으로 몰아치고, 급기야는 이상한 색안경으로 보게 마련이다. 그도 그럴것이 지금까지 민족주의에 광분한 정치지도자(Power elite)치고 독재자 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원통한 사실은 바로 이점이다. 과거에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 속에 뛰고 달리고 하던 민족, 국민들은 이미 강대국이 되어 버렸고 이제는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 하면,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이 풍조가 원통하다. 이 사상이 가증스럽다. 어떤 민족이 가지는 힘 중에 가장 강한힘은 우리 민족도 세계 어느 민족에 못지 않다는 신념에 차있는 민족이다. 군인의 가슴속에는 늘 국토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고, 우리 국민들이 살고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국토! 이 세상의 온갖 값진 보배보다도 가장 고귀한 보배로 국토에 대한 사랑이 가슴속 깊이 느껴질때, 군인으로서 진정한 기쁨은 맛보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한국 땅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땅을 지킨다는 입장에서는 극도의 국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내 국토는 내 민족의 삶과 함께 온갖 애환이 얽혀있는 곳이며, 을지문덕, 강감찬, 세종대왕, 사육신 및 생육신, 신평사현, 이순신 장군, 광개루, 고경명, 김천일, 서산대사, 김 구선생, 도산 안창호, 안중근 의사, 이 준 열사, 장인환, 전명운, 이재명, 윤봉길 의사 ... 등 수많은 기라성 같은 성현(聖賢)들의 뼈가 묻혀 있는 곳이다. 우리 민족끼리 그 동안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아름답게 지어놓은 집들이 있고, 조상 때부터 열심히 걸어다닌 아름다운 산길들이 있고, 곳곳에 맑은 샘물이 있고, 그 옆에 지키고 있는 정자 나무에는 우리 언어로 된 아름다운 전설들이 주렁 주렁 매달려 있는 내 국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석탑이 있고, 민요가 있고, 춤이 있는 내 국토! 세계를 돌면 돌수록 그리워지고,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그리워지는 내 국토! 이렇게 절실하고, 이렇게 가슴속 깊이 사무치는 곳은 내 땅이외는 세계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심장을 가진 남자라면, 이 국토보다 더 값진 보석을 찾을 수 없으며, 맥맥히 흘러온 민족사를 한 줄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이보다도 더 큰 보배는 없다고 생각하리라.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은 군인들은 누가 무어라 해도 좋다.— 욕을 해도 좋고 흥을 보아도 좋다— 내 땅을 지킨다는 입장에서는 극도로 국수주의자가 되는 길 밖에 없다. 어떤 보석이라도 값지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내 보석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하한 보석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함부로, 남에게 빼앗기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보석이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家寶)라면 후손된 자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침범하는 외적에게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유효한 것은 폭력 밖에 없다. 국민은 안심하고 이 폭력을 군인에게 맡겨주며 군인은 이 고마운 폭력을 내 땅을 지킨다는 목적에서는 가차없이 국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유감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 국수주의적인 폭력은 내 민족 내 동포를 조금이라도 괴롭히는 자에게도 유감없이 행사되어야 하며, 잃어버린 내 땅을 찾는 데도 행사해야 하며, 엄연히 우리 땅인데도 공연히 자기 땅이라고 생트집 잡는 자들에게도 국수주의적인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 더구나 민족을 분열시키고 동족상잔(同族相殘)을 일삼는 무리들에게는 이 국수주의적인폭력은 천명(天命)을 받들어 행사 되어져야 한다. 군인만큼은 내 땅을 지키고 내 민족, 내 국민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극도로 국수주의적인 사고방식속에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강대국 정치인 국제 정치의 상황속에 살아남을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세째 : 제가(濟家)는 좀 뒤로 미루면서... 국가를 보호하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봉사(奉仕)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분야에 가서 봉사하던 거기에는 그 분야만이 요구하고 있는 독특한 생활철학(生活哲學)이 있게 마련이다.

군인이라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생활철학은 국민을 위한 희생정신 이라고 할 수 있다. 희생이란 남이 놀 때 같이 놀고, 남이 즐길 때 같이 즐기고, 남이 잠잘 때 같이 잠자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같이하기 싫어하는 상황에서는 엄두도 내어볼 수 없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잘 아는 「자기의 교양을 쌓고, 집안일을 잘 돌본 후에, 나라일에 봉사하자(修身濟家治國平天下)」라는 이야기 중 우리 군인된 입장에서 꼭 음미하여 볼 것이 하나 있다. 군인의 경우, 우선 수신(修身)은 꼭 하여야 한다. 군인은 교양(教養)을 갖추어야 한다. 계급은 반드시 인격(人格)과 동반하여 올라가야지, 인격은 저 밑에 남겨두고 계급만 올라갈 때 그것 때문에 미치는 악영향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옛 부터 군인에게는 용맹(勇猛) 보다는 지식(知識), 지식 보다는 덕(德)을 더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용맹이나 지식을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는 추호도 아니다. 용맹도 갖추고, 지식도 겸비하되 덕(德)을 빼놓고는 용맹이나 지식이 제기능을 발휘하기는 커녕 부작용이 오히려 많다는 것이다. 명장(名將), 성웅(聖雄)치고, 덕을 겸비 하지 못한 사람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하여 한 사람도 없다. 덕을 겸비한 군의 지휘관 치고, 부하로부터 존경받지 않는 지휘관은 없으며 덕을 멀리한 지휘관치고 지휘관으로서 성공하였다는 이야기 듣지 못하였다. 군인이 수신(修

身)하지 않으면 민심(民心)을 잃지 않을 수 없고 실민심(失民心)하여 전쟁에 승리한 군대는 없다. 그래서 군인은 꼭 수신은 하여야 한다.

군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濟家)이다. 남에게 희생을 하는 직업치고 자기의 실속과 이익을 다 차리고 제대로 제 기능 다하는 직업을 보지 못했다. 군인에 대한 첫째 정신은 국민에 대한 희생정신이다. 이와 같이 희생정신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군인이 지나치게 자기의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자기 집안일에만 신경을 쓰다가 보면, 야기되는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은 하나에도 국가, 둘에도 국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신분이다. 다른 신분은 몰라도 군인이란 신분은 이것 때문에 “군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군인이 “어떻게 하면 내 집이 남 못지않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동생들, 내 형제들이 남보다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내 부인을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만족하게 하여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 못지않게 큰 집이라도 하나 장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집 자식처럼 내 자식들도 자가용 타고 다니게 할 수 있을까?”...등의 생각속에 살아간다면, 그리고 부지런한 선의(善意)의 노력을 하지 않고, 온갖 부당한 노력을 하여서라도 물질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군인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군인에게 사기치는 가짜 군인이다. 지나친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 적인 생각속에 제가(濟家)에 신경쓰는 군인치고 제대로 국력(國力)에 도움되는 군인을 보지 못 하였다. 군인이 물욕(物慾)에 빠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군인은 빈자(貧者)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군부(軍部)에 만든 항상 청빈(淸貧)한 바람으로 가득 차야 한다. 어떻게 해서 군인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수있다는 말인가? 정해진 봉급에 어떻게 해서 군인의 부인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없이 살 수 있단 말인가? 부모의 유산이라도 있으면 몰라도 어떻게 해서 군인이 몇 백 만원씩 하는 고급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제가(濟家)는 정도 문제다. 만약에 기준이 물질적으로 잘살고 풍요한 것에 바탕을 둔 제가(濟家)라면 가도가도 끝이없고 군인의 신분으로는 평생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우리는 잘못된 제가(濟家)에 대한 태도 때문에, 군복을 입은 군인 아닌 도둑놈들이 냉정히 심판 받았던 사실도 쉽게 기억할 수 있다. 군인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검소하게 사는 것은 득(得)이 될지언정, 해(害)가 되는 것은 조금도 없다. 군인 모두가 검소하게 살면서, 허리를 졸라매고 국민의 선봉에서서 눈물겹게 청빈한 생활을 할때, 국민과 군인은 일순간에 혼연일체가 될 수 있다. 군인이 민심(民心)을 사로잡을 수 있는 첩경은 국민의 최저 소득층 속에 같이 어울려 국민의 고난을 몸소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생활하는 길 밖에 없다.

3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國民), 영토(領土), 주권(主權) 즉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군인이 갖고 있는 국가관이 어떠한가에 따라 국가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국가는 국가끼리, 민족은 민족끼리 생존(Survival)이란 문제를 놓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는 요즘, 이 땅에 군복을 입고 있는 자는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다. 오늘날 한국 군인이 가져야 할 국가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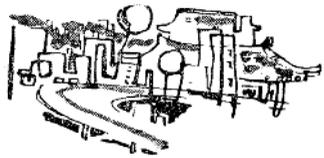
첫째 : 민심(民心) — 천심(天心) — 천명(天命)을 안고서 ... 국가를 보호하여야 하고

둘째, 내 땅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극도로 국수주의(國粹主義) 적인 입장에서 ... 국가를 보호하여야 하고,

셋째 : 제가(濟家)는 좀 뒤로 미루면서 ... 국가를 보호하여야 한다.

주체성과 조국근대화

김영태



정훈 교육자료

1. 민족주체사관과 경제발전

민족주체성이란 국가이익을 존중한다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민족주체의 의지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갖는다. 내정의 쇄신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꾀하려는 내향적 민족주의가 있는가 하면, 민족의 힘을 외부로 발전시키려는 외향적 민족주의도 있다.

그리고 외향적 민족주의는 침략을 발전의 수단으로 삼는 제국주의와 평화적인 무역을 발전의 수단으로 삼는 수출주도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족주체사관의 구체적 전개과정은 재건 국민운동, 제 2경제론, 국민교육헌장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발전과정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다름아닌 민족의 자기 혁신 운동이요 민족중흥운동이다. 국민교육헌장은 개인윤리로서의 창조와 개척정신, 사회윤리로서의 협동정신과 국가에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강조하는 한편, 민족중흥을 위한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윤리의 보편적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에게 근면한 생활태도를 갖게 하기 위한 자조정신과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정신, 그리고 함께 잘살아보려는 협동정신을 진작시키려는 것이다.

역사의 발전이 인간의 이성, 즉 가치관과 그것에 입각하는 생활태도에 의존하는 만큼, 이러한 민족부흥운동은 바로 경제개발 전략이다. 대부분의 구미학자들은 경제발전을 자본과 노동 그리고 노동의 질을 뜻하는 기술이란 물질적 생산요소만으로 설명하려 한다. 즉 자본과 노동, 기술만 있다면 경제는 발전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논법이 옳다면 노동의 양이 풍부한 나라

는 부족한 자원과 기술만 외국으로부터 빌려오면 경제는 자동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구미 제국중 발전한 나라는 종교개혁에 의해 우리가 국민교육헌장이나 새마을운동에서 제시한 윤리적 규범이 확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신적, 윤리적 바탕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발전을 자본, 노동 및 기술이라는 물질적 요소로만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는 청교도의 사회가 아니라 유교적 가치관과 생활태도에 젖어 있는 사회인 것이다. 만약 서구와 동일한 문화적, 종교적 전통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 문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교육헌장과 새마을 운동을 필요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서구인의 민주주의와 오늘의 물질 문명은 서구적 정신문화가 지닌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형성발전 되었기 때문이다.

「칼비니즘」이 제시하는 가치관과 생활윤리, 즉, 생산자는 근면과 능률적 생산으로 소득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는 검소한 생활로 보다 많이 저축하며, 사회인이나 직업인은 협동하여 사회적 기능에 충실하고 봉사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며 실천하는 생활 윤리가 확립되어 있다면 경제가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직업을 통한 사회적 협동으로 국가적 기능을 다 할 것이므로 국가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리하여 경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의 조달과 기술의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여 온 제 2경제 운동, 국민교육헌장, 새마을 운동은 우리의 역사적 전통인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서구문화의 장점을 도입하여 한국에 알맞은 새로운 정신문화를 창조하려는 일련의 정성 어린 노력이었으며 우리 민족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중진국 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굳혀 놓았다.

지난날의 근대화론은 산업화·합리화·능률화 그리고 민주화를 강조하면서도 이 모든 역사적 과제가 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민족주체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점을 간과해 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역사적 과제로 삼고 있는 근대화는 실로 자율적 자기결정의 주체가 되려는 근대 국가화 과정에서의 주체성이며, 나라 안에서는 모든 국민이(내 나라 의식)의 일체감으로 굳게 뭉친 국민 주체화이다. 따라서 근대화의 윤리적 과제는 국민각자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체적 자각을 가지고 (민족국가)라는 새로운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기를 동일화하는 사회통합이며 그 내면화의 과정이다.

2. 정신적 근대화

우리 모두가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서 인간의 윤리적 근대화의 선도자로서 교도의 윤리적

인격으로 자기를 형성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한 유신은 인간혁신에서 비롯되며, 이 사회의 윤리적 풍토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민주적인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데서 성취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일상생활과 직장과 대인관계에서 윤리적 근대화의 바람직한 전형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대적 윤리는 어디까지나 독립·자존하는 개인의 자율적 인격을 기본으로 하여 개인이 자기결정의 주체로서 행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고도의 가치체계이다. 그것은 또한 자율적 인격으로서 스스로 얻은 경험과 자기판단을 믿으며, 자기를 존엄한 존재로 자각하는 개인의 존엄성의 윤리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근대적 개인은 국민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확실히 인식할 때 진정한 윤리적 근대화가 달성되는 것이다. 건전한 국민적 공속감도 애국심도 없을 때, 국민적 연대감이 결여된 자기중심의 개인은 쉽사리 사리사욕에 빠지기도 하고 임무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다.

윤리면의 근대화는 경제개발과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근대적 인간의 자기형성을 표방한다. 근대적 인간의 특징은 다음 9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적극적 자세와 혁신 및 변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
- ② 자기의 직접적 환경 뿐만 아니라 그밖의 온갖 문제나 논점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려는 태도
- ③ 과거보다는 현재나 미래를 향하려는 태도
- ④ 사회화와 조직화를 피하고 그것을 진척시켜 생활영위의 방법으로 믿는 태도
- ⑤ 환경에 전적으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전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환경을 어느정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
- ⑥ 세계에는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 법칙이 있다고 믿는 태도
- ⑦ 타인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타인을 존경하는 태도
- ⑧ 설사 전근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과학과 기술을 신뢰하는 태도
- ⑨ 보수는 자기의 공헌과 무관한 사람의 자의(恣意)나 특별한 재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헌에 대한 응분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 태도

이상과 같은 9가지 근대적 인간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 도상국가의 새국민을 만드는 윤리적 규범이 될 수 있다.

유신은 격변하는 현실에 대한 주체적 체제개혁이므로 체제개혁에 앞서 인간의 자기혁신이 단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체제를 지탱할 유신적 지도력도 각성한 국민이 없다면 그것은 불안정한 유신밖에 되지 않는다. 지도층은 솔선해서 모든 생활영역에 선 자기혁신을 통해 국력을 조직화하고 가속화 할 수 있는 선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낡은 관료주의적 인물, 경제개발의 정책적 지원을 단순한 치부의 호기로 삼는 반사회적 기업인의 습성,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생긴

사치와 낭비의 비경제적 소비풍조는 중흥조국을 위해 모두 유신되어야 한다. 유신은 반국가적, 반사회적 독소를 근절하여 중단없이 전진하는 나라로 중흥하려는 대혁신 운동이므로, 유신의 원동력은 국민이며, 지도자를 선두로 한 모든 국민의 참여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유신적 인간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순신 장군처럼 애국하는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항상 호국의 제단에 몸 바칠 결의와 생사관이 확고해야 한다.

둘째, 자립의 의지로 뭉친 중흥의 주역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동서 냉전체제의 퇴조에 따르는 이념적 변동기에 민족 주체 사관과 유신이념으로 재무장한 새로운 가치관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하고, 모든 반한국적 세력과의 대결에 과감할 것을 다짐하는 조국의 호국 용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안일과 타성을 버리고 현실을 통찰할 줄 알며 기민하게 주체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능동인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평화수호의 역군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는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민족적 양심에 찬 굳은 간성이 되어야 한다.

3. 국가발전의 요건

가. 발전의지

스스로 될 생각도 없었는데 위대한 과학자가 된 사람이 없고 스스로 될 생각도 없었는데 위대한 철학자가 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개인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잘되어 보겠다는 발전의지가 그 개인, 그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발전의지라고 함은 하나의 게으른 공상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적할 수 있다. 올바른 발전의지는 적어도 발전에 대한 욕망, 발전성취의 자신, 필요한 노력에 대한 각오의 세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나. 노동정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게 된다」는 서양 속담이 있듯이 능력과 자원이 같은 경우 부지런한 개인과 민족이 보다 큰 성취를 얻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 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남달리 부지런하면 능력과 자원의 제약을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토끼와 거북의 우화에서 잘 나타난다. 지금 우리나라는 빈약한 자원을 가지고 남이 100년 걸려 성취 한 근대화를 10년에 성취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노동정신이 요망된다. 모든 국

민이 맡은 일에 다른나라 사람들이 8시간 일할 때 10시간 일을 하고 10시간 일할 때 12시간 일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 도덕적 사회규범의 확립

한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예절바르고 윤리적인 민족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는 예의는 커녕 법도 안 지키는 예가 너무도 허다한 무규범의 사회가 되고만 감이 없지 않다. 이것은 물론 지난 1세기 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은 특수한 경험과 오늘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급격한 변화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아뿔튼 사회규범이 재확립되어 윤리적인 사회관계가 재형성되지 않고는 국민총화가 불가능 할 것이며 국가발전을 위하여 국민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동원되는 일이 어려운 것이다. 사회규범의 윤리화는 정의와 타인존중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첫째, 부정이 제거되고 정의로운 사회 생활이 이룩되어야 하며 둘째로, 모두가 남의 의사와 복리를 존중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의 이익, 편의, 기분을 고려치 않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해서는 국가발전이 있을 수 없고 새 역사의 창조가 있을 수 없다.

라. 청부(淸富)사상

과거에 청빈(淸貧)이 우리 문화에서 높임을 받았다. 그러나 청빈의 그 글자중에 강조되어야 할 것은 빈이 아니라 청미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가난한 것이 미덕이 아니고 생활이 청렴한 것이 미덕인 것이다.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낫다면 특히 경제성장을 통하여 국력을 조속히 배양해야 하는 이 마당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권장할 것은 청빈이 아니라 청부일 것이다. 청부가 청빈보다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청빈은 적극적인 행동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청부는 행동의 적극성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란 것을 강조하고 정부사상만이 국가경제 건설의 길이라는 것을 못 박아야 할 것이다.

마. 공익정신

손익계산을 떠나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개인의 성취는 그것이 학식이든, 권력 이든 명예든 또는 사회적 지위이든 사회 없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성취를 가능케 한 사회의 공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윤리적인 자세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한국은 중대한 역사적 과업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우

리 역사를 새로운 영광된 자리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힘과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요청된다. 그와 같은 총화적 노력을 조직화 하려는 것이 새마을운동이요 10월유신이라고 할 때 모든 국민이 평협한 이익 추구를 버리고 <공익속에서 공익을> 또는 <공익속에서 사익을> 찾는 자세로 이와 같은 총화적 과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4. 주체성의 확립

끊임없이 변동하여 가는 국내의 정세는 그 변동에 대응될 수 있는 인간활동의 적응능력이 끊임없이 증진될 것을 요구하면서 일정한 질서 체계가 확립 발전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상적(事象的) 변동 상황에서 변동 관리의 주체인 인간 집단의 의식 구조가 변동의 속도와 병행적인 차원에서 발전되어 나가지 못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무질서와 혼란을 빚어내게 된다.

우리가 오늘날 조국의 근대화를 의욕하고 또한 그 의욕을 실현시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의 변화를 스스로 유발하려는 자기발전의 의욕 실현인 것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표피적인 외래 문명의 수입 모방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며, 또한 주체성의 부르짖음 만으로써 자위하고 있을 때도 아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내디뎌 민족적 주체성의 고조 현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국가 이익을 가져다주며, 또한 한국적 체취가 풍기는 근대화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게 될 것인가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음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고차원의 가치 체계하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좌표를 세계 속에서 찾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발전 진로를 뚜렷이 밝혀 나갈 수 있는 동시에 오늘의 근대화 작업이 무엇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뚜렷한 「이미지」가 우리 가슴속 깊이 뿌리박게 되어 자각적인 주체 관념이 더 한층 고조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주체성이란 국난에 직면한 국민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난극복의 위대한 지도자를 떠받들며, 그 지도자는 난국타개의 슬기와 용기를 가지고 국민의 나아갈 길을 밝힐 때 얻어지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국민을 국토방위의 호국전선에 쫓아내었던 「윈스턴 처칠」의 지도력이 이룩한 총화가 바로 그러한 주체성이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휘하 장병과 한 마음 한뜻이 되어 구국의 백의종군에 나섰던 단결된 힘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국난을 목전에 두고 당리 당략으로 파가 갈리고 갑론을박으로 대응책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주체성의 반대는 타율성이며 분열이다. 단체나 사회가 자기존립을 위해 타율성과 분열을 극복

하고 단합하여 총화를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힘을 주체성이라 부르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주변에는 사회분열을 획책하는 북한 공산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비전」은 한국의 체질과 풍토에 알맞은 자유로운 복지국가의 건설이므로 민족의 주체적 사상과 전통, 생활 풍속 등을 간직한 채, 한국인답게 사는 자주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한다. 이점에서 우리는 민족의 정통성을 계속 유지하고 경제면의 고도성장과 변명의 길로 주도적으로 앞질러나가 평화통일을 선도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홍종도

----- 차 례 -----

- 1. 서 언
- 2. 본 론
 - 가. 조국애(충성심)
 - 나. 봉사정신
 - 다. 전우애
 - 라. 일체감 형성
 - 마. 인내와 끈기
 - 바. 인화단결과 전력증강
- 3. 결 론

1. 서 언

군인들은 흔히 부대 운영과 병영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인화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대 장이나 각급 지휘관들의 이취임시 때에는 항상 통솔방침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본질적인 문제의 제시는 없이 막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인화단결은 왜 필요한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져야하고, 또 그것이 전력 증강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군대를 크게 말해서 군대 가정이라고 하며, 병원 각자를 큰 가정의 가족이라고 한다.

일개 자그마한 일반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일치된 목표와 뜻이 없으면 그 가정은 파탄에 빠지고 마는데, 몇만 몇십만의 군대 가정에 있어서는 오죽하겠는가?

군대가정은 그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막중한 사명을 띠고 형성되었으나 그 구성원은 모두가 20여 년씩 개개인의 다른 개성과 환경에서 자라다가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군대 가족으로서의 규범을 익히고, 가족들의 화목한 단결을 이루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장병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하여 전력증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2. 본 론

군대의 전력을 크게 둘로 나눌 때에는 유형적인 전력과 무형적인 전력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유형적인 전력이란 인원(병력), 장비, 시설, 물자들을 말하며, 무형적인 전력이란 정신, 기술 체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의 복합적인 총체를 전력이라 할 수 있다.

군대가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우수한 장비, 풍부한 물자와 시설이 필요하며, 이를 운용할 많은 병력 또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장비와 풍부한 시설과 물자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인원이 없으면 강한 전투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많은 인원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신자세가 해이하고, 사명감과 사신 사기가 저하되었다면 또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소수의 군사라 할 지라도 강력한 정신무장과 충일한 사명감으로 단결되어 있는 군대라면 안일하고, 단결되지 못한 군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병 개개인에게도 다음과 같은 정신의 무장을 강화시켜 인화단결을 도모함으로써 전력증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가. 조국애(충성심)의 함양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는 온갖 곤욕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도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득과 영달을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에서 국가를 도외시하기도 한다.

과거 중동전 이후 미국에 유학중인 아랍학생과 이스라엘 학생들의 행동이 알려지자 전화에 휘말린 조국을 위해 나섰던 이스라엘의 학생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면서도 막상 나의 조국에서, 그것도 젊은 군인으로서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들은 조국애가 너무나도 막연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국애란 평범하게 작은 사물에 대해서도 개인의 충성을 기울이어 이를 위하고 섬기며, 조국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이를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국애란 그저 나라를 사랑함이다.

나라라는 것은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한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 것이며, 단지 느껴질 뿐이다.

그리고 조국애는 개개 특수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그 특수가 모여 일반이 되며, 부분이 합하여, 전체를 이루고, 개개인의 나라 사랑이 합하여 온 국민의 나라 사랑이 성립되는 것이다.

조국애는 강요할 것이 아니다.

강요에 의하여 일어나는 조국애는 진정한 것이 못되며, 진정한 조국애는 자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장병들의 조국애는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조국애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히 조국의 모든 것에 대하여 애착이 생기게 되고, 또 국가관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는 자신이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한다는 뚜렷한 사명감을 갖고, 그 사명감에 의한 충성심이 우러나와야 하고, 이 충성심은 투철한 조국의식이어야 한다.

충성심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있고, 부하가 상관에 대한 충성심은 곧 국민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통할수 있으며, 여기에는 항상 정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충무공의 충성심을 높이 찬양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즉 선조대왕이 의주로 피난 가 있을때 충무공은 「지금 삼강께서는 의주까지 피난을 가 계신다. 들으니 조정의 대신들은 일이 불행하게 되면 강을 건너가자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날이 온다면 나는 이 곡식을 배에다 싣고, 서해로 거슬러 올라가 삼강을 모시고, 죽음을 다해 적과 싸울 것이요, 설사 불행하게 될지라도 국왕과 신하가 같이 안고 내 국토 안에서 죽는 것이 옳다」고 했다.

바로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본받을 만한 조국애요,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정신을 장병 모두가 갖게된다면 자연히 인화단결이 이루어지고, 막강한 전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나. 봉사정신과 협동정신의 함양이 필요하다.

장병 각자에게 주어질 업무는 다르고, 세분되어 있으나 그 최종 목표는 동일한 것이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군인답게 죽는 것이 국가에 대한 최대의 봉사이며,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군인은 개인 혼자 힘으로 존속할 수 없고, 개인만을 위한다면 존속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군인은 공동운명체적인 존재로서 개체를 초월하며,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서로가 솔선수범하여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자발적으로 협동을 이루게 될 때 공동 운명체로서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으며 전체의 존립을 이어나가고, 불평과 불만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고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처럼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기대하기 전에 국민 각자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장병이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지 말고 솔선하여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주어진 임무를 위하여 봉사하고, 상호간 협동 노력을 경주하며 상하상호간 인화단결을 도모함으로써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다. 전우애와 상경하에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

군대에 있어서 인화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우애와 상경하에의 정신이 절대적인 것이다.

물고기는 항상 물에서 생활하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즐겨한다. 그리고 흐르던 물이 고이게 되면 썩어지게 마련이며, 잡초가 가리워져 어두운 곳에는 많은 물고기가 모이게 마련이며, 같은 종류의 물고기가 모이게 된다. 마찬가지로 군대 사회의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것이 말단까지 고이지 않고 잘 전해져야 하며, 이것이 순조로울 때 전체의 행동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사기가 증진되어 업무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물고기가 물결을 헤치며 거슬러 올라가듯이 어렵게 전달되는 하의상달도 목적지까지 잘 올라가 문제를 해결하며 다시 그 물결을 따라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물결과 물고기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상관과 부하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그것은 상관이 부하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부하는 진정에서 상관을 충성과 존경으로 받들어 모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상하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상호간의 불평과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면 군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정상적인 생활은 유지되지 않을 것이며, 사기는 저하되고 명령과 지시의 지휘계통이 마비되어 오합지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상관은 넓은 포용력과 자애심을 발휘하여 부하를 덕으로 다스리고 부하는 상관을 존경과 충성으로 대하게 될 때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절로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단결력이 생기고 군의 전통에 따라 강한 전투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는 상관과 부하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료 전우간에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이든 시간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은 것이다.

자신의 안일을 위하여 요령 위주의 사람이 전우의 어려움을 보살펴줄 수 없고, 또 전우로부터의 협조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전우는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한 타인이다. 전우는 형제와 같은 정신을 가져라 하지만 결코 피를 나눈 형제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유사시엔 같이 피를 흘리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즉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동료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사를 같이하며 한 가지의 공동목적을 위해 정진하는 전우인 관계로 가장 깊은 인간 본연의 사랑이 모여지게 되고, 이렇게 모여진 사랑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고로 전우간의 사랑은 어떠한 난관과 역경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인화단결이 강력하게 이루어졌을 때 사기는 충천하며 승전을 위한 전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 일체감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총력안보를 부르짖고 있다.

이는 국방에 대한 책임을 군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군·관·민의 총화된 힘으로 자위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다.

즉 정부를 비롯한 각급 지도층을 비롯하여 농부와 어부에 이르기까지 최소한도 자기가 지키고 있는 한평의 땅이라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위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사회는 개개인의 모두가 자신의 개성과 능력, 환경에 의하여 개인 위주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획적인 유대를 견지하고 있지만, 군대는 상하상호간 뚜렷이 구분된 계급구조와 직무에 따라 종적인(縱的) 체제를 유지하며, 명령과 지시에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종적인 체제 자체도 획적인 연결을 수반한 종적 체계이며, 또 획적 체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때문에 동료간에 이루어지는 철저한 인화단결이 상부와 하부로부터 지시되고, 상달되는 제반 임무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개인을 초월한 전체를 대

상으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할 때 총화에 의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 내에서 상호간 배타심을 제거하고, 환경과 처지를 이해하여 개인의식을 불식하게 될 때야 비로소 전체에 대한 일부임과 소속감에 의한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大學)에 보면 널리 알려진 문구이기도 하지만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다. 이는 우선 자신의 집안을 먼저 다스리고, 자기의 주위를 다스린 다음에 천하(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집단생활을 통해 상급자가 자기 자신의 감정적인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부하들에게 존경과 신뢰감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군대적인 특성만을 발휘하여 “명령하고 지시만 하면 된다”는 생각과 속된 군대 용어인 “○으로 받송이를 까라면 까야지 어쩔 것이냐”하는 식의 막무가내 적으로 부하를 통솔(統率)한다면, 그리고 그 부하들은 이러한 방법에 의한 명령 지시에 할 수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만 한다면 그 속에 어떻게 인화와 단결이 따르고, 어떻게 존경과 신뢰가 따라 화목한 분위기와 상하 상호간 일체감을 형성하겠는가?

또 동료집단에 있어서도 개인의 이기심만을 조장하여 좋은 일과 좋은 결과는 자기에게, 궂은 일과 궂은 결과는 동료에게 미루고 “내가 아니면 아니된다. 내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내가 아니면 그것은 안 된다.”는 사고방식에 의한 유아독존 의식과 독선이 따른다면 전체의 분위기는 흐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기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기능과 기술에 대하여 과신하고, 그것을 미끼로하여 평안면을 추구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며, 겸손한 마음의 자세와 보다 적극적인 동료의식을 발휘하여야만 전체에 대한 향상과 발전을 기하게 될 것이며, 인화단결에 의한 일체감을 형성하여 단결된 힘을 과시하고 이는 전력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참을 인(忍)자 세 개만 가지면 살인도 면(免)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참는다는 것 자체가 무던히 힘이드는 것임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지만, 군인에게서의 인내성이란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미국과 같은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의 풍성하고 여유있는 여건만을 생각하여 처우와 환경의 대폭적인 향상만을 요구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 불평과 불만만을 토로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무조건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만족만 한다면 발전과 향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어려운 여건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며, 이의 개선책을 연구하여 전체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끈기와 인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공동의식에 의한 공동 사명감이 필요하다.

사람이란 모든 면에서 부유한 상태에 있을 때 보다 어려움과 악조건에 처해 있을수록 강한 단결이 요구되고, 또 그러한 것은 공동의식과 공동 사명감에 의해서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뭉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끈질긴 노력이 요구되며, 동료간의 화목과 단결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는 많이 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투쟁에서 “간디”가 보여준 “무저항주의”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영국과 적수가 되지 못했지만, 전 국민의 일치단결로 끈질기게 투쟁해온 결과가 강한 힘을 발휘하여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는가?

우리 장병들에게도 이러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인도가 “자주독립”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여 전 국민이 단결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군인들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대명제로 뚜렷한 목적이 설정되어 있으니만치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의 여건과 난관을 극복하고, 공동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장병일치의 총화된 힘과 끈질긴 일내로 인화단결을 도모하여 총화에 의한 전력증강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바. 인화단결(人和團結)이 전력증강(戰力增強)에 미치는 영향.

비록 장기집권의 독재정치에 의해서 불명예의 하야를 하였지만, 고(故) 이승만 대통령이 남겨 놓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그 한마디는 참으로 값진 것이다.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자 공산 주의자들로부터 음양으로 침략을 당하는 상태에서 민족적인 균열과 국민의 분열을 초래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우리의 국가와 민족, 자체의 보전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한 상황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특히 우리 군인은 국가 보위를 위한 최첨단에 서있는만큼 투철한 사상 무장과 관, 민을 앞서는 사명감을 갖고, 군대의 종적, 횡적인 특수 체제를 유지하여 강한 힘으로 뭉치고, 화목과 이해에 의한 상호협동과 단결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전력은 인원, 장비, 시설, 물자와 기술, 정신, 체제를 합친것을 말하고, 이 중에서도 인원 즉, 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병력도 숫자에 의한 막대한 병력이 있다고 해서 이 숫자 자체가 강력한 전투력을 갖출 수 없는 것이며, 병원 각각의 개개인이 투철한 사명감과 필승의 신념,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에 의해 강한 단결을 이루어야만 강력한 전투력을 형성할 수 있는것이다.

공군에서는 장병에 대한 정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개개장병을 우수하게 양성하는 것도 전력 증강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만, 우수하게 양성된 병원 개개인이 개인의 무사안일만을 추구하고, 개인주의적으로 지리멸렬 분산된다면 아무리 우수한 기능과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전력증강에는 뚜렷한 보탬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하상호 간 일사분란한 명령체계의 유지와 이해와 협조에 의한 인화단결과 뚜렷한 사명감, 그리고 목적의식이 일치된 곳에 기초를 두어 장병 개개인의 정예화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인화단결은 그 집단에 있어서 근본적인 힘이 되고, 또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화단결은 국가적 대 숙원의 성취를 위한 전력 증강의 기초적인 단계이며, 최종적인 목적으로 전력의 강약을 가름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각종 운동경기를 통하여 우리의 민족성에 대해 구구한 말들을 하고 있다.

즉 한국대표 선수급에 이르는 선수들도 개인 종목에는 강하고, 단체 경기에는 약한 징크스가 있다고 한다.

단체 경기는 개인의 고도화된 기술과 강력한 팀웍에 의해서 그 전력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개인기도 약하고, 팀웍마저도 약한 것이다.

개인 기술의 숙련도가 경기의 승부를 결정 지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앞선 감투정신과 강력한 정신력이 필요하며, 또한 강한 팀웍을 유지하게 된다면 다소 열세인 기술은 보완되지 않겠는가?

우리 군에 있어서도 적에 비해서 비록 현대적 장비에 대한 무장면에서는 다소 열세에 있다 하더라도 강력한 인화단결과 이겨야 한다는 투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승리는 쟁취할 수 있고, 이러한 강한 인화단결은 주체의식에 의한 조국애와, 숭선적인 협동정신을 기조로 한 봉사정신, 상경하애의 포용력 있는 전우애와 유아독존적인 독선과 배타심을 버리고, 개인주

의적인 사상을 배제한 일체감의 형성으로써 인내와 끈기를 지니게 될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렇게 강력한 인화단결은 전력 강화의 근본이 되고, 현대화된 장비의 위력보다도 더욱 강력한 전력증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대예절의 준수

손행남

군대예절의 목적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 상호간의 신에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전장병은 첫째, 군대예절의 기본요건을 준수해야 하겠으며 둘째, 상경하에의 기풍을 조성해야 하겠으며 셋째, 엄정한 경례군기를 확립하여야 하겠다.

1. 군대예절의 기본요건을 준수하자.

군기의 근원은 장병들의 용모·복장·언어·태도 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단정한 용모, 정결하고 규정한 복장착용, 군인다운 언어사용, 올바르고 절도있는 태도 등은 군대 예절 준수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본요건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① 용 모

용모가 단정하다는 말은 흔히 듣는 말이다.

「용모가 단정한 군인」하면 우리는 직접 보도 듣도 못하던 사람이지만 어쩐지 지성적이고, 절속하여 가장 좋은 인상만을 가진 사람으로 상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용모가 단정한 군인이라 말은 가장 교양있는 사람이라는 찬사에 틀림 없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된 그 사람의 용모는 곧 그 사람에 내재하는 품성이 나타난 것, 총괄적인 인격이 스며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군인에 있어서는 복장이나 용모의 단정은 군인으로서의 품성을 좌우하는데 크나큰 작용을 하게 된다.

고로 정결한 용모를 갖추도록 각자 노력하여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풍기게 하여야겠다.

② 복 장

우리들 군인에게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것은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할 점이다. 같은 복장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입은 사람에 따라 그 효과와 느낌이 다른 것은 물론 그 사람 속에 풍겨나는 지성의 깊이가 달라진다.

일반사회인의 경우 넥타이를 삐뚤름하게 매고 머리를 허트리고 다니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격에 어울리는 수가 없지않지만 그렇다고 제복을 입은 군인이 상의를 삐뚤름하게 걸치고 다나거나 마치 의복을 입은 채 잡자리에 들어갔던 사람 모양으로 차리고 다니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극히 삼가 해야 될 점이라 하겠다.

군복이나 기타 복장은 자주 세탁하여 깨끗하게 갈아입는 것도 용의를 단정히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이 자주 나게 마련이다.

더구나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큰 고역이 아닐 수 없겠고 특히 군인은 항시 군복을 입고 또한 군화를 신고 다니므로 땀이 더욱 많이나게 마련이다.

그렇지 않아도 땀 뻘 옷을 미처 갈아 입지 못하면 땀 냄새가 물씬 물씬 나기 쉬운데 구두를 종일 신고 있어야 하는 군인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타인과 면담할 경우는 물론 상급자를 만나게 될 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 쉬우므로 이런 사람은 특히 군복의 정결과 양말을 자주 갈아신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다.

또한 군복은 작업복·정복·예복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정복을 입어야 할 때 작업복을 입는다거나 작업복을 입어야 할 때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복장위반일 뿐 아니라 보기도 매우 꼴 사나운 모습이므로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다.

③ 언 어

언어는 우선 명량한 목소리와 명확한 의사표시로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중이나 상대방을 울리겠다거나 웃겨 보겠다거나 가령 강연이나 좌담일 경우 다른 발언자보다 앞서서 인기를 독점하겠다는 등등의 탄생각을 품고 말을 한다면 저절로 성거워지게 마련이다.

더구나 크게 경계할 것은 청중이나 상대를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지나친 자신도 삼가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것들이 어조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기 쉽다.

또 감정이 앞서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 말하는 편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목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에만 힘쓸것이고 자신은 어디까지나 냉철해야 한다. 슬픈 말을 할 때 이편이 먼저울고 우스운 이야기를 할 적에 상대방에 앞서서 자신이 웃어버린다면 실패하기 쉬운데 이것도 어조가 자연스럽게 않은데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눈을 감고 말만 듣거나 또 라디오를 통하여 들을 때라도 그 말하는 사람의 교양·연령·수준 등을 짐작하게 되는 것은 말에는 개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자연스러운 동작이라 할지라도 예절에 벗어나는 동작이 있다. 무엇을 부인하

거나 주장할 때에 팔로 때리는 시늉, 머리로 받는 시늉을 하는 사람이 있다. 또 쓸데없이 손을 마주 부비는 사람, 머리를 흔들며 무릎을 떠는 사람..... 이러한 동작은 한시바삐 고쳐야 할 것이다.

또한 말도 상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평이한 말을 써서 무방할 때도 있고 또 경어를 써야만 할 때도 있는 것이다. 경어는 상대방을 존대할 때 쓰는 모든 말이라고 하겠는데 입으로만 최상급의 경어를 쓰더라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④ 태도

군래에 와서는 모든 예법이 간략하여져 가는 감이 있다. 심지어는 예법을 무시해 버리는데에 새로운 의의나 있듯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그릇된 생각인 것이다. 아름다운 몸가짐이란 그 방법을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많은 반복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즉 예법이 몸에까지 배어들어야만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지, 알고 있다는 지식만으로는 어디까지나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예절의 기본요건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세 인 것이다. 자세가 단정한 몸가짐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인품을 나타내는 첫 조건이 되는 동시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또한 적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되겠다.

특히 군대에 있어서 본 자세는 군인의 품성을 나타내는 첫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 되는 것이다. 의자에 앉을 때에도 언제나 정좌하여야 하며 몸을 뒤로 기대어 무겁게 앉거나 금방 일어나려는 듯이 의자 끝에 조금만 걸터앉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뿐 아니라 특히 상대방이 상관일 경우에는 대단히 실례가 되는 자세인 것이다.

또한 대화를 하게 될 때 이야기 중간에 이상한 유행어를 섞는다든가 또한 외국어를 많이 섞는다든지 하는것은 극히 삼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우물쭈물하거나 어려워져야 할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상관의 호출로 면접하게 되었을 때 상관이 용건을 이야기하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고 똑바로 상관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야기의 내용을 틀림없이 똑똑하게 듣는 자세가 필요하며 혹 상관에게 질문사항이 있어도 상관의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상경하애(上敬下愛)의 기풍(氣風)을 조성하자.

군기는 군인복무규율에서 해설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군대의 규율과 질서이며 생명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군대 사회에 있어서 누구나 꼭 지켜야 할 생활 기강이 군기인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군기는 규율과 질서의 총화로서 군대 생활의 기강을 유지하여 가는 생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기가 해이된 곳에서는 생기가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군인의 기상을 상징하는 패기와 용맹성마저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군가가 엄정한 부대는 언제나 곳곳한 전투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군기는 이처럼 부대 유지의 기틀이며 명맥으로서 절대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군기는 자생적으로 유지 발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물론 사회가 있는 곳에 사회윤리가 있고 집단이 존재하는 곳에 집단을 유지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기강이 있게 마련이지만, 군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군기는 결코 전자(前者)의 예(例)에서와 같이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통속적인 의미의 기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군대는 어디까지나 실전적인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적으로부터 승리를 확보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군대는 부대 목표의 달성을 부대 성원의 생명과 직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각도에서 볼 때 군기는 사회적 일반개념으로 통용되는 기강과는 그 본질을 달리 하며 또한 그 본질을 달리하는 데서 군대에서는 군기의 확립 여부를 가지고 부대 전투력의 강약을 측정하는 척도로 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기를 확립하고 확립된 군기를 엄정히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활기풍이 조성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일 먼저 손꼽아야 할것은 부하는 상관에게 충직하게 복종하고 존경을 표할 줄 알고 상관은 부하를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인간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상경하애(上敬下愛)라고 말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상경하애는 감정에 친승하여 마음내킬 때는 경의와 애정을 표하다가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경과 혐오로 변하는 따위의 생활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대 생활에 있어서 군기라고 하는 것은 부대가 존속하는 한 일사불란하게 확립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군기 유지의 한 방법으로서 중요시되어야 할 상경하애라고 하는 생활 기풍이 만약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여 존경과 불경이 교차하고 또한 애정과 혐오가 서로 교차하여 부대 성원이 감정의 안정성 없는 파상형의 변태를 거듭하게 된다면 부대의 군기는 확립 유지되어 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엄정한, 군기의 확립만을 강조하고 군기확립의 바탕이 되는 상경하애와 기풍을 조성하지 못하거나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히 말해서 의식 구조면에서 나타나는 「콤플렉스」의 일종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심리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그 원인은 일반적인 경우, 엄정한 군기가 자의적인 행동면을 제약할 때 권위와 직권으로써 개인적인 자아 욕구를 충족 받고자 이 기관을 공익관에 우선시키는 경우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는 반대로 엄정한 군기확립의 필요성을 통감하면서도 생활 분위기의 피폐화로 기강확립에 대한 체념 상태하에서 현실 추종형의 생활상을 드러내는 경우일 것이다.

전자의 예는 상급자 층의 생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이며, 후자의 예는 하급자층의 생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어느것이든 간에 독립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상호 연관된 상태속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볼 때 군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의 심리적 갈등 현상의 제기는 상급자에 대한 존경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서 만족할 수 없고 또한 하급자에 대한 일방적인 관용의 요구만으로써도 만족될 수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상급자에 대한 존경과 하급자에 대한 사랑이 똑같이 병존하게 되는 데서 의사소통의 통로가 종합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될것은 물론이며 또한 상의하달이 잘 되고 의사상통이 잘 되는 가운데서 생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스스로 배제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활기풍의 정화는 부대의 근무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존경과 신의와 애정으로 응결된 참다운 전우애가 넘쳐흐르는 가운데 화기에애한 가족적 분위

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상·하 장병 간에 오가는 참다운 상경하애의 정신자세는 곧 부대 군기를 엄정하게 확립 유지하여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하로부터의 존경은 부하를 사랑한다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해서 찾아야 할 것이며 또한 상관으로부터의 사랑은 상관에게 충직하게 복종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하여 찾으려는 데서 명실상부한 상경하애의 생활기풍이 조성될 것이며 또한 그러한 풍토 위에 확립된 생활기풍은 엄정한 군기의 확립과 함께 빛나는 부대의 전통을 수립하는 정신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면 상경하애의 기풍을 조성하고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부대 성원의 공고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부대 전투역량을 배양하는데 있는 것이다.

특히 군의 작전 활동에 있어서 전투력의 발휘는 구성원 개체의 역량에 기대한다기 보다는 전체 성원의 일치단결된 집단력에 의하여 물리적인 힘의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결된 힘의 강약은 곧 작전의 승패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생활에 있어서 집단정신의 양양이 요구되는 것이며 또한 집단정신의 효과가 최대한으로 발양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집단정신은 앞서서도 말하였지만 존경과 신의와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데서 발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간적인 친화관계의 조성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지 중요시되는 하나의 생활 기술인 것이다.

3. 엄정한 경례군기를 확립하자.

경례의 목적은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 또는 군인 상호간의 복종과 신에 및 전우애의 표시로서 행하는 예의이며 이는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군예절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므로 항상 성의를 가지고 엄숙 단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경례의 형태로는 거수경례·집총경례·집도경례·주목경례·기의경례 등이 있으며 경례를 행할 때에는 서로 주목하여야 하며 수레자가 경례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거리에서 해야한다.

①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

무장시를 제외하고는 모자를 벗어 모자 차양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옆구리에 끼고 문을 노크(문이 닫혔을 때) 또는 들어가도 좋습니까?(문이 열렸을 때)하고 허락을 얻은 후 실내에 들어서서 최 상급자에게 먼저 경례를 하고 용무가 있는 상급자의 약 3보전(책상으로 부터 약 2 보전)에 정지하여 경례를 한 후 용무를 말한다.

그리고 용무를 마치고 떠날때의 경례는 전항의 역순으로 한다.

② 상관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의 경례

직속상관 및 장군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는 제일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 구령으로 전원이 기립하여 차려 자세를 하고 그 중 최 상급자만이 경례하여 관의 「쉬어」라는 허락이 있을때에 원래 자세로 돌아간다. 상관이 사무실을 떠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령은 무리중에 최상급자가 한다.

그러나 직속상관이 아닌 상관인 사무실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에는 그 용무와 관계있는 자만이 차려 자세를 취한다.

③ 상관으로부터 서류 등을 받을 때의 경례

상관으로부터 서류 또는 물건을 받거나 제출할 때에는 뒷걸음으로 1보 물러난후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그리고 상관으로부터 상장등을 받을때에는 수여자 앞(3보전)에서 경례를 하고 앞으로 나와 두손으로 상장을 받은후 왼쪽 옆구리에 끼고 뒷걸음으로 원 위치에 돌아와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2인 이상이 상장을 받을 때에는 최상급자의 구령에 의하여 행동하고 상장은 개인적으로 받는다. 또한 상관으로부터 명령 지시를 받거나 보고 등을 할 때에는 약 3보 전에 정지하여 경례를 하고 용무를 마친 후 다시 경례하고 물러간다.

④ 보행 중의 경례

실외에서 보행 중에 상급자를 만나거나 그 옆을 지날 때에는 6보 전에 계속 보행하면서 경례를 한다. 또한 실외에서 보행 중에 상급자의 뒤로부터 옆을 지날 때에는 경례하고 「실례합니다」라고 경의를 표한 후 앞으로 나간다.

⑤ 정지중의 경례

실외에서 정지 중 또는 앉아 있을 경우에 상급자가 그 옆을 통과하거나 접근하여 올 때에는 일어서서 차려자세를 취한 후 경례를 한다.

⑥ 2인 이상의 경례

실외에서 2인 이상의 상급자를 만났을 때에는 그중 최상급에 대하여 경례를 하며 답례는 최상급자가 한다.

전 장병은 지금까지의 사항들을 명심하여 군대예절 준수에 대한 범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습성화하여 명랑하고 엄정한 군기강을 확립 유지함으로써 명실공히 유신정병의 기수로서 손색 없는 정예공군 육성에 더욱 정진하여야 하겠다.



특집 젊은 지성이 본 공군

- ...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공군은 격동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 ... 전장병이 합심 단결하여 여러모로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 ... 물심양면에 걸친 전력강화의 내실을 기했으며, 특히 유신병영의
- ... 기수로서 군 새마을운동과 과학화의 적극적인 전개 등으로 획
- ... 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정예공군을 젊은 지성들은 어
- ... 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 보기로 하자.(계재 순위는 원고도착순)

—이성위—
 []
 —중앙대학교 · 3년—

내 어릴적에 어른들로부터 『너 커서 이다음에 무엇이 될래?』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럴 때면 『공군 조종사가 되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거예요』라고 곧잘 말했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행기의 폭음이 들려오면 방에서 하던 일손을 멈추고 하나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비행기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나는 공군에 대해서 그리고 비행기에 대한 막연한 애착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릴 때의 꿈은 현실화 되지 못하고 말았지만 내 가슴 한 곳에 남아있는 미련은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길을 가다가 공군 장병을 볼 때가 많이 있다. 나에게 공군에 대한 인상을 말하라면, 공군장병 하나하나에서 풍기는 자태와 용모에서 예외 없이 발견할 수 있는 예리한 판단력과 넘치는 기지 이것이 곧 공군의 매력이 아니겠는가? 서슴없이 말하고 싶다.

젊은 지성이 본 공군

사실 하늘을 날오는 일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비행기 한 대가 뜰 때 그 뒤를 보조하는 인원과 기술이 상당하다고 들어왔다. 이러한 엄청난 일에 예리한 판단력과 날카로운 기지가 없다면 크나큰 지장을 초래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측의 불신과 기만으로 극한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공권의 확보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다.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6일 전쟁과 최근의 중동사태는 이것을 더욱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국방의 결정적 역할은 역시 공군이 감당해 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젊은지성인들은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군의 힘을 매우 신뢰하고 있고 또한 기대하고 있다.

하늘은 넓다. 이 넓은 곳을 지킨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인원과 기술이 뒤따라야 함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중동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좋은 성능의 기종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수의 비행기를 확보하고 있는 아랍제국이 물량적으로 열세인 이스라엘에게 어이없게도 참패당한 사실은 또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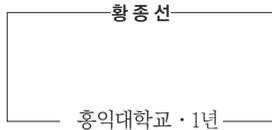
그것은 오로지 소수의 정예화된 병력과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훌륭한 작전의 결과였다는 것을 세계가 다 알고 있다.

현대전은 과학의 전쟁이다. 과학의 전쟁이니만큼 그 양상도 속전속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아무리 우수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이 해이하다면 기습과 속공으로 당하고 말 것이다. 이제 공군 장병 하나하나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누가 우리나라를 넘볼 것인가?

언젠가 『삼천만의 불침번』이라는 공군 영화를 통해서 공군에 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동시에 신뢰감을 더욱 높게 되었다. 이 영화에서 적기 내습과 동시에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는가를 가상훈련을 통해 보여주었는데 실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공군 장병들의 모습을 보고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이 었던가를 새삼 머리속에 생각해 보았다. 순간에서 순간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 맞는 판단력과 투철한 국방의무 이와같은 신념만이 공군이 가야할 길이요 마땅한 의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에 거는 기대는 큰 것이며 삼천만의 생명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최신의 기술과 시설, 신형 비행기, 스피디한 작전등이 따라야 할 것이며, 보다 정예화된 조직으로 만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전 공군 장병 하나하나가 「삼천만을 위한 불침번」으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우리의 국토를 굽어 지키는 한 우리의 부모 형제는 마음 놓고 단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우리 공군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빈다.



모든 것은 안정을 추구한다.

자연계의 모든 존재들은 불안정, 방향을 싫어한다.

또한 정체(停滯)를 배척한다. 퇴보를 부인하고 성장을 지향한다.

이것이 자연계의 법칙이요, 피조물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인가 보다.

푸르른들, 푸른산을 굽어보며 높고 푸른 창공에 두 줄기 흰 직선을 그으면서 저멀리 사라져 가는 물체를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면 어느결에 「이야기속의 소년처럼」 꿈속을 거닐며 자연을 만끽한다.

지상의 왕자가 육군이라면, 빛나는 공군은 하늘의 왕자라고 부르고 싶다. 하늘을 주 림잡는 보라매의 결의와 의지는 오직 전진만을 추구하는 불굴의 투지와 용기를 넘치게 한다.

빨간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씩씩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비행기에 오르는 조종사의 표정과 정밀 검사를 요하는 정비과정에서 행여 빠질세라 나사 하나까지 점검을 하며 묵묵히 손을 움직이는 정비사의 눈과, 조종석에서 엔진이 힘차게 회전하기 시작하면 머리속은 아침 안개가 개이 듯이 깨끗하게 맑아지는 통일된 정신력으로 수천 수만피트 상공에서 유유히 힘차게 내어 뿜는 비행운이 붉게 물들어 혼연 일체가 된다.

오늘의 공군이 있기까지는 6·25 동란을 통해 피와 땀으로 영킨 군센 공군이 성년 공군을 지나 이제는 정예 공군이라는 막강한 힘을 과시 하며 대한의 창공을 초계하면서 번득이는 눈을 한시도 쉬지 않는다.

호시탐탐 무력 남침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북한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1당 100의 패기로서 대적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욕만 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군 장병 개개인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과 훈련으로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 수행에 충분한 지식과 완전무결한 전술 전기를 몸에 익히고, 나라와 겨레에 몸을 바치겠다는 정신자세가, 혼연

일체가 되어 이루어 진다고 본다.

현대전에서 공군력만으로 승리할 수는 없으나 공군력 없이 승리할 수 없다 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초전에서의 승패가 전쟁 자체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승리 하는 전쟁은 사전에 준비하고 패하는 전쟁은 전쟁이 발발된 후에 비로소 준비한다”고 전사가 말해 주듯이 패자에게는 할 말이 없다.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춘과 정열을 쏟아야 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타협과 협상을 서슴치 않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생리를 이해하여 무엇보다도 자주국방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야 할 것이다.

믿음직한 공군!

슬기로운 공군!

승리하는 공군!

동·서·남·북을 마음껏 비행할 수 있는 하늘이 될 때까지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것이 의무이며 또한 책임인 것이다.

어제와 오늘은 오직 빛나는 내일을 위하여 존 재하는 하나하나의 디딤돌 이며 눈은 항상 먼 내일의 대만을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생이란 피와 땀으로 영킨 노력의 결정체이다.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금(金)은 그의 진가를 시련 당 하고있는 것처럼 불굴의 집념을 가진 반 드시 이기고 마는 공군이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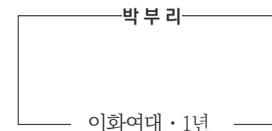
행복이란 행복만 을 추구하는 자에게 오지않고 자기의 행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몸 바칠때 자기도 모르 는 사이에 깃드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생을 아낌없이 바치는 찬란한 공군임을 확신하며

정예의 공군이여!

조국은 믿는다.

그대들의 기상을



특히나 하늘이 푸르른 가을날이면 나는 조그만 네모진 나의 방 안에서 멍하니 창공을 쳐다보며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 때가 간혹 있다. 수 없이 나의 머리속을 오락가락하는 온갖 사념은 때로는 신상에 관한 조그마한 일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나라와 세계에 관한 어처구니 없는 의협심일 때는 있다. 참으로 오랜만에 캠퍼스의 가을이 눈물겹다는 그 기막힌 감탄의 소리도 겨우 첫번째 가을 캠퍼스를 가져 보는 나에겐 도무지 느낌이 묻어지지 않는 말이다.

공군에 대한 인상이든가 기대라든가 평소의 생활에 밀접하잖고 친근하지 않던 사실에 사람들은 얼마나 인상 깊게 그 사물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우연히 청탁을 받게 된 사실을 또 다시 느끼며 하늘에 똑똑 찍혀있는 구름의 흐름을 몇 시간 지켜보며 공군이라는 이미지를 머리 속에서 끌어 내어본다.

푸른 하늘색과 빨간 머플러의 강렬한 조화(?) 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도 있는 공군의 제복에 나는 우선 찬사를 보내고 싶다. 그것은 색깔의 조화가 뛰어난다는가 독특한 색깔이라든가 하는 유치한 생각이 아니라 푸르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무한한 상상의 세계와 포용의 세계를 호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혼잡한 버스 정류장에서 또는 그것보다 더 붐비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명동에서 우리가 하나씩 돌씩 잃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와 포용의 마음을 나는 푸른 하늘에서, 푸른 바다에서 그리고 푸른 제모에서 간간히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내가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공군 중의 한 분이었던 어느 대령님과 언젠가 여름 바다에서 본, 그분의 공군 장정을 기억하면서 나의 인상을 추려 보고 싶다. 소수가 다수에 예로써 얼마만큼 떼뻗이 나타나 질 수 있는지는 아직 그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에 잘 모르겠지만 그 공군 대령님은 참으로 충실한 아버지이고 가장이셨다. 간혹 부인을 에스코트하는 그 매너에서 내가 바라본 것은 대령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인간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이었다면 지나친 과장이고 자기도취적인 얘기라고 할까?

군인들의 세계가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 밝고 명량한 분위기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기에, 더구나 여성들에겐 명령, 군법, 복종 등등 살벌한 어휘만을 연상시켜주는 곳이기도 하는 그 대령님의 조크와 윗트와 그리고 부드러운 매너에 크게 쇼크를 받았다. 공군이라는 어휘가 가지는 하늘이라는 분위기가 그 대령님의 몸 전체에서 평평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공군에 대한 무관심이 약간 아쉬워졌었다.

여름날, 언젠가 태풍이 치던 날, 그래서 그 넓은 바다가 인간의 오염을 피해 조용히 포효할 때 푸른 두 개의 제모가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커다란 장벽에 대한 끝없는 도전은 산에도 전하는 알피스트와도 같은 인간 자체에 대한 무한한 도전이라 생각할 수 있기에 혹은 무모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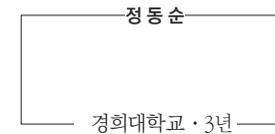
보일지라도 내게는 영웅처럼 커다랗게 다가왔다. 그날 오후 신문에 익사자라든가 또는 행방불명이든가 하는 티끌만한 기사도 게재되지 않았기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했던 일도 아주 드문 나의 기억속의 공군인 것 같다.

군인은 나라와 그가 속한 국민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지탱해 주는 사람들이다.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공군이란 하늘을 적으로부터 지켜서 국민을 보호해주는 군인이다. 그런 따뜻한 우리의 보호자들에게 왜 나와 또 많은 우리가 먼발치로 쳐다보기만 할 뿐 어떠한 대화조차도 별반 회구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창공을 또 한참 쳐다보며 생각을 해 본다. 군인도 인간 본연의 마음을 너무 위장해서는 안 된다는 나의 지론을 나는 기대에 불허 얘기하고 싶다. 간혹 길거리에서 눈에 보이는 공군 장병들의 얼굴엔 마스크와 여유와 그리고 조크가 별로 없는 듯하다. 대나무 같은 군율과 복종만이 찬란한 푸른 제모 아래서 번쩍인다.

그 푸르른 위엄은, 엄숙함은, 대화의 가능성조차도 말살해 버린다. 길을 걸을 때나 군무에 임할 때나 우리가 모두 낙엽에 센치해지는 마음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존재할 것이 아닌가.

찬란한 푸르름이여 찬란한 하늘의 후예들처럼 찬란한 이상으로 젊음을 바르게, 예쁘게 불사르는 여유 있는 얼굴의 공군상을 나는 기대해 본다.



선입견이란 인간이 타파해야 할 최초의 고지라고 들어왔다. 통계학적으로 보아 선입견이 사실과 과히 어긋나지는 않는다 치더라도 인간관계에 있어 그 선입견이 좋은 사귀를 유발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공감할 때 수긍이 간다.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나는 감히 그 조그마한 하나로 열을 평가하려 한다. 작년 초 겨울 나는 대전행 고속버스 속에서 우연히 동석이 되어 공군 중위와 여행을 함께 하게 되었다.

젊음이 모이면 무언가를 얘기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그 생리인 모양이다. 얘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약하여 군 얘기에 머물렀다. 아직 군에서의 생활 경험이 없는 나에게는 군인들이 끊이지 않는 소재를 가지고 군 생활을 얘기할 때 나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들의 오묘한 심리를 읽기에 바쁘다. 그러나 나는 이날 중위의 얘기에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처럼 군대생활

이 깨어지지 않는 일정한 틀을 갖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군대란 철권 질서, 획일주의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유의 감정이었다. 그러나 공군은 개인의 능력과 취미와 재질을 충분히 살려 나갈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제복의 통일성은 하나의 과정이며 형식일 뿐 역시 개인은 집단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재질을 시험하고 때에 따라서는 심한 패배감까지를 맛보아야 하지만 역시 일보전진을 위한 시련이며 계기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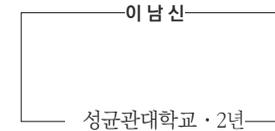
발전적인 젊음이에게 있어 두려움이 있다면 너무 일찍이 하나의 틀에 잡혀 안착(安着)해 버리는 것이라 생각된다. 일찍부터 하나의 틀에 박혀 사고도 행동도 획일적으로 화해 버린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청춘의 멸망이냐!

걸 넘어 버린다는 것은 젊음의 수치이며 그 끝이다. 젊음이 보장받아야 할 단어는 자유와 방황, 생동미와 개성이다. 방황과 발전은 젊음에 있어 싸인 곡선을 이루며 그것은 생동하는 젊음의 고동 소리이다. 중위는 그 코끝이 날카로운 것처럼이나 뚜렷한 개성과 젊음을 간직하고 공군으로서의 자부심을 곁에 간직하고 있었다. 누가 그를 보고 걸 넘어 버렸다 한탄하고 그누가 연민 어린 눈초리로 군인을 의식할 것인가. 싱싱한 보라매 별장에서 단팍이라도 꾸고 나 오는 듯 아름다운 꿈과 낭만과 개성, 그리고 생동감을 즐기던 중위의 인상은 나에게 강한 선입견을 주기에 충분했으며 공군의 생생한 「이미지」였다. 중세풍의 냄새를 풍기는 대학도서관의 「이미지」와는 한갓 다른 그 하늘의 냄새는 왜 그리도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는지.

한해를 또 넘기고 올해도 어김없이 첫눈은 내렸는데 나는 한 번쯤은 우연히 마주칠 법도 한 그 중위를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내 고향 대전의 주말은 온통 제복의 사나이들로 생동감을 자아내게 한다. 주말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 푸른 제복의 사나이들은 거리를 메우고, 골목 골목을 메우고, 다방 구석에서 간단한 밀월의 꿈에 젖기도 한다. 해서 좁지 않은 그곳은 젊음의 도시로 화해 버리는 것이다. 차가운 지성만이 득실대는 대학 도서관보다 약간은 흥청거리는 그 젊음이 법석대는 소리는 「내가 여기 있다」는 존재의식을 일깨워주며 「그들이 또한 살아 있다」는 생동감을 만끽하게 해준다. 그 누구와도 약속할 수 있고 또 그 누구와도 대화의 길을 틀 수 있는 대전의 주말은 공 군과 함께 낭만을 그리고 「블랙커피」 것처럼이나 진한 생활감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좋다.

주말의 데이트를 즐기고 귀대하는 병사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인상적이다. 그들의 무표정은 다시금 꿈에서 현실로 돌아선 생활 자세이며 그래서 더욱 믿음직스런 무표정인 것이다. 법석 이던거리가 조용해질 무렵이면 한갓 부풀었던 도시는 자동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40대로 변해 버리고 거기, 우리 젊음을 노래하던 푸른 제복의 사나이들이 아쉽게 되는 것이다. 「빨간

마후라」로 상징되는 젊은 보라매의 별장은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생동 감이 앞서 있는 젊음의 광장일 것이다. 주말을 즐긴 푸른 제복의 병사가 피로의 기색을 느끼지 않고 귀가하는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보급자리일 것이다. 중위의 그 멋진 낭만은 힘찬 구령 소리와 함께 광장을 메울 것이며 고속버스 여행시에는 어김없이 나 같은 예찬론자를 늘려나 갈 것이다.



「기왕가는 바에 공군엘가, 「공군이 제일 멋있잖아. 오랫동안 만나 군입대를 생각한다는 나의 이야기에 그녀는 공군을 택하라고 한다. 나 역시 공군의 입대를 마음먹고 있는데, 그녀의 그런 말은 확실한 결정을 내리게 하였다.

이런때 그녀의 우습게 던진말이 확실한 결정을 내리게 하였다. 이럴즈음 「젊은 지성이 본 공군」이라는 글을 쓰게 되었으니 자신이 지성인이 될 수도, 더욱 공군에대한 인상이랄까? 그 어떤 기대를 말할 수 있을지 두려운 생각이 앞섰다.

맑고, 푸른창공에 까만점 두 개가 반짝 은빛을 보이고 구름 속에 숨어버린 것이 못내 아쉬웠는데, 또다시 나타났을 때 쫓을 듯 내달리다가 숨을 몰아쉬며 무작정 좋아하고 손뼉을 치던 어릴적 생각과 수년 전 「빨간마후라」 라는 영화가 뚜렷이 보이는 것 같다. 정말로 재미있었고 낭만적인 영화였다는 인상에 박혀있었는데 지난여름 한 번의 비행기를 탄 것으로 흐려지고 말았다.

지난 여름방학 때 강릉가는 비행기를 타게 될 기회가 있어 설레기까지 하였는데, 강릉까지 거의 다 날아갔을 때 기상상태가 나빠서 착륙을 못 한다면서 서울로 되돌아간다는 스텐디스의 말에 그만 철렁해지는 마음이었지! 비행기란 그렇게 멋지고 좋은 것인 줄만 알았더니, 별로 나쁜 날씨가 아닌데도 내리질 못하다니 그렇다면 전투기는 어떻게 될까? 더욱이 속력이 소리의 몇 배씩 된다는 팬텀기는 팬텀은 걸까?

이런 생각이 있는 후론 빨간 마후라의 낭만적이었다는 그런 영상이 흐릿해지는데, 더우기 중동전의 기사가 매일같이 신문을 메울때 마다 역시 제일 무서워야되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 않는 것이 공군이라 생각하니 감상적인 것은 말끔히 가져져 버린 것 같다. 그래도 공군하면 역시 깔끔하고 세련된 군대라고 느끼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에서 믿음직한 힘마저 가지고 있는 팬텀기의 보우는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

만 여러 사람들이 느끼는 매력 중에는 푸른 유니폼의 매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

어쨌든 내 주변에 있는 공군 개개인의 우수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본위의 행동에 사회를 지쳐서 아는 늙은 사람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국력이란 개인의 우수함보다는 모든 것의 뭉친 힘이라 생각되는데 우수한 개인들이 모인 공군에서 그네들의 뭉쳐진 힘이야말로 커다란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비행기를 많이 보유해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공군력을 갖추었으리라 생각된다.

훌륭히 갖추어진 장비, 우수한 사람들의 뭉친 힘, 이것은 정말 막강한 삼천만의 불침번이며 성난 보라매이자 대한 건아의 모범이 아니겠는가? 비행기의 뾰족한 부리로 구름을 헤치며 평화를 새긴다. 자신과 긍지를 지닌 온순하면서도 강인한 눈을 번득인다.

활주로가 보인다. 푹푹 뭉친 한 덩어리의 힘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무서워하는 정지(停止)를 모르며 쓰러질 줄 모르는 공군의 단결력이 아닐까? 그 속에 내가 입대한다. 무언가 무너뜨릴 것 같은 기분이다. 이렇게 혼자 흥분하는 털된 자신을 내려다보며, 정신을 가다듬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 밤중에 헬리콥터 소리가 들린다. 창문을 열어 심호흡을 하며 헬리콥터의 빨간 불빛을 본다.

군사력 군사전략 군사기능

손행남
(중앙일보 논설위원)

□... 본 원고는「북한」 제 12월호에서 발췌, 게재한 것임 ...□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몇가지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병력, 장비, 사기, 훈련 등등이다. 보다 넓게는 이같은 동원된 군사력만이 아니라 동원할 수있는 군사력으로서 인구 자원 등도 보아야 할 것이며 동맹국 또는 외부에서의 군사지원력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지리적인 여건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개념으로 평가하는것 보다는 북한의 군사력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와 연관해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군사력은 그 목적부터가 일반적인 개념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전략은 물론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 역시 다른 것이 있다.

• 북한 군사력의 목적

일반적으로 군사력의 목적은 방위에 있다.

첫째로 군사력의 제 1의 외적 침입 저지라는 명목 아래 적극적으로 외국에 군사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공세방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군사력의 목적이 방위에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은 그 목적이 방위라는 현상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화혁명」이라는 현상타파 즉 공격적인데 일반개념과 다르다.

북한 군사력의 목적은 주지되어 있듯이 이른바 「전조선 혁명전략」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북한의 「전 조선혁명 전략」은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의 둘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전략은 북한 군사력의 목적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군사력은 방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 타파적인 적화 혁명을 목적하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전략은 이른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전략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개념은 쉽게 말해 전쟁이라는 무력 수단을 사용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w미군사사전(美軍事辭典)을 보면 「승리의 확률 및 유리한 결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또는 패배(敗北)의 기회를 적게하기 위하여 국책(國策)에 최대의 지원을 주도록 평·전시(平·戰時)를 막론 하고 정치력, 경제력, 심리력, 그리고 군사력을 행사하여 발전시키는 술(術)과 과학」이라고 했다. 또 대영백과 사전을 보면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용하는 술(術)」이라고 했다. 이러한 것은 다 같이 전쟁이라는 것을 안중에 두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 레닌」주의 전략은 이와 같은 개념과 다르다. 그것은 철두철미 적화혁명을 목적인 것이다. 「마르크스」 「엔겔스」 그리고 「레닌」의 군사사상을 보면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라는 「크라우제비츠」의 사상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는 전쟁은 모두 계급 투쟁」이며 「평화도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계속」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군사사상은 중공의, 모택동이나 북한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북한 역시 전쟁을 「계급 해방 전쟁」으로 보고 있으며 6·25 또한 「계급투쟁」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같이 그목적과 전략의 개념부터가 일반적인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목적과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군사력의 준비에 있어서는 물론 그것을 행사하려는 방법 또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이다.

• 북한의 군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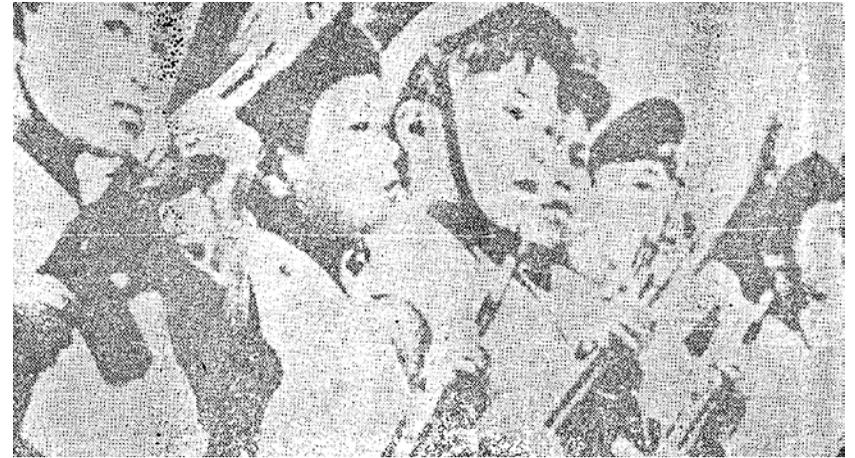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선 첫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군사조직이다.

군사조직 하면 순수한 군사만의 지휘기구라든지, 부대편성 이라든지, 군종(軍種)이라든지,

병과가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으나 북한의 경우는 그 전체적인 군사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점을 보아야 한다.

북한의 주민은 이중 삼중의 조직 속에서 살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협동농장이라든지, 공장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하면 노동당원일 수도 있고 적위 대원일 수도 있고 직업 동맹원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세 가지 조직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모든 조직의 목적은 북한이 지향하는 전략적인 목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또 모든 조직은 일원(一元)적이며 군대의 조직과 다름이 없으며, 그 목적 또한 공산혁명이라는 데 귀일 한다. 북한 주민은 조직적인 틀 속에서 생활하고 통제되고 있어 북한 전체가 병영(兵營)이 돼 있다는 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닌 것이다.



〈북한 주민은 누구나 총을 메고 쓸 줄 안다고 전쟁준비 완료를 호언장담하고 모든 주민은 전투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북한의 이와 같은 조직은 중공의 「인민전쟁 전략」하의 조직과 비슷하다. 중공 모택동의 전략은

① 군사전략 복중 정치 전략, ② 변증법적 전략 ③ 인민전쟁 전략으로 모택동의 「인민전쟁 전략」은 간단히 말해 「인민을 동원하여 조직해서 싸우게 한다」는 것으로서 전쟁의 결정적인 요소는 인적요소로 간주하고 인민을 조직화 했다.

홍군(紅軍)창설시 부터 주력군 이외에 적위대 또는 소년 선봉대를 조직하여 그것을 결합시켜 싸우게 한 것은 대표적인 것이다.

1958년부터 중공은 이른바 「인민공시」를 창설했는데 그 것은 「전민계병(全民皆兵)을 실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민병조직이자 군사조직이며, 노동 조직, 교육조직, 체육조직 등 복합적인 것이지만 한 마디로 군사조직이다.

모택동은 인민전쟁 전략을 ① 건립근거지, 이농촌포위성시(建立根據地, 以農村包圍城市) ②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③ 운동전과 진지전의 배합, ④ 소모전과 섬멸전의 배합, ⑤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배 합등등으로 구체화 했다.

이러한 중공의 전략과 북한의 전략이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것은 대체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전략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의 군사전략이 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군사사상과 군사이론을 발전한 것이며, ② 김일성 유일사상, ③ 정치사업과 군사기술사업의 밀

접한 배합 ④ 상비적 혁명무력과 비상비 직무력의 배합, ⑤ 수적(數的) 기술적 우세를 격파하는 유격전략, ⑥ 민족경제에 토대한 군수공업 건설, ⑦ 반동적 「부르조아」 군사이론반대라는 것 등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보다 구체적으로 ①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② 대부대 활동과 소부대 활동의 배합, ③ 불의의 공격에 대한 즉시적인 반격전, ④ 연속적인 타격전, ⑤ 기본전선과 적후(敵後)에 형성한 제 2전선과의 협동에 의한 대포위전, ⑥ 갱도(坑道)에 의거한 방위전과 급격 전, ⑦ 산악전과 야간전, ⑧ 산악 조건에서의 각병종(各兵種)과 군종(軍種) 들간의 협동작전, ⑨ 포화력의 집중적 이용과 유동활동, ⑩ 비행기 「사냥군조」운동, ⑪ 「탱크」 「사냥군조」운동 등등 이라고 말하고 있다.

1962년 12월 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이래 계속계양하고 있는 북한의 이른 바 「사대군사 노선」가운데 「전 인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등은 중공의 「인민 전쟁 전략」을 다같이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군사조직과 전략의 중공화는 북한의 간부들이 일찌기 중공에서 활동했고, 6·25 때 중공군이 대량으로 북한을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전기한 바와 같은 북한의 전체적인 조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북한의 조직은 군사적이든 비 군사적이든 「혁명」이라는 일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북한의 군 정치사업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둘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른 바 「군 정치사업」이다. 공산군에 있어서 군 정치사업 제도를 처음으로 채택한 것은 1917년 11월 소련에서 「레닌」에 의한 「볼셰비키」정권이 수립 됐을 때이다.

당시 「볼셰비키」정권은 권력을 탈취한 후 제정 「러시아」 구군대를 해체하고 「노농적군(勞農赤軍)」을 창설했다.

그러나 새로운 적군은 군사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반 혁명군에 의해 때때로 격심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적군은 처음에 배제했던 구군대의 장교들을 군사전문가의 자격으로 채용했다.

이들 군사전문가들은 다 같이 그 이전 적대계급에 속했던 구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정권에 대해서는 위험한 분자로 간주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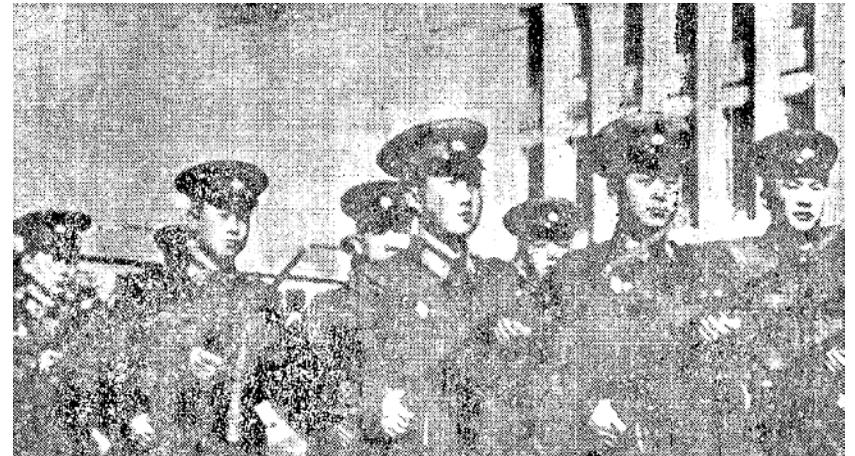
그래서 그들의 배신행위 또는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정치위원을 각 부대에 배치

하여 「이중지휘관제(二重指揮官制)를 채택했다.

처음 소련군의 군사정치 위원은 「군대 내에 있어서 소련 권력의 직접적인 정치기관」으로 규정되어 모든 분야에서 지휘관을 상회(上廻)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지휘관은 정치위원의 서명이나 승락없이 어떤 결정도 실행할 수 없으며 그들은 구군 장교의 감시와 제재(制裁) 그리고 일반 군인들에게 당정 치교육(공산주의 교육) 을 실시하고 계급의식을 불어 넣고 당정책을 되풀이하여 선전했다.

그 후 소련군의 정치위원 제도의 변천상황을 보면 1925년 3월의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5년 부터 28년에 걸쳐 단일 지휘관제로 개편, 정치부관제도를 두어 지휘관 아래서 정치교육과 「콤포소물」(靑年同盟)활동을 지도하는 한정된 분야를 담당했다.



〈학생들 마저 군복을 입혀 소위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주입시키는가 하면 총을 들러 매일매일 군사훈련으로 지새게 하고 있다.〉

이 개편의 배경으로서는 군통수의 이원성(二元性)이 가지는 비능률 구군장교의 사상개조, 「프롤레타리아」계급 출신의 지휘관 양성, 당원 지휘관의 증대 등이 그 이유로서 예겨되었다.

이 개편의 배경으로서는 군통수의 이원성(二元性) 이 가지는 비능률, 구군장교의 사상 개 조, 「프롤레타리아」계급 출신의 지휘관 양성, 당원 지휘관의 증대등이 그 이유로서 예겨되었다. 그러나 1936년부터 1938년에 이르는 「스탈린」의 「피의숙청」시기와 때를 같이해서 1937년 5월 정치위원제를 다시 부활, 이중 지휘체제로 바꾸었다가 1940년에 다시 단일지휘체제, 1941년 독·소 전쟁시는 이중 지휘체제, 그 후 1942년부터는 단일지휘체제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공군의 정치제도 또한 그 설치 경위는 소련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형성되었으며 그 기능 또한 비슷하다. 그러나 그 차이를 든다면 ① 중공군은 정치 위원과 사령원(지휘관)의 이중 지휘체제를 시종일관 계속하고 있으며, ② 중공군의 정치제도는 대중의 정치선전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처음부터 중시되었고, ③ 소련의 혁명 과정은 단기간 인테 비하여 중공의 혁명 과정은 장기간이었던 중공군은 처음부터 적색 지역의 군정까지 하지않으면 안 되었으며 모 간부는 군 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민정관의 기능을 가져야 했다.

또 이것이 장기화함에 따라 군대와 민정이 동질화, 통합되면서 중공 군은 명실공히 정치군의 성격을 띠었으며 중공군의 군사와 일반의 비군사 부문은 전문화되지 못하고 혼합되고 있다(이상은 십자군 73년 9월호 필자「중공군의 정치공작」에서).

이와 같은 소·중공군의 정치제도와 비교해서 북한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조직은 소련군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단일 지휘체제이되 그 기능은 소·중공군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북한군의 현 정치조직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으나 소련의 제도를 보면 국방성에 정치 총국, 각 군종과 각군단, 군관구, 방공군 관구에는 정치국, 사단, 여단에는 정치부 연대, 대대, 중대에는 정치부관이 있다.

북한의 경우 총참모부에는 총정치국과 정치안전국이 있으며 각 군종, 각 부대에 정치부가 있다.

소·중공군 공히 군사력의 원천은 당(黨)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데올로기」 무장을 하는 정치 교육은 군사력 강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보고 있고 이것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보다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은 군대에서의 정치교육만 이 아니라 일반에 대한 정치교육이 일원적으로 당에서 지도되는 것으로서 그 내용과 방법이 똑같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반 정치교육과 군 정치 교육을 구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의 정치교육은 군이든 일반이든 김일성 개인숭배사상을 철두철미 불어넣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전적으로 호전적(好戰的)인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만든 「피바다」라는 연극이라든지 「꽃 파는 처녀」 등인데 전자는 항일 투쟁시기 위 공산 혁명 투쟁을 내용으로 한 것이며, 후자는 일제시 지주(地主)에 대한 투쟁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모두가 다 이러한 것이다.

자유 사회에서는 제 가치관이 병존, 서로 경쟁하고 있으나 북한의 정치교육은 김일성 사상을 중심으로한 일원화된 혁명투쟁 교육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정치교육에 관한한 군사적 인것과 비군사적인 것을 가릴수 없는 일원적인 것이며 이러한 것이 군사력 강화의 주요한 부분이 돼 있다는 것은 새로운 설명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 물리적인 군사기능

세째로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군사기능, 다시 말해 장비와 전기, 무기 제조능력, 동맹국과 지리적 여건 등을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군의 전기는 훈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에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다. 또한 북한의 무기제조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자세히 알려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것 중에서도 비교적 그때마다 노출되고 있는 것은 북한군의 장비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국제 전략연구소가 해마다 발표하는 군사 「밸런스」를 보면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라는 것은 계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병력, 장비의 수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 영국전략연구소의 군사력 「밸런스」(1973~74년판)에 나타난 북한의 군사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병력 = 4십7만

포 = 6천2백문

대공 「미사일」= 20개 대대

중형 전차 = 1천30대

잠수함 = 3척

고속정 = 1백5십8척

수송함 = 없음

전투기 = 5백9십8대

수송기 = 7십9대

헬리콥터 =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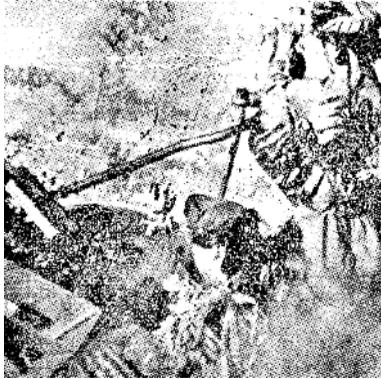
노농적위대 = 1백50만

(1973년 9월 23일 일본 조일신문)

몇해 동안에 걸쳐 발표된 전기한 바와 같은 영국전략 연구소의 숫자를 정리해 보면 무엇이 얼마 증가 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중장비는 대부분 소련제이다. 북한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전투능력을 발휘할 것인지는 추단하기 어려우나 북한은 「1당백, 1당천」 운운하면서 전쟁 준비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제 무기와 미국제 무기와 대결인데 그것은 최근의 제 4차 중동전쟁의 경우를 보면 몇 가지 중대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부녀자들에게까지도 총을 들게 하는
저들의 속셈은?〉

즉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이집트」군과 「시리아」군은 장 비와 병력에 있어서 미제로 무장된 「이스라엘」군보다 3배 이상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으나 「이집트」와 「시리아」군은 「이스라엘」군으로부터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특히 「이집트」군과 「시리아」군은 샘 「미사일」 6호와 7호를 비롯해서 「스테거」 대전쟁 「미사일」 등 신예무기로 장비되었으나 그들의 피해는 매우 컸다. 특히 「시나이」반도를 도하한 「이집트」 제 3군은 「이스라엘」군에 완전 포위되어 보급마저 단절되는 비극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이 점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동전의 교훈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동맹국과 지리적 여건을 볼 때 현재 치열한 중·소 분쟁에도 불구하고 소·중공은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각각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리적으로 소·중공과 육속(陸續)하고 있어 언제나 소·중공은 북한의 후방 기지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도외시할 수 없다.

소·중공의 지원 없이 북한은 쉽게 도발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만약 유격전이나 단기속전을 시도한다면 북한은 소·중공의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서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 결 론

북한의 군사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들이 말하는 의도와 그 준비상황을 미루어 보면 그들이 마음먹을 때 정규전이든 유격전이든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미 유격전은 1,21 사태에서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이 어떤 전략을 실지로 시도하든 그것은 그들의 의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겠으나 전략이나 군사력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억지력 또한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억지력이란 「상대방이 공격하면 보복으로서 무서운 타격을 준다는 것을 상대방에 알림으로써 공격의 도를 중지시키는 정책과 능력을 총칭」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이 계속 증대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억지력을 계속 부단히 증강하는 것 같이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억지력은 비단 군사적인 면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현실적인 억지 전략으로서 ① 힘의 유지, ② 동맹국과의 제휴, ③ 협상 등을 들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똑같은 것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즉 남북대화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그 목적은 긴장 완화와 전쟁 방지에 있으며, 그것은 바로 억지 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는 억지 전략의 일부이되 그 전부는 아니다.

힘의 유지와 동맹국과의 제휴가 불가결의 요소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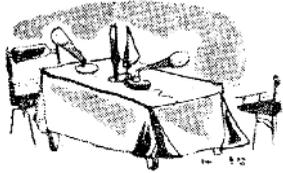
대화 시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중전의 전략을 계양하며 군사력을 증강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

끝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직시할 때 우리에게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은 「이데올로기」 도전에 대한 대비책이다. 물리적인 능력과 더불어 정신 전력의 강화라는 것이 중대함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남북대화종단이후의 북한동향

양세환
<북한문제전문가>

1. 서론



국제세력 관계의 다극화와 평화공존추세가 가속됨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도 서서히 화해 될 수 있는 외부적 여건이 성숙 되기 시작하여 지난 71년 8월 12일 대한 적십자사는 박 대통령 각하의 평화 통일선언(70. 8. 15)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의 하나인 남북 적십자 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하여 이틀 뒤인 8월 14일

북한측이 이를 수락하고 9월 20일부터 적십자 예비회담이 개최됨으로써 4만세기 동안 닫혔던 장벽을 무너뜨리고 분단 27년 만에 비로소 남북대화의 문이 열렸으나 지난 8월 28일 북한 측의 일방적인 대화중단으로 5천만 민족의 감격과 기대감은 점차 식어가고 일종의 실망과 회의감마저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첫째, 북한의 주장과 회담에 임하는 기본자세가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이 컸던 것이다.

둘째, 가장 큰 실망과 회의감은 금년들어 세 차례나 무장 도발 사건을 일으키고 이제까지 잠잠했던 대남 비난방송과 대외 위장 평화공세를 적극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그들의 무장 도발과 위장평화 공세는 남북 공동성명의 근본정신에 위배됨은 물론이며, 모처럼 열린 남북회 담에 대한 우리의 기대 착오에서 오는 실망은 적지 않으며 일종의 분노감마저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북한 측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남북대화를 중단시켰으며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은 과연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그들의 최근 동향이 무엇인가를 파헤쳐 우리는 북한 측의 속셈을 똑똑히 알고 그에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2. 북한의 기본전략

북한 헌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것은 말할것도 없이 공산주의의 기본이념에 입각한 사회주의 사회건설과 그 발전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일성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세우고 그를 위해 유일 사상 체제와 무자비한 혁명적 투쟁을 전개하는 소위 혁명노선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혁명 노선은 공산주의의 기본 노선으로서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오직 무자비한 혁명적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는 공산주의 계급투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북한 공산집단만의 특수한 기본전략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공산주의 집단보다도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한 혁명노선을 지향하여 피의 숙청과 인민탄압을 통해 유일사상 체제의 독재체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다.

이와 같은 북한은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이 그들의 불가피한 역사적 사명이며 남한이 해방되지 않고는 한반도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들이 말하는 해방이란 바로 공산화를 말하며 그것은 오직 혁명을 통해서만 이룩되고 혁명은 폭력에 의한 혁명적 투쟁으로만 성취된다고 주장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혁명 통일론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즉 혁명통일이란 무력 적화통일이다. 그들이 이와같이 무력 적화통일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는한 그들은 남한 침략을 위한 군사력이 필요하며 그 군사력은 언제나 남한의 군사력을 능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방침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남북대화에 응한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임하는 기본자세에 대해 더욱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난 3월 4일 제주도 우도의 무장 간첩사건, 3월 7일 중부 전선 비무장지대에서의 총격사건, 4월 17일 전방 비무장 지대에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일련의 계속적인 무장도발 행위이다.

그리고 7·4공동성명의 기본정신과 명문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대남 중상 비방과 위장 평화공세를 격화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그들의 기본전략에 하등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3. 대화에 응한 북한의 저의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한 것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대내적인 상황,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남한의 여건 변동 등 다각적인 상황판단에 입각하여 대남혁명이라는 그들의 통일 기본전략을 수행하는 한 방향으로 남북대화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국제정세가 냉전체제로부터 평화 공존체제로 이행됨에 따라 북한 역시 언제까지나 홀로 냉전체제의 장벽 안에서 고립해 있을 수는 없고 세계정세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판단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며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서는 다극화하는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따르리라는 것은 북한측이나 우리측이나 매일반이며 이 점에 관한한 우리와 완전히 이해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대내적인 상황을 살펴본다면 북한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60년 후반기에 이르러 중·소 이념분쟁과 국경분쟁이 격화되고 대립적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중공과 소련은 한동안 후진 약소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원조와 지원을 경쟁한 적도 있었으나 점차 그 방향을 전환하여 중·소 양국의 대외 원조가 격감되자 북한 역시 그들로부터 지원이나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중·소 외교에 있어서 등거리 외교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한때는 소련측에 편중했다가 또 한때는 중공측에 접근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대외교에 고심하였던 것인데 68년 8월 12일 북한은 중·소 외교의 중립을 의미하는 소위 자주노선을 표방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북한은 막대한 군사비와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군사비를 줄이고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를 늘이는 한편 다른 외국으로부터 차관이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 현실적 요구로 등장하였다.

군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완화해서 군비증강을 억제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대화는 이러한 그들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정지작업으로서 필요 불가결하다고 그들이 판단하였을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세째, 그들이 판단하기에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은 현 단계로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고 결정적 시기에 불기할 수 있는 지하당의 구축이나 사회교란 요인을 부식시킬수도 없는 철통 같은 총력 안보 태세로 말미암아 당분간 적극적인 남한의 적화기도는 중단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또한 합법적이며 공개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혁명 사상을 남한에 침투시키는 전술적 전환이 오히려 그들의 혁명전략을 수행하는데 유리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넷째, 한국측의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본래 북한은 통일문제의 논의

및 남북교류를 위해 남북협상을 하자고 수차 제의한 바 있어서 한국측으로부터의 남북대화 제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 그들의 제의가 허위적인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 되고 만다.

물론 북한의 이때까지의 남북협상 제의가 다분히 선천적 효과를 노린 것이고 또한 한국측이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예측한 모략적인 것이었으나 한국측으로부터 제의에 직면한 이상 좋은 싫든 부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째, 북한은 남북한의 대화에서 소위 합작의 기대를 가졌다고 보겠다. 여기서 말하는 합작이란 한국측의 반공적 입장을 무너 뜨리고 그 바탕 위에서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통일문제를 비롯한 정치노선에 대한 광범한 지지를 획득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본래 남북이 서로 양보하여 어떤 중간에서 타협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 자기측의 기본 입장을 고수한 채 상대방의 양보만을 요구함으로써 중국적으로 공산주의에 의한 한반도의 지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합작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4. 일방적인 남북대화 중단 성명의 속셈

지난 8월 28일 남북조절위원회 평양 측 공동위원장인 김영주(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겸 조직 지도부장)는 일방적으로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5천만 민족 앞에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김영주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성명 내용은 ①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씨 납치사건을 주도했다는니 ② 한국은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데 반대 했다는니 ③ 말로는 완전 개방을 떠들면서 실제적 대책을 취하는 것을 회피했다는니 ④ 반공 정책을 강화하여 수많은 친공 인사와 간첩을 체포 처형했다는니 ⑤ 박 대통령 각하의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특별선언이 두개의 한국을 획책하고 있다는니 하는 구실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대화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취소하고 둘째, 우리의 반공정책을 포기하며, 셋째,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들의 즉시 석방등 현실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것들만 골라서 내세웠으며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과는 더이상 남북조절위원회를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성명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첫째, 북한측은 남북대화를 통해 지금까지 시도해 온 대남혁명 전략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둘째, 박 대통령 각하의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 국제적 긴장완화 정세에 능동적이며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또 한국에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되니까 북한이 종래 주장해 오



〈분단 27년만의 대화를 여는 대한적십자 대표단을 환송하던 열망과 기원은 어디로……?〉

던 남북연방제 등의 비현실적인 전략이 무위로 끝나게 되었으며 셋째, 북한의 대남혁명의 구체적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대민족회의 소집으로 현재의 회담이 남북 당국자간의 성격에서 범국민적 기구로의 전환을 어느정도 기대하였으나 이것마저 무산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넷째, 김대중씨 납치사건을 국제적으로 여론화 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지위 약화와 외부로부터의 여론과 압력에 의한 해결 방로를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으로서 우리의 유신체제를 붕괴시키며 나아가 남북대화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자는데 근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김영주의 성명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화의 상대방인 이후락 서울 측 조절위원장을 배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당초에 목적했던 대남 전략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대화 상대방의 기피는 어떤 구체적인 구실이 없이는 명분이 없는 것이므로 김대중씨 사건을 이와 연계시킴으로

써 그들 스스로 사건을 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측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일방적인 성명을 내게 되었는데 그 속셈은 첫째, 무엇보다 공산진영에까지 박 대통령 각하의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 선언이 묵시적 긍정(默示的 肯定)을 받고 있다는 점에 썩기를 박는 한편 지금까지 주장해 온 남북연방제 실시, 단일 국호에 의한 UN 가입 등의 주장이 비현실적인 것으로서 의고(凝固)되어가는 것을 애써 용해시켜야 하며 둘째, 회담의 지연책임을 국내의 민주인사 탄압, 애국지사체포, 구금등 소위 그들이 항상 주장해 온 「상호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한 배척을 피하여 여기에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것은 그들의 비현실적이며 추상적 제의인 정치적 합작의 우선 해결주장이 사실상 선전적 효과만을 노려왔다는 세계적인 여론에서의 탈피와 정치적 합작의 전단계인 경제, 사회, 문화적 합작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현실화되어가고 있는데 대한 그들 나름 대로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며 셋째, 김대중씨 사건을 대화 결렬 요인의 하나로 부각 시킴으로써 한·미·일 간의 기간 책동과 불신기운을 조성하여 정의 및 경제적 지원 문제에까지 파급효과를 확대시켜 국제적 여론을 자기들 측 주장에 유리하도록 끌어들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현 조절위원회 기구와 구성으로서는 대남전략 수행이 불가능하며, ② 우리의 「6·23 선언」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것으로서 국제적 호응을 받고 있으며 ③ 그들의 소위 정치, 군사 합작주장이 비현실적인 것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담 결렬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시키려는 공산당 특유의 수법에 불과한 것이다.

5. 최근의 북한동향

7·4공동성명에서 호국통일은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룩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들은 민족 앞에 서약했다. 남북 쌍방은 이 역사적 합의사항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 동향을 살펴보면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본래 북한이 말하는 평화적통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통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북한은 통일의 문제를 혁명의 문제로 보고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적 사상에 의한 통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노선이란 공산화의 통일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전달인 72년 7월 3일 평양방송을 통해 「현 상태에서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것은 환상이며 남조선혁명을 수행해야만 비로소 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조선혁명은 오

직 폭력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7·4 공동성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동성명을 처음부터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겠다는 속셈을 미리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평화통일에 대한 북한의 진의는 점차 부각되어 나왔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북한동포에게 한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여전히 고취시키고 있으며 전쟁준비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남북대화가 안 되고 있는 책임을 한국측



〈적화통일 야욕의 속셈으로 남북대화에 응한 저들은 숨겼던 이빨을 드러내었다.〉

에 전가시키는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의 국제적 위신을 추락시키기 위해 적의에 찬 외교활동과 중상모략에 광분하고 있다. 특히 73년 3월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수일 앞두고 북한측이 감행한 일련의 도발행위는 우리 국민에게 경각심을 안겨주었다. 제주도 근처에 있는 우도에 북한 무장 간첩선이 출현하여 우리측 인원을 사살한 사건과 또한 중부 휴전선에서의 총격사건 및 4월 17일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이 그것이다.

한편 11월 12일 대간첩 대책 본부는 북한의 대남 비방선전의 내용을 국민앞에 자세히 제시한바있다. 즉 북한은 지난 10월 중에 경기도, 강원도와 휴전선 일대에 마치 남한대 정치사회단체 인양 명의를 날조하여 수천장의 모략전단을 살포하였으며 평양 방송을 통해 악의찬 비방 중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북한측의 심리전 수법은 상투적으로 쓰여지는 것이므로 새삼 놀

랄 바도, 분노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명확히 여기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남북공동성명의 약속을 고의로 또한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 성명은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을 것」을 조국통일의 원칙으로서 뚜렷이 다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조절위원회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대남 중상과 비방을 강화하고 있는 처사는 말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떠들지만 그 진의는 다른 곳에 숨어있다는 것을 스스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호전적이며 반 만족적인 자세에서 어떠한 평화통일의 제의를 하든 객관적으로 신빙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성공시키고 또한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을 착실하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대신 모략에 찬 대내의 선전과 허구적인 평화통일 제의로 남북대화에서 그들의 부당한 주장을 자기 측에 유리하게 이끌려고 피하고 있다. 김일성은 73년 4월 16일 「시하누크」를 환영하는 연설에서 남북조절위원회에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및 각계 각층의 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안하였으며 73년 6월 23일 저녁 체코 공산당 총비서 「후사코」를 환영하는 집회에서 「평화통일 대강령」을 제안하였는 바 첫째,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 상태의 완화, 둘째, 남북 간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셋째, 남북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넷째, 고려 연방공화국의 단일 국호에 의한 남북 연방제 실시, 다섯째, 고려 연방공화국 단일 호국에 의한 UN 가입 등이다. 또한 11월 5일 북한 부총리 정준기(사상 및 문화담당)는 일본 경제신문 회 대표단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남한의 미군 주둔에 관계 없이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평화통일 제의가 무력남침의 연막으로 그리고 한국정부와 국민사이를 이간시켜 이른 바 혁명세력을 규합시키는데 기본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6·25 남침과 휴전후 수많은 간첩침투 사건 및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으로 실증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대화 시대에 평화통일 제의가 진실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서는 통일에 대한 그들의 기본전략을 변경해야 하며 그 증거를 5천만 겨레 앞에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산당의 배타적인 가치관과 공산주의의 호전성 때문에 그들의 기본전략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있는 새로운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의 평화통일 제의는 성실하지 못하고 허위에 차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4대 군사노선을 들고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남북간 군사문제 우선적 해결론 과도 어긋난다. 참으로 북한측이 남북의 균축을 원하고 또 균축이 남북한 긴장완화에 기여된다고 본다면 4대 군사노선을 이제와서 다시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지난 10월 초순에 인민군 지휘관 및 정치군관회의를 개최하고 4대 군사노선의 관철과 1당

백 1당천의 혁명 군대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계속 4대 군사노선 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대내외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대내적 배경으로는 김일성 권력이 긴장과 투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북한내에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면 그 권력이 위협을 받게 된다. 수많은 정적이 숙청된 것도 본질적 면에서 보면 강경파가 온건파를 누른 결과이며 김일성의 유일사상을 북한의 대중이 무조건 받들고 단결하라는 것도 전쟁의 위기의식을 부단히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직장과 농촌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도 혁명을 하고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높은 생산을 내라고 독려하고 있는것도 모두 그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4대 군사노선은 김일성 권력유지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외적 배경으로는 정세변화에 따라 전쟁으로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소위 「남조선 혁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남북간 군사력의 균형을 자기측에 유리하게 확보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남북의 군사력 관계에서 자기측이 우위를 확보해야만 적화통일을 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보복력이 된다고 보고 있다. 어쨌든 북한의 4대 군사 노선은 남북대화의 배후에서 탄 구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6. 결론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기본전략은 하등의 변화가 없으며 북한은 지금도 악의에 찬 비방과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다. 남북 적십자회담과 남북 조절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진지

수개월이 지났다. 지난 11월 15일 남북조절위 서울 측은 지금 중단 상태에 빠져있는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간사위원회회의를 열자고 평양측에 제의했다. 그리고 같은 날 대한 적십자사도 북적측에 대해 제 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동시에 제의했다. 이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은 회의를 개최하는 조건으로서 ① 서울측은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을 취소할 것 ②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석방할 것 ③ 남북조절위원회는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할 것 등의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한 마디로 한국 정부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 그런 요구조건을 내세운다는 것은 바로 북한측이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통고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한낱 적화통일의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전략과 술책을 깨끗이 버리고 하

루바삐 민족의 양심으로 돌아와서 성실한 자세로 남북대화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평화통일의 길을 넓히는 것이며, 민족의 대의에 충실하는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성실한 대화의 계속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것은 적화통일의 전략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는 것이다.

조국 통일은 우리 민족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기필코 이룩해야 할 민족사적 당위인 동시에 우리 세대의 사명이기도 하다. 우리는 북한측이 하루속히 민족의 양심으로 돌아오도록 인내와 성실로 설득하여 남북대화를 계속함으로써 평화통일의 대도를 넓혀 나가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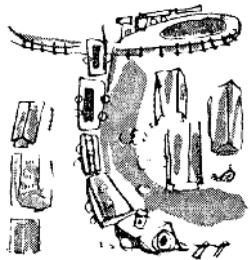
그리고 남북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국력을 언제나 북한보다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끝으로 앞으로의 북한측의 동향을 우리는 예의 주시하여 총력안보태세의 총화를 위해 10월유신의 이념을 구현해 나가는데 매진하는 것이 곧 남북대화에 협조하는 길이다.





새마을운동과 군인의 정신자세

조정기



서언

새마을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오르고 있다. 이 새마을 운동은 우리도 잘살아보자 잠자던 “마을”을 일깨워 우리 스스로의 힘과 마음을 한데 뭉쳐 잘 사는 마을을 이룩해 보자는 “자조” “자립” “협동”의 강한 의지가 응결되어 타오르는 자주의념의 불길이며 자립 의지와 분출이고 협동 정신의 승화이다. 이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자기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의 불길이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나”를 잘 살게 해주지는 않는다. 서로 힘을 모아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자조” “자립” “협동”의 슬기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는 바로 우리 민족의 각성의 외침이며 민족생명의 분발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조국 근대화를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결실을 맺는 날까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한 마디로 조국 근대화와 행동철학이며 조국 근대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범국민적 일대 약진 운동이라고 말하였다. 새마을운동에 참여해야 할 모든 군·민(軍·民)은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자기의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명감에 입각한 자발적 참여 활동은 그 참여자들에게 무한한 생의 보람과 긍지를 안겨다 줄 것이다.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은 자발성과 적극성, 신념과 용기를 복돋아 마침내 봉사 정신으로 승화되어 강한 협동력으로 응결될 것이며 다시 이것은 새마을운동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추진력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뜻깊은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실효를 거두는 이때 우리 모든 군·민(軍·民)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인 우리 전장병도 새마을 정신에 순응한 새로운 정신자세가 정립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선 새마을운동의 기본개념과 정신을 개괄하여 군인으로서 취해야 할 정신자세를 약술하여 보려고 한다.

1. 근대화 작업과 정신개발

조국의 근대화 가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영역의 근대화를 의미한다고 함은 주지의 사실이며 정신개발의 문제야말로 근대화 작업의 기본적인 바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신 상황이 전 근대적인 상태에 머물고있는 한 결코 실질적인 근대화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외형만의 기형적인 근대화에 불과하고 참다운 근대화가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개발에 역점을 두었던 그 동안의 근대화 작업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발전에 있어 국민의 정신적 자세가 가지는 의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인식하게 된다. 즉 물량(物量)면의 성장이 국가발전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병행하는 근대화 정신의 개발 없이는 절름발이 발전 밖에될 수 없고 경제성장 그 자체도 유효하게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사실 인간이 자기의 현재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창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결의와 계획이 앞서야 하며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바로 인간의 정신이 역사창조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질”과 “정신”의 개발은 항상 상호보완의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그 선도적인 역할은 언제나 정신적 측면에서 맡아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국 근대화 작업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전근대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버리고 보다 밝은 내일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 국민의 자기발전지향,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정신적 자세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결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조국 근대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신자세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자조”와 “자립”과 “협동”의 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총력안보” 지도 요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자조”하는 정신이야말로 자기 개인의 생활향상을 위해서는 물론 지역사회 개발 국가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바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신념으로 자연을 개척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태

도만큼 근대화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없다. 자조 정신의 결여는 곧 개척정신의 결여를 의미하며 무사안일의 속명론과 직결되는 퇴영적인 정신자세이다. 그러한 정신자세로서 전 근대적 요인들의 소탕 운동, 즉 근대화 작업을 어떻게 성취시킬 수 있겠는가? 또한 자립의 정신도 마찬가지이다. 자립의 정신은 바로 자결의 정신이요 자활의 정신이다. 합리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절약과 검소를 생활화하여 안으로는 가계를 자립하고 밖으로는 사회와 국가를 자립토록 만드는 것, 이것이 조국 근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과업이다. 자립과 능력이 없는 “자”는 남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남에게 의존하는 “자”는 그에게 예속되고 지배되어야 하는 것이니, 이러한 예속 관계에서 근대적인 인간관계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근대화 작업은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창조하며 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작업이므로 여기에는 개개인이 힘을 모아 서로 협동하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협동정신과 연대의식은 자조, 자립의 정신과 더불어 근대화 작업을 추진하는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정신자세이며 실천 요강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야만 공동의 노력, 단결된 분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창의성을 발휘하고 과학기술을 연마함으로써 새 경지를 개척해 나가는 그 곳에서 조국의 근대화는 참답게 성취 될 수 있을 것이다.

2. 「덴마크」의 부흥과 「그룬드비히」의 구국정신

오늘의 「덴마크」가 있기까지는 동족의 불행을 통감하여 피눈물 나는 노력을 경주했던 몇 사람의 애끓는 호소와 굶힐 줄 모르는 신념으로 국민을 지도했던 지도자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들의 「애국심」 「사상」 「신념」 「정열」과 「용기」가 밑받침이 된 노력은 한 나라 한 민족을 구출해낸 인간승리의 한 상징이요 산 증거라 할 수 있다. 「덴마크」가 자멸할 수 밖에 없다고 할 만큼 몰락하고 부패했을 때 애국심에 불타는 「신념」있는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그룬드비히」(Grundvig)이다. 그는 「덴마크」를 부흥시킨 국민 고등공민학교의 창안자요 「덴마크」 민족을 일깨워 기사회생(起死回生)시킨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룬드비히」는 자라 나는 세대에게 암담한 사회를 그대로 물려 줄 수는 없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보여주어야 하겠다는 신념에 불타있었다.

그는 그 방법이 바로 교육에 있음을 간파하고 그가 구상한 교육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국왕에게 건의 호소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룬드비히”는 이에 굶치지 않고 자기의 이념에 동조하는 동지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적극 공명하고 나선 이가 교육가인 “크리스틴 콜”(Christen Cold)이었다. “콜”은 “그룬드비히”의 이념에 입각한 학교를 창설하고 오랜 시련

끝에 마침내 성공적으로 그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다. 후일에 황무지를 옥토화한 것이라든지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든지 전 국민의 교 양과 지적 수준을 향상시킨 것 등도 바로 이 국민 고등공민학교가 낳은 공적인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70~80년 전 덴마크에서는 “그룬드비히”를 위시한 몇 사람의 지도자가 지금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바와 같은 새마을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들이 맨 처음에 부르짖은 것은 “민족성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민족성을 고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잘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민족의 정신적 혁명이요, 민족 개조 운동이며 국민 재건 운동이었던 것이다.

그 당시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다고 했다. 그들에게는 내일의 희망도 없으며 자포자기적인 생활태도 밖엔 없었다. 사회적인 부패상은 말할 수 없는 정도로서 더 이상 부패할 것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 덴마크”는 지옥문 앞에 다다랐다고 했던 것이다. 이들 지도자들의 구호 역시 ‘지옥문 앞에서 돌아서자!’ 는 것이었으니 그 타락상은 가히 짐작할만하다. 그들은 또 한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고 외쳤던 것이다. 그것은 전쟁에서 잃어버린 국토 몫을 국내 개발에서 찾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회와 농촌 을 재건하자는 뜻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져 나가자는 자 조 자립 생활의 부르짖음이었다. 이와 같이 「덴마크」 국민의 사상과 생활과 민족성을 개혁하여 조국을 멸망에서 구원하고 청년들에게 꿈을 안겨준 구국운동의 핵심은 국민 고등공민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의 결과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신적인 교육이 민족과 국가를 구해 낸 산 역사적 교훈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또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에 있어 정신개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 요소로서 근대화 혁명의 관건임을 「덴마크」의 산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3. 새마을운동의 이념

“새마을운동”은 그 운동단위(單位)하나만을 분리시켜 생각할 때에는 지극히 간단하게 보인다. 즉 한마을의 주민이 스스로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우리 마을」을 만들수 있겠는가』를 연구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 나쁜 점을 고치고 좋은것을 이룩해 나가는 운동으로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다.

좁고 불편한 길을 마을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 고치는 것도 새마을운동이요, 도박을 하지 않고 마을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그야말로 새마을운동은 우리주변에서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말하자면 “새마을운동이란” 매일 매

일 아무런 변화없이 안일하게 살아오던 습관을 버리고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자기 마을을 「어제보다 더 살기 좋은마을」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른말로 표현하면 온 마을의 주민이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을 가지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내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오늘의 자발적인 노력이 「새마을운동」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새마을운동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며, 누가 시켜서 하지 못 해하는 일이 아니라, 앞장서서 해야 할 자발적인 일이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잘살 수 있는 이처럼 손쉬운 일들을 또한 이렇게 명백한 길을 깨닫지 못하였고 또 실천하지 못했다. 간혹 개인적으로 는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온 마을 주민들이 그에 호응해서 협동하면 쉽게 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애쓰다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것을 모두가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좋은이웃”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새마을운동이다. 한편 인간이란 원래 강하면서도 약하고 현명하면서도 어리석은 본성을 누 구나 지니고 있다. 마음을 가다듬고 끈기있게 무엇인가 이룩해 보려고 애쓴 사람은 성공했다. 노력해 보아야 힘 만들지 별것 없다고 가만히 안일하게 지낸 사람은 언뜻 볼 때 현명한 듯 하지만 결국 과적으로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또 없는 것이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지만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내 마음을 잘살게 만들자는 이 새마을운동도 실로 그 성패는 바로 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든다는 새마을운동이 작게는 자기자신을 복되게 함은 물론 크게는 지역사회 전체와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정신자세와 실천 행동이 온마을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마을 한 마을의 새마을운동은 그것이 뻗혀 전국적으로 물결칠 때 잘사는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이야말로 조국 근대화를 성취해 나가는 우리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이고 구체적 실천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새마을운동이 단순히 마을을 깨끗이 하고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소의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우리는 새마을운동의 이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내” 자신 “내” 이웃 “내” 마을을 새롭게 건설하자는 이 새마을운동은 그 일차적인 목표가 자기마을을 잘살고 복된 터전으로 가꾸는 데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나아가서는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를 새롭게 건설하고 국가사회 전체를 근대화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안전하고 통일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고 민족의 중흥을 이룩하는 조국 근대화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운동의 추진은 곧 구체적인 애국의 길을 실천하는 것이며 조

국 근대화의 민족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느끼는 차원 높은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것이다. 실로 새마을운동이야말로 우리의 지상목표인 조국 통일 민족중흥을 성취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 조성작업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기발전 운동이라 할 수 있는 이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하여 협동노력하는 새로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애국하는 국민이 갖추어야 할 자조 협동 정신의 함양 운동이며 성장하는 사회가 추진해야 할 생산건설 기풍의 조성운동이며 발전하는 국가가 이룩해야 할 소득증대와 복지사회의 성취 운동이고, 국력배양 운동이다. 이렇게 볼 때 새마을운동의 이념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향상과 자유로운 성장은 물론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중흥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시대적 이념인 조국 근대화의 이념과 일치된다고 하겠다.

4. 새마을운동의 정신개발 및 생활태도 개선의 목표

정신과 생활태도는 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도 개발된다. 그러가 하면 반대로 정신과 생활태도는 경제개발의 원동력의 구실을 하게 된다. 또한 정신 개발과 생활태도와의 사이에도 이와 유사한 상호작용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어느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인가는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정신개발이 앞서야만 경제 개발이나 사회개발을 촉진 시킬수 있는 동기 여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경제 및 사회적 개발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정신개발과 생활 태도의 개선은 그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촉진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개발과 생활태도 개선은 모든 인간 활동의 동기와 추진력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촉구되고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정신 개발 면에서는 근대화된 사회의 국민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정신자세가 그 목표가 되겠고 생활태도 면에서는 그러한 정신자세에 입각한 인간행동 규범의 생활화가 목표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대화 정신을 “합리적인 사고, 즉 사유의 합리화로 표현하며 근대적 생활 태도에 대해서는 생활의 합리화와 과학화란 말로 그 개념을 규정한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에서의 정신개발에 있어서도 결국 사유의 합리화와 생활의 합리화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 기본적인 요건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자조” “자립” “협동” 정신으로 포상되는 새마을 정신의 함양 뿐만 아니라 소망스러운 모든 정신의 함양은 결국 가치관의 확립에서 출발 된다. 올바른 인생관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 등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른 가치관과 그 뿌리를 같이하는 정신자세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개발에서 무엇보다도 성취되어야 할 목표는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이다. 인간 생활에서 또는 인간활동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옳게 판단하고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활동하려고 하는 정신이 뿌리박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정신자세는 이 미개발되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함양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바람직한 가치관 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수 있을 것이다.

나. 자조 자립 협동정신의 생활화

자조, 자립, 협동 정신이란 인간이 자기 의무와 자기 사명을 다하고 나아가 공익과 공동사회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동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말한다. 이러한 정신요소는 가치관의 핵심을 이루는 정신이라고 할수 있다. 인간의 참다운 가치는 결국 얼마 만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훌륭히 활동하느냐에 달려있다. 자기일 개인만의 이익을 위한 노력보다는 한 마을의 복지를 위한 노력이 더 가치 있고 한 마음보다는 더 넓은 사회와 나아가 국가 민족을 위한 노력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 민족을 위해 일신을 바치는 참다운 애국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것도 그 까닭이다. 그러한 활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 즉 자기발전 노력에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곧 자기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것을 말하며 자조, 자립, 정신은 곧 자기 사명 완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다. 이것은 자주성 또는 주체성으로 발전되며 협동을 통하여 타에 대한 공헌으로 승화 발전된다. 그것은 다시 민족 주체성으로 제고(提高)되고 조국애와 민족 애등 애국심으로 발양(發揚) 되며 정의와 인류애로까지 승화 발전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자기발전의 추구에서 출발해서 민족과 국가의 발전 추구로 확대되고 자기 본위에서 출발해서 민족수호와 조국 본위의 정신으로 승화 고양(商揚)된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요소를 자조, 자립, 협동으로 추출한 것은 매우 적절하며 그러한 정신요소의 개발과 함양을 새마을운동의 정신목표로 채택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주체성의 확립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은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주체성의 확립으로 승화 발전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타인에 대한 봉사가 가장 가치있는 일이라면 국가에 대한 봉사, 민족에 대한 봉사 즉 애국심의 발양과 구현 이상으로 가치있고 보람 있는 “봉사”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확고한 국가관에 입각한 국가에 대한 봉사, 민족 주체성에 입각한 민족에 대한 봉사로까지 새마을운동의 정신개발 영역을 승화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 생활의 합리화

근대화된 생활이란 결국 생활을 과학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생활태도의 함양은 생활환경 면에서 과학적인 생활기구와 생활양식의 도입으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뿐 아니라 의·식·주의 모든 면이 과학 문명의 발달에 적응하여 보다 과학화되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의·식·주 생활의 과학화 뿐만 아니라 예법이나 관습이나 생활풍습 등 모든 인간관계 면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한 인간미를 상실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리성을 띠지 않으면 안 된다.

마. 건전하고 참신한 생활태도

경제적 부유와 생활 환경의 복지와는 잘못하면 인간 정신의 타락과 퇴폐성향을 조장하기 쉽다. 인간이 그 생활환경을 윤택하게 조성하는 근본 목적은 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동물 생활과는 달리 근본적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도덕적 타락에 빠지지않고 감정에 치우쳐서 정의를 행하는 이성을 잃지 않으며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호혜평등(互惠平等)의 원칙하에 따뜻한 인정의 교류를 이룩하고 참된 가치 창조와 문화 창조로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 가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불의도 불신도 부정도 부패등 여하한 부조리도 없는 공익 숭상과 건전하고 참신한 생활이 있어야 한다.

바. 허례 허식을 떠난 실질 숭상의 생활 태도

끝으로 바람직한 생활 태도의 하나로 유교적 형식주의에 얽매었던 허례허식의 인습을 타파하고 실질적이며 현대적 예의로 개선하여 그에 입각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과거의 허례허식적인 관혼상제(冠婚喪祭) 등 종래의 의례(儀禮)를 현대 생활에 맞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 의례준칙은 사회의 발전과 변천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개선 발전시키고 합리화해 나아가 할 것이며,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 그를 생활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례준칙의 생활 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검약하고 소박한 생활태도와 공중도덕과 사회질서 및 국법과 규율을 스스

로 지키는 문화인으로서의 생활태도를 함양하는 데에 새마을운동과 정신개발을 위한 하나의 목표로 삼아야 하겠다.

6. 새마을운동에 대한 군인의 정신자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강대국들의 탐바구니에서 침략의 시련을 겪었고 또한 그들의 군사적, 사상적, 문화적, 경제적 세력하에 허덕이고 있었다. 70년 이래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격동 속에서 약소국가들은 저마다의 활로를 찾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운동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이때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인 우리는 새마을운동의 이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어떠한 정신자세를 취하여야 하겠는가 를 간추려 보면

1) 주체의식을 갖자

밖으로는 국가의 주체의식이요 안으로는 군대내의 주체의식이다. 한 집단의 일원으로써 “나”야 일개 졸병에 불과하니까 시키는대로 하면 되겠지 하는 정신 상태를 전부 갖고 있다면 그 집단은 발전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집단 개개인이 이 것은 “나”의 부대이니 “내”가 주인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맡은일만큼 발전을 방해한 다는 정신자세를 가졌다면 그 집단은 눈부신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2) 자조 정신을 갖자

옛날부터 우리 민족을 평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수하나 여러 사람이 모이면 약하다는 말을 들어왔다. 이것은 새마을운동과 군인의 정신자세, 서로 돕는 협동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일어나도 국제사회에 보조를 맞추기가 힘든 실정인데 개인주의나 배타주의가 있어서는 영원한 후진국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군대 집단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때에 따라 자기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는 집단에서 서로 편해 보겠다고 남에게 일을 미루거나 자기의 일을 방치해 버린다면 단체생활을 하는데 화목단결과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고 사기는 저하되어 전투에 임한다면 필연코 패배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서로 협조하는 자조 정신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립정신을 갖자

일반 사회에서는 새마을 사업에 일치 단결하여 잘사는 마을을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제 군원도 머지않은 장래에 끝나게 되고 국가 스스로 자주국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인도 부대 내에 산재해 있는 유휴지와 황폐지를 개간하여 유실수를 심고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 소비의 군대에서 생산의 군대로 전환 하여야 하겠다. 이와같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하려는 국가의 의도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당연히 가져야 할 군인의 정신 자세라 하겠다.

4) 자위정신을 갖자

현재 국제사회는 평화무드에 젖어가고 있으며 강대국들 능력의 한계와 막대한 예산의 소요 등으로 타국의 전쟁에 가급적 개입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노리고 북한은 남침의 마수를 뻗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중립화를 희망하고 남북 적십자회담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우리군인도 동조해서는 안 되겠다.

또한 날로 팽창해 가는 중공의 세력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며 동남아 제국들이 중공과 교역을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직접 적대관계에 있지않는 공산권과 교역을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것을 1971 11월에 밝힌 바 있다. 이와같은 적극적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력이 가장 중요하다. 한반도의 군사력은 양적으로는 능력의 제한을 받는다 할지라도 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서는 무한한 발전을 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5) 인화단결심을 갖자

인화단결은 군의 내적 충실에 가장 선행의 문제라 하겠다. 위에 설명한 모든 내용들도 인화단결 없이는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고 실제 어떤 곤경에 처해서 문제해결을 할 경우에도 헌신적인 노력이 불가능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화단결은 명령과 복종만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여기에는 인격과 교양과 지식과 투철한 군인정신이 원만하게 갖추어져야 하며 상급자와 하급자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가 뚜렷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6) 계획적인 생활습성의 심화

우리는 생활주변에서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이 많은 것을 느낀다.

일과 전의 시간 계획, 일과 중의 시간 계획, 일과 후의 시간 계획등 어떠한 행사나 행동에 당하는 대로 무계획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생활을 보다 계획적인 견지에서 다루어 생활의 과학화를 기하여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사

고방식과 지속적인 진척관리를 하여야 한다.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작성하는 것만이 최상의 일이 아니고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생각해 내고 이러한 요소의 선 후 관계를 조직하는 사고방식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습성이 일상생활에 도입되면 보다 훌륭히 일을 해낼 수 있고 실수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진척관리란 어떤 사람이 계획만 작성하여 놓고 그 효과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계획만 수립하여 놓으면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속적인 진척 관리를 함으로써 그 때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장래 목표달성에 대한 예측내지 사전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계획을 훌륭히 세웠다 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으며 계획 자체가 장래에 대한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수립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인 진척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바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우리들의 인사말에도 얼마나 바쁘십니까?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된다. 물론 바쁜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바쁘지는 않다. 어떤 사무실에 전원이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지휘관이 자기 부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면 그 지휘관은 현대적 지휘관에 미흡한 지휘관이다. 왜 야근을 하고 있는가, 주어진 임무가 과중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부족하여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있지 않은가? 또한 밤일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만이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가등을 분석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업무가 과중한 경우도 있으나 극히 드문 일이고 대부분 낮에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 밤에까지 끌고가는 일이 많으며 야근을 하더라도 필요 없는 요원까지 체면에 따라 남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조그만한 일이 생겨도 전원이 남아 근무하는 사례가 흔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전원이 참여한 야간근무가 최선의 “성의”인 것으로 생각하는 상관이나 부하가 있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은 좀 더 과학적 견지에서 검토 개선되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인은 민족과 생존과 조국의 변명을 기약하고 평화적 조국통일의 성취와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립과 사회개혁을 위해 10월유신과 새마을운동의 기본이념에 발을 맞추어 굳건한 신념의 생활 속에서 소속에 대한 일체감을 형성하고 군기강을 확립하여 병폐적이고 형식적인 관습생활을 배제하여 장병 개개인이 상호존중하고 자기일에 충실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충성심을 발양하는 정신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월남항공우세

〈1〉

이명완

목차

1. 항공우세의 중요성
2. 월남에서의 항공우세 작전
 - 가. 대공포
 - 나. 지대공 미사일
 - 다. 항공기
- 3.결 론

1. 항공우세의 중요성

항공우세의 교훈은 특히 2차 대전, 한국전, 6일전쟁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4차 중동전에서 명시되었다. 한국전과 월남전의 경우처럼 공군력이 전쟁승리를 보장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공군력이 없이는 현대의 지상군과 해군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항공우세를 획득하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위협이 존재하며 이것을 제거하거나 무력화(無力化) 하여야 한다.

대공포(AAA)

지대공 미사일(SAM)

적 전투기

오늘날 항공전력은 모든 작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공우세는 어떤 전투에서든지

사활문제가 된다. 전사에서 볼 때 항공 우세를 획득한 국가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명시하여 주고 있다. 사실상 자기의 군사력이 생존하고 효과적으로 작전하려면 자기영공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 군사상의 공리(公理)로 되어있다. 이에 대한 한가지 좋은 실례는 2차대전 중에 있었으며 당시 Pantelleria도 (Junisia 와 Sicily 중간에 위치)의 방어자들은 1개월 동안 무저항 폭격을 받고 상대방 지상군이 진입하기 전에 항복했던 것이다. 한국전과 월남전은 항공전력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승리를 확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여 준다. 전쟁에서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항공우세는 가급적 속히 적 영공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후방차단 작전, 근접 공중지원 그리고 전략폭격 작전등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된다.

Henry H. Arnold 장군은 대륙진공전에 예하 지휘관들에게 공세를 취하여 항공우세를 획득하라고 지시했다. 즉 그는 「항공우세는 당위사이다공중이나 지상이나 공장 어디에서든지 발견하는 대로 적 공군력을 격파 하라」고 지시했다.

이리하여 미국 전투기들은 공세를 취 하고 탐색 격파전술(Search and Destroy Tactics)을 씀으로써 1944년 2월과 3월 사이에 독 일전투기 800대를 격추시켰던 것이다. 한국전에서 공산군이 공격을 가하고 있었을때 유엔군은 적의 진격을 저지시키고 우군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항공전력을 이용하였다.

한국 전 개전후의 첫 6주 동안에 북한공군의 항공기 110대를 격파함으로써 약 22대만 남게 되었다. 미국 항공기들은 그후에 주로 후방차단과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에 동원되었다.

이로써 북한은 1950년 11월에 소련제 MIG-15를 도입할 때까지 미군의 항공작전에 어떤 위협을 주지 못했다.

이 MIG기들은 압록강 너머 중공비행장에서 작전하였으며 따라서 지상에 주기 중에 공격을 받을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항공기들은 공중전에서 격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공산측 항공기들은 미군기들이 북한의 비행장에 계속 폭격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에서부터 대규모 공격을 하지않았다.

MIG기들은 B-29에 대한 요격도 별로 하지 못했다. 한편 미군 및 그 우방군들은 산속하게 항공우세를 획득 유지하였기 때문에 미군 및 우방군의 지상군 및 비행장은 별로 적의 공중공격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압도적인 수의 중공 군과 북한군을 반격하는 데 필수 불가결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월맹에서 적은 미 공군력의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방공체제를 수립하였고 완전 작전화 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MIG 기지는 1967년 4월 23일까지 손을 댈 수 없었다.

지대공 유도탄(SAM) 기지는 미국의 F-4C 항공기가 격추된 3일 후인 1965년 7월 27일에 공

격 목표물이 되었지만, 훨씬 그 이전에 기지가 건설되어 있었다. 이 때까지 SAM 기지는 진지 구성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기가 기지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6대의 항공기가 SAM으로 격 추되었다. 그러나 미군기들은 월맹 상공에서 항공 우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손실이 없이 임무를 수행 할 수 있었다.

2. 월남에서의 항공 우세 작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항공 우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크게 세 가지 위협, 즉 대공포, 지대공 유도탄, 그리고 전투기의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월남전에 있어서 미군기들은 전쟁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제공권 획득을 위하여 상대방의 세가지 위협을 무력화(無力化)하기 위한 작전을 여하히 수행하였으며 그 위협의 특징이 무엇이었는 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 대공포(AAA)

MIG 전투기와 SAM은 그 위협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월남전에서 항공기 격추율이 가장 높은것은 대공포 이었다.대공포의 위협은 보병의 소총으로부터 특히 항공기 격추용 대구경 고사포까지 포함되었다. 조준체제는 작은 포에 장착한 간단한 광학조준기로부터 목표물을 추적하기 위한 레이더와 사격을 지시하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복잡한 체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레이더는 2차 대전중에 처음 사용되었다. 근접 신관탄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Radar는 격추할 항공기에 대한 발사 탄환수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레이더는 순식간에 변화하는 항공기의 앞으로의 방향을 예견할 수 없다. 더욱 Radar는 전자방해에 의하여 그 성능이 약화된다.(2차 대전중 영국 공군과 미국 공군은 독일의 레이더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채프(Chaff)를 이용 하였으며, 이로써 항공기 1대를 격추하는데 소요되는 발사수는 800발에서 3000발로 격증하였다) 또 한가지 문제는 목표항공기가 레이더 송신을 잡기위한 전자수신기를 사용할 수 있고 도피행동을 개시하거나 전자방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소련은 미국의 대공포 진압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언급하고 있다 (Soviet Military Review October 1970. 9. 20) 이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포들을 소개시키고 호속에 넣어 위장하게 되 어있다. 포들은 매우 곤란한 목표물이며 폭발탄으로 격파하기 곤란하다. 새로운 Smart폭탄은 또 파괴하는데 용이하다. 그러나 어떤 목표물 지역에 고사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포들을 모조리 무력화(無力化) 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월맹에는 약 6,000문의 대구경(37,57,85,100mm) 고사포가 있다고 한다.

모든 고사포를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 항공기는 고사포의 효력을 최소한으로 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명 심할일은 탄환들은 일단 포신에서 벗어나면 비유도(Unguided)로 된다는 점이다.

포수들은 탄환과 목표물 항공기가 동일 시간에 동일 지점에 도달하게끔 항공기의 비행 전방의 한 지점을 겨냥한다. 포수들은 항공기가 어디로 갈 것 이라는 것을 예견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취할 대책은 자기의 비행로를 변경하고 예견되는 탄착지점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 비행로의 난선 변화(Random Variation)를 Jinking이라고 호칭하며, 탄환을 항공기 전방 1마일 이상의 지점을 겨냥하는 중고도 및 고고도에서 사격을 회피하는 데 특히 효과가 있다. 항공기 승무원은 자기의 행방을 적이 의식하지 못하도록 항로를 계획함으로써 고사포 및(SAM과 MIG기)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항공기 대 편대는 목표물에서 훨씬 떨어진 곳에서 레이더로 탐지되기 때문에 기습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뿐만 아니라 주간 정비, 재무장 시간 및 임무 시간의 길이에 대한 요구 때문에 목표물 상공에서의 체공 시간에 제약을 받는다.

지대공 미사일과 MIG 항공기의 탐지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대지 클러터(Ground Clutter) 때문에 적 레이더가 목표물을 식별할 수 없는 저공으로 비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월남전에서 저공비행은 고사포 사수들의 육안 탐지를 면할 수 없었지만 지형과 포진지의 위치를 이용하여 고사포 사수들에게 기습을 가하고 포를 쏘기 전에 탈출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방비가 잘 된 지역, 또는 평탄한 지역에서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저공 비행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 (1) 항공기는 모든 포의 유효 사정거리 내에 있다.
- (2) 탄환의 비상(飛翔)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수는 매우 신속하게 그들의 조준을 조정할 수 있고 짧은 비행시간 때문에 상술한 Jinking 기동이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 (3) 탄환은 단거리에서는 보다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환에 맞았을 때보다 큰 피해를 준다.

이렇다고 해서 항공기는 저공비행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AM과 MIG기들 에게는 고공이 적합하기 때문에 저공은 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나. 지대공 미사일(SAM)

월남전에서 지대공 미사일은 많은 항공기를 격추하지 못 했지만, 적 영공에서의 미국항공기의 전술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과거 대공포가 고속 고공 항공기에 대하여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SAM이 2차 대전후에 개발되었다. 초기의 SAM 체제는 고공 폭격기를 요격하게끔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 SAM들은 월남전에서의 미국 전저폭기 전술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고고도에서 기동성이 약한 전투기들은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는 공기가 농후한 곳으로 비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월맹이 SAM을 도입함으로써 미국 전투기들은 처음에는 레이더의 대지 클러터(Ground Clutter)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 하였다. 그러나 저공을 비행하여 대공포와 유효사거리 내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많은 미군기들이 대공포에게 피해를 입었다.

이와같이 SAM은 격추율에서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SAM 때문에 전투기들은 대공포의 유효사정거리 내에서 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 전자방해를 이용하고 항공기가 SAM을 회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고공비행을 하게 되었다.

SAM에 대하여 가끔 오해하고 그 위력이 대단 하다고 그릇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SAM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월남전에 한 한한, SAM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마력같은것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형적인 SAM작전은 우선 목표물 포착 레이더가 목표물을 포착하면, SAM 목표물 추적 레이더에게 어느 방향을 볼 것을 지시한다. 그 다음에 SAM 레이더는 그 방향을 탐색하고 목표물을 찾아 내고 그 목표물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그러는 사이에 발사전술이 결정되고 발사준비를 한다. 목표물이 사정거리 내에 들어가면, 미사일 유도송신기가 "on" 이 되고 1개 또는 그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된다. 목표물 추적 fp이라는 목표물과 미사일의 상대적 위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컴퓨터는 유도지령(Guidance Command) 를 낸다. 그 다음에 그 유도지령은 미사일 유도송신기에 의하여 미사일에게 송신한다. 목표물 추적 레이더와 미사일 유도송신기는 서로 이 목표물에 적응하거나 빛나갈 때까지 송신을 계속한다.

한편 목표물 항공기에 있는 전자장비는 추적 레이더와 미사일 유도신호를 수신할 수 있고, 그리고 승무원들에게 지금 타고 있는 항공기가 추적되고 있다든가 혹은 미사일이 발사 되었다는 것을 경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공 승무원은 SAM 레이더에 대하여 반방사(反放射) 미사일을 쏠수 있으므로 적이 상술한 절차를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정확한 전술상황에 따라서 SAM에 대하여 어떤 행동— 즉 SAM의 효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자방해를 이용할 것인지 또는 그것을 공격 격파할 수 있는 —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전자방해는 SAM 레이더의 정확한 추적을 방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로 적의 비행기지와 같은 목표물이 SAM기지의 격파보다 우선 순위가 높을때 이용되는 전술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소련이 광범한 여러가지 주파수를 송신하기 때문에 레이더를 전자 방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Aviation Week지에 의하면 SA-2의 한 개량형은 E주파수로 송신하며 다른 개량형은 G주파수를 이용하는 반면에 SA-3는 I주파수로 송신한다는 것이다.

미사일은 항공기와 동일한 공기 역학상의 원리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압기동(Outmaneuver)을 할 수 있다. 약 MACH 3의 속도는 기동시 하나의 불리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보다 속 도가 느린 목표물보다 더 큰 "G"를 끌어 당길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 지대공 미사일이 목표물의 비행 전방의 예측되는 탄착점을 조준하여 발사 할 경우 목표물이 항로를 급히 변화시키면 예측된 탄착점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미사일은 목표물을 계속 추적하기 위해서는 곤란한 선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미사일도 역시 어느정도의 반응 시간을 가지게 된다. 레이더는 목표물이 항로를 변경했다는 것을 판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컴퓨터는 새로운 요격 항로를 계산하고 해당 지령을 송신한다. 그 다음에 미사일은 새로운 탄도로 기동하여야 한다. 이 시간은 물론 1초의 몇분의 1이지만 고속 때문에 오차를 만들어 낼 수 있다(예를 들면 초당 900피트 속도의 목표물에 비교하여 미사일은 초당 2,000피트이다.)

SAM을 언제나 효과적으로 전자방해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조종사는 많은 SAM을 회피하려면 자기 임무를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SAM 기지를 공격하고 격파해야 했다. SAM기지를 폭격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기지는 고사포로 잘 방어되어 있으며 기지 상호간이 서로 보호하게끔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험상 SAM 기지들은 폭격으로 성과적으로 격파할 수 있었다.

SAM 기지를 진압하는 한가지 위험도가 낮은 방법은 그 기지에 대하여 Shrike와 같은 반방사(反放射) 미사일(ARM)을 발사하는 일이었다. 어떤 SAM기지 레이더가 미사일 발사전에 ARM으로 레이더를 적중시키려고 노력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ARM 공격을 한다음에 폭탄으로 가급 기지의 많은 부분을 격파하는 일이었다. ARM 미사일 때문에 적은 SAM자체가 격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송신을 최저한도로 줄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SAM 기지가 송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위협이 되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항공우세를 적어도 당분간 획득할 수 있었다.

1965년에 월맹이 SAM을 도입하였을 때, 미군측 손실이 증대하였으므로 그 위협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군측 항공기 6대가 처음 격추되자 SAM 기지 공격에 대한 새로운 전술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미공군 참모총장은 SAM 대응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집단을 형성하였고, 이 연구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이른바 Wild Weasel 개념이었다. 이에 따라 몇 대의 복좌 F-100F가 SAM의 송신을 수신하고 공격할 기지의 위치를 알기 위한 특수 전자장비를 장착하도록 개조되었다. 첫 Wild Weasel 항공기는 1965년 11월 29일에 태국의 Korat기지에 도착하였다.

F-100F는 임무비행을 하는 F-105를 선도하면서 SAM의 경보를 탐지하여 SAM 기지를 공격하였다. F-100F는 F-105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복좌 F-105F가 Weasel 작전개념에 맞게 개조되었다. F-105 Weasel 항공기는 월맹에 있는 많은 SAM 기지를 격파했고 SAM작전을 보다 비효과적인 전술로 전향하게 만들었다. 그후 조종사와 전자전 장교 2명으로 구성된 특수훈련을 받은 승무원이 탄 F-105F/ G와 F-4C가 작전하게 되었다.

월맹 상공에서의 미군 조종사의 경험으로 보아 지대공 미사일은 격퇴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지대공 미사일은 역시 강력한 위협으로 되고 있었으며, MIG와 함께 미국의 항공전술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하였다.

특히 최근 4차 중동전에서 SA-6와 같은 최신식 지대공 유도탄의 출현으로 이에 대한 전자적 전술적 대응책을 계속 연구 발전시키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다. 항공기

월남전에서 적항공기는 미군측 항공기에 가장 큰위협으로 되어 있었다.

적기들은 미군 또는 그 우방군이 통제하는 영공에서 지상 목표물과 공중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었고, 또 미항 공기들을 목표물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요격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공격체제 및 방어체제보다 더욱 다양한 위협을 주고 있었다.

적 전투기의 위협은 많은 미항공기에 대하여 방어역할로 몰아넣을 수 있었으며 이 역할 때문에 투탄할 많은 폭탄수를 줄이게 하였다.

월맹 상공에서의 어떤 임무에서 약 3분의 1의 공격 항공기들은 적 항공기를 막는데 돌려졌고 그 후에도 MIG기들은 전투기 방벽을 집중침투 할 수 있었다. 물론 적기를 지상에서 격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월맹 비행장은 몇 년 동안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잘 방어된 비행장이 승인된 공격목표물이 되더라도 항공기들이 소개되고 견고한 격납고에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격파하기 곤란했다. 어떤 MIG기 들은 미포장 또는 고속도로에서 작전할 수 있었다. 소련은 한편 V/STOL(수직 1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소련제 항공기들(MIG-15,17,19 및 21)은 몇 가지 전천후 능력을 가진 개량형이 있지만 주로 주간 요격기들이었다. 이러한 항공기들은 경량이고 기동성이 좋았다. 그러나 항속거리가 짧기 때문에 공격 능력이 제한됨으로 기본적으로 방어용으로 되어 있었다.

SU-9와 SU-11과 같은 소련의 신형 전투기들은 항속거리가 길므로 향상된 공격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들은 전자보다 더 무겁고 기동성이 적지만 공중요격 레이더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천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항공기들은 소련제 항공기보다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의 항공기가 더욱 정교하고 무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식 항공기의 정교성에도 불구하고 기관포는 기본적인 공대공 무장으로 되어 있었다.

소련은 대구경(23,30,37mm)이며 사격률이 느린 기관포를 이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MIG-21에 있는 30mm 기관포는 분속 600발로 발사된다. 따라서 MIG-21은 긴 리이드(Lead)가 필요하며 탄환의 집중화력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방 항공기를 적중시키기 곤란하지만, 그들의 탄환은 일단 적중만 되면 보다 큰 피해를 주었다. 미국측 기관포는 분속 6,000 발의 사격률을 가진 2mm Gatling 기관포를 쓰고 있었다. MIG기의 그것보다 선화율이 좋고 탄환의 높은 밀도 때문에 상대방 항공기를 적중시키는 것이 더욱 쉬웠다. 그러나 실질적기를 적중시키는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몇초 동안 포조준 점을 적기 위에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 능숙한 조종사가 조종하는 기동성이 높은 적기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기관포는 제한점이 많다고 하지만, 전문적인 전투기 조종사들은 기관포를 장착한 전투기를 주장 하였다. 왜냐하면 포는 신속성과 신빙성 그리고 접근 격추에 대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25mm 기관포는 F-15기를 위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20mm 기관포가 가진 문제점을 제거하고 보다 치명적인 성능을 가지게 될것으로 본다.

월남전에서 명시되었지만, 주간 또는 전천후 할것 없이 모든 전투기들은 좋은 GCI(지상통제 요격) 능력을 가진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된다는 것이었다. 레이더 오퍼레이터는 이 체제를 가지고 목표물을 추적하고 전투기를 가장 좋은 사격 위치로 지시했다. 한국과 월맹에 있어서 미군기는 적의 GCI 체계 속에서 작전 하였다. 다시 말하여 적 전투기는 미국 항공기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으나 반면에 미군기들은 적기를 탐색해야만했다.

미군측은 월남에서 EC-121 기상 조기경보 통제 항공기에 의하여 어느정도의 기상 GCI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미공군은 조종사들에게 기상(機上) GCI와 지휘통제 체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경보통제체제」(AWACS)에 대한 전투실험을 하였다. 소련은 이미 TU-114 Moss 항공기와 TU-28 Fiddler 항공기는 긴밀한 작전하에 북극에서의 미전략공군의 B-52 2작전을 감시하고 있다.

공중요격(AI) 레이더는 목표물 포착을 돕고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을 위한 하나의 필수조건이 된다.

미국은 이 분야에서 소련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그들 나름의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공중요격(AI) 레이더는 일반적으로 목표물포착을 위해서는 장거리 탐색 장비를 가지며 그리고 미사일 발사를 위해서는 단거리 추적 장비를 가진다. 어떤 항공기들은 역시 기관포를 발사하는데 필요한 「리이드」를 자동계산하는 레이더도 사용하고 있다.

이 「리이드」는 조종사 면전의 방풍창 위의 중심점에 점(Pipper)이 있는 원형속에 나타난다. 만약 조종사가 기관포를 발사하면서 1,2초 동안 그 Pipper를 적기 위에 오도록 하고 비행기를 볼수 있으면 그와 탄환은 목표물에 적중하게 되어 있다.

물론 적기는 추적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반면에 미사일 발사에 있어서는 레이더 디스플레이(Radar Display) 위의 부호에 의하여 조종사는 미사일을 발사할 위치를 알게된다. 공중요격 레이더는 악천후 또는 야간에 요격하는데도 필요하다. 그러나 AI레이더는 전자 방해 를 받거나 기만될 수 있다. 한편 저공비행 목표물은 요격기의 레이더 상에 대지 클러터(Ground Clutter) 때문에 찾아내기 곤란하다.

공대공 미사일은 목표물 후방 이외의 방향에서도 그 목표물을 격추 하였으며, 또 공격 할 수 있는 사정 거리가 증대 하였다. 가장 널리 알려진 유도형은 AIM-9 Sidewinder의 경우 와 같은 적외선 이다.

이 미사일 속에 있는 목표 추적기(Seeker)가 목표물 항공기의 엔진에 서 배출되는 적의 방사를 탐지하고 「호오밍」한다. 반능동(Semi-Active) 레이더 「호오밍」 미사일(AIM-7 Sparrow)은 목표물에서 반사하는 신호에 「호오밍」한다.

이러한 미사일은 목표물의 전면, 측면 그리고 후면에서 쏠 수 있고 적외선 미사일보다 더 긴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다.

미사일은 장거리와 각 방향에서의 공격사용의 용이성, 그리고 적을 보지 않고 격멸하는 능력 과 같은 많은이점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많은 신형 소련제 항공기들은 거의 전적으로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관포를 장착하지 않는 것이 많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미사일의 제한점 때문에 기관포는 전투기 장비의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무장이다.

(1) 공대공 미사일은 특히 항공기가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경보체제가 지향할 때에도 기동성

이 소멸된다.

(2) 미사일이나 항공기레이다 전자방해를 받을 수 있다.

(3) 미사일이 가진 본질적인 복잡성 때문에 기관포보다 신빙성이 적고 비용이 더 크다.

(4) 미사일의 장거리 능력은 발사전에 적기인지 식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육안으로 식별한다면 MIG기는 가끔 미군기를 먼저 보게 된다. 왜냐하면 미군기들은 소련제 항공기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고 후미에서 연기를 뿜어내기 때문이다. 이리므로 MIG기들은 미군기를 먼저 공격하고 그리고 모기지로 도주함으로써 미군기의 미사일 공격을 회피하는 이점을 가진 바 있었다.

(5) 미사일 발사는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게 된다. 이럼으로써 상대방 항공기는 탈출할 수 있다.

요컨대 미사일은 분명히 항공기 무장 체제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관포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탁월하고 결심을 가진 조종사의 기관포 공격은 미사일 공격보다 이를 막기가 더욱 어렵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미군 항공기에 대한 GCI 지시하의 MIG-21의 공격은 장거리에서 Hit-and-Run(치고 달아 나기)식 미사일 공격을 하였으며 이 거리에서 방어측은 육안으로 보기 어려웠다. 적외선 미사일은 레이다 「룩·온」(Look on)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방어측은 공격기나 미사일을 육안으로 보는 이외에는 공격의 경고를 가지지 못했다. 적기들은 분명히 GCI의 지시를 받았고 접근(0.5마일 이하) 교전을 피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제공권을 위한 공중전의 실례를 살펴보겠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월남전에 직접 개입한 것은 1964년 중기이었으며 1965년 2월에 북쪽으로 확대되었다.

최초의 공중전투는 1965년 4월 초에 월맹 상공과 해남도(海南島) 부근에서 미공군 및 해군의 전투기와 월맹의 MIG사이에 발생하였다. 즉 4월 3일 오전에 미해군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A-1, A-4 약 30대와 이것을 엄호하는 F-8, F-4 총계 약 50대가 북위 20도선의 목표물 공격에 나섰다. 공격 중에 MIG 3대가 나타났지만 기상조건으로 교전이 없었지만, 그 다음날 4일 Da Nang 기지에서 발진한 F-100과 F-105 약 50대가 도선상의 같은 목표물을 공격하였는데 이때 MIG-17과 MIG-15가 3회에 걸쳐 나타나서 기관포로 2대의 F-105를 격추한 것이 최초이었다. 이러한 구식 MIG전투기에 의하여 격추 됨으로써 큰 화제가 되었다.

MIG 전투기에 의한 F-105 격추사건 이후, 미공군은 새롭게 F-104 1개 대대, 미해군은 F-4 1개 대대를 증파함과 동시에 레이다 초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Lockheed EC-121 공중 조기경

보기(AEW) 8대를 파견하고 태국 북부의 기지를 연일 초계에 임하였다.

65년 11월 초에 Camranh만 기지가 사용가능하게 되자 전술공군(TAC) 산하의 F-4C 장비의 제 12 전투비행단이 이동을 개시, 12월까지 3개 대대의 전개가 완료되었다.

66년 4월 23일 오후, 하노이 동북방 40km의 「바그니안」 철교를 폭격한 F-105를 엄호 중인 F-4 4대는 접근 중의 MIG 전투기들을 레이다로 발견했다. 즉각 공격으로 옮겨고도 15,000에서 3,000 피트까지의 저공까지 추격, 전투 시간 약 15분간 3회에 걸친 교전 끝에 MIG 2대를 격추하였다. 나타난 MIG기는 총 14대이었으며 그 중에는 2대의 MIG-21이 포함 되어 있었지만, 격추된 2대는 MIG-17이었다.

다음 4월 25일 낮에 4대의 F-4는 홍하(紅河)델타 상공에서 MIG-21 2대와 조우하여 2회에 걸쳐서 Sidewinder와 Sparrow 공대공 미사일 12 발을 발사하여 교전 하였지만 명중탄이 없었다.

다음 4월 26일 오후 3시경, 하노이 동북북약 100km의 지점에서 2대의 MIG-21과 조우한 2대의 F-4는 이것을 공격하여, 처음에 정면에서 발사한 Side winder는 명중하지 않았고, 반전하여 3발째를 발사하여 이것을 격추하였다. 이것이 MIG-21을 격추한 최초의 기록이었다.

공중전에서 미국측이 압도적으로 우세 하였지만, MIG의 동력을 경시하지 않고 충분한 경계를 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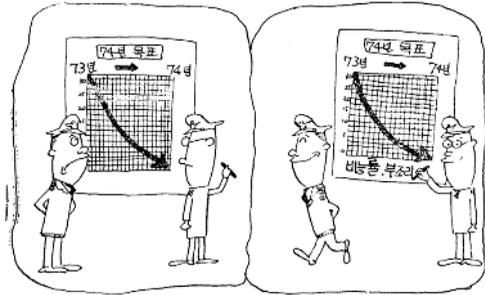
F-4 팬텀과 MIG-21의 대공중전은 67년 1월 2일에 막을 열었다. 이것은 한국 동란시의 Sabre 대 MIG에 의한 첫 제트기 사이의 공중전이 있는 후의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월 2일 태국의 기지를 발진한 미공군의 F-4C 50대는 하노이 서북 50km의 공업 지대를 공격하기 위하여 비행하였다. 겉으로는 공격임무로 보이게 하였지만 실은 공장폭격이 아니라, MIG기 격멸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이날의 팬텀들은 폭탄이나 외부 연료를 적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월맹의 레이다에게는 그 침입 코스와 편대 등으로 전투 폭격기의 공격으로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몇분 후에 발생한 것은 사상 최대의 초음속기와 공중전이였다.

우선 MIG기들이 팬텀의 전면의 편대에 맹렬히 내습함으로써 대공중전이 전개되었다. MIG-21의 조종사들도 이때에는 팬텀이 정면으로부터 결전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들은 팬텀의 Sidewinder와 Sparrow 미사일의 사정거리 속으로 뛰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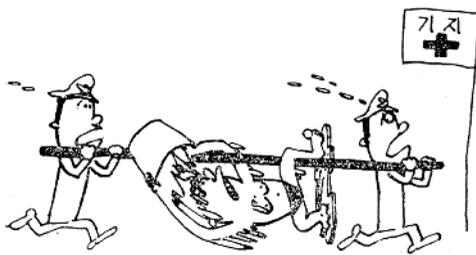
적기의 30mm 기관포는 맹렬히 사격을 계속하였지만 웬일인지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았다. 팬텀은 MIG를 가까이 유인하여, 쳐올리게 한 다음에 즉각 MIG의 후미에 딱 붙어서 Sidewinder를 발사하여 명중시켰다. 적의 기관포공격을 피하면서 교묘하게 뒤로 돌아가서 레이다로 조준하고 7대의 MIG-21을 격추 시켰다.

공·군·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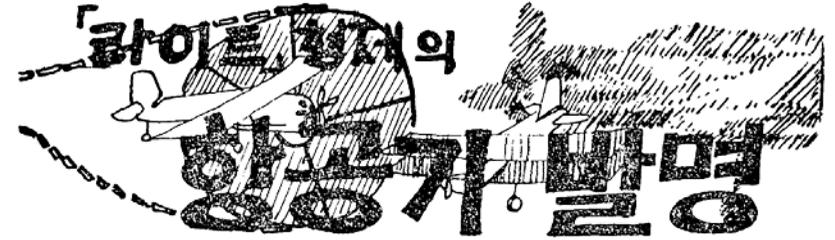
목표가 급강하라.....이건 뭔가?

아주 좋았어!



□ 얼어붙을 수 밖에 □

영하220도에 냉수욕을 하다니.....쫓! 쫓!



심사수

필자는 전호에서 1900년 경까지의 항공 발달사를 약술함으로써, 공간과 인력에 대담하게 도전한 많은 선인들의 자취를 더듬어 보았으며, 항공시대의 새 아침으로 향한 줄기찬 투쟁과 계보를 살펴 봄으로써, 항공시대의 개막이 결코 어떤 몇몇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로 인류 공동의 노력의 결과였다는 것을 밝혀보려 하였다. 이제 여기서 필자는 라이트 형제의 항공기 발명에서부터 1차대전 직전까지의 항공의 약진기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



1. 랭글리 교수의 영향

사무엘 랭글리(Samuel P. Langley, 1834~1906)는 라이트형제와 같이 미국인으로서 라이트 형제보다 앞서 비행기 발명에 헌신한 사람이며, 그가 항공계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 랭글리 교수가 미친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는 적극적인 공헌이다. 그는 인류 비행의 가능성을 굳게 믿었으며, 그 확신을 과학적 이론으로 체계화하였고, 라이트 형제로 하여금 비행연구를 바른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였으며, 유럽에 비해 잠자고 있던 미국의 항공열을 자극하여, 미국 정부와 국민으로 하여금 비행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끔 하였다. 둘째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랭글리의 비행시험이 실패함으로써 비행 가능성에 대한 열의를 한 동안 냉각시켜, 군용 항공기의 채택에 지연을 초래케 한일이나, 이것은 그의 공헌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흠이 되지 못한다.

랭글리는 당시 미국에서 손꼽는 수학, 물리학, 천문학 교수였으며, 피츠버그(Pittsburg) 대학에서 지구물리학, 우주물리학을 강의 하였다. 그가 항공역학 실험에 착수한 것은 1886년으로, 53세라는 원숙한 시기였다. 1866년에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항공협회가 발족하였으며, 1872년에는 프랑스인 페노(Alphonse Penaud)가 모형 비행기를 제작해서 튈레리(Tuileries) 궁에서 전시하여, 130피트를 나르는 성공을 거두었다. 랭글리는 이 페노의 모형 항공기를 여러 모양으로 제작하여, 1891년에는 이 모형기에서 증기기관을 장착하는 시험을 했다. 그는 드디어 1896년에 이 모형항공기와 증기기관을 결합시키는 일에 성공 하였다.

1896년에 랭글리가 제작한 비행기(Airdrome)와 제원을 보면, 전장이 16피트, 동력은 1.5 마력의 증기 기관이며, 수면보다 7미터높은 발사대에서 발진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는 이 비행기로서 일단 동력 비행시험을 성공하였다. 포트맥크(Potomac)강에서 시험한 이제 1호 비행기체는 80피트 고도로 포트맥크 강위를 세번 선회하여, 320피트를 나른 다음 1분 30초만에 착륙하였다.

랭글리의 성공은 미국 정부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미국은 미서 전쟁(1898년 4~12월)이 임박한 상태에 있었으며,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육군성 병기국은 랭글리 교수에게 연구비 10만 달러를 지원하고, 그의 비행기체를 군용 장비로 개발하도록 의뢰 하였다.

랭글리 교수의 항공기 연구는 급속한 진전을 보아, 종래의 모형 항공기로부터 실제로 사람이 탑승하는 비행기체로 발전 하였으며, 동력도 증기기관에서 개솔린 엔진으로 바뀌었다. 이 엔진은 랭글리의 조수인 맨리(Charles M. Manley)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서, 성형(星型)의 4사이클 기관이며, 출력 52마력에 중량은 125파운드였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성형 엔진이기도 하였다.

6년간의 연구 끝에 랭글리 교수의 비행기체는 실험 단계에 들어갔다. 1903년 10월 7일에 제 1회의 예비실험이 실시되 었다. 조수 맨리가 조종을 담당한 이 실험에서 랭글리는 우선 성공의 관문까지 접근하였다. 이날 시험에서 비행기체는 60피트 고도에서 발진하여 300피트 비행한 다음 접지(接地) 하였다. 5피트 전진에 1 피트씩 하강하는 비율이었으나, 기체의 중량만 감소 한다면 극복 될 수 있는 정도의 결합이라고 생각 되었다.

1903년 12월 8일, 드디어 결정적인 심판의 날이었다. 포트맥크(Potomac) 강변에는 명성 있는 노교수(老教授)의 성공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정부고관, 육·해군의 지도자, 신문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랭글리의 비행시험은 비참한 실패로 끝나버렸다. 「정오, 답색의 바지를 입고 반장화를 신은 맨리는, 구멍 장구를 갖춰 입고 방진(防塵)안경을 쓰고 기체에 올랐다. 프로펠러가 울리고, 조수는 투사기(投射器)의 줄을 끊었다. 그 순간 발진한 비행기체는 거센 퀴름과 함께 강물속으로 빠져 버렸다. 조종사 맨리는 대파된 기체에서 구출되었다. 이

번 실험에서 실패한 원인은, 투사 장치가 불량하여 비행기가 발진할 때부터 옆으로 기울어진 것과, 또 하나는, 기체의 중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견고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이 두가지에 기인 하였다. 그러나 세론(世論)은 랭글리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려고 하지 않았으며, 빗발치는 혹평과 비난 때문에 이 노교수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언론계와 대중은, 비행기체의 발명을 허용하고 지원한 정부의 「망상」과, 그것을 청부한 공상가를 비난하였다. 「시민의 혈세 10만불이 백일몽을 꾸는 어떤 사람에게 의하여, 마치 실용성이라도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었기 때문에, 무참히 낭비되고 말았다.」라고 한 국회의원은 말 했으며, 육군성 병기국은, 「이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이상 더 예산을 추가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난속에서 불운한 노교수는 마음의 병을 얻어 정신이상에 빠져 3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비록 랭글리의 실험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가 라이트 형제에게 끼친 영향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윌버라이트(Wibur Wright)는, 「랭글리아말로 동력 비행의 가능성을 최초로 실증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실험은 우리 형제로 하여금 이 학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수 있게 하였다.」고 말 하였다. 또한 랭글리는 라이트 형제로 하여금 항공학 연구를 성공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자기의 비행실험 결과를 학문적으로 체계화 함으로써 이 론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스승으로서, 선각자로서의 친절한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1896년, 릴리엔탈의 사망에서 자극을 받아 라이트형제는 본격적인 비행연구를 시작했다, 1899년 라이트는 당시 스미 소니안 학회의 간사이며, 미국 항공계의 권위자인 랭글리 교수에게, 「우리는 우리의 생업과 모든 시간을 바쳐 조직적인 비행 연구를 시작하려 합니다.」라고 서신을 보내어 지도를 요청했다. 랭글리는 비행연구를 위한 자료와 광범한 참고목록을 보내주었으며, 이 자료 속에는 랭글리 자신의 저작인 「항공학 실험」, 「동력 비행 실험기록」과, 릴리엔탈의 연구기록 복사본, 그리고 항공학에 관한 양서추천 목록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랭글리의 실패와 때를 같이하여, 몇 사람의 저명 인사들이 비행시대의 도래에 관하여 회의적인 의사를 공표함으로써, 한때 인류비행의 실험은 절망적인것 같이 생각 되었다. 발명왕으로 유명한 에디슨(Thomas Edison, 1847~1931)은 1903년에, 「공중을 나르는 기계가 출현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문명이 진보상태로서는 앞으로 상당한 세월이 더 지나야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다. 에디슨은 당시 미국에서 800건 이상의 특허권을 가진 만능의 과학자였으며, 실로 그는 17년간을 비행기체의 연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에디슨이 풀 수 없는 과학적 문제이면 아무도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유명한 문화사가 웰즈(H. G. Wells)도 1903년에 발표한 「예언」이란 작품에서, 「항공기술이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송문제에 변혁을 가져오지는 못

할 것이다」라는 회의적인 견해를 표시 하였다. 또한 천문학자이며 수학자인 뉴우감(Sim on Newcome) 교수는 비행기술을 실현 볼 가능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면서 부터 모든 사람을 매혹해 왔던 이 비행술은 아직도 해결을 향해 거의 아무런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중 비행에 관해서 인간은 아직 완전히 무력하며, 비행술의 실현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있다. 1초간에 수백 피트씩 되는 속도 로써 달리는 비행기계를 생각해 보라. 탑승자를 지탱하고 있는것은 오직 속도 한 가지 뿐이다만 사람을 자유로이 운반할 수 있는 비행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금속, 새로운 동력 이 필요할 것이며, 비록 비행기계가 발명된 다손 치더라도 1인 이상 태울수 는 없을 것이다. …… 비행하려는 노력은 자연의 이치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상과 같이 비관과 질망이 덮여있던 1903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미국 대서양 연안 구석진 모래벌판에서 인류 최초와 동력 비행이 드디어 실현되고 말았다.

2. 키티호크에서의 성공

앞에서 본 랭글리 교수의 비행실험 때 있었던 날로부터 9일 후인 1903년 12월 17일, 미국 대서양 연안 구석진 모래벌판에서는 이름없는 두 청년에 의하여 역사적인 동력 비행이 실시되었다. 워싱턴 교외에서 실시되었던 랭글리와 실험때와는 달리, 북 칼로라이나주(N.C) 키티호크(Kitty Hawk)에서 시행된 이 비행실험에는 유명인사의 참관도 없었고, 뉴스의 주목도 없었다. 참관인은 그 곳에 있는 구조소 직원 3명과 주민 두사람 이었으며, 이들은 라이트의 실험을 위해 친절한 지원을 해 주었을 뿐, 이번 비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라이트 형제의 이번 실험은 1900년 12월부터 시작한 네번째의 실험이었 으며, 7년간의 노력의 결산이었다. 이날 사용된 비행기는 날개폭이 40피트이며, 동력은 12마일의 4기통 개솔린 엔진이었고, 엔진의 중량은 20킬로그램 이었다. 프로펠러는 기체 뒤에 부착한 푸셔타입(Pusher Type)이었다. 이륙을 위해서는, 길이 60피트의 모노레일위의 앞뒤에 각각 바퀴가 하나씩 붙은 대차(臺車)를 장치하여, 이것에 실려 활주 이륙을 하게 하고 착륙을 위해서는 썰매를 기체에 부착하였다. 경험에 의하여, 모래 위에서의 착륙은 마치 눈 위에서와 같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1903년 12월 17일 아침, 살을 에이는 듯한 찬바람이 북칼로 라이나주 연안을 몰아치고 있었다. 해안에는 얼음이 떠 있었고, 해안을 따라 뻗어있는 1마일 폭의 모랫벌 활주로는 넓은 얼음이 덮여 있고 형제가 목고 있는 움막집 남쪽의 100피트 높이의 모래 언덕에는 초라한 구조소가 보였다. 바람에 따라 부딪치는 해안에는 흰 물거품이 일고 풍속은 24~27마일이었다.

엔진이 돌기 시작하였다. 마력이 증가됨에 따라, 기 뒤에서 요란하게 회전하던 프로펠러의 속도는 빨라졌다. 동생 오빌(Orville)은 기체에 올라 조종석 안에 앉드렸다. 대차(臺車)를 정지시켜둔 밧줄이 풀리자 그는 조종장치를 잡았다. 비행기가 모노레일위로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기체의 수평을 잡기위해 날개 끝을 잡고 섰던 형 윌버(Wilbur)는 비행기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속도가 높아지자 윌버는 날개끝을 잡은채 뛰기 시작했다. 40피트를 전진하자 기체는 갑자기 대차에서 떠올랐다. 모노레일 끝에서 100피트 되는 지점에서 비행기는 착륙하였다. 이것은 12월 17일의 제 1차 실험이었다.

약간의 수리를 끝낸 후 또 두번의 짧은 비행을 실시한 다음, 정오의 종이 울릴때 제4차 비행이 실시되었다. 이번에는 윌버가 조종간을 잡았다. 모노레일을 떠난 비행기는 상승·하강을 거듭 하면서 가다가, 300~400피트 거리부터는 완전히 안정성을 회복하여 수평비행을 시작하였다. 출발지점에서 약 500피트까지 비행하다가 여기에서 다시 기체는 상하로 동요하기 시작하여 급히 착륙 하였다. 착륙할 때 전방의 방향타가 파손 되었으나 곧 수리하였다. 오후 점 심식사후에 다시 실험을 계속하기 위해, 격납고 옆에 비행기를 매어 두었다. 오후에는 여기에서 4마일 떨어진 키티호크의 측후소까지 왕복 비행을 할 계획이었다. 0.5 갤런의 개솔린으로써 18분간 채공하여 8~9마일을 날 수 있다고 계산하였다. 그러나 오후와 실험은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다. 갑자기 불어온 돌풍 때문에 비행기가 날려 모래위를 당굴어 엔진의 받침대, 익간지주(翼間支柱), 그리고 주익의 일부가 파손되었고, 비행은 다음 해로 미루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날 제 4차 실험에서 라이트는 852피트를 59초에 비행하였고, 엔진의 회전수는 1,071 회였다. 비록 이 기록은 숫자상으로 볼때 큰 주목거리가 되지 못한 것이었지만, 그 비행의 방법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채공시간 기록은 59초로서 1분에도 미달되었지만, 인간을 태운 기체가 자체의 동력으로써 비행하여 완전한 비행 상태가 될 때까지 상승해서 속도를 늦추지 않고 활공한 다음, 출발 지점과 동일한 고도의 지표면에 착륙한 것은, 이번이 세계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비행거리에 있어서, 또는 상승 2도에 있어서, 이전에도 이미 라이트의 기록을 앞지르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가 인간이 탑승하지 않은 모형 항공기였든지, 아니면 동력이 없는 활공기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항공기의 발명가라는 명예가 라이트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그리 성공은 많은 선인들의 시행착오를 밑거름으로 한, 인류 공통의 염원의 결실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 1948년 스미소니안 협회에서 라이트 형제의 항공기에 다음과 같은 평가를 써 붙였다. 「독창적인 학구적 노력에 의하여, 라이트형제는 인류 비행의 원리를 발견했다. 발명가로서, 제작가로서, 비행 조종사로서, 라이트 형제는 비행의 원리를 발견하고 나아가서는 비행기를 개발하고, 인류에게 비행을 가르침으로써, 인류

가 대지를 떠나 자유로이 비행하는 항공의 시대를 개척하였다.

3. 라이트형제의 생애

라이트형제·윌버 라이트(Wilbur Wright, 1867~1912)와 오빌라이트(Orville Wright, 1871~1948)는 밀톤라이트와 어머니 수잔 케르너와의 세째 및 네째 아들로 태어났다. 맏 형인 루클린(Lucklin), 둘째 형 로린(Roin) 이 위로 있고, 아래로는 막내 누이동생 카타린이 있었다. 형제의 아버지 밀톤은 목사로서, 인디애나주 하아츠빌 대학 출신이며, 어머니 수 잔은 인디애나주 부농의 딸로서 그녀도 또한 하아츠빌대학에서 수학을 전공 하였다. 그들가족 중에서 윌버와 오빌을 제외하면 모두가 대학출신이며, 이 두사람만이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인디애나주에 있던 라이트가는 1869년에 오하이오주 데이톤(Dayton)으로 이주했다. 매밀톤의 세째 아들 윌버는 세살이었고 오빌은 출생하기 전이었다. 1878년, 오빌이 7세 때 밀톤목사는 연합교회의 주교가 되어, 오하이오주의 시이더 라피즈로 부임해서 6년간 지나다가 윌버가 16세 되던 1884년에 다시 데이톤으로 이주하여,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다.

라이트형제가 최초로 비행기에 관심을 지게 된 것은 1879년으로, 윌버가 12세, 오빌이 8세 때의 일이었다고 한다. 여행에서 돌아온 밀톤목사는 장난감 헬리콥터를 선물로 사왔다. 이것은 프랑스의 청년발명가 알폰스 페노(Alphonse Penaud)가 창안한 것이었다. 소리를 내면서 천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방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장난감은 형제에게 일생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강한인상을 주었다.

1884년, 라이트가는 데이톤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대학으로의 진학을 포기한 형제는 오빌이 제작한 인쇄 기계로써 「이브닝 아이템」(Evening Item)이라는 일간지를 발행하는 인쇄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인쇄업은 오래가지 못하고 4개월만에 그만두게 되었다. 1892년 그들은 전국적인 자전거 붐을 타고, 자전거 판매업을 시작하였다. 윌버가 25세, 오빌이 21세 때였다. 그들의 자전거 판매업은 성행하였으며, 그들은 곧 자전거 제조 공장을 시작하여, 「라이트 플라이어」(Wright Flyer) 라는 신형 자전거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1895년 그들은 독일의 비행가 오토 릴리엔탈의 모험적인 비행실험 소식을 알게 되었으며, 릴리엔탈의 비행과 그에 관한 기록이면 무엇이든지 탐독 하였다. 그들은 한번도 만나본 일도 없고, 서신교환도 없는 한 사람의 모험적 비행기로부터, 일생의 방향이 변화 되는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1896년 오토릴리엔탈이 비행실험 중에 사망했다는 보도에 접하므로써 그들은 본격적인 비행 연구를 시작했다. 그들 형제 앞에는 미 해결의 문제가 산적하였으며, 1899년 형제는 앵글리 교수에게 비행문제 연구를 위한 자료지

원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고, 랭글리 교수는 친절한 조언과 자료 지원을 해주었다

랭글리 교수가 보내준 방대만 자료와 목록을 봄으로써 라이트형제는 비행에 관한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 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이 문제에 대결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행착오가 얼마나 되는지 새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류비행의 실현이라는 헛된꿈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 기술자들의 명단이 즐비해 있었다. 미국인으로는 에디슨, 전화를 발명한 벨(Alexander G. Bell, 1847~1922), 영국인으로는 기관총의 발명으로 백만장자가 된 맥심(Hiram Maxim) 경, 독일의 릴리엔탈, 프랑스의 클레 망아데르(Clement Ader) 등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결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또한 이들 뛰어난 천재들은 거의 모두가 돈 많은 자산가였다. 아데르는 12만 불을 소비했으며, 맥심경은 10만불을 소비하고서 포기했던 것이다. 라이트 형제의 용기는 꺾이지 않았다. 그러나 형제는 릴리엔탈의 죽음과 같은 불행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모험을 시작하였다.

형제는 하이람 맥심에 관해 읽으므로써 비행을 위한 문제의 본진이 주익(主翼) 추진력, 안정성 및 조종, 세 가지에 있음을 알았으며, 또한 비행실험은 모형항공기에 의하지 않고 릴리엔탈 처럼 직접 탑승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주익과 추진력은 그런대로 상당한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기술의 문제는 가장 뒤떨어진 문제임도 알았다. 가장 모험적인 실험을 했던 릴리엔탈도 2,000회 이상을 실험한 5년간의 비행에서, 체공시간 은 을 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형제는 우선 여하히 나를 것인가를 습득하기 위해 글라이더를 개발하는 일과 조종기관을 개발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라고 단정하였다.

형제는 글라이더를 제작하는 한편, 활공시험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기로 하였다. 1899년말 그들은 워싱턴기상대에 평균 풍속이 시속 50마일 되는 지역의 일람표 편지로 문의하였다. 기상대에서 온 회답에는 형제가 원하는 후보지의 일람표가 적혀 있었으나, 지역선정을 하지 못한 채 오크타브샤뉴트(Octav Shanute)에게 지도를 요청했다. 샤뉴트는 당시에 생존해 있던 글라이더 실험의 선배로서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건축·토목 공학의 학자로서 저명한 그는 18%년, 64세라는 노령에 항공공학연구를 착수했으며, 1900년에는 이미 68세에 달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저서 「비행기계의 진보」는 라이트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샤부트의 회답에는 북칼로라이나주의 키티호크가 적혀 있었고, 이것은 기상대와 일람표와 일치하였다. 1905년 5월, 샤뉴트의 추천회답을 받은 라이트는 키티호크 측후소에 편지를 보내어 「학술적인 연날리기」시험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측후소의 한 통신사는 친절한 회답으로 실험을 위한 모든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900년 12월에 라이트형제는 키티호크에서 최초의 비행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에 사용된 것은 그들 자전거 공장에서 만들어진 글라이더였으며, 날개 폭이 17.5피트, 무게 52파운드, 면적 165 평방피트의 복엽기였다. 이것은 30마일의 풍속하에서 한사람의 탑승자를 태울만한 양력을 발생토록 제작되었고, 이것으로써 총계 2분간의 비행실험을 하였다.

1901년 7월 27일에는 하기 휴가를 이용하여 키티호크에 의해 제2회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된 활공기는 익면적이 308평방 피트로써, 전년의 것보다 약간 큰 규모였다. 이날 몇 차례의 실험 끝에 300피트를 비행하였으나, 불안정한 파상 비행이었고, 그들의 조종구조는 아직도 안정과 균형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다. 더우기 그들 형제를 낙담케 한 것은 릴리엔탈의 양력계산표가 틀리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라이트형제는 원래 그 때까지의 학술자료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하는 것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그러나 2년간의 실험 끝에 종래 학설에 대한 의심은 하나씩 늘어만 갔다. 그들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기 위하여 풍동시험을 통하여 양력과 안전성을 다시 검토하였다. 1902년 10월에는 키티호크에서 제3회 실험을 실시하였고, 1903년 12월 17일에는 역사적인 성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03년 12월, 키티 호크에서 성공을 거둔 라이트형제는, 비행연구를 종래와 같은 휴가를 이용한 오락으로서가 아니라, 이것을 천직으로 삼아 비행연구에 전념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의 나이는 월버가 35세였고 오빌이 32세였다.

형제는 자전거 제조공장을 폐지하고 판매, 수선부문만 남겼다.

여태까지 그들은 비행기의 실용적 가치에 대해서는 예상하지도 않고, 단순히 연구에만 몰두해 왔었다. 그러나 이것을 천직으로 삼겠다고 결심한 이상, 여기에 어떤 상업적인 가치를 부여해야만 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비행거리 피트 단위에서 마일 단위로 향상 시킴으로써 군사목적 또는 상업목적에 사용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04년 초에, 부호 카보트씨가 연구자금 원조를 제의 하였다. 형제는 더 크고 더 진보한 비행기의 제작에 착수하였으며 비행 시험의 장소로서 키티호크는 데이톤에서 너무 멀므로(600마일) 데이톤에서 8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하프만씨의 목장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1904년 5월 23일, 하프만 목장에서의 제 1회 실험이 있었으나, 불행히도 이날의 비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신형 비행기는 비행고도 1미터로 비행거리는 불과 60피트였었다. 참관했던 35명의 사람중에는 보도기관의 인사가 12명, 친구 및 친지가 23명였으며, 이번의 실패로 인하여 이전에 라이트형제의 비행 실험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같은해 9월 20일에 라이트형제는 비밀리에 실험을 하였다. 이날 실험에서 그들은 목장내를 선회 비행하는데 성공했으며, 비행기의 실용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 11월 9일에 실시된 비행에

서 그들은 목장을 네번, 선회하므로써 연 3마일을 비행 하였다. 체공시간은 5분이며, 비행속도는 35마일이었다. 12월 1일의 비행에서는 직선비행, 선회 비행, S자 비행을 실시하므로써 그들의 확신과 자신은 완전히 굳어졌다. 1904년 1년 동안에 라이트형제는 실로 105회에 달하는 실험을 실시했던 것이다.

1905년에 있어서 라이트형제는 비행 연구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기체는 더 크고 무게계 제작되었으며, 동력은 20마력으로 강화되었다. 1905년 9월에 하프만 목장에서 실시된 비행에서 그들은 목장을 50회 선회하므로써 18분 동안에 12마일을 비행하였고, 10월 5일의 비행에서는 38분간에 24마일을 비행하였다.

10월 5일에 실시된 이 시범 비행을 끝으로, 라이트형제는 하프만 목장에서의 비행 실험을 중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비밀유지의 문제와 자금 문제 때문이었다. 여태까지 그들은 정부로부터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기술정보를 도용하려는 몇 사람의 간계와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하프만 목장에서 15 내지 20피트 고도로 비행하므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피할 수 있었으나, 비행시간과 비행거리가 증가됨에 따라 비밀 유지가 곤란하게 되었다. 데이톤을 지나는 철도 열차 기관사는 승객들로 하여금 라이트와 비행을 구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차를 정지하는 일까지 있게 되었으며, 드디어 10월 5일, 데이톤의 「데일리 뉴스」지는 라이트형제가 놀라운 비행연습을 매일 실시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날을 기해 라이트는 하프만 목장에서의 비행실험을 중지하였다.

비행에 자신도 가지게 되고, 또한 그들의 성공이 보도기관을 통해 입증되자, 라이트형제는 육군 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어, 군용항공기의 제작 가능성을 알렸다. 육군성 병기국장은 실용성을 입증하는 도면과 설명서를 요구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형제는 정부와의 교섭을 단념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시비행(展示飛行)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유럽에서도 특히 프랑스에는 많은 항공인들이 비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동력 비행과 비행기록이 발전함에 따라 항공기 발명가라는 명예가 희박해질 염려가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비행술을 과시하므로써 계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1907년 5월 월버는 유럽으로 출발하였다. 8월에는 오빌도 프랑스로 건너갔다. 그러나 오빌이 보낸 포장된 항공기는 르하브로(Le Havre) 항구의, 세관 창고에 1년간 유치되므로써 유럽에서의 전시비행은 이루지 못하고, 11월에 형제는 귀국하였다.

월버가 유럽으로 떠난 1907년 5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가 라이트형제에 관한 기사를 실었으며, 이 기사를 본 미국의 대통령 시어도르 루스벨트는 육군성에 조사를 명했으며,

라이트가 유럽에서 귀국한 다음 달인 1907년 12월 23일, 육군성 통신국은 비행기 1대의 입

찰을 공고 하였다. 입찰을 위한 사양서(仕様書)에는 한 사람의 조종사 이외에 다른 한 사람의 동승이 가능해야 하며, 평균 시속 40마일로서 1시간을 비행할 것과, 125마일을 날 수 있는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하며, 기체는 분해·조립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라이트는 25,000불로서 입찰에 응했으며, 제작 기간은 200일로 약속하였다. 이 입찰은 1908년 2월에 육군성에 수리 되었다.

1908년 3월에는 프랑스의 기업가와와의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다. 라이트와 항공기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계약이었으며, 계약금으로 10만불을 받고 제작되는 항공기 한대당 16,000불을 추가 지급할 것이며, 이 계약의 확인을 위해서 프랑스에서 공개 전시 비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라이트형제가 기대하던 항공사업이 드디어 실현된 것이다.

1908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형제는 다섯번째로 키티호크에서 비행실험을 실시하였다. 프랑스에서의 전시비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였다. 1905년 10월 5일 이후 그들은 한번도 비행해 본적이 없었으며, 이번 비행을 비밀리에 실시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번 비행에서 크게 발전된 점은, 여태까지는 비행기의 안정성을 위해 조종사가 옆드려서 조종하던 것을 개량하여 조종석에 걸터앉는 자세로 바꾼점이었다. 라이트형제의 계획은 자연히 전파되어 보도진들이 키티호크로 몰려들었다.

보도진들은 라이트의 눈을 피하기 위해 키티호크 주변의 숲과 언덕에 숨어서 망원경과 카메라를 준비하였다. 이들중에는 런던의 「데일리 메일」지의 특파원도 있었다. 라이트형제는 이들 앞에서 특별히 훌륭한 비행술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라이트의 비행이 사실로서 일반에게 공개되는 기회가 되었다. 키티호크에서의 시험비행이 끝나자 5월 21일 월버는 유럽으로 출발하였다. 1907년 5월에 보냈던 비행기를 세관창고에서 찾아서 파리 서쪽 120마일의 르망(Le Mans)에 있는 창고를 빌려 수리를 시작 하였다. 1908년 8월 8일 르망에 있는 경마장에서 제 1회 유럽 전시 비행이 실시되었다. 경마장 위를 두번 돌아서 2분만에 관람석 정면에 가볍게 착륙하였다. 월버의 비행술에 비하면 프랑스 항공인들의 그것은 아이들의 놀이에 불과 하였다. 관중들은 라이트 비행기와 우수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월버가 착륙하자 박수갈채하는 군중이 그를 에워쌌다. 다음날 아침 신문에는 라이트야 말로 진정한 하늘의 정복자라는 찬사가 크게 보도되었다. 「미국의 허풍쟁이」라고 하던 종래의 기사와는 대조적으로, 「결정적이며, 압도적인 승리였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2일 후인 8월 10일에는 두번째의 전시비행이 실시 되었다. 이날의 비행에서는 사면비행(斜面飛行) 과 8차 비행을 실시했으며, 직경 30야아드의 급선회도 실시하였다. 비행고도는 모두가 50피트였다. 급선회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수평비행을 회복하여 착륙할 때 관중들은 경탄했

으며,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다. 이날 이후 1주간 월버는 몇 번의 공개 비행을 실시하였다.

한편 미국에 남아있던 동생 오빌은 미국에서 공개 비행을 실시하였다. 1908년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네번 실시된 포트 마이어(Fort Myers)에서의 공개 비행은 수백명의 관중을 감격케 하고 말았다. 비행기가 떠올랐을 때, 관중들은 망연자실(茫然自失)하여, 다만 감탄의 소리를 연발할 뿐 이었다. 오빌이 무사히 착륙하자, 3~4명의 기자가 미친듯이 뛰어가서 오빌에게 찬사를 보냈으며, 그들의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9월 9일의 비행에서 오빌은 57분간 체공하여 장내를 57회 선회 하였으며, 한 사람의 동승비행도 실시했다. 9월 10일의 비행에서는 1시간 15분 동안 체공하였으며, 3,000피트 고도까지 상승하였다.

한편 월버는 1908년 12월까지 계속 프랑스에 머물면서 공개 비행을 실시하였다. 9월 21일의 비행에서는 1시간 30분간 체공하여 60마일을 날았으며, 10월 11일에는 1 인의 동승자를 탑승시켜 1시간 10분 동안 비행하였다. 10월에 프랑스 항공협회는, 이륙시에 카타팰트를 사용하지 않고 25미터 고도에 상승하는 비행에 상금 2,500프랑을 걸었다. 라이트는 카타팰트 없이 레일을 연장하므로써 이 상금을 획득하였다. 프랑스 전체가 월버를 영웅으로 대우하였으며, 영국 항공협회는 그에게 금메달을 수여하였고, 각국에서는 왕과 여왕이 월버의 비행을 관람하기 위해 프랑스로 찾아왔다. 수백 프랑과 수백 파운드의 돈을 내고 동승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월버는 무료로 동승을 시켜주는 미덕을 보여주어 예찬을 받기도 하였다. 12월 31일에는 2시간 20분간을 체공하므로써 4,000불의 상금을 획득 하였다.

1909년 1월에는 피레네 산맥 북쪽에 있는 포(Pau)로 가서 3명의 조종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에는 이태리로 가서 이태리와 독일에서 공개 비행을 하기로 계약한 다음, 1909년 6월에 귀국 하였다. 라이트 형제는 영웅이 되었다. 당시의 대통령 테프트(Taft)는 백악관으로 그들을 초청하여, 미국 항공협회가 라이트형제에게 증정하는 메달을 손수 전달 하였다. 데이튼에서는 시청이 주최하여 축하연을 베풀어 그들을 환영 하였다.

라이트의 유럽전시비행은 그 곳의 많은 항공인들을 자극하여 항공계의 대약진(大躍進)을 가져오게 하였다. 라이트 항공 기와 조종술은 유럽에 소개 되었다. 1909년 7월 25일, 프랑스의 블레리(Louis Bleriot)는 켈레(Calais)에서 도버까지 25마일을 37분에 비행하므로써 최초의 영국해협 횡단의 기록을 세웠다. 1785년 블랑샤르(J. P. Blanchard)가 기구로써 횡단 한지 125년 만에 비행기에 의한 영국 해협횡단이 실현된 것이다. 또한 1909년 8월 22일 부터 30일까지 프랑스의 랭(Reims)에서는 국제비행대회가 개최되었다. 항공사에서 대 항공 주간이라고 부르는 대회이었다. 이 대회에 라이트는 출전하지 않았으나, 경이적인 신기록이 속출하였다. 각국의 항공인 10여명이 출전하였고, 참가한 항공기는 38종에 달했다. 이 대회의 기록을 보면, 고도기록

이 500 피트, 비행기록이 118마일, 속도기록이 47.7마일 이었다.

1909년 11월 22일, 미국에는 라이트 항공회사가 창립되었다. 부호와 억만장자를 중역으로 하는 회사였다. 라이트의 꿈은 실현되었다. 1911년, 라이트형제는 금전상으로 상당한 치부를 할 수 있었고, 고향인 데이튼교외에 17에이커의 땅을 사서 거대한 저택을 건립 하려고까지 계획 하였으나, 1912년 5월 30일, 월버는 갑자기 사망하였다. 향년 45세였다. 오직 항공문제에 전념하여 평안한 가정을 가져볼 겨를조차 없었던 위대한 항공인은, 연구·운영을 위한 과로에 티브스가 겹쳐서 거하였다. 월버를 계승하여 오빌이 회사를 맡게 되었다. 오빌은 1914년에, 라이트 항공회사의 명리와 특허권을 모두 매각 처분키로 결심하였다. 1915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양도 하였다.

1928년 오빌은 그가 최초의 동력비행에 사용했던 키티호크기를 영국의 사우스 켄싱턴과 학 박물관으로 보내어 영구 보존을 의뢰하였다. 스미소니안 협회가 라이트형제의 명예를 훼손 하였기 때문이었다. 라이트형제의 특허권을 침해한 문제로 투쟁하다가 패소한 커티스(Glenn Curtis)의 계약에 스미소니안 협회가 넘어갔던 것이다. 1914년 1월 라이트가 제조했던 커티스의 특허권 침해 는 완전히 커티스의 패소로 판결되었다. 그런 에 커티스는 스미소니안 협회를 움직여, 만약 랭글리의 비행기가 비행했다고 할것. 같은면 「동력 비행기술의 창시자」라고 하는 라이트의 명예가 추락될 것이 아닌가 하고 제의했다. 스미소니안 협회는 커티스에게 협회가 보관하고 있는 랭글리의 비행 가능성 여부를 시험하도록 의뢰하였다.

1914년 4월, 랭글리의 비행기는 선편으로 하몬즈포트에 있는 커티스의 공장으로 수송되었으며, 커티스는 이 비행기를 비밀리에 재조립하여 35개소에 변형을 가한 다음, 5월 28일에 커티스가 직접 조종하므로써, 5초간의 비행을 할수 있었다. 랭글리의 비행기가 스미소니안 협회에 반환되었을때는 다시 원상으로 복구되어 있었다. 협회는 「랭글리의 비행기체는 원형 그대로의 구조와 동력으로써 한 사람의 조종사 이외에 수백 파운드의 화물을 탑재하여 비행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 기계야 말로 진정한 역사상 최초의 비행기이다」라는 허위에 찬 성명을 발표했던 것이다. 1942년 협회는 이 성명을 철회하고 28년만에 라이트에게 사과 하였다.

1943년 12월 17일, 라이트의 비행 40주년 기념 만찬회에서 루우스벨트(FDR) 대통령은 키티호크기의 반환을 오빌에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2차 대전이 한창이던 때 였으므로 루스벨트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48년 12 월 18일에 키티호크기는 스미소니안 박물관으로 반환되어 진열 되었다. 오빌은 그의 키티호크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 하고, 1948년 초에 사망하였다. 향년 78세 였으며, 키티호크에서의 비행으로부터 45년 되는 해였다.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 — 조국의 근대화는 비단 경제건설만이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 사회적 합리화를 이룩하는 데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조국의 근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주변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비능률, 비민주, 비 합리화를 모두 추방해 내자는 것이다

— 1967.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

◇ —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나선 근대화의 대열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또 촌각도 중단없이 인내와 용기로써 위대한 전진을 거듭하는 일인 것이다.

— 1967. 한국비료 울산공장 준공식 치사에서 —



- 종횡무진 의 기습부대 -

<2> 유순근 역

차례

1. 무엇인가 큰 일이 서방에서
2. 「마켓트·가텐」 작전
3. 동서 공정부대의 성쇠
4. 「크레테」에서 사라진 독일 공정부대
5. 공정부대 미국·영국에서도 생긴다.
6. 힘에 벽찬 시시리아 작전
7. 타도 「히틀러」의 준비
8. D-Day에서 저력 발휘
9. 일본군을 하늘에서 무찌른다.
10. 최후의 아성 「라인」 돌파
11. 어디로 가나, 공정부대여

3. 동서 공정부대의 성쇠(盛衰)

연합군이 화란에서 실시한 하늘에서의 작전이었으나 그것은 1784년의 어떤 예언에 귀착된 것이다.

후랭클린의 예언

그 예언은 다음아닌 「벤자민·후랭클린(1706~1770 미국의 정치가·과학자 저술가)이 1784년에 다음과 같이 쓴 것이다.

“구름 위에서 가령 1 만명의 적군이 뛰쳐내 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곳저곳에서 설치대기 전에 이들을 격퇴시켜 버리도록 군대를 전국토에 배치할 수 있는 군주는 어디엔가 있지 않겠는가?

제 1차 세계대전 중 영국 해군상 「윈스턴 처칠(1874~1965 후에 영국 수상) 은 후랭클린의 공상적 논리를 재차 추구하여 교량의 파괴, 적의 통신망의 절단, 공장의 태업을 위하여 “하늘을 나르는 부대를 강화시킬 계획을 제안했다.

또한 제 1차 세계대전 중 미 육군 대령 윌리엄·미첼(애칭 「빌리」 후에 준장이 되었으나 정부가 공군력의 육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한 때문에 군법회의 회부됨)은 미 제 1보병사단의 병사에게 낙하산 강하의 단기훈련을 실시하여 「에츠」(파리의 동쪽 260km) 를 탈환하기 위하여 그들을 영국 공군 폭격기 「헌드레·페이지」로부터 독일군 전선의 배후에 강하시킬것을 기도 하였다.

그러나 휴전으로 인하여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유럽과 일본에 군사독재 정권이 탄생하고 그와 동시에 제 2차 세계대전의 개막이 가까와질 무렵에는 공 작전에 관한 사고방식은 극히 세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 그 자체의 기원은 적어도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나 1927년에는 이태리 군이 한꺼번에 9명의 무장병을 강하시켜 군사면에서의 응용가치를 밝혀 내기에 이르렀다.

나머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낙하산을 비단 대신에 나일론으로 바꾸는것 정도였다.

스포츠로서의 활공글라이더는 여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개량된 글라이더는 입수 하기가 용이 하였다. 또한 민간 항공 사가 개발한 비행기는 자재나 병력수송에 훌륭히 전용할 수 있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독일군은 민간기종인 융커스 JU 52를 사용하고 미·영 국군은 미국에서는 C-47 스카이 트레인이라 불리우고 또한 영국에서는 「다코타」라고 알려진 미국의 민간 항공기 DC-3를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공정 작전용의 비행기가 만들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후반에 접어 들어서의 일이었으며 그것도 그때 만들어진 것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1930년대의 전반까지에는 주요 국가의 육군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전부가 공정작 전 구상을 실험하고 있었다.

수송기 부족에 우는 메뚜기 전사

소련은 1934년에 재빨리 소형 전차 1량의 투하를 수반하는 46명의 낙하산병 강하훈련에 성공하고 있었다.

2년 후에는 키에프(모스크바 남서쪽의 도니에플 강가의 도시)부근에서의 기동 연습중에 2개 대대의 강하훈련을 실시하여 세계의 대사관, 공사관 부무관들을 놀라게 했다. 소련인들은 이 강하부대를 「메뚜기전사」라고 불렀다.

1936년 9월 10일에는 「민스크」(키에 프 남서 쪽 700km·백러시아의 수도)에서 1200명의 낙하산병이 강하하고 그 2주일 후, 모 스크바 근교에 5200명이 강하 하였다. 소련군(정식 호칭은 적군)은 또한 훨씬 앞서서 18명을 수송할 수 있는 군사용 글라이더를 완성시켜 놓았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소련군은 비교적 소규모의 공정부대 밖에 활용할 수 없는 운명에 놓였다.

1939~1940년의 소련과 핀랜드간의 전쟁 중 소련은 때마침 소규모의 낙하산 부대를 사용하였으나 독일과의 대전 쟁이 시작되자 엘리트의 공정부대도 모스크바로 향하는 독일군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일대 결전장에 정규보병으로서 투입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군은 그로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독일군의 공방전에 급급한 나머지 이들 엘리트 부대는 두번 다시 충분히 재건될 수 없었다.

그 이 유의 하나는 수송기의 부족에 있었다. 소련의 공장은 전차나 그 밖에 우선 순위가 높은 병기를 대량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송기의 공급은 불가능 했던 것이다.

소련군이 가장 널리 낙하산을 사용한 것은 독일군 전선의 배후에서 행동중인 빨치산부대(농민,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파괴, 방화, 태업 등으로 점령군을 교란시키는 게릴라부대)에의 보급과 지휘자를 보내기 위함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교량 보급기지의 파괴나 비행장의 습격에는 수개 대대의 병력을 투하였다. 대원들은 보통 임무를 완수하면 근처의 부락에 스며들어서 주민들과 섞여 빨치산부대와 합류했다.

1940년 9월 초에 소련군은 모스크바로 향하는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의 남쪽 약 160km의 쓰라 부근에 있는 소련군이 확보하고 있던 비행장에 「피스톤 수송」(수송기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피스톤처럼 여러 차례 왕복하며 화물이나 병력을 쉬지 않고 수송하는 수송방식)에 의해서 약 6,000명의 부대를 2일간에 걸쳐서 공수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정작전과는 다른 단순한 공수였다.

소련군은 제 2차 세계대전 중 꼭 두 차례의 대규모 공정작전을 실시했다. 그 제1은 모스크바

남동의 비야즈마 부근이고 제2는 키에프 부근이었다.

소련군 낙하산 부대의 활약

비야즈마 부근의 작전은 모스크바 전면에서 독일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소련군이 1941년 12월에 개시한 공세의 일부를 이룬 것이었다.

1942년 1월 3일부터 3월 중순에 걸쳐서 약 3,500명의 낙하산 부대와 7,000명의 공수부대와 남북에서의 집중적인 소련군의 공세로 막다 른 골목에 몰려서고 립된 독일군의 보급로를 차단키 위해 분전중의 빨치산이나 기병부대와 합류했던 것이다.

낙하산 부대의 임무는 후에 공수될 부대를 착륙시키기 위하여 비행장을 점령 하는 것, 교량의 파괴와 독일군의 주요 보급로 2개를 차단하는 것 등이었다.

그 결과 독일군은 다른 전선에서 전투부대를 전용하여 그것도 2개월에 걸쳐서 싸워야 하는 파경에 이르렀으나 끝내 소련군을 격파하였다.

소련군은 1943년 9월 24일 독일군 부대를 끌어들이 「도니에 플」(유럽 제3의 큰 강으로 볼가·다뉴브강에 이어짐)의 도하를 쉽게 하기 위하여 키에프의 남동쪽 도니에플강의 큰 만곡 부대에 있는 빨치산을 증원할 것을 기도하여 공정, 공수 각기 3개 여단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작전에는 처음부터 불운이 따라 붙어서 소련군에게 골치를 썩혔다. 부대 이동을 위하여 입수한 것은 겨우 180기의 수송기와 한심스럽도록 부족한 소수의 경형 글라이더 뿐이었기 때문이다.

계다가 독일군의 포격을 받아서 수송기를 잃고 급유작업 에도 쪼쪼매도록 꾸물거린 때문에 피스톤 수송은 완전히 늦어져 버렸다.

엮힌 데 겹친 격으로 최초의 낙하산 부대의 일단은 독일기갑부대의 정수리에 강한 때문에 순식간에 격퇴되어 버렸다.

다른 부대는 독일군의 보병사단과 그 사단이 경비하고 있던 군단사령부의 한 복판에 강하게 다. 독일군은 먼저 번과 똑같이 매서운 손길로 응수했다.

그러나 독일군은 또다시 1만명 가량의 공정공수 부대를 제거하기 위하여 1942년의 비야즈마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다른 전선에서 전투부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리하여 소련의 공정작전은 혼란 속에서도 각 방면의 독일군을 약하게 만들어 소련군의 도니에플 도하를 용이하게 하고 독일군을 러시아에서 구축 하는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다.

열강의 관심은 공정작전에

1935년과 1936년에 소련군이 공정기동 연습을 실시했다는 뉴스가 영국과 미국에 전해지자 양국의 군사연구가들은 크나큰 자극을 받았으나, 그 때의 흥분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영 양군은 수송기나 글라이더를 사용하는 구상—이미 확보된 비행장으로의 신속한 공수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31년에 미군은 포병 1개 중대의 인원과 화포를 파나마 운하지대(폭16km)를 건너서 공수했고 이어서 이듬해에는 영군 보병대대가 완전무장으로 이집트에서 이라크까지 공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영군에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임박하도록 정규의 공정부대는 전혀 없고 그러한 계획조차 없었다.

이태리도 1927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공정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험의 핵심은 공수(수송기가 비행장에 착륙하여 수송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에치오피아의 정복과 스페인 내란(1936년 7월에 일어난 스페인 인민전선 정부와 독일·이태리 양국의 지지를 얻은 후랑코 장군파 간의 내란)에 즈음하여 이태리군은 몇 차례에 걸쳐서 낙하산으로 보급품을 투하했다.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개시 직후, 보병 1개 연대를 민간기에 태워 로마에서 알바니아의 비행장에 공수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태리군의 공정작전은 1941년 4월 27일에 실시되었다. 소수의 낙하산병의 일단이 이오니아해(지중해의 이태리 남부와 희랍사이에 있는 부분)에서 연합군의 방어배치가 허술한 희랍의 케화리니와도(이오니아 제도중 최대의 섬)를 탈취한 것이다.

불란서는 1939년에 1개 대대의 공정부대를 편성했으나 얼마 후 해산했다. 이윽고 1940년 독일군에 패하고 샤르르·드골의 기치 아래 「싸우는 불란서」(제 2차대전 중 런던에 있던 자유 불란서 정부)가 국외에 탄생하고 부터 겨우 공정부대를 갖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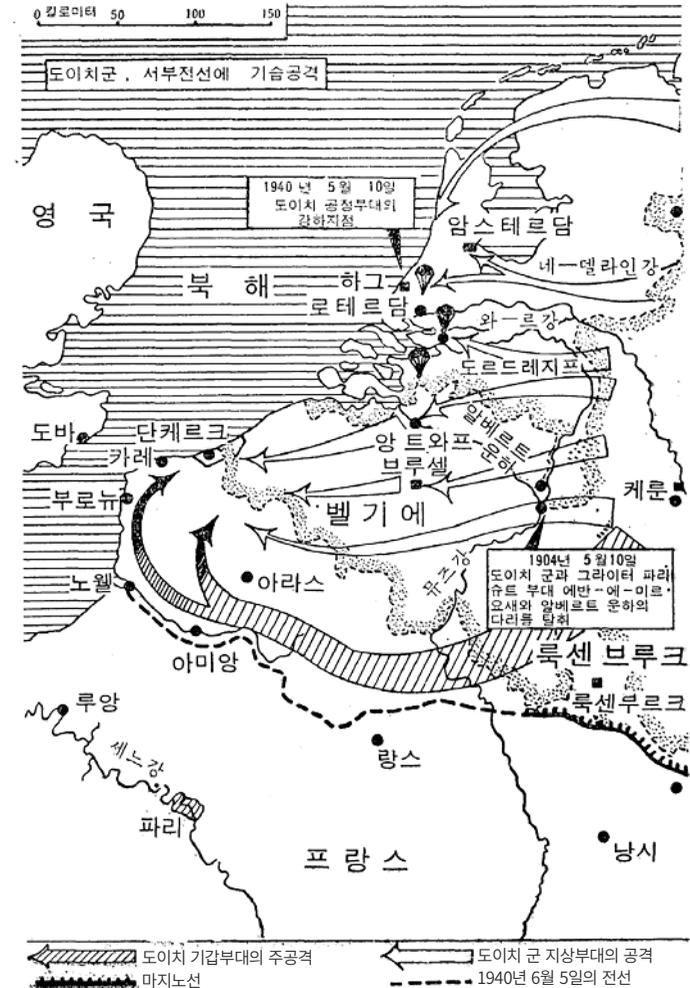
그리하여 놀만디 상륙일(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상륙하려 할 때 2개 대대의 일부가 「부르타뉴반도」에 강하했다. 그들의 임무는 태업을 수행한 후에 불란서의 레지스탕스 부대와 협조하는 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도 간단한 공정작전을 실험했다. 그리하여 독일에 패한 후에도 폴란드는 재차 공정부대를 갖게되어 낙하산 1개 여단이 영국으로 망명한 폴란드인들에 의해서 편성되었다.

그것이 마케트 작전에서 말굽형 진지에 몰려있던 「붉은악마」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델라인강의 남쪽 기슭에 강하한 폴란드 제 1낙하산 여단이다. 일본에서도 또한 일찍부터 실험을 실시

하고 있었으나 전쟁 수행의 광신적인 열의에도 불구하고 공정부대의 사용 그 자체는 소규모의 것이었다.

일본군이 공정부대를 편성한 것은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1941년 12월이 되어서였다.



특공적인 일본의 공정

그 구성은 요코스가 해군 특별 육전대 — 증강된 낙하산 1개 대대— 와 제 1낙하산 여단에서 비롯되었으며 제 1 낙하산여단은 증강된 낙하산 1개 대대와 중폭격기 1개 연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본군은 또한 별도로 1개의 비행 연대와 항공 수송부대를 편성하였다.

일본군은 1942초 화란 영토인 동인도제도에 공격을 개시하여 그 서전으로서 1월 11일 「세레베스섬」의 북동쪽 끝에 있는 「메나도」를 목표로 바다와 하늘에서 공격을 가했다.

해상으로부터의 상륙공격 4시간 후 요코스가 해군 특별 육전대가 「메나도」거리의 남쪽에 위치한 비행장에 낙하산으로 강하하여 화란군을 기습하고 재빨리 비행장을 탈취했다.

그 1개월쯤 뒤인 2월 14일 제 1낙하산 여단은 2개소의 대정유소를 탈취하기 위해서 수마트라의 파렌방에 강하하였다.

낙하산 부대는 부근의 비행장을 재빨리 탈취했으나 정유소는 화란·호주·영국의 혼성부대가 일본군 상륙 부대가 해상으로 도착해서 낙하산 부대에 증원하기 까지 2일간을 견디어 냈다.

1주일 후 요코스가 해군 특별 육전대는 티몰 섬(호주의 다이윈 북서연안)의 쿠탄항 탈취의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공정 작전을 실시했다.

이것이 일본군의 공정작전의 실질적인 최후가 되었다. 일본군은 공정부대를 갖는것이 너무 늦었던 까닭에 특별부대를 키워 왔거나 또는 대량의 수송기를 생산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전쟁이 시작되자 우선 순위가 높은 병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필리핀 제도의 테이테섬에서 2개의 작은 작전은 일본군의 공정전력이 한계점에 도달 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나는 1944년 11월 29일 3대의 일본군 수송기가 미군사단의 후방부대를 습격하려고 강하 착륙한 것이다. 비행기 안에 있던 병사들은 착륙의 충격으로는 죽지 않았으나 착륙 즉시 포로가 되었다.

다른 하나는 1944년 12월 6일 300명의 일본군이 미군의 수중에 있던 2개의 비행장을 탈환할 목적으로 강하하였다.

일본군은 비행기를 몇 대 파괴하고 일시적으로 1개의 비행장을 탈환했으나 계획된 해상으로부터의 증원 부대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령했던 비행장은 그 날로 다시 미군에게 탈환당하고 말았다.

4. 「크레타」에서 사라진 독일 공정부대

공정작전에 관련한, 독일이 해야 할 일은 공정개념의 정확한 파악과 그 유효성을 충분히 그

것도 극적으로 증명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스페인 내란

1935년 아돌프·히틀러가 벨사이유조약을 파기하자 독일공군 총사령관 「헬만게링」은 독일군 최초의 낙하산 부대의 편성을 지시했다.

1935년과 36년에 소련은 낙하산부대의 연습을 실시했으나 독일은 1922년에 체결한 「라파로 조약」(이테리의 제노바 동남 30km의 피서지 라파로세서 체결된 독·소간의 경제 우호조약. 양국 모두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으므로 상호 배상의 폐지나 통상의 확대등을 목적으로 한 외교 관계를 재개함)으로 소련과 우호관계에 있고 또한 군사밀약도 맺고 있었으므로 이미 소련의 공정실험을 알고 있었다.

독일군은 스페인 근교의 학교에서 낙하산병에게 숙성훈련을 시행한후, 콘돌군단(스페인 내란에서 후랑코 파에 증원된 독일 공군부대)과 협동하여 전투를 하기 위하여 50명을 스페인에 보냈다. 그 중 23명이 살아남아 독일군에게 귀중한자료를 안겨 주었다.

또한 독일군은 이 스페인 내란에서 모로코 군부대와 장비를 용거스 JU-52 수송기로 수송했으므로 대단한 공수경험을 쌓았다.

엘리트의 낙하산병

독일 공군은 낙하산연대, 뒤이어 공정사단(1939년)을 편성하고 병사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특히 뛰어난 자질을 갖춘자 만을 채용하였다.

무장 친위대(왓헨 SS) 즉 나치당의 군대와 똑같이 낙하산병들은 나치즘의 정신을 철저히 주입시켰다. 독일공군의 굴트·슈튜텐트 대장 — 후에 연합군의 공정 병력의 장비가 풍부함을 극히 부러워함 — 이 일찍부터 그들의 훈련을 담당했다.

슈튜텐트 대장의 훈련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엄격했다. 엄격한 육체적 훈련에 덧붙여 병사들은 대규모의 야외 기동연습을 포함하는 일반 보병의 훈련을 받고 거기다 파괴작업의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슈튜텐트 대장은 그의 부대를 소총 3개 중대와 중화기 1개 중대로 편성되는 3개 대대를 갖는 연대로 편성하였다. 36명으로 편성된 1개 소대는 3대의 수송기에 의해서 공수되었다.

전투시에는 편상화의 바로 위에서 불룩하게 부풀은 넉넉한 방풍 방수의 천으로 된 카바울(상의와 하의가 이어진 작업복)을 입고 두터운 옷감으로 싸인 헬메트를 착용했다. 대원의 무장은 자동소총이나 기관단총 중 한 가지를 사용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준비행동으로도 생각되

는 것의 하나로 독일군은 1938년 3월 12일 최초와 공정작전을 실시했다. 이때의 목표는 오스트리아 병합이라는 정치행동을 돕기 위하여 위인 근방의 비행장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맨 처음에 낙하산 부대가 강하하고 그 뒤에 병사와 야포등의 중장 비를 실은 수송기가 뒤따랐다. 8개월 후에는 용커스 수송기가 체코슬로바키아 영내의 스테에 덴랜드 점령의 1개 부대로써 보병 1개 대대를 태우고 보리발 가운데 착륙했다.

히틀러가 벨사이유조약을 입으로만 충실히 이행하고 있던 수년 동안에 정부의 장려를 받아 민간 글라이더 클럽이 격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은 글라이더를 좀처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글라이더 비행의 초보를 배운 수천의 청년들이 후에 독일공군과 파일럿으로 성장했다. 또한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독일군은 군사용 글라이더를 조금 밖에 갖고 있지 않았으나 1941년이 되자 독일군은 최초의 글라이더 습격연대를 편성하였다.

독일군의 표준 글라이더는 DFS-230형으로 고익단엽(高翼單葉) 전장 11.3m, 10명을 수송 할 수 있었다. 또한 고오타 42는 예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독일군이 1939년 9월 폴란드에 침입하여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때 공정부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것이 문제시 되었으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한 보고서는 적었다.

이때 독일군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정부대를 확보하고 있던 것이었으나 침공이 너무나도 빨랐던 관계로 공정부대는 사용되지 않았다.

선진의 테이프를 끊은 노르웨이 침공

독일 공정부대가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한 것은 1940년 4월 9일에 개시된 덴마크를 비롯한 노르웨이에 대한 작전에서였다.

1개 중대의 낙하산병은 만일 그것을 점령하면 덴마크의 무혈 점령은 성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교량을 순식간에 점령하였다.

노르웨이에서는 작전 최초의 일격으로 공정 및 공수부대가 수도인 오슬로와 스타반겔(노르웨이 남서단의 도시)의 비행장을 탈취했다.

오슬로에서는 낙하산부대의 사전 공격없이 수송기의 창으로부터 기관총 을 쏘아대면서 수송기가 차례차례로 비행장에 착륙하였다. 그리하여 그 후 3,000명 이상의 보병이 오슬로의 점령을 위하여 재빨리 전진하였다.

스타반겔에서는 1개 중대의 낙하산병이 비행장의 양쪽에 강하하여 줄을 이어 5,000명의 보병이 250대의 수송기로 착륙했다.

아득히 북녘에서는 또 하나의 낙하산 중대가 나르비크(노르웨이 북동부 스타반겔 북동쪽 약 1,000km)의 근교에 강하하였으나 강하가 서툴렀던 때문에 몹시 분산되어 많은 병사들이 부상했다.

그곳에서는 영국군을 포함하는 연합군이 최후의 거점을 포기하기까지 2개월간이나 지탱 하였다.

한편 최초의 강하로부터 2.3일 후 1개 중대의 낙하산 부대가 노르웨이 중앙의 1개의 정거 장을 점령하기 위하여 강하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적의 배후가 아닌 전진중인 적 지상부대의 머리 꼭대기에 강하해 버렸다.

이 서투른 강하결과 5일 후에 독일군이 도착하여 간신히 구출 하기는 하였으나 노르웨이군의 포위 공격으로 살아남은 인원은 150명중 겨우 34명에 불과했다.

이리하여 이들의 소규모 공정공격은 적측에 위협을 가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승리로 이끈 폴란드 강하

이 새로운 전법인 공정공격이 그 위력을 과시하여 적국에게 충격을 준것은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이 낮은지방에 있는 여러국가(폴란드, 벨기에 등)와 불란서에 공정작전을 감행한때였다. 독일군은 벨기에령 아르넨느지방(벨기에 동남의 산림지대)을 통과하여 불란서 북부에 침입하고 영국해협을 향하여 신속히 진출하는 주 작전을 진행하는 한편 독일 공정부대의 대부분의 병력을 투입하여 폴란드에서의 부차적 작전을 지원하였다.

헤이그에서는 낙하산 1개 대대가 수도 주변에 있는 3개의 비행장에 분산 강하하여 공수사단 병력의 3분의 2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목표는 폴란드 정부와 최고 통수부의 소재지였다.

그동안 슈튜텐트 대장 직속의 낙하산 4개 대대와 공수 1개 연대가 독일군 지상부대보다 한 걸음 앞서 돌도레히트(롯데담 남동 20km)에 있는 와아르강의 교량 메르디크(돌도테 히트 남방 10km)의 마아스강의 교량과 롯데담의 네에델라인강의 교량을 점령하려고 출동하였다.

돌도레히트에서는 2개 소대의 낙하산, 병들이 재빨리 교량을 탈취하였으나 돌랜드군의 반격에 다시 빼앗겨서 3일 후에 탱크를 포함하는 지상부대가 도착한 후 간신히 점령하였다.

메르디크에서는 1개 대대가 마아스강 양쪽 기슭에 강하하여 2개의 교량을 손 한번 쓰지 않고 재빨리 손에 넣었다.

한편 롯데담에서는 슈튜텐트 대장의 지휘에 의하여 낙하산 2개 대대로 점공격을 실시하고 뒤에 오는 공수부대를 위하여 교외의 비행장을 탈취하였다.

동시에 1개소대의 낙하산병이 시내에 강하하여 네델라인강의 도로 교량과 철도 교량을 향하

여 전진하였다. 이때 이미 수송기로 교량의 아래쪽에 착수하고 있던 보병들은 폭파장치를 철거한 후, 낙하산병들과 합류하여 지상부대가 착륙하기까지 교량의 북단(北端)을 수비 하였다.

헤이그에서 독일군은 비행장을 3개씩이나 재빨리 탈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전(苦戰) 하고 있었다.

독일군은 수송기로 도착 한 1개 대대의 증원 부대가 도착하고 나서도 폴랜드군의 반격을 받아 헤이그 북쪽의 비행장을 빼앗기고 말았다. 게다가 폴랜드군은 독일군의 증원 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남은 2개의 비행장을 되찾았다.



〈「크레타」섬 상공에서 피탄, 추락하는 독일군 수송기〉

독일군의 수송기중 몇대는 근처의 해안이나 국도(國道)에 착륙했으나 슈튜텐트 대장은 뒤 따라오는 수송기의 착륙 지점을 뚫달음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폴랜드군이 헤이그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독일군은 그외의 작전에서 성공하였고 전반적으로 보아 폴랜드군의 항복이 임박(臨迫) 했음을 감안하면 헤이그의 승리도 그리 대단한 의미를 갖지는 못한듯하다.

에반에마르 요새의 점령

한편 독일군은 폴랜드 침공과 동시에 폴랜드 남부 마아스트리히트 주변 — 후라이판의 자 루라고 불리운 곳 — 과 벨기에에 소규모였으나 멋진 공정공격을 실시했다.

이것은 마아스트리히트의 마아스강(벨기에에서는 무우즈강)의 교량과 남쪽의 알베르트 운하에 걸리는 교량, 거기에 이 운하의 근처에 난공불락(難攻不落)이라 불리운 벨기에의 에반 에마르 요새의 점령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5월 10일의 밤이 새기 전에 DFS 230 글라이더를 타고서 소리 없이 착륙한 소수의 독일군 특공대는 알베르트 운하에 걸린 2개의 교량을 점령하였으나 하나는 벨기에군의 파괴로 실패하였으며 또한 마아스트리히트의 마아스강 교량은 일부 파괴되었으나 꽤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점령하였다.

이 교량들은 지상 부대에게 알베르트 운하 및 무우즈강 배후의 진출을 허용하고 또한 에반·에마르 요새의 정수리에 착륙해서 고립(孤立)되어 있는 독일군의 구원을 가능케 하였다.

날이 밝은 후, 300명의 낙하산 부대가 증원을 하기위하여 강하 하였을때에는 글라이더로 도

착한 병사들은 벨기에군의 토치카나 구축물(構築物)을 파괴하면서 맹렬히 싸우고 있었다.

이튿날 정오쯤 되어 약 1,000명의 벨기에 수비대는 항복하였다.

불란서를 비롯한 낮은 지역의 여러나라가 패하고 또 영국군이 던커르크에서 피투성이의 퇴각을 하였기 때문에 히틀러는 영국 본토에 침공할 잠정계획(暫定計劃) 중에 슈튜텐트 대장 지휘하에 제 7공정사단이 그 선봉을 맡도록 준비시켰다.

게다가 이 때에 슈튜텐트 대장 자신이 폴랜드의 전투에서 입은 머리의 상처 때문에 얼마 동안 근무할 수 없었으나

그러하여 이 계획은, 첫째로는 독일공군이 영국 공군으로부터 제공권을 빼앗는데 실패하였다는 것, 또 하나는 독일 해군이 영국해군을 제압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외에도 히틀러의 생각이 동쪽에 있는 또 하나의 적(소련)에게 기울어졌다는 등의 이유에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나중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독일 공정부대의 다음 임무는 희랍방면에 있었다. 만약 히틀러가 소련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던 신속한 작전 때문에 우의(발칸반도)의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면 히틀러는 희랍에 침입하여 동맹의 친구인 베니토·무솔리니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영국군의 희랍 철수

1941년 4월 8일 독일군의 낙하산병 1개중대가 메탁사스 전선의 배후에 있는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로니카 근처에 강하하였으나 대부분은 죽음을 당했거나 포로가 되었다.

그로부터 3주일도 안된 4월 27일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영국연방군 각 부대가 희랍군이 항복한 결과 발생한 희랍으로부터의 철수의 제일보로써 페로보네소스 반도내에 전술상의 후퇴를 하고 있을 때, 독일 공정부대는 재차 공격을 가하였다.

1500명으로 구성된 낙하산병 2개대대가 글라이더에 탑재한 공병 중대의 지원을 받아 코린트(아테네 서쪽100km, 페로포네소스 반도)운하에 걸려있는 메로포네소스 반도로 들어가는 단 한 개의 교량위에 강하였다.

영국군은 전투 중에 그 교량의 폭파에 성공하였으나 아직도 희랍 본토에 남아있던 영국여단의 퇴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독일군이 그 교량을 손대지 않고서 점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영국 여단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독일군은 영국군의 소수의 후위(後衛)가 저항하는 것으로 믿고 마음껏 압력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해군은 독일군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희랍 본토의 항구에서 그 여단을 철수시킬 수 있었다.

한편 영국 연방군은 페로포스네소스 반도에서 탈출했다.

영국군의 희랍으로부터의 철수는 사상 최대의 공정공격의 무대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공정 작전은 공정 전의 장래에 있어 연합군과 독일군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독일군의 크레타섬 정복이며 또 독일공정부대의 전성기인 동시에 말로(末路)를 의미하고 있었다.

지중해의 요충(要衝) 크레타섬

에게해의 최대의 섬인 크레타는 연합, 구축(樞軸) 양진영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가치있는 지역이었다.

섬의 서쪽 끝에 가까운 스타만(灣)에 있는 항구(지중해 최대의 항구)에서는 행동반경이 큰 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 섬의 세 곳의 비행장(스타만 서쪽에 있는 마테메 동쪽의 레테입논, 그 보다 훨씬 동쪽에 있는 이라크리온과 섬의 북쪽 해안에 연하여 있는)으로부터 영국 공군은 이태리 남부와 멀리 루마니아의 유전(油田)에 이르는 발칸제국을 제압하고 또 동시에 이집트와 리비아에서의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섬이 독일군의 수중에 들어가면 이 섬은 독일공군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지중해 를 지나는 영국의 해상로를 압박함과 동시에 이집트와 리비아에서의 독일의 지배권을 강화하며 또 때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스에즈운하를 하늘과 바다로부터의 공격을 위한 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희랍으로부터의 철수가 시작되었을 때 영국군은 크레타섬의 방위시설을 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극히 조금 밖에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크레타섬은 1940년 무술



〈1940년 독일군 파죽지세 침공의 중책을 완수한 독일군의 「파라슈트」병〉

리니가 희랍에 침입하기 전에 본국인 희랍본토와 똑같이 중립지대였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군의 동부 지중해 주둔병력이 부족한 것도 또 하나의 이유였다.

버나아드·C·후레이버어그 소장은 지휘하에 있는 뉴질랜드 사단의 3분의 2의 병력을 이끌고 희랍으로부터 철수 중에 크레타섬에 이르러서야 — 그는 이번 희랍에서의 철수가 일시적인 작전상의 철수로 생각했다.— 새로운 임무로써 크레타섬의 방위를 맡게 되었음을 알았다.

영국군 상급사령부는 독일군의 제 7공정사단이 희랍에 주둔하고 있음을 알고 독일군이 이 육공정, 해상 양면작전으로 크레타섬에 침공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빈약한 장비의 영국수비대

후레이버어그 소장은 크레타섬의 방위를 위하여 상당수의 병력(3만명의 영국군 및 영연방군, 1만 1천명의 희랍군과 크레타부대)을 장악하고 있었다. 하나 그 수는 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 영국 연방군은 오합지졸과 같은 존재로써 대부분은 소총과 등에 짊어지고 운반할 수 있는 장비품만을 가지고 희랍으로부터 물물이 철수를 해 온 부대였다.

퇴각으로 사기는 저하했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독일군에의 공포감을 감출 길이 없었다.

후레이버어그 소장이 장악하고 있는 뉴질랜드 사단의 2개여단이 가장 강력한 부대였다.

크레타섬의 북부해안 지역의 배후에는 험준한 산줄기가 가로막아 남해안으로 빠지는 길은 짐수레가 겨우 다닐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섬의 중요지역(비행장과 항구를 이루는 북부해안)은 천연의 요새를 갖지 못하였다.

손상을 입은 화포는 부품을 추려서 수리하고 후레이버어그 소장은 이력저력 49문의 사용 가능한 화포를 끌어 모았다. 그는 또 몇대의 탱크도 가지고 있었으나 대부분 이미 리비아에서 사용연한이 넘은 주식의 경전차(輕戰車)였다.

비행기의 수는 극히 적었으며 독일군 전투기의 밥이나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에 후레이버어그 소장은 섬으로부터 철수토록 명령했다.

비행기는 5월 15일에 출발했다. 그러나 딱하게도 독일군이 점령할 때에 사용을 방해할 조치로써 활주로를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시간적인 여유는 전혀 없었다.

비록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레이버어그 소장에게 비행장을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으며, 또 영국군은 크레타섬을 확보하고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에 크나큰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후레이버어그 소장의 상관은 비행장 파괴의 허가를 수락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곳에 밝은 전망을 예측할 수 있었으니 그것은 처음부터 지켜야 할 것(비행장과 항구)이 두

렸했기 때문에 후레이버버그 소장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유로이 부대를 집중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아테네의 사치스러운 호텔의 방에서 독일의 슈튜덴트 대장은 크레타섬의 침공을 계획하고 지휘했다. 공정부대의 진가와 용맹성을 실제로 발휘해 보이기 위해 이 침공을 꼭 실행하도록 히틀러 총통을 설득한 것도 그 사람 자신이었다.

슈튜덴트의 대공정작전

슈튜덴트 대장은 500대 이상의 용커스 JU-52수송기, 75대의 글라이더, 약 600대의 폭격기, 급강하 폭격기 및 전투기를 지휘하여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또 엘리트부대인 제 7공정사단을 포함하는 22,750명의 병력을 자유로 움직일 수 있었다.

낙하산으로 약 1만명(이를 위해서는 희랍과 크레타섬 사이를 3회 왕복 비행이 소요된다). 글라이더로 750명, 공수로 5,000명, 해상으로부터 7,000명으로 공격 하도록 되어 있었다.

3개의 비행장 가운데 마레메의 비행장이 가장 크고 계다가 스다만에 가장 근접했기 때문에 슈튜덴트 대장은 이곳에 첫번째의 공격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낙하산병과 글라이더 보병으로 편성된 공격대로서 병력수는 2,500명에 이르고 있었다.

1개 대대에게는 마레메의 비행장을 내려다 볼수 있는 낮은 언덕(標高 107m) 107고지를 탈 취하는 명확한 목표가 주어졌다. 이 비행장이 확보된다면 공수되는 부대의 대부분이 즉시 착륙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마테메 공격과 거의 같은 규모의 부대가 레테임논과 이라크리온의 비행장을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들 부대는 두번째 세번째로 공격할 예정이었다.

이제까지 소규모의 공정작전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슈튜덴트 대장은 병력을 셋으로 나누어 비교적 소규모의 공격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첫번째 공격뿐이었다.

동시에 슈튜덴트 대장은 낙하산부대에 예비병력을 두지 않았다. 그 때문에 만약 최초의 주력공격인 마테메 탈취가 실패한다면 곤경에 빠질 위험성이 있었다.

수송기를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마테메의 비행장은 무슨 일이 있든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에게해의 영국 해군은 강력하게 독일군이 어떤 형태의 상륙공격을 가해와도 반드시 이들을 때려눕혔을 것이다.

독일군의 폭격기와 급강하 폭격기「스츠오카」의 치열한 준비 폭격에도 불구하고 마레메에

대한 1941년 5월 20일의 주공격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실패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피로 얼룩진 107고지

선두에 있던 글라이더는 대부분이 착륙에 성공하였으나 낙하산 부대는 후레이버버그 소장의 뉴우질랜드 부대의 방어진지를 덮어씌우듯이 강하게 버렸다.

필릭필릭 춤추듯 내려오는 낙하산병들에게 점점다가 들어오는 대지는 소총이나 브렌 총, 루이스 총 40mm·보오휘즈 대공 기관포로부터 발사되는 예광탄으로 정신이 없었다(브렌총 =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의 기관총, 최초로 제작된 체코슬로바키아의 도시 Brno의 Br과 England의 En을 따서 Bren이라고 이름지었음).

[루이스 총 = 미 육군의 I·N·루이스 대령이 발명한 원형탄창(圓形彈倉)을 사용한 경기관총]

착지 충격(着地衝擊)이 오기까지는 어찌지도 못하고 낙하산병들은 장착대(裝着帶)에 매어 달리면서 이를 막물고 있는 힘을 다하여 기관총으로 맞섰다. 싸움은 거대한 집단의 충돌이 아니라 죽을등 살동기를 쓰는 백병전이 되었다.

독일군 1개 대대의 3분의 2가 휩쓸렸다. 이런 사태에 직면한 독일군의 연대장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107고지를 빼앗지 않으면 안된다. 이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비행장을 점령 하더라도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생각했다.

제22 뉴우질랜드 대대장은 2개 중대를 107고지에, 다른 2개 중대를 눈 아래의 비행장에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격전 중에 비행장에 있던 2개 중대와 연락망을 잃게되어 비행장에 있던 2개 중대는 독일군에게 섬멸되었으리라고 판단했다.

107고지 위의 그 자신의 진지에도 압력이 가중하여 왔기 때문에 제22 뉴우질랜드 대대장은 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손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다. 진지의 위급을 구할 공격에 실패하자 그는 절망하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박격포와, 기관총은 전부 사용불능이 되었다. 이 통신을 최후로 곧 못쓰게 될지도 모르게 성능이 저하된 무선기로 그는 여단장과 통화하고 퇴각은 피할 길이 없다고 보고했다.

운명을 결정지은 뉴우질랜드 대대의 퇴각

뉴우질랜드 병들의 상황은 절박했으나 비행장에서 사라진 행방불명의 2개중대는 실제로는 썩 잘 싸우고 있었다—독일군 낙하산 부대의 상황은 그보다 더 참혹했다.

연대장은 부상하고 1900명이었던 부하들은 겨우 600명에 불과했다. 다른 일단의 낙하산 부



〈소련군 「파라슈트」병의 장비품목 장착훈련〉

대는 약 1km 떨어진 또 다른 뉴질랜드 부대의 진지에 강하게 버리는 바람에 크나큰 손상을 입어 지휘관은 비행장 내에서 싸우는 것보다 오히려 그 곳에 참호를 파려고 결심했을 정도였다.

후속부대를 파스톤 수송(부족한 비행기로 여러차례 왕복비행하는것)을 하기 위하여 회합에 되돌아가는 수송기는 댓수가 형편없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 격추된 것도 있고 고장인 것도 있고 — 레타임논과 이라크리온의 비행장에 착륙할 예정인 후속부대는 극소수 밖에 공수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그 극소수의 후속부대 조차도 비행기의 정비나 연료를 공급하는 관계로 무척이나 지체 되었다.

날은 새였으나 레타임논, 이라크리온의 비행장에서 어느 하나도 독일군은 점령하지 못하였다.

한밤중에 107고지의 기슭에 와있던 낙하산병들이 공격을 재개하려고 일어섰을 때, 그들은 하루종일 경험한 맹렬한 사격을 받을 것으로 추측했다.

낙하산병들은 조심성있게 뉴우질랜드 부대의 사격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으나 아무일도 없었다. 천천히 살금살금 정신을 바짝차리고 낙하산병들은 배를 땅에 깔고 소리없이 기어서 포복진진을 했다. 믿을수 없는 것이 107고지는 텅텅비어 있었다. 그제서야 고지 전체가 독일군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었다.

당시에는 아무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었으나 연합군은 107고지의, 철수와 함께 크레

타섬을 잃은 것이었다. 밤이 되어서 연합군은 역습을 시도했으나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었다.

상황을 알지 못해 고민하고 그것도 최악의 사태를 겁내고 있던 슈튜덴트 대장은 5월 21일의 한낮에 한 사람의 조종사를 파견하여 상황의 여부에 관계 없이 용커스 JU-52수송기를 마레에 비행장에 착륙시켜 전투의 상황을 무전으로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용커스 JU-52는 얼마간의 사격을 받았으나 조종사는 착륙에 성공하여 비행장에서 낙하산병들과 말을 주고 받은 후에 이륙했다. 그리고 “107고지는 독일군의 수중에 있으므로 증원 부대는 아무런 방해로 받음이 없이 공수할 수 있다” 고 보고를 했다.

슈튜덴트 대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아있던 낙하산 부대 전원을 공수하도록 명령했다.

이 낙하산 부대는 수송기의 손실과 작전 초일(5월 20일)의 지연 때문에 떠나지 못한 600명과 병력이었다.

이 부대는 마레메와 비행장 상공에 강하하기 위하여 이륙하고 출발했다. 한편 공수부대는 수송기가 돌아오는 즉시 곧 돌아갈수 있도록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크레타를 포기한 영국군

제 2일(5월 21일)의 밤이와도 양군의 장비는 전황을 점칠 수 없었다.

독일군 측에서 보자면 해가 저물고 나서 스타만의 바다에서 맹렬한 포성, 거포(巨砲)의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승리는 멀어졌는가 생각했다. 영국함대가 2차에 걸쳐 밀려온 독일군의 증원부대의 제1 진을 분쇄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국해군이 임무를 멋지게 완수했기 때문에 독일군의 제 2진은 되돌아가고 말았다. 크레타섬의 뉴우질랜드 사단장 후레이버어그 소장에게 새로운 희망이 싹텄다.

다음날 아침 후레이버어그 소장이 명령한 마테메 비행장에 대한 연습은 결정적인 승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역습부대는 독일군의 증원부대와 정통으로 맞부딪쳐 비행장을 눈앞에 두고 분쇄 저지 되었고 거기다 독일군의 용커 JU-52수송기는 착륙을 계속하고, 새로운 증원 부대를 토해놓자 곧 다시 이륙하였다.

이 작전 중에 22,500명의 독일군이 크레타섬에 도착했다. 제3일(5월 22일)도 저물어 갈 무렵에 후레이버어그 소장은 산줄기를 넘어서 섬의 남쪽으로 부대를 철수시키려고 생각을 했다.

결국 후레이버어그 소장은 압도적인 독일군에 대하여 죽을 기를 쓰고 싸우면서 섬의 남쪽으로 철수하려 했다.

그러나 영국해군이 17,000명 중 최후의 한 사람까지 수용했을때에는 — 그들은 안전지대로 옮겨졌으나 — 그레타섬에는 아직 수 천명이 발이 묶여 있었다.

5월 30일 밤 최후의 한 사람이 영국 함정에 타고 철수하고 나서 아직 떠나지 못한 병들에게는 항복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단밖에는 없었다는 사실은 연합군측의 과실을 명백히 말해 주고 있었다.

과실이란, 회담에서 철수 후 불과 몇 시간 후에 새로운 적대 행동에 직면했다는 것, 방어 시설의 준비나 지원이 거의 없었다(항공지원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 게다가 새로운 병종(兵種)인 공정부대의 공격에 직면했다는 사실 등이었다.

더구나 후레이버어그 소장과 부하들은 처음부터 패배가 다가오고 있음을 각오하면서 싸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독일군의 낙하산부대에 대해 통렬한 제일타를 가했으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독일 공정부대의 묘지(墓地)

일반적으로 패배한 쪽은 이긴자가 바보짓을 하거나 승리를 위해서 큰 손해를 보아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 작전에서도 승자인 독일군은 어지간히 큰 실수를 했다.

슈튜덴트 대장은 이 작전을 계획함에 있어 하나의 큰 공정 작전으로 하기보다는 3개의 소규모로 하는 것에 중시하였으며 마레메의 비행장이 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3등분 하고 말았다.

그것은 낙하산 부대의 전부가 제 1일에 크레타섬에 올 수 없었다는 것(대체로 스케줄이 무리였다)과 마레메의 중요 목표를 탈취하기 위하여 싸운 부대를 증원할 공정 예비병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서 만약 뉴유질랜드 부대가 저처럼 무분별하게 107고지를 포기하지만 않았다면 독일군은 크레타섬의 공략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독일군의 승리의 대가는 컸다. 4,000명의 병사가 전사하고 정예의 낙하산 부대는 4명중 1명이 전사자의 대열에 들어갔으며 전체의 전사자는 총병력의 30%를 넘었다.

독일에서는 불란서나 낮은 지역의 제국을 침공할 때에 이미 공정공격은 기습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으며 여기서 또다시 큰 손실을 보았으므로 히틀러는 낙하산 공격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히틀러는 이 무렵의 몇 개월을 지나면서 공정 작전에는 완전히 자신을 잃게 되지만 크레타섬의 경험에서 히틀러는 엘리트 공정부대의 대부분을 러시아 전선에 투입해서 전멸시켜 버렸던 것이다. “크레타섬은 독일 공정부대의 묘지였다”고 슈튜덴트 대장은 말했다.

그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은 러시아 전선에서 몇회의 소규모의 공정작전을 계획 했

으나 여러 가지의 이유에서 — 주로 소련군의 전진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 어느 것 하나 실행하지 못했다.

그 외의 독일군은 공정 작전은 전부 서부전선에서 행하여 졌으나 어느것 하나 꼬집어 말할 만한 규모의 것은 아니었다.

엘리트부대의 종말

1943년 7월 14일 밤에 독일군 낙하산 1개 대대는 어느 중요한 교량의 수비부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시칠리아섬(이태리 반도의 남서쪽 바다에 있는 지중해 최대의 섬)의 동남부에 강하 했으나 그 후 곧 이어서 영국군의 낙하산 부대가 독일군의 정수리에 강하하여 그 교량을 되찾아 버렸다.

1943년 9월 11일 이태리가 구축군에서 탈락한 직후 이태리의 항복은 9월 3일— 독일군 낙하산 1개 대대가 몬테그로탄도(콜사카섬에 있는산)의 근처에 강하해서 이태리군의 사령부를 공격했다. 그러나 그 전투는 독일과 이태리의 전면 휴전이 실현됨으로써 얼마 안 가서 끝났다.

그다음 날 독일군의 글라이더의 소부대가 이태리 북부의 산중에 착륙하여 이태리의 독재자 베니토·무솔리니를 구출했다. 그는 이미 연합군 측에 가담했던 이태리정부에 의하여 감금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후 독일의 제2 공정사단이 엘바섬(이태리 반도와 콜사카섬 중간에 위치한 작은 섬)에 강하하여 약간의 저항을 받았으나 점령했다.

2개월 후, 영국군이 이태리의 항복에 뒤이어 도데카니즈 제도(터어키 서방, 지중해에 있는 히랍령의 제도)의 몇개의 섬을 점령한 후에 1개 대대의 독일군 낙하산 부대가 해상 부대의 지원을 받아 그 섬 중의 하나인 테로스섬을 빼앗았다. 1944년 7월 21일 200명의 독일 글라이더 부대는 불란스의 레지스탕스 부대가 일으킨 폭 동을 진압하기 위해 불란서 남동부의 베르고르 지방에 착륙하여 지상부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폭동을 진압했다.

독일 공정부대에 의한 최후의 공격이 아직 남아 있었다.

전국(戰局)이 독일군에 어둡게 무겁게 다가왔을 때에 전투에 시달린 용커스 JU-52 수송기(연료 부족으로 계획보다 24시간 늦게 이륙했다.)에 탑승한 약 1개 대대의 낙하산병이 1944년 12월 17일 벨기에령의 알렌느의 말메 디이 부근에 강하하였다.

이 작전은 서부전선에서 이니시어티브를 잡으려는 히틀러의 공세 작전(알렌느의 전투)의 일부였다.

강하시에 뿔뿔이 흩어져 버린것과 습지대인 관계로 통로가 나빠서 장애를 받아 낙하산 병들

은 끝내 합류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미군부대는 순식간에 그들을 소탕해 버렸다.

그것은 독일국방군이 그렇게도 자랑하던 엘리트부대로서는 너무나도 무정한 종말이었다.

변천하는 사회와 성윤리

고영복
〈이화여대 교수〉

1. 성윤리의 배경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이상 공동생활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고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성적 욕구의 발산이 허용될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는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에디프스적 비극을 용인할 수가 없는 곳이 인간 사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사

회에서는 어디서나 성의 문제가 제도적으로 가족제도를 기축하여 규제되고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우리들의 성문제는 반드시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남녀관계는 궁극적으로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위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족제도가 요구하는 규범을 중심으로 하여 성도덕은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찌기 독일의 사회학자 튀니스는 가족관계란 본질의지(本質意志)에 의한 게마인사프트적인 관계라고 밝히면서 가족이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자연발생적인 유기체적 결합이라고 말하였다.

이 논리는 전통적이며, 봉건적인 자연경제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 가족보다도 오히려 개인을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가족에게도 게텔사프트적인 요소가 있음을 미국의 사회학자 맥키버가 밝힌 바 있다. 그가 설정한 커뮤니티와 어소시에이션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가족은 남녀가 공동으로 생활하기를 원하고 성적교섭과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합한 것이니 어소시에이션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녀 간의 관계나 부부관계로 이익과 타산의 공동으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가족의 개념도 시대를 달리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성도덕의 문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봉건사회에서는 성윤리가 봉건적인 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해 회생되었고 반면에 근대적인 사회체제에서는 자유연애가 구

가되고 있다. 마치 봉건적인 사회윤리가 봉건적 사회 관계를 재직질한 역할을 하고 자본주의적 경제윤리가 근대적인 사회관계의 보조자로 등장하는 것처럼 성도덕도 각기 사회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이념적 지주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성적욕구, 성관계, 성도덕은 대체로 하나의 계열을 이루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성관계는 한편 가족 집단에 의해서 제도적 규범을 받고 있으므로 성의 문제는 사회관계 일반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덕은 가족윤리의 규계를 받는 것이다. 물론 성적 욕구, 성관계, 성도덕도 상호 작용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상호규정을 한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사회관계가 규정하는 가족윤리의 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2. 인간관계의 변천과 성윤리

우리는 앞서 사회관계가 가족윤리를 규정하고 나아가서는 가족윤리가 성윤리를 규정하는 일반적 도식(圖式)을 훑어보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회관계 일반의 문제와 성도덕과의 관계를 하나의 변천과정 으로서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스가 근대를 사이에 두고 게마인샤프트적인 인간관계에서 게젤샤프트적인 인간관계로의 변천을 설득성 있게 밝힌 그의 저서 <Gemeinschaft와 Gesellschaft>에 의하면 본능적이고, 관습적인 인간관계가 계약적이고 이해 타산적인 인간관계로 변천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쿠우리도 농촌적인 사회에서는 친밀하고 전인격적이고 영속적인 원조 집단적 접촉이 향해지고 도시적 사회에서는 이차 집단적 접촉이 향해진다는 얘기로 귀결짓고 있다.

이차 집단적 접촉이란 모든 관료 조직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관계가 형식적이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봉건과 근대라는 이분법적(二分法的) 사고로서는 현대의 대중 사회적인 성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에 속한다. 고독한 군중으로 대중적인기를 모은 미국의 사회학자 리이스만은 인구동태의 수세와 관련시켜 사회유형을 전통적 지향형, 내적지향형, 타자 지향형으로 삼분하고 있다. 봉건적인 전통지향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기준집단이 부족이나 촌락이나 사람들은 직접 관찰에 의해 학습한 촌락생활의 세세한 규범을 고집한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집단에 대한 침범으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수 치스러운 일을 안하러 노력한다.

그러나 초기 자본주의사회를 특징 지우는 내적지향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양친 뿐이다. 여기서는 부모로부터 배워온 어떤 일반원칙에 충실하려고 사람들은 노

력한다. 여기서는 부모로부터 배워온 어떤 일반 원칙에 충실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한다. 잘 못을 저지른다는 것은 인격적 이상의 침범이라 여기고 자아속에서 죄의식에 괴로워 한다. 이에 반하여 독점기에 들어선 현대적인 타지향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준집단은 주로 교우 집단 들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결정 지우는 것은 특수한 상황속에서의 사태 여하에 달렸다. 마치 레이다 장치가 자아속에 있는 것처럼 유행이나 변동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다. 양심의 판가름은 불안감이 시킨다. 불안하지 않으려고 적응에 적극적이고 주위의 평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리이스만은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봉건, 근대, 현대의 세가지 사회유형에서 각기 상이한 인간관계가 전개되고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도식(圖式)을 간략하게 훑어 본 셈이다. 이에 따라 성관계도 역시 같은 변천을 겪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봉건사회 혹은 전통적지향형 사회에서는 생활단위가 가족이다. 가족이 생산체이고 동시에 소비체이었다. 그러므로 가족 성원은 평생을 같은 가족집단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하고 가부장에게 부여된 무 제약의 지배에 예측되어 있어야 한다. 봉건적 가족제도는 가족, 즉 처와 자녀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의 신성한 사회적 의무이었다. 따라서 남녀관계는 결혼을 위해서만 허락되며 결혼은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제도적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또 전통지향형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이 부권제이었으므로 처는 성관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남성의 성적 처리가 가족에 의해서 충족되는 것을 공공연히 허락된다. 공창이나 축첩이 이것을 허락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로서 법적으로도 공인되는 것이다. 여기서 남성에 대하여 비난되는것은 간통(姦通)뿐이다. 간통이 처벌되는 것은 그것이 남성간의 성도덕에 위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남자에게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미혼여성의 처녀성이 존중된 것은 남성의 사물이 될 여성들을 헌것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방지책에서 나오는 저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마디로 말하면 봉건적 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성관계는 가족을 단위로 하여 자의로 처리되는 것이다. 공동적이고 전통적이고 정서적인 인간관계는 이것을 감싸주고 있었다. 또한 사람들은 어릴때부터 그러한 희생을 감내하는데 훈련이 되어있다. 성관계에 대한 종교적 천시나 경멸감이 또한 그것을 합리화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사회 즉 초기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면 양상이 달라진다. 결혼의 목적이 성관계 자체에로 옮겨진다. 사람은 어떤가족의 의무보다는 서로 좋으니까 결혼하자는 것이다. 결혼은 즉 연애의 결과를 말한다. 낭만적인 사람이 서구에 있어서도 겨우 중세에 이르러 출몰하기 시작했고 연애가 결정적으로 결혼과 직결된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라는 역사적 실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결혼이 사회제도이든 혹은 자연적 사실이든 간에 적어도 연애결혼이 확립되기까지에는 그만큼 조건이 필요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성(性)이 종교적 죄악감에서 자연

과학적 사실로서 합리성을 획득하였다는 것과 성을 기초로한 연애를 개인적 사실로서 인정할 만한 자유주의적 혹은 개인주의적 사고의 발달을 가능케 한 현실적 여건이 필요했던 것 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양성간에 사회적 신분의 차를 인정하지 않고 재부(財富)의 차가 유일한 권력 서열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 아니고 소유할 수 있는 주체(主體)로 된다. 연애는 자유로운 것이고 연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결혼은 무의미한 것이다. 자본주의 정신은 성관계에도 침투한다. 이리하여 애정도 상품적 가치가 붙어버린다. 그리고 투자한 자본을 그대로 회수할 수 없듯이 던져진 사랑에 대해선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연애 결혼이 구가 되고 정열적인 사랑이 찬미를 받는다. 사랑은 결사체적(結社體的)인 이해관계가 얽히고 형식적인 인간관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유일한 낙원이었던 것이다. 자유연애가 극단적인 형태로 꽃 핀곳이 미 대륙이다.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면 그 사람이 사라지고 성격이나 취미 등의 차이를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왜 결혼했을까 하고 회의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랑을 동경하는 나머지 결혼한 남녀라면 다른 이성애에 매혹 당할 가능성도 크다. 그리하여 새로운 결혼에 따른 새로운 사랑 속에 새로운 행복의 기대를 찾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미국은 세계 제일의 이혼국이 되어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대중사회 즉 리스만이 말하는 타자 지향형 사회에서는 양상이 더욱 달라졌다. 즉 성과 생식이 그리고 사랑이 서로 분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해 준 것이 가족계획이다. 피임의 과학 및 사상의 발달이다. 여기서는 전시대에서와 같은 결혼성 생식을 하나로서 논하기 어렵게 되었고 또 그럴 필요성도 없어졌다. 간통이나 사생아가 하나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되어 사회적 제약을 받았던 성에 새로운 성도덕이 부여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성은 반드시 결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대두한 것이다.

가족을 위한 결혼이 근대사상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성을 위한, 결혼으로 변모했지만 결혼은 오히려 성을 억압하는 사실로 판명된 것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로이다. 결혼의 이상 형태로 생각된 연애결혼이 결혼을 유지하려하면 사랑을 희생하고 사랑을 소중히 하려면 결혼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 뚜렷한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산업사회의 변모와 더불어 새로운 거대한 조직은 가족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사회의 복잡화에 대한 인간 형성의 장소로서의 가족이 그 자격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의 기초로서의 결혼의 의미를 더욱 삭감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소위 현대적인 대중 사회적 여건하에서 나오는 현상이므로 좀더 이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3. 현대 대중사회에서의 인간 소외

기능과 조직이 고도로 복잡하게 분화 발달되어 있고 생산과 소비와 시장에서의 성공에다 그 구조의 기저를 둔 물질문명이 고도의 기계화 및 자동화의 단계로 발전한 현대 산업 사회는 인간의 생활자체를 꿈도 시도 없이 싸늘한 기계적 과정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만 것이다. 무자 비한 매스컴의 세세에 인간의 관념은 저속화 동질화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고, 교육은 공업화된 사회내에서 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만을 제공해 줄 뿐이다. 현대 문명을 보다 더 교차적인 세계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념이나 규범은 제공해 주지 못 하고있다.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자기를 구속하던 전근대적인 전통적 사회의 종교적 권위의 제약과 공동운명체적인 원시적 유대에서 인간이 해방되고 분리되기는 했지만, 개인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는 획득하지 못했다. 오로지 자신의 심판관으로서의 이성과 양심 만을 가지고 홀로 서있게 된 것이다. 개인의 지적 정서적 및 감각적인 의미의 자유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형식적인 자유가 개인에게 합리성은 가져다 주었으나 인간을 고독케 함으로써 근심에 둘러싸인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발굴해 낸 이성으로 자신의 고독과 분리의 상태를 하나의 탈출할 수 없는 감옥으로 체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인간은 초원의 풀처럼 무력하고 고독하게 버림받은 바 되고 말았다. 투쟁하고 생활하고 번뇌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무엇인가에 보호되고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감득(感得)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의 식으로부터 최고 생활의 기쁨이 생기는 것일 게다. 허나 영원히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정신적 고독이란 괴로움부터 도피하려는 열망은 결코 생리적 기근의 조잡한 만족으로 도달되는 것은 아니다. 이리하여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피하고픈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인간은 자기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새로운 구속과 유대를 찾아 정신적인 유랑의 길과 퇴폐적 과정에의 도정에 오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자연의 지배라는 인간의 업적이 도피구를 마련해 주게 된 것이다. 새로운 생산 기계의 제작을 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몰두하게 되었다. 신과 구원을 찾으려는데 바쳤던 인간의 정력은 자연의 지배와 물질적인 안락의 증대 방향으로 전용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생산을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용을 중단하고, 생산 그 자체를 목표로 실제 시하고 삶(인생)을 그 목적에 다 종속시키고 말았다. 인간이 경제적 목적의 수단이 되고 생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분업의 증대와 작업의 기계화의 증대로 인간은 기계의 부속품으로 변신되고, 획일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자기 법칙에 따라 사정없이 회전하는 현대 대중사회의 거대한 메카니즘의 조직 속에 매몰된 현대인은 화이트가 말한 대로 회색 프란넬 양복을 입은 조직인으로 변신해 버렸다.

인간은 자신을 상품 또는 투자로서 의식하게 되고 그의 목적은 성공 즉 시장에서 자신을 가능한 한 최대의 이윤으로 판매하는데 두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사랑과 이성과 예술적인 능력의 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잘 관리하느냐 하는 판매성에 달려있게 된 것이다. 인간은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관료 조직면에서 원자화되고 자신의 생산물을 숭배하게 된 것이다. 자아를 상실하고 다수에 순종하며 찬동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인은 사랑할 수도 없고 이성(理性)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인생과 죽음마저 기성품이 되고 만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피살되고 만 것이다.

인간은 죽었다. 이리하여 인간은 행복을 새롭고 더 좋은 상품의 소비와 그리고 섹스와 음악과 영화 속에서의 자아 망각과 동일시하게 되었고 섹스와 음주와 영화와 백일몽 속으로 또다시 도피하고자 하게 된 것이다. 고도로 기계화된 물질문명의 충동에 못 이겨 인간이 자신의 고독과 불안과 허무감을 섹스와 원시적 감각속에 해소시키고자 몸부림 치게 된 것이다.

D·H 로렌스가 현대 생활로부터 탈출하는 거의 하나밖에 없는 돌파구는 무의식, 에로 유도하는 성행위에 있다고 주장하게끔 된 것도 상기와 같은 상황의 결과에서 온 것인 줄로 안다. 암흑의 신-성-무의식-현대생활로 부터의 망각, 위대한 목적을 가진 창조적 활동에의 협력이란 그의 성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을 밝히면서 참된 미는 성적 매력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4. 성의 소외

현대 사회를 자기 소외의 시대라고 특징 지우는 필연성 때문에 성의 소외까지도 초래하고 있는 사실에서 성은 현대인에게 몹시 왜곡된 채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인은 대중 사회적 여건 아래서 획일화 수동화 고립화 되어있으며 거대한 경제력의 흐름 앞에 내던져진 무력하고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사업이란 직접적인 자기일이 아니고 봉급을 위한 수단이다. 직업은 세분화 되고 작업 절차는 공식화되어있다. 사람은 기업업을 잃고 생산에 집중하지 못하는 정열을 소비에 쏟고 있다. 유한계급이었던 과거의 귀족층이 성을 정열의 발산처로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의 영역에서는 성을 소비품으로 생각하는 퇴폐적이고 비생산 사고가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 아닌것을 깨닫는 공허감이 크면 클수록 자기가 자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은 마지막 남은 보루인 성에 집착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성은 신비의 베일을 완전히 벗겨 버리지는 않았다. 그는 또한 말초적인 것이기는 하나 아직도 개인 경쟁이 가능한 곳이다. 자

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남이 이루지 못하는 경험 속에서 찾아보려 한다. 그리하여 생산에 흥미를 잃은 일상 생활의 혹은 사고의 공동화제로 성이 등장한다. 사람들이 생산에서 소외되면 그럴수록 공통적인 것은 성밖에 남지 않는다. 여기에 역설적인 이율배반 현상이 일어난다. 성이 공동화제로 되면 될수록 사람은 언제나 그러한 기회를 놓치고 싶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사랑의 경험이 동질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남녀관계란 것은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내적 지향형처럼 선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고독을 잇는 자기능력 자기 매력의 테스트 케이스로 전환된다. 즉 인생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다. 그리고 테스트 서열에서 우선적인 순위를 차지함으로써 그것으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삼는 것이다. 성을 찾으면서도 어떠한 원리나 구극적 동기를 자아 속에 지니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남에게 보이고 싶은 때문인 것이다. 이것은 부부생활에서도 반영된다.

여성은 이제 획득을 위한 대상물이 아니라, 동료이고 교우인 것이다. 기계 문명의 혜택으로 수 많은 여성이 많은 가정적 부담에서 해방되어 있다. 이것은 여성에게도 로맨스를 갈구케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타자 지향형 사회에서는 내적 지향형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이 적극성을 띤다. 남편은 아내가 만족지 않을 것을 두려워 한다. 즉 타자에 의한 평가를 염려하는 것이다. 탈선이 내적 지향형 사회에서는 하나의 농이나 장난이었던 것이 타자 지향형 사회에서는 경험과 기술을 배우기 위한 절차로 간주되는 죄악감이 감퇴하는 것이다. 여기에 매스미디어와 성전(性典)이 한 몫 든다. 영화나 연극의 배우는 가상의 연인이고 성의 기술은 과학이 제공한다.

그리하여 사랑성 생식이 제각기 역할의 장소를 달리하게 되고 인간은 성의 소외까지 맛보아야만 하게 된 것이다.

5. 한국사회의 성문제

이와같은 현대 문명의 병적인 요인이 정치적 자유의 결여에 있는 것 이라고 19세기 초기의 사람들은 생각 했으나 사회주의 자들이나 맑스 주의자들은 경제적 요소들을 특히 중요하게 강조했다. 그들은 인간의 소외 현상이 착취와 사용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의 역할에서 기인 한 것이라고 믿었다.

톨스토이나 불크하르트 같은 사상가들은 서구문명의 퇴폐의 원인이 정신적 도덕적 쇠퇴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고민은 본능적 충동의 지나친 억제와 그에서 결과된 신경병적인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동일한 현상을 다른 측면에서

본데 불과한 것이며 원인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및 심리적인 제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건전한 사회를 수립하고 정신적 철학적 지향의 분야에서의 변동과 성격 구조와 문학적 활동의 분야에서의 변동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에티히프롬은 그의 「Sane Society」에서 말하고 있다.

정신적 혁신은 사회질서의 변혁이 수반되지 않는 한 비 효과적인 것이요 사회주의자들이 나 맑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사회경제적인 변혁도 인간의 내적 변혁을 무시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경제적 변혁이 인간이 회귀하고 있는 건전한 사회를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해 오고 분석한 것은 서구사회에서의 문제이었으며 후진국가로서의 한국적인 현실에 그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는 명 확히 단 언할 수가 없다. 그러나 형식과 구조의 차원에서부터 내면적 정신적 차원에까지 서구 사회의 풍 와 문명에 침식되고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점에 있어서 그와 같은 병적이고 퇴폐 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현실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다.

모방에 수반된 소비적 전시 효과의 유혹과 자극은 지식 수준이 낮은 국민들의 정열과 빈곤 에 대한 불만을 성과 외래상품의 소비면에서 해소시키려는 경향을 띠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리 하여 소비성향은 상승하고 퇴폐적이요 소비적인 문화가 농촌과 도시의 생활 수준의 차가 격심 한 이중 구조적인 한국사회를 풍부하게 한 것이다. 프로이트도 성욕의 발산을 중요시하고 그의 억압을 불 필요한 것 이라고 본 것은 아니다.

문명이란 것은 성의 승화를 요구했고 이런 승화로 말미암아 문화는 발달해 온 것이다. 문 화인이 원시인에 비해서 문화가 발달한 이유의 하나는 후자가 충동적임에 대하여, 전자는 욕망의 충족을 장래로 연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젊은 세대들마저 서구의 퇴폐적인 자 극의 세례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그러한 곳으로 기울어져 그곳에서 정열의 발산구를 찾으려 하 고 자신들의 문제의식이나 방향감각을 마비당한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 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의 현 단계는 성숙단계를 넘어선 소비주권의 지배를 받는 고도 대중 소 비의 시대가 아니다. 전통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조약을 위하여 과도적 단계에서 진통하고 있는 줄로 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인 제현실을 개선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룩하 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의 구조적 개조와 정신적 및 성격적 구조의 변혁을 동시에 서 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의식과 관심과 정력을 소비적이요, 퇴폐적인 섹스의 면에서, 생 산적이고 건설적인 부문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정신면에서의 새로운 가치관의, 수립과 건전

한 성윤리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가치관은 생산적인 것과 연관성을 가져야만 한다. 성윤리의 배경은 가족관계이며 가 족윤리의 지배를 받는다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건전한 사회관계가 사회윤리를 길러 낼 것 이 요, 사회윤리는 가족윤리에 반영되어 건전한. 성관계를 요구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처하여 있는 한국 사회의 건전한 성 윤리 확립을 위해서는 건전한 사회관계가 요청될 뿐이다

성의 기독교적 이해

허경삼
〈서울신학대학 교수〉



1. 성의 혁명

근대인의 불신앙은 도덕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특 히 제 1차 대전을 계기로 하여 세계는 새 도덕 혁명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도덕 표준들이 무자비하게 근대인의 비판과 공격의 화살을 받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성의 혁명은 가장 과격하였다. 많은 현대인이 이미 성도덕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성을 단순한 자연적 현상(먹고 마 시는 것과 같이)으로 여겨 다만 건강과 심미(密美)의 견지에서만 문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소위 빅토리아 도덕은 깨어져 나간지 오래 되었다. 이러한 현대인의 도덕 혁명은 전통적 기독교와 성 도덕에 근본적 동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즉 “교회와 성서는 이미 이 현대인의 문제에 대하여 그 적응성을 상실하고만 것인가” 하는 회 의가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이러한 새 도덕의 출현에는 교회 자체의 비 적응 성 보다는 오히려 현대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절대적인 작용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대인 의 과학(의학과 심리학)과 철학(자연주의적 사상)과 사회 현실(공장, 사무실, 대학, 클럽, 기차수 이성의 혁명에 직접적인 가장 큰 원인들이 되었다. 물론,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독립이 끼친 영 향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새도덕에도 불구하고 성의 문제들이 참된 해결을 본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현대인의 성 이해에도 근본적인 모순과 오류가 있다.

즉, 그는 보다 중요한 객관적 진리의 문제에는 대면하지 못하였다. 칼발트가 지적하여 말한 것처럼, 그는 성을 생리적인 성생활의 좁은 시야에 한정하여 보았을 뿐, 하나님의 계명은 성 생활 자체에 보다는 오히려 남자와 여자라는 그 인격으로서의 전체에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전 실존의 넓이에서만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의 문제는 그 근본 성격에 있어서 생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 보다는 오히려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의 바른 의미를 위하여서는 종교적 의미에서 의 토론이 가장 타당하다. 신교(新敎)에서는 이성의 전체 윤리를 전혀 성서에 근거시키고 있다.

2. 성에 대한 성서적 교훈

(1) 창세기에 있어서의 성의 기원

특별히, 창세기의 처음 몇장은 성문제에 대하여 많은 빛을 비추어 준다. 자세히 연구할수록 이 장들은 모두 성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한 질서이며 그리고 그 성기와 성행위가 전혀 순결함을 계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성의 기원을 그린 성서의 고전적 서술이 있다.

하나님 이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27~31).

이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의 어느부분도 불결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인간 능력도 불경건하거나 사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와 처음 조상들이 소유했던 성기와 그 성적 결합을 통한 생산의 능력은 그 자체들이 하나님 앞에 심히 좋고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였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인간들인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이야기이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 제2장에서 더욱 회화적이면서 상징적인 언어들로써 서술되고 있다.

즉, 하나님은 아담을 마치 토기장이 처럼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서는 그의 고독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시었다는 것이다(창 1 :18~23)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쉽지 않다. 교회는 다만 이 회화적인 이야기들이 최초의 인간과 그 영혼의 특수한 한 창조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해석 할 뿐이다. 그 창조의 과정과 방법은 별문제로 해석이 구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자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 즉, 창세기 기자는 하와의 창조 목적이 아담을 위한 우애 또는 배우에 있었음을 밝히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 : 18)고 전제하였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아담 앞에 시위케 하여 이름을 짓게 한 후, 짝없는 그를 깊이 잠들게 하여 그의 곁에서부터 처음 여인을 창조하신 것이다. 카톨릭 주석가, 페르메쉬노(Père Mëshineau)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물의 자연적 생식 법칙과 결혼 남녀의 도덕률을 교훈하신 것으로 해석 하였다(Divino Afflante).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도 하와는 인간 생산을 위한 배우자로서 창조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와 창조의 이야기는 우애와 생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성적 차별(남녀와)을 지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설화는 그 마지막을 아래와 같은 말로써 맺고 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창2 : 24~25)

여기에, 결혼의 성교를 통한 양성의 결합에 있다. 이 육체적 결합은 또한 한 인간에 내재 하는 남녀의 본래의 통일성의 자연적 결과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특별히,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는 마지막 말은 남녀의 성기와 그 성 능력이 전혀 창조주의 은혜의 사물로서 선할 뿐만 아니라, 그 성행위까지도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교훈하는 가장 의미깊은 성의 찬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에대한 부끄러운 감정(Sence of Shame)은 타락 후의 현상으로서 해석함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안다.

(2) 다른 성서들에 있어서의 성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서의 성은 계속하여서 다른 성서들에서도 토론되었다. 신명기에 보면 새 신랑은 군복무에서 1년간 제외되어 그동안을 신부와 같이 있어 그를 즐겁게 해야한다는 것이다(2 : 4~5) 즉, 새 성의 우애적 성격을 여실히 입증하는 말이다. 성서에는, 성의 낭만적 면을 찬미하여 인간애의 경건을 말한 이야기도 허다하다. 그 대표적인 예는 역시 야곱과 라헬의 연애다. 그것을 성서기자는 이같이 그렸다.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헬이 곱고 아리따우므로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여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 년 같이 여겼더라(창 29 : 11,17~20) 실로,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불같이 7년에 7년을 더하는

이역의 머슴살이도 수일같이 즐거웠다. 사랑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성서는 이 연애의미를 이 같이 경건히 증거한다. 이 사랑은 보아스와 모압 여인 롯과의 연애에서 더욱 목 가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소개되어 있다. 이 사랑은 그 씨인 아들 오벳을 인하여 더욱 귀하였다. 성서는 이 사랑의 열매를 찬미하여 이스라엘의 기업이요,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 양자라 하였다.

진실로 다윗의 왕통이 이 경건한 연애를 통하여 주어졌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의 예찬 중에서도 그 절정은 아가서에 나타나는 남녀의 순결한 연애감정이라 할 것이다.

아가서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서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을 은유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문자 그대로 남녀간의 성과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질서임을 교훈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것이다.

즉 한 성이 다른 한 성에 대하여 가지는 애정과 그 이성간에, 대화되는 자연적 표현의 정욕이 하등 불경건하고 불결한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의 기자는 신학자들까지도 비난하는 여성의 여러 부분에 대하여 대담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 시작하는 말을 보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아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사랑하는자는 계속하여 부르짖는다.

“네 두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발같고, 입술은 백합같고 몰약의 즙이 똑똑 떨어진다.

그러나 전편을 통하여 불 경건한 표현이 없다. 극히 감미로운 사랑의 잡소리이면서 시종 사랑의 경건으로 넘쳐 흐른다. 옛 유대인들은 적어도 30세 후에야 이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한이 결코 성서의 품위를 낮추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3) 신약의 교훈

신약에서 우리는 여전히 경건하고 솔직한 성에 대한 토론을 읽게된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산아의 고통과 기쁨을 이처럼 아름답고 소박한 말씀으로써 표현하는 사실은 극히 감동적이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 하느니라”(요17:21)

이 해산하는 여인을 자기의 사도적 해산에 비유하여 가르친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의미깊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 하는 수고를 하노라”(갈4:19)

이 모든 말씀들로부터 우리는 모성의 사실과 그 과정에 대하여 아무런 불결하거나 불쾌한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오히려 주님은 모든 여러 여인에게 미치는 이 모성의 축복됨을 가르치셨다.

다음으로, 우리는 양성의 신적 기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게 된다. 즉, 한 몸의 신비를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시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 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 할 지니라(마19: 4-9)

이 창세기 말씀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남편들도 자기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엡5 : 28)는 다른 말로써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신약의 성교훈이 있다. 즉 신약의 주님과 특히 사도 바울은 모두 성에 대한 그들의 사상을 대체로 종말론적 견지에서 발전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결혼과 성생활은 인간계에 있어서 그 최후적 요소가 될 수 없고, 다만 주님의 재임 까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심지어 천국을 위하여 자기와 같이 고자가 될 것을 권유까지 하였다(고전 7:7)

그러나 바울은 곧 절제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서는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부언을 잊지 않았다(고전 7: 9)

성에 대한 이 간단한 성서적 열람을 통하여 우리는 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 계획의 하나이며, 동시에 그 성기들이 일체의 다른 모든 부분과 똑같이 창조의 선한 사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 그러므로 이 성기와 그 능력을 적절하게 선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과 그 적절한 적용은 결코 불결하고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시초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아래 있는 창조와 선한 질서인 것이다.

3. 성에 대한개혁자의 교훈

개혁자들은 성을 죄악된 것으로서 보지 않았다. 어거스틴이 가르친 것처럼, 원죄는 죄악된 정욕속에 뿌리박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신이나 동정이 결코 결혼보다 더 공로가 크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동정은 다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명에 따라서만 정당화되는 것이다. 루터는 결혼을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시는 상태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진적 동정의 우월성과 그 공로적 성격을 극복하는 것이다.

루터와 비교할 때에, 칼빈은 성윤리에 있어서 보다 더 일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도 역시 성을 자연스럽고 무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특별히 결혼생활에 있어서 강한 자기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역설하였다. 부도덕과 부정한 언행은 선택받은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았다. 그리고 겸손과 극기가 결혼의 성행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아내의 권리가 높아졌으며, 자연히 자기 남편의 본능적인 정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4. 성의 정신화

끝으로, 여기에 현대 교회의 성 이해를 생각하기로 한다. 이것은 확고하게 성서적 견해에 기초하여, 동시에 현대인의 지식을 깊이 고려한 것이다.

즉 현대의 가장 진지한 성학자의 한 사람인 윌트 피퍼의 요약을 현대 교회의 이해로서 소개한다.

- (1) 성교에 있어서, 각각 다른 성을 가진 두 사람은 불가분리의 통일 속에 결합한다.
- (2) 성은 그 자체로서 의미깊은 것이며, 특별한 종류와 인격적 관계를 조성한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가령 번식의 가능성 같은 것을 가지고서 변명으로 구하지는 않는다.
- (3) 성생활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육체적 존재 깊이에 숨어있는 내적 비밀을 발견한다.
- (4) 신앙을 기초로하는 애정에서, 성은 그 완성과 완전에 도달한다.
- (5) 성생활은 필요하고 선한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의 인간 생활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Christian Interpretation of S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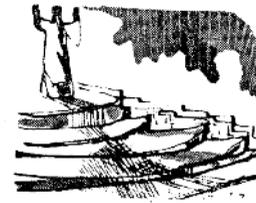
오늘 새 도덕의 대두와 함께 여러가지 다른 성의 철학이 유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성서에 흐르는 성의 이해야말로 가장 원만하고 현실적이다.

성의 관계는 단순히 하반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즉 이 모든 것 배후에 숨어있는 종교적 의미이다. 성의 문제는 그 성격에서부터 종교적이다. 그러므로 성관계는 영혼과 육체의

전체적인 관계에서 이뤄져야 하며 높은 종교성까지 정신화해야만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질서로서의 성의 신비가 있다.

사도 바울의 종말 사상

김두식



一. 서론

사도 바울의 종말사상은 그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종말관은 단순히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관한 의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울종교의 전분야와 불가분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실로 바울의 종말론적 개념은 그의 역사관이요, 그의 종교의 기본적 구조가 된다. 「슈바이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의 최초의 서한문에서 최후의 것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사상은 언제나 고르게 불완전한 재임과 심판,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으로서 지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의 서한문과 신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종말사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바울」의 종말관을 논하기 위하여 그 사상적 배경이 되는 구약성경의 종말관과 후기 유대교의 종말관을 개시(概視)하기로 하겠다. 구약성서에는 미래의 생에 관한 문제는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다. 예언자 종교에 있어서도 개인적 부활 또는 영생의 문제 등은 그리 충분히 취급되지 않았다.

만일 히브리종교에 어떤 종말론적 개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세 또는 개인적 미래의 생이라는 의미에서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내적 종교에도 후기 유대교와 신약의 종말관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친 요소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이사야 13장 9절)이다. 「여호와의 날」은 예언서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그날」이라는 말로서 표현되어 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는 날 곧 여호와의 파루시아(Parousia)의 날이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히브리민족의 역사 곧 족장시대의 전통 특히 「애굽」에서 해방된 민족적

인 기억에 근거하는 독특한 「히브리」신앙에 뿌리박고 있다. 「히브리」민족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과거에 위대한 역사를 행하였다고 믿고 있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앞날에 여호와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리라고 굳게 믿었다. 여호와와 「파루시아」에 대한 신앙과 소망은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와 과거의 내임과 그 후일 특히 출「애굽」의 기억에 기원하고 있다. 이같이 구약종교의 종말관은 여호와와 「파루시아」의 이중적 성격,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과거에 오셨으므로 「그날」에 다시 오시리라는 믿음 위에 토대하고 있다. 이 구약종교의 종말관의 이중적 성격은 「바울」의 종말관 위에 반영되어 있다. 구약종교에 있어서의 「여호와와 날」은 여호와와 심판의 날이다. 예언자 시대 이전에는 여호와와 심판이 「이스라엘」 원수에 대한 심판으로서 나타났다. 장래 「이스라엘」의 물질적 번영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극복하심으로써 이뤄진다고 기대하였다. 이같이 전 예언자시대에는 적극적인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종말관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대의 미래에 대한 대망은 오로지 민족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예언자 시대에 들면서 물질적 그리고 만족적 종말관은 점차로 극복되어 갔다. 이는 「예언자들의 심오한 유일신적 사상에 기인했다」여호와와 날」에 그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원수 뿐 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에도 적용되어야만 했다. 그날에 위대만 율법을 주신 자로서 여호와께서 그의 정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만민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와 날」은 다시 「이스라엘」의 수난과 그 부흥에 관련되어 있다. 「여호와와 날」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심각한 고난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그들의 죄과에 대한 여호와와 징벌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서 여호와와 종으로서 대속적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고난의 날은 멀지않아 「여호와 의」날에 극복되고 만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열강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의 외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의 흠어진 양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모아드릴 것이다. 「그날」에 이 땅은 새로와질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은 현재의 질서에서는 향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일신해야만 했다. 이같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수난의 때와 그 회복의 때를 구별하기를 특히 강조한다. 이 때의 개념은 후기 유대교와 「바울」의 종말관에 있어서 두 세대의 사상으로 발전해 간다.

「바벨론」포로의 기간에 「히브리」종교는 그 사상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다. 망명 이전에는 전체로서 「이스라엘」이 종교적 단위가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족적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성전이 적화로서 회진되었을 때 개인은 직접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개인이 한 종교적 단위로서 서지 않을 수 없었다. 개인이 한 종교적 단위로서 단순히 「이스라엘」 전체 속에 해소되어 버릴 수 없는 한 각 개인이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 규범에 대해서 궁극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후에 개인이 각각 받는 상벌은 현세에서 바른 행위를 위한 동기가 될 것이다. 이같이 후기 묵시 문학도들은 개인의 불감에 대한 신앙과 의인의 영이 부활체로 옮겨간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二. 사도 「바울」의 종말관 검토

이제 「바울」의 종말관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지금까지 「바울」의 종말론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석되어 오는 중에서 세가지 대표적 견해를 검토하기로 하자. 즉, 「슈바이처」 미래파적 종말관, C·H·Dodd의 실현된 종말관, 그리고 「볼트만」의 비신화론적 견지에서 본 종말관 등의 삼자이다.

1. 「슈바이처」의 견해

「슈바이처」에 의하면 「바울」의 종말관은 그 윤곽과 세상 끝날에 일어날 사정에 관하여 유대 묵시문학 「바룩」서와 「에스라」서의 종말관과 비슷하다고 한다. 대체로 「바룩」과 「에스라」는 구약 예언자 종교에 나타나는 메시아적 왕국과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인자의 영원한 왕국을 결합시켰다.

메시아 왕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때에 산자를 심판하심으로 시작된다. 이 메시아 왕국은 자연적, 말하자면 지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 왕국에 참여하는 자는 그때에 산자 중에서 택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들은 자연인으로서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받는다.

메시아 왕국의 끝날에 메시아는 하늘로 돌아가고 죽은 자의 전반적 부활이 일어난다. 지존자가 심판의 자리에 나타나시고 지상에 생을 가졌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영복을 누리게 하며, 하나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하신다. 이같이 「바룩」과 「에스라」에 의하면 두 축복, 말하자면 메시아 왕국에서 받게 되는 과도적 축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받는 영원한 축복이 기대되었다. 이같이 「바울」은 대체로 이상과 같은 「바룩」과 「에스라」 종말관의 윤곽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은 실제적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바울」에게 있어서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었다. 만일 「바룩」과 「에스라」와 종말관을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바룩」과 「에스라」의 종말관에서는 메시아 왕국에는 그때 살아

남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임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만이 부활하여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같이 「바울」은 이중적 부활관, 곧 메시아의 재임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부활하며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끝날에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만민이 부활한다는 이중적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다. 「슈바이처」에 의하면 이 이중적 부활관의 창시자는 곧 「바울」이라고 했다. 「바울」 전에 주장된 종말관은 모두 단 한번의 부활만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이중적 부활관은 「바울」에게 또 하나의 어려움을 가져 온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임시에 부활하여 메시아 왕국에 참여한다면 이 부활체를 가진 자들과 재 임시의 생존자 즉, 자연인과 메시아 왕국에서 동거하게 된다.

부활의 몸을 가진 자와 자연적 육체를 가진 자가 동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임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존하는자는 부활체로 옮겨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울」 당시의 일반적 종말사에 의하면 「바울」의 기타 말하자면 죽음의 관문을 지나지 않고 자연인이 부활체를 가지게 된다는지 또는 메시아 왕국의 끝날에 사망의 상김을 당하기 전에 죽는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계 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슈바이처」에 의하면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적 생으로서 해결하려고 했다.

이것을 「슈바이처」는 「바울」의 종말론적, 신비적 직관과 자연적인 결과라고 했다. 「슈바이처」에 의하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종말론적 대망은 모든 「바울」의 사상과 교훈의 사상과 교훈의 기초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의 불완한 재임에 대한 대망, 그리고 메시아적 영광은 「바울」의 전서 한문에 있어서 이같은 미래파적 「바울」종말관을 예증하기 위해서 각 「바울」 서한문에서 종말론적 귀절들을 인용하고 있다.

비교적 초기에 거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할 것도 없고 비교적 후기에 거하는 빌립보서, 로마서에도 종말론적 대망의 압도적 표현이 거듭 발견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슈바이처」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만일 「바울」의 사상에 어떠한 발전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때가 경과함에 따라 「바울」자신의 종말론적 대망의 긴장이 풀어지는 데서 기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같이 「슈바이처」는 철저하게 미래파적인 종말관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종말론적 대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대망은 아니라고 했다. 이 대망은 객관적 사실 곧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미래는 이미 현재로 말미암아 침노를 당했으며 종말의 때는

이미 그 첫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의 이 세상의 기간은 변천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가 교차하는 시대라고 했다.

2. C. H Dodd의 견해

C. H Dodd는 실현된 종말관을 주장했다. Dodd는 「바울」의, 종말론의 기본적 개념은 「히브리」 예언서와 유대적 묵시문학에서 발전된 초자연적 메시아적 공동체가 현실되었다고 하는 확신에 있다고 했다.

Dodd에 의하면 「바울」은 특히 종말론적 공동체가 곧 참이스라엘 또는 남은 자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즉 교회에서 실현되었다고 확신하였다. 「바울」은 성신의 후사로 이루어지는 교회 내의 새생명 또는, 생명공동체를 발견했다. 「바울」은 이 새 생명 그리고 성신 안에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사점을 새세대의 면동이 트는 징조로서 그리고 메시아 대망의 실현으로서 이해했다.

Dodd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교회 자체의 「케리그마」(Kerygma) 속에 잠재 했으나 이를 더 선명하게 반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참으로 반성하고 이를 교리화한 것이 「바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종말론적 개념을 주장함에 있어서 「바울」은 실제 문제로 한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예언서와 묵시문학에 의하면 영원한 메시아 왕국은 초월적인 것이며 거기에 참여하는 자는 불멸과 생명의 영광으로 표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바울」 그해은 현실에서 메시아의 재임과, 영원한 왕국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대로 존속하고 신의 백성들은 자연적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을 보았다.

Dodd는 「바울」 메시아와 메시아의 공동체 즉, 교회와의, 신비적 결합을 통해서 난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Dodd는 「바울」에 있어서 실제적 어려움이 「바울」의 종말관을 그의 신비주의로 이끌어 갔다고 주장했다. 한걸음 더 나가서 Dodd는 절박한 종말론적 대망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쉽게 잊어지고 또 등한시 받기 쉬운 「바울」의 논리적 교훈도 실현된 종말관의 가정으로만 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것이 Dodd의 철저한 실현된 종말관이다. 이 견해에 입각해서 Dodd는 미래파적 종말관은 「바울」의 초기적 서한문에 속하며 그리고 더 초기적 종말관의 형식이라고 했다. 이 초기적 종말론이 후기적 형식 곧 실현된 종말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하여 Dodd의 견해에 의하면 앞날에 와야 할 영광의 소망은 다만 사상적 배경으로 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다.

3. 「볼트만」의 견해

「볼트만」은 소위 종말론의 비 신화화를 주장하였다. 「슈바이처」의 해석을 먼저 환영한다. 왜냐하면 「볼트만」은 「슈바이처」의 견해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적으로 타자적 성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하여 「볼트만」은 「바울」에 있어서 그리스도 재임에 대한 교리를 시인했다. 물론 그는 이 교리를 신화로 밖에는 보지 않았다.

「볼트만」에 의하면 「바울」의 종말에 관한 묘사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신화론적인 것이었다. 말하자면 이같은 묘사는 「바울」 당시의 신화론적 세계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볼트만」은 대담하게 주장하기를 신화론적 방법에 의하면 종말론의 묘사는 현대인의 감각에 맞지 않은 이상 우리들은 근본적 성서 메시지를 이해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한 성서 묘사를 비신화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서 「볼트만」은 이같은 비 신화화 운동이 이미 신약성서 자체 속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볼트만」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임에 대한 그의 대망을 버리지 않고 새 세대의 날이 이미 밝아졌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같이 「볼트만」은 「바울」에게서 종말관의 발견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후기의 종말관은 초기의 종말관을 비 신화화한 것이라고 했다. 「볼트만」은 신약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비 신화화한 종말관은 요한복음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이 하여 「볼트만」은 종말론 표현에 있어서 모든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실존주의 철학의 의미에서 다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볼트만」에 의하면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미래의 행동에 대해서 결단하도록 강요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인간관 안에서 「볼트만」은 종말론의 실질적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이것이 「볼트만」이 주장하는 종말론의 실존주의적 해석이다.

三. 「바울」 서한문에 의한 그의 종말사상 검토

이상에서 「바울」의 종말관에 대한 세 가지의 대표적 해석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바울」의 종말관은 이상의 3자 중 어느 하나로서 완전히 해석될 수는 없다. 특히 「볼트만」 그의 비 신화론적 해석은 성서적 해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볼트만」의 해석

이 심리학적 그리고 속죄적 관점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암시가 없는 바는 아니다. 특히 그것은 신약성서를 현대인의 감각에 맞도록 하는데 공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은 언제나 성서의 교훈을 철학적 사상으로 바꿔버릴 위험이 있다.

「슈바이처」의 미래파적 종말관이나 Dodd의 실현된 종말관은 둘 다 「바울」의 서한문에서 발견된다. 만일에 그 어느 하나로서만 전적으로 「바울」의 종말관을 설명하려고 하면 「바울」의 종말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종말론적 대망은 「슈바이처」가 의미하는 듯한 하나의 묵시 문학적 비전만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Dodd가 암시하는 듯한 영원한 현실의 상징적 표현도 아니다. 「바울」의 종말론은 오히려 사실에 대한 신앙 즉, 그리스도가 오시었다고 하는 신앙과 그리고 소망에 대한 신앙 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는 신앙사이에서 일어나는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이같은 종말관의 성격은 구약의 종말 관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 구약 종말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여호와와 미래의 「퍼루시아」가 언제나 여호와와 과거의 「퍼루시아」에 토대하고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첫번째 「퍼루시아」가 그의 두번째의 「퍼루시아」를 보증하며 한편 두번째의 「퍼루시아」가 첫번째의 「퍼루시아」를 완성하게 된다.

이같이 「바울」에게 있어서 구속은 과거의 사건 즉, 그리스도의 생과 죽음과 부활에 토대한다. 그러나 구속의 완성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다리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바울」 서한문에 의해서 그의 종말사상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의 종말론적 대망은 그의 종교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과거의 「퍼루시아」 즉, 그리스도의 생과 죽음과 부활 위에 토대하고 있다. 이 점이 「바울」과 종말관을 구약과 묵시 문학과 그것으로부터 구별하는 점이 된다.

구약과 묵시 문학에서는 「그날」은 더 정확하게 미래적 의미에서 이해된다. 물론 그들의 미래적 대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과거에 행하신 그의 역사 위에 토대하고 있지만 「그날」은 신약적 종말관과 같은 의미에서 현재와 관련해서 있지 않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이미 먼동이 뜨기 시작했다. 현재는 단순히 「그날」과 대립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현재는 「그날」와 세력 밑에 들게 되었다. 과거의 사건 즉, 그리스도의 생과 죽음과 부활은 이미 「그날」을 맞아 들었다. 기다리던 새세대는 현재로 말미암아 침노를 당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Dodd와 실현된 종말관을 긍정 할 수 있다. 믿는자는 현재의 질서에 있어서도 정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옛 창조에서 벗어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거한 자이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하나님께서도 말 하시

고 제하여 주셨다. 이제는 죽음도 이것의 삼킨 바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들을 어 느누구도 송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다.

이같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이미 구원의 때요 은혜의 시대이다. 여기에 우리는 분명히 소위 Dodd가 말하는 실현된 종말관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논리적으로 일관하기 위하여 현실을 무시하는 신학도는 아니다. 그의 고난에 가득찬 선교생활에서 「바울」은 부단히 그를 엄습하는 현재의 어둠과 그 세력을 경험했다. 그는 교회 내에서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세력을 발견했다.

그리고 「바울」은 가끔 자기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다. 이같이 「바울」은 분명히 현 세계에서 사탄적 세력과 그 활동을 시인했다.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의 한 가운데서 소위 실현된 종말관 만을 「바울」이 고수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바울」 서한의 도처에서 미래파 종말관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은 거듭 절박한 주님의 재임을 경고했다. 그리스도의 재임의 대망은 그의 최후기의 서한문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교훈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되었다. 로마서에 있어서까지 심판의 날은 미래에 거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의 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면 그의 풍부한 미래파적 용어는 그의 순수한 종말론적 전망을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있다. 이같이 「바울」은 분명히 이중적 종말관 말하자면 미래파적 그리고 실현된 양 종말관을 다 가지고 있다. 이 이중적 종말관은 「바울」의 특색있는 역사관으로 그를 인도해간다.

현 세계에서 「바울」은 명료하게 두 세대를 파악하고 있다. 즉 옛 세대와 새 세대를 동시에 경험 한다. 「바울」에 의하면 오는 세대는 이미 오순절 날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이 세계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부단히 두세력을 경험한다. 말하자면 성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다. 이 두 세력의 갈등의 한 가운데서 「바울」은 불원 새 세대가 완전히 실현되고 옛 세대가 사라질 것을 확신했다.

四. 결론

「바울」은 행28장 31을 제외하고는 오는 세대에 대하여 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닥쳐오는 세대의 임재는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개인화되고 말았다. 오는 세대는 이미 날이 밝았다. 그러나 옛 세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 세대가 온 것을 알 수 있는가? 「바울」은 성신과 역사를 통해서 새 세대의 먼동이 이미 뜨기 시작한 표적을 보았다. 구약성서 에서는 주의 재임이 「여호와의 날」의 중대한 표적이었다.

첫째로 자기자신의 경험과 그의 복음전파의 생애를 통해서 성신의 역사를 경험했다.

「바울」은 만일 자기가 어떤 가치있는 일을 행했다면 그것은 자기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라고 믿었다.

둘째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신을 경험했다. 교회 안에서 체험되는 새 생명 말하자면 정신적 일치와 물질적 유무상통 같은 것은 새세대에 있어서의 성신역사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이 같이하여 성신 안에 있는 개인은 하나의 종말론적 존재이며 그리고 성신이 역사하지는 교회는 한 종말론적 공동체였다. 그러나 개인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임을 열망하며 그로 말미암아 「이날」이 지나가고 「저날」이 완성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끝으로 「바울」의 종말사상에는 그의 개인적 체험이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바울은 초대교회의 종말론에 관한 「케리그마」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그리고 그 당시의 일반적 종말관 말하자면 「바울」과 「에스라」적인 묵시 문학적 종말관의 윤곽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바울」의 종말사상에 있어서 그의 개인적 체험이 그와 종말론적 개념의 근저에 깊이 숨어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만일에 실현된 종말관이 「바울」의 「케리그마」와 교훈 속에 반영되어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를 권면하시고 힘 주시고 계신다는 그의 불타는 확신의 결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만일 미래파적 종말관이 그의 서한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나타나실 것과 그리고 인간과 세계위에 하나님의 지배가 성취하실 것을 바라는 그의 열망에 토대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의 미래파적 종말론은 또한 「Paul」의 도덕적 진실과 열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즉 「바울」이 악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진멸되기를 고대하고 육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기를 갈망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 여기 소개하는 글의 내용은 국방부 군 특명검열단 연구원들이 제 1.....
- 단계 연구(자주국방을 위한 PPBS: 공군제 128호, 73년 2호 게재)에 이.....
- 어 72년초부터 73년 5월까지 연구한 제2단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소.....
- 개한 것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PPBS

- 국방부 군특명검열단 PPBS 연구위원회 제공 -

제 6 장 비용정보

제 1 절 비용정보의 개념

1. 비용정보제도의 의의

비용이란 급부(給付)를 위하여 소비하는 재화의 가치를 뜻하며, 자원을 소모 했거나 사용한 것에 대한 척도의 뜻으로서도 사용한다. 회계학상으로 보는 비용은 상이한 기간과 조직체간의 형식적 비교의 가능성을 가지게 하거나 감사(監査)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비용은 다소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장래를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고려의 대상이 되는 여러개의 대안(代案)을 효과와 비용면에서 상호 대조 검토 하여 하나의 최적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고려요소로서 공헌하는 정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대안에 대한 비용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비교 함으로써 선택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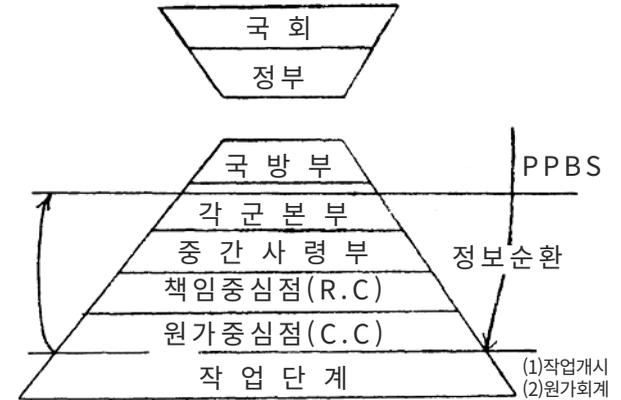
따라서 상증구조에서 비용은 비용 그 자체의 뜻과 지니는 기능보다는 정보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하부조직에서는 원가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된다. 정보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 분류, 기록, 집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하부조직에서 제공된 역사적 자료와 그리고 인원, 노력, 양식, 지시, 절차, 통신수단 등의 복합체를 토대로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미래와 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치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정보는 수동식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복잡하거나 양이 많을 때는 이를 신속 정확히

자주 국방을 위한 PPBS

처리하기 위하여 자동자료 처리화하거나 수동식과 자동식을 혼용할 수도 있다.

비용 정보제도의 개념은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 예산제도가 필요로 하는 계획 분석과 관리통제에 유익한 비용정보를 제공케 하는 수단으로써 상하 관계를 유기적으로 맺어 주는 역할을 한다.



2. 비용 분류가

가. 비용의 분류

계획예산제도의 핵심이 되는 국방 5개년계획에서 그 기본 단위인 계획요소는 부대, 인력 및 비용의 세가지 측면에서 계획 목적상 파악하게 된다.

무기체계 또는 부대 등을 대표하는 계획요소의 전체 수명 기간을 통한 주요국면에 해당하는 비용 즉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총 비용을 시간적 관점에서 구분한 것을 연구발전비, 투자비 그리고 운영유지비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항공모함의 전체 수명기간 20년의 총비용 중 연구 발전비 및 건조비는 약 5% 이며 나머지 약 95%는 운영유지비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총비용의 분류는 5개년 계획수립 과정에서 각종 대안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비용 대 효과를 분석하는데 이바지한다.

(1) 연구 발전비는 새로운 연구발전 사업에 드는 비용이며, 예를 들면 하나의 시스템개발을 위한 시조 설계비, 시험장비비, 시험 운용비, 그리고 연구발전에 직접 관련되는 건축비 등이 포함된다.

(2) 투자비는 장비나 무기를 제작 또는 구매 계획하는 비용으로써 시설건축비, 주요장비 및

무기구입비, 초도 부속품비, 기초 훈련비 등이 포함된다.

(3) 운영 유지비는 부대의 운용과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수리유지비와 보충비, 급여, 수당, 연료비, 보충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나. 기본비용 모델

한 시스템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구하려 면 다음과 같은 행렬표와 기본 비용 모델을 적용하게 된다. 즉 표의 한편에 자원구분 그리고 다른 한편에 비용구분을 표시하여 이들을 중형으로 합산한다.

기본비용모델

비용		기본비용모델			
		연 발 비	투 자 비	운영 유지비	계
자원					
인 력					
장비 및 보급품					
시 설					
계					

3. 비용정보의 역할

가. 계획과 비용정보

계획예산 제도에서 비용은 체계분석(계획분석), 국방 5개년 계획 및 예산편성의 세 가지 기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세가지 주요사업에 관련한 비용정보의 순환을 다음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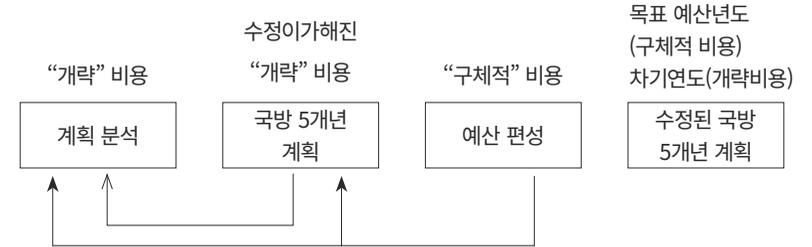
다음은 상술한 계획 예산제도의 세 가지 기본사업에 관련하여 비용이 지니는 역할과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계획분석

계획예산 제도에서 비용정보의 역할이라면 계획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추계(推計)가 주제가 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계획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각종 대안에 대하여 완벽한 비용 추계를 하는 능력인 것이다.

비용 추계는 현재 및 장차 소요되는 모든 관련비용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계획수립 과정에

서 비용추계는 정밀성이나 정확도를 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특히 새로운 계획을 위한 장차의 비용과 효과를 예측하고자 할 때는 당연하는 불확실성이 클것임으로 그 측정하는 내용의 정밀도를 찾고자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계획분석에 있어서 전체 계획 비용추계의 정확도가 10%의 편차라면 통상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획단계에서나 계획분석에 이바지하는 비용은 개략비용으로 족한 것이다.



(2) 국방 5개년계획

국방 5개년 계획의 목적은 승인된 모든 사업 계획의 재정규모에 관한 향후 5년간의 전망을 투시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국방 5개년 계획은 기간이 고정되지 않고 이동식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목표 예산년도의 계획의 소요비용과 겸하여 다음 4개연도의 비용을 투시할 수 있게 하는데 전자의 비용 추계가 여가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즉 국방 5개년 계획의 목표 예산년도의 비용은 당해 연도 예산 요구안으로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 추계는 가능한한 정확해야 하지만 그 이후연도에 대한 비용 추계는 사실상 그렇게 정확할 수도 없고 개략적으로 실시해도 무방한 것이다.

(3) 예산편성

예산요구서에 반영되는 제반 비용추계는 계획을 집행 단계로 옮기기 위하여 그 소요예산에 대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계획비용을 수정하거나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산비용은 가능한한 구체적이며 정확한 비용이어야 한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비용은 예산편성 기준으로서 비용산정 기준이나 비목별(續目別)로 표시되며 또한 예산분석 자료로 사용된다. 5개년 재정 계획이나 모든 사업 계획에 대한 분석은 예산에서와 같이 관리통제 목적을 지니는 것이 아니지만 예산은 예산비목별로 비용이 제시되게 마련이고 관리통제 절차상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기타 역할

상기 역할에 추가해서 비용은 가격분석, 사업실천 과정에서의 진도평가, 계약교섭, 감사 및 관리평가 분석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용에 관한 자료는 항상 현실점에서 가용한 상태로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제 2 절 비용추계기법

1. 기법의 종류

비용추계에 사용하는 기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품목별 물가표 :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군 및 민간의 물가표를 사용하는 가장 쉽고 보편적인 방법으로서 통상단가, X 수량으로 표시된다.

나. 물가지수 : 물가지수는 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의 가격 및 수량에 따라서 산출된 지수이며 흔히 도매물가지수와 소매물가지수로 구분된다.

이 물가지수는 과거 이미 알고 있는 지수로 현재의 비용을 조정하는 방법과 현재 알고 있는 지수로 미래의 비용을 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다. 공학적기법 : 한 시스템의 개념적인 설계 단계 기간 중 개략비용을 발전시키는데 유익한 기법이며 주로 새로운 무기나 장비개발에 쓰인다. 공학적 기법은 자원의 물질적 소모측정을 근거로 하는데 예를 들면, 생산에 투입된 시간당 인원수 즉, 인시(Men Hour of Production)로 표시된다.

라. 통계적 기법 : 선진 각국에서 근래 급진적으로 개발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가용한 자료 가 풍부할수록 비용추계의 신빙성은 높다.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하는 통계적 기법은 보통 평균(Mean), 표본추출(Sampling),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및 비용추계 함수(Cost Estimating Relationship) 의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1) 평균

일반적으로 평균(Mean, Average)은 한 집단을 구성하는 변량 중의 최대의 값간(間)에 있어서 일정한 방법으로 정해지는 수치를 말한다. 이것은 중수(中數) 또는 중심적 경향의 측도(Measure of Central Tendency) 라고도 한다.

일정한 기간중 각 장비에 대한 평균비용을 수집하는데 이것이 장비의 운영 유지비 산출을 위해 사용된다.

(2) 표본추출(標本抽出)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는일을 표본 출이라고 한다.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표본을 주관적으로 골라서 뽑는 유의 출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추계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임의 추출법에 의하여 뽑힌 임의 표본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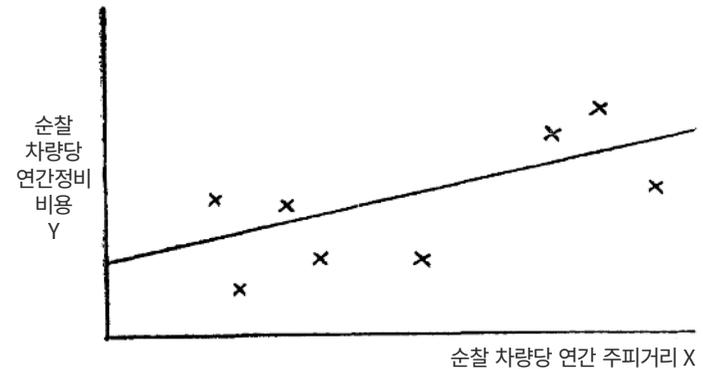
일정한 기간 중 장 비형태별로 운영유지비를 집계할때 비실제적이거나 교가일 경우엔 표본을 사용한다.

(3) 회귀분석

더욱 발전되고 흔히 사용되는 기법은 회귀분석이다. 현재 통계에서 쓰여지고 있는 회귀라는 말은 한편의 변량이 고정된 경우의 다른 변량의 평균치를 뜻한다.

순찰차량의 정비 비용에 관한 회귀분석의 개념은 다음 도표의 예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비용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특징(媒介變數)을 가정해야 되며, 독립 변수를 운행된 주파거리로 가정했다. 본 도표는 8대의 순찰 차량에 관한 최근 수년간의 자료를 분산도(分散圖)로 표시 하였다.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최적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 선은 직선으로 분산도상에 나타난다.



(4) 비용추계함수(CER)

많은 경우에 더욱 복잡한 가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더욱 복잡한 통계적 기법과 공식이 요구된다. 비용추계함수의 하나의 전형적인 공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Y = a + bX_1 + cX_2 + dX_3$$

Y = 병원건축 비용

유격훈련장 유지비 기준

	단위	기본요소	연간소모 %	보충실적				기준실적			
				69	70	71	평론	%	수량	단가	금액
활자	개	50	20%	13	13	7	11	22	10	3,500	3,5000
스넵프링	개	100	20%	25	23	24	24	24	2	400	8,000
" 1 1/2 "	F/T	2,000	3회교체	6,000	6,000	6,000	6,000	3회교체	6,000	25	150,000
" 3/4 "	F/T	1,160	3회교체	3,480	3,480	3,480	3,480	3회교체	3,480	9	31,200
소계	F/T	1,000	3회교체	3,000	3,000	3,000	3,000	3회교체	3,000	3	9,000
목재	B/F	9,724	10%	2,100	1,300	970	1,460	15	970	65	233,200
못(20D)	L/B	100	10%	24	16	10	17	17	10	50	63,050
페인트	G/A	14	50%	10	10	7	9	64	7	1,200	500
아이야로	F/T	4,560	20%	900	900	900	900	20	912	70	8,400
푸 ^{3/4}											63,840
소계											135,790
총계											368,990

1) 한국 물가 조사위원회 물가동향표(71. 3. 1 기준)
 (2) 자료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사용실적(통계수치)을 고려하여 소모율을 결정

X1=병원침대 수

X2=연구요원의 수

(X3= 예상되는 "환자당 의료종사원" 비율

a. b. c. d = 자료에서 통계적으로 얻어진 수치

위에서 명시된 공식은 병원 건축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실례이다. 이를 요약해서 설명하면 병원건축비용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자료 X와 Y는 상기 공식에서 상수(常數)에 대한 수치를 결정하는 통계적 분석에서 수집되고 사용된다.

이 공식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통상비용 추계함수라 한다.

마.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에 입각한 비용추계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정확할 때가 있다. 상술한 여러 기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존한다. 전문가의 의견은 과학기술자, 기구 및 인력전문가, 재정 및 예산기획 전문가 또는 보급, 정비운영자로부터 획득 한다. 이때 최대의 신빙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각 전문가들이 비용추계과정에서 유사한 기준 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2. 한국 육군의 실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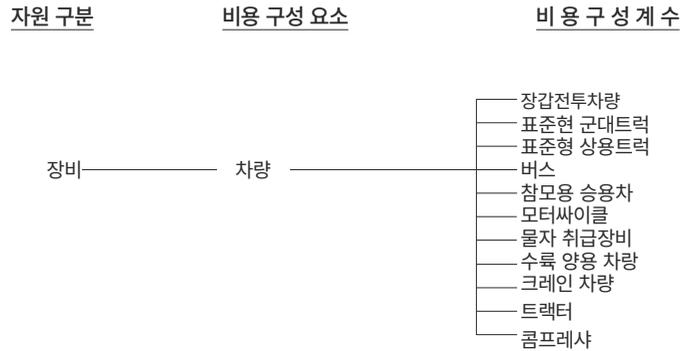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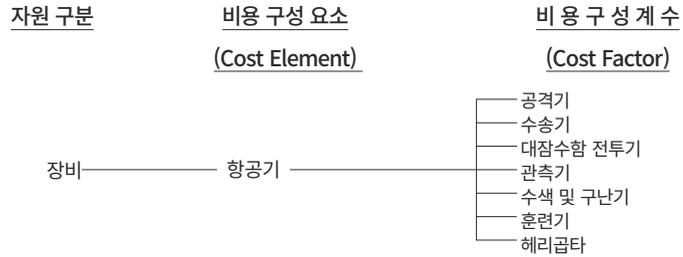
육군에서 발간한 "73년도 육군 예산편성 기준"은 원화 예산사업 중에서 87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설정 하였는데 '이중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3. 외국의 실례

캐나다군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유지 비추계기법 가운데서 항공기와 차량에 관한 것과 미군이 발전시키고 있는 비용 추계함수의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캐나다군의 실례

장비에 관한 비용정보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원분류 방법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비용 구성요소의 성격은 첫째, 비용의 집계단위 둘째, 상호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집단 셋째, 관리의 중요성등의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동의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비용구성계수란 계획 정보단위(예: 공격기, 장갑 전투차량) 로 표시된 실제 또는 추정 원가로 표현되는 비용 산출을 말한다.

(1) 항공기

자원분류 : 장비

비용구성 요소 : 항공기

비용구성 계수 : 공격기

적용기준 : 비행시간

기준치 : 단위 \$

	POL 비	부속, 수리운용비	계
CF104	93.41	390.32	483.78
CF101	148.14	634.00	791.14
CF 5	62.66	163.43	226.09

(2) 계산요령

(가) 연료, 운용비 : 과거 7년간 실적기록으로부터 산출하며 과거의 실적 시 부족하면 통계적 기법을 동원한다.

(3) 차 량

자원분류 : 장 비

비용구성 요소 : 차량

비용구성 계수 : 장갑전투 차량

비용기준 : 운용마일

기준치 : 단위 \$

	(가론당 마일)	연료비 (마일당 \$)	부속, 수리운용비 (마일당 \$)	계 (마일당 \$)
주전투탱크	0.22	0.89	9.20	10.09
578구난차량	0.22	0.89	0.81	1.70
155밀리 곡사포	0.59	0.33	0.36	00.9
55인치수송차	1.91	0.10	1.20	1.30
링크스수송차	2.41	0.08	1.01	1.09
수색장갑차	3.55	0.06	0.87	0.93

나. 미육군 보병학교 운용유지비를 위한 비용추계 함수(CER) 실례

$$CER : Y = \$ 6,526,812 + \$1,276(X-4,726)$$

Y = 직접경비(학교지원비 제외)

\$6,526,812 = 최소한도 운용고정비

\$1,276 = 학생 1인당 경비

X =연간 평균 학생수 4,726 = 최소한도 운용수준의 평균 학생수

제 3 절 비용 정보발전을 위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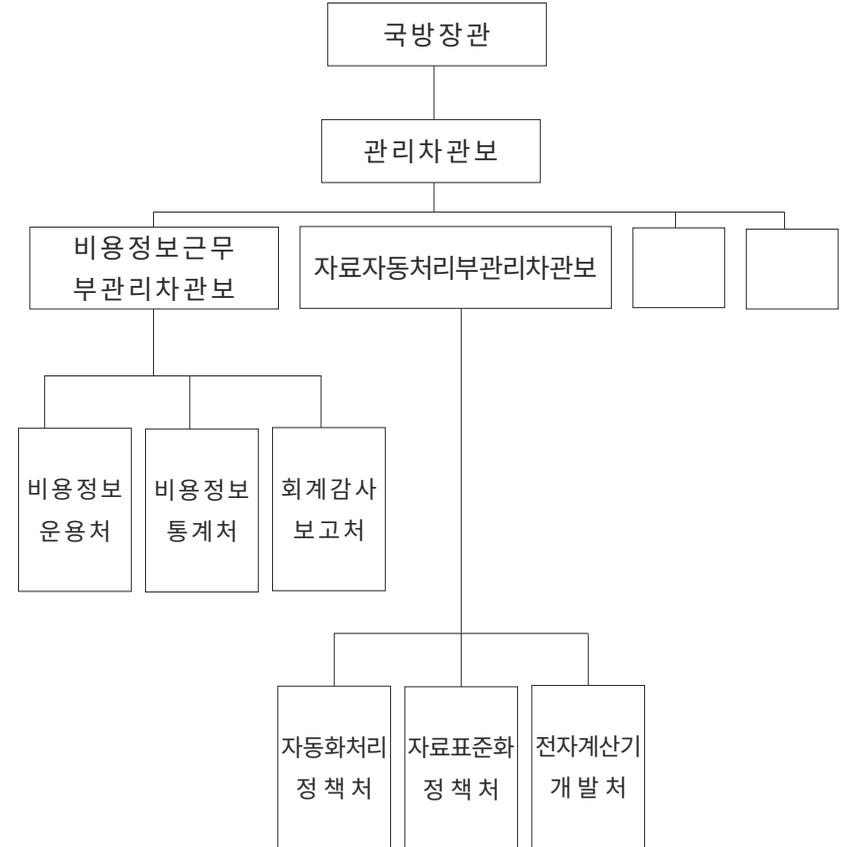
1. 국방부기능의 강화

비용정보에 관한 현행업무를 재정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고체제에 관한 발전과제 등 비용정보에 관한 총체적 책임은 관리차관 보소관으로 담당 수행되어야 한다. 비용정보 제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첫째, 관리층에서 결정할 대상이 무엇인가. 둘째, 어느 정도로 정확도를 기하여야 하는가. 셋째, 비용정보 보고 빈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넷째, 가장 합리적인 자료의 출처와 보고 체계는 어떤 것인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용정보 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기능수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차관보를 중심으로 한 횡적종직 업무 체계로 이루어지는 비용정보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관리 차관보 산하에 비용담당 기구가 새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로서는 기획국이나 재정국에서 현행업무에 이 새로운 분야를 추가할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국의 예산 기준 담당관, 회계정책 담당관 그리고 기획국의 심사통계과의 직무를 비용담당 분야에 관련지어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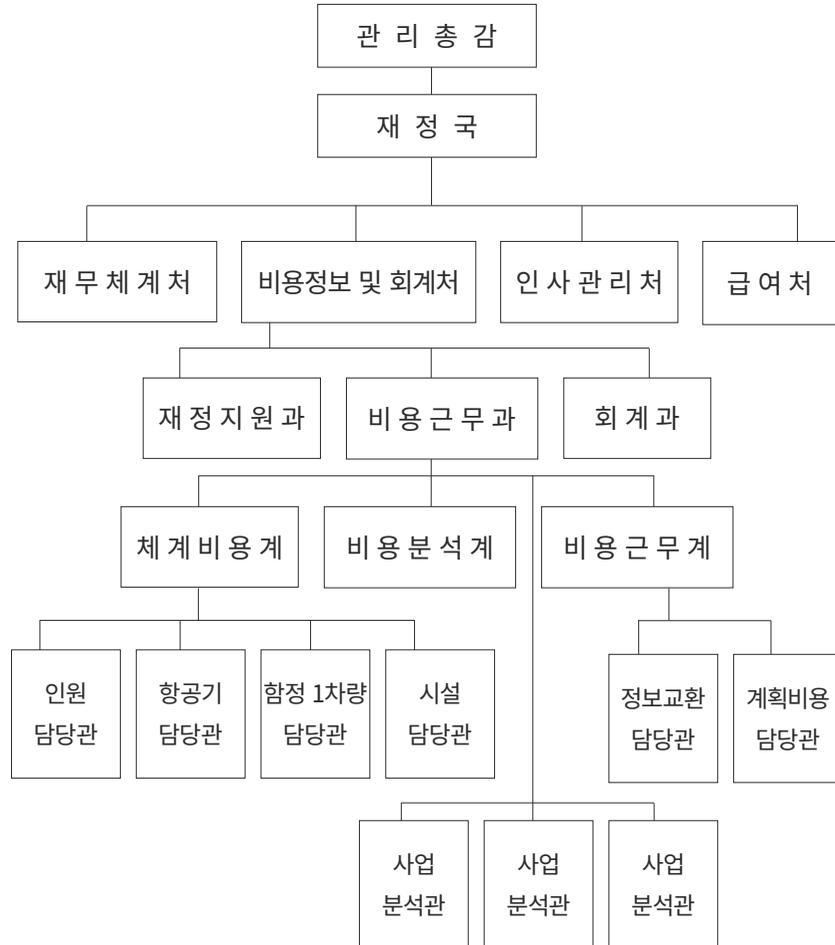
미 국방성 기구표

<별표1>



캐나다 기구표

<별표 2>



외국의 정보비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보면 미국방성의 경우 관리차관보 책임하에 비용정보를 담당하며, 회계감사 보고처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별표 1 참조).

또한 통합군체제하에서 계획예산제도를 1969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캐나다는 비용분석, 비용정보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비용정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총감(Comptroller General) 책임하에 수행하며 관리기구는 재정국내에 편성되어 있다(별표 2 참조)

2. 비용추계기법의 개발

비용추계기법을 개발하고 과학화하여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비용기준과 모델을 만들어 사용하게끔 정책적. 지침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교범이 발간되어야 한다.

- (1) 비용추계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로 하는 제반지침
- (2) 비용기법의 적용 및 원칙을 포함하는 기술적인 내용
- (3) 관련된 참고서적 및 해설

우리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국방예산의 큰 비중이 운영 유지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유지비에 관한 비용정보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연구발전비와 투자비의 기준설정 작업도 점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국방부 재정국 발간 "1973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각 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예산편성 기준등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비용 정보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3. 자료의 자동처리 능력의 향상

국방부와 각 군이 부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자동자료 처리 제도를 통합 발전시킴으로써 비용자 처리의 신속화를 기할 수 있으며, 시기적절한 비용정보의 능률적 획득 및 활용을 위해 매우 긴요성을 가진다.

제 7장 관리회계제도

제 1절 계획 예산제도에 있어서의 회계의 역할

1. 관리회계의 역할

본장에서 논하는 관리회계 제도는 계획예산제도 실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회계제도 부분에 한한다.

계획예산제도에 있어서의 회계의 역할은 이 제도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기능으로 지출된 모든 경비를 회계구조를 통해서 계획구조별로 기록 정리 및 보고할 수 있도록 회계 절 차를 마련하고 기본적인 재무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와같은 새로운 회계절차는 회계구조와 계획구조가 지니는 본래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인 동시에 두 개의 구조를 변존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국방자원 전체를 임무별 즉 계획 구조별 파악과 자원의 종류별, 즉 경비비목별 파악 및 사용목적별 즉 기능별 분류를 가능케 해준다.

가. 본장에서 회계구조라 함은 현 조직에 있어서 법적 회계책임은 지는 자가 임명된 회계 단위와 각 군 분부 및 국방부를 회계관리층으로 하여 형성된다.

나. 계획구조별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집계하고 상호 관련성을 밝혀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회계단위내에 책임 중심점(Responsibility Center)과 원가 중심점(Cost Center)을 설정했다.

2. 관리회계의 목적

회계의 목적은 조작의 관리층 및 기타 부외기관이 요구하는 재무자료(Financial Data)를 적시에 제공하는데 있다. 이 재무자료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력(人力), 물질, 용역 등 자원의 소비와 임무수행 결과를 국방부의 자원관리자 및 회계관리층의 관리목적에 부합토록 회계 절 차, 양식 및 내용을 설정한 것이며 다음 목적에 이바지 한다.

가. 예산의 소요산출

나. 관리 정보의 발전

다. 재무현황 파악 및 심사분석

라. 운영계획의 성과측정 및 평가

3. 관리회계의 기능

관리회계의 기능은 회계업무가 수행 되는 계층에 따라서 구분되며 상하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 계획예산제도 실시를 위해서는 가능한한 계획요소에 가까운 기존 조직을 회계 단위로 하여 이 이상의 관리층, 즉, 각군본부 수준 및 국방본부는 회계관리층으로 분류 다음 기능을 부여한다.

가. 회계단위의 회계기능

회계단위는 거래의 발생부터 원가중심점을 통한 계획요소별 비용의 집계, 책임 중심점을 통한 자원의 관리, 회계관리층에 대한 재무보고등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단위이며 육군의 시설부대, 해군, 공군의 창 또는 기지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와같은 회계단위는 앞으로 회계의 계통, 각 군의 사정 지역별 부대배치 등 제조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나. 회계관리층의 기능

국방부 및 각군본부 수준에서는 자원관리 목적상 계획요소(Program Element)별, 기능별 원분류(Functional Category)별 및 경비비목(Element of Expense)별로 파악하고 통제 한다. 즉 이와같이 분류함으로써

(1) 국회 또는 관계 기관에게 자원의 사용내용을 밝힐 수 있고

(2) 투입된 자원이 전투목적, 전투지원 목적 또는 행정지원 목적에 얼마나 사용되었는가 를 밝혀주며

(3) 자원의 용도별 분석 및 특수분석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분류목적은 관리층에서 달성하려면 회계단위에서 수행된 업무를 적시에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보고하는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관리층에서는 수령한 재무보고에 의하여 계획된 예산과 실제 사용된 자원 및 그 성과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측정, 비용 정보등 관리정보 제도가 발전되고 실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 2 절 책임중심과 원가 중심점

회계단위 내에 설정된 책임중심점과 원가중심점을 그 목적 및 기능별로 설명한다.

1. 책임중심점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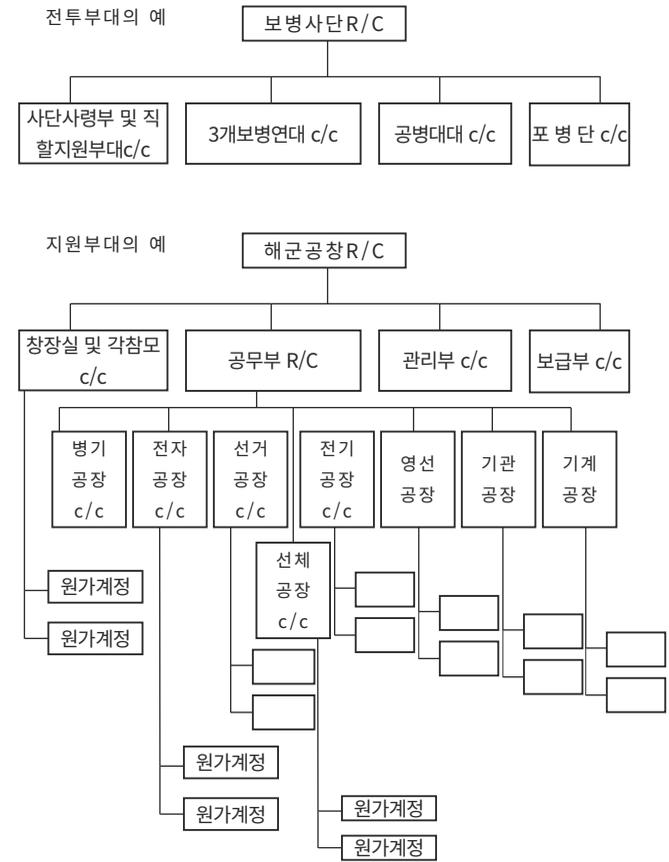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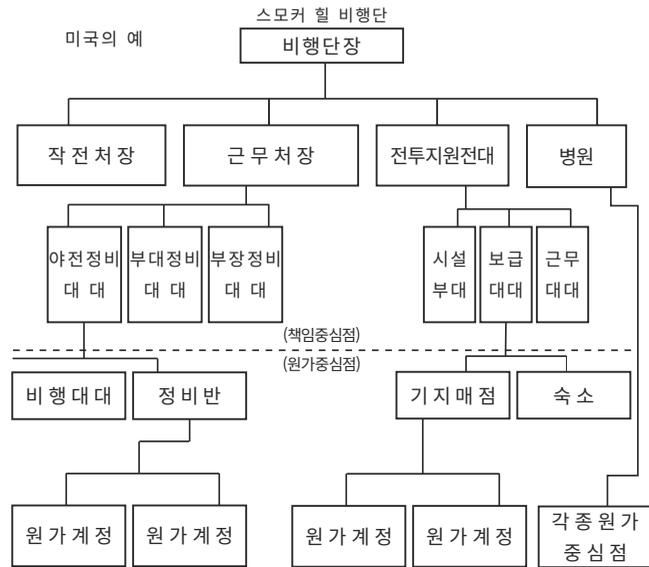
책임 중심점은 활동부서의 자원소요를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 즉 책임중심점의 관리자는 자원운영에 책임을 지는 동시에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책임을 겸한다. 따라서 책임중심점은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 회계적인 판단과 관리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발생한 총비용을 원가중심점별, 작업지시별 및 경비비목별로 파악한다.

또한 책임중심점은 자원관리 책임부서를 명시하여 관할 원가중심점에 대한 원가발생을 관리한다.

책임중심점의 설정 심도는 그 조직의 장이 취급하는 자원의 크기 및 기능에 따라서 자체자원 관리에 편리하게끔 정하고 각군 본부 및 직할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결정한다.

2. 원가중심점의 기능

국방부수준에서 전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종 소비부서의 원가로서 파악하여야 한다. 즉 계획요소별로 발생한 원가나 지원된 비용을 파악해야만 계획구조별 자원소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 원가 중심점은 원가의 직접통제점이며 이곳에 집계된 원가는 원칙적으로 배분 또는 분할함이 없이 계획 요소별로 집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가 중심점은 가능한한 단일업무별로 원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작업지시별로 소요된 인력보급품, 장비 및 용역에 대해서 매일 파악하고 그 산출물, 즉 실적 또는 성과에 대해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원가중심점은 소요예산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계획수립에 필수적인 비용 및 성과에 관한 정보작성에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지원부대에 있어서 하나의 원가중심점이 하나 이상의 계획요소를 자원해야 할 때는 원가계정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3. 책임중심점 및 원가중심점의 실례

회계단위 내에 설정된 책임 중심점과 원가중심점의 위치와 상하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의 현행 공군비행단을 예로 들었다. 동시에 한국군에 대한 시안은 전투부대 중에서, 육군의 보병사단을 지원부대 중에서 해군의 공창을 예로 들었다.

전투부대에는 통상 단일책임 중심점과 몇 개의 원가 중심점으로 묶었고 지원부대는 지원기능별 및 취급금액에 따라서 수개의 책임 중심점을 정하고 관련 계획요소별로 원가 중심점을 두었다.

제 3절 회계절차 및 보고통제

1. 회계의 원칙

계획예산제도 하에서 관리회계의 원칙은 자원의 세가지 측면에 대한 즉, 임무별로 본 계획 요소, 자원의 투입목적별로 본 기능별 분류, 자원의 종류별로 본 경비비목으로서 사용결과에 있어서의 상태를 계획 당시 상태에 비교 가능케 한다.

현재 각 군에서 발전 또는 적용중에 있는 관리 회계제도를 완성시켜 각 군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용하여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복식 부기제도의 사용

현재 국방부에서는 예산 회계법의 규제에 의하여 관청식 단식 부기제도를 회계처리에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시정하여 완전한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복식부기 제도를 가능한 단시일 내에 채택한다.

나. 발생주의 원칙과 현금주의 원칙의 병용

현행 중인 현금주의 원칙은 일상거래에 계속 적용하고 기간의 손익 및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회계 기간에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을 지출 여하에 불구하고 그 기간에 정확히 계상할 수 있는 발생주의를 채택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기간중의 성과계산을 정확히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장부 조직

장부조직은 법정장부 외에 필요한 보조장부를 비치하여 발생한 원가를 확실하게 상기 세 가지 측면, 즉 계획요소별, 기능별, 자원분류별, 경비 비목별로 파악 정리 보고할 수 있도록 계통화한다.

2. 원가집계 방법

제 2절에서 설정한 책임중심점 및 원가중심점에 대한 원가집계 방법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책임중심점의 원가집계

원가 중심점은 지원부대에 있어서와 전투부대에 있어서는 그 임무가 다르다. 다시 말하면 계획요소별 자원을 파악함에 있어서 전투부대는 자체 부대에서 사용한 자원을 단순히 일개 책임 중심점에서 집계하면 된다. 그러나 지원부대에 있어서는 지원부대가 지출한 비용을 피지원 부대별로 집계해 주어야 계획요소별 자원 소모량을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부대의 책임 중심점은 소관 각 원가 중심점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는 최소 책임 단위이므로 도표와 같이 원가중심점별 경비 비목별 및 계획요소별 재무현황을 파악하여 회계단위별, 재무제표 작성에 기초자료를 제공케 한다.

전투부대의 책임 중심점은 통상 그 부대 전체의 자원관리 책임을 지며 당해부대 예산집행 결과를 전체적으로 집계 보고한다.

나. 원가 중심점의 원가집계

원가 중심점은 원가 발생의 조직상의 최하 단위이며 그곳에서 발생한 원가 파악의 기초단위 부서이다.

지원부대에서는 원칙적으로 단일 계획 요소별로 지원한 원가를 집계하되 불가능할 때는 피지원계획 요소의 수만큼의 원가계정(Cost Account)으로 세분한다.

이때 보고 내용은 도표와 같이 계획요소별, 예산별 및 경비 비목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책임 중심점에 보고한다.

원가집계양식

1. 일반분계장(주별작성) 작성일자

책임·원가중심점	경비 비목별 금액	관련계획요소별 금액

2. 책임중심점별 집계(월보) 작성일자

책임원가중심점	경비비목별	연간예산	기별예산	지출	잔액

3. 계획요소별 집계(월보) 작성일자

계 획 요 소	책임·원가중심점별 금액	경비 비목별 금액

4. 책임 원가중심점의 원가종합장(주보) 월 일

일 자	작업지시번호	계획요소	예 산		경 비 비 목			성 과		
			배정	집행	인건비	물건비	경비	계획	실제	표준

3. 보고통제

보고절차 및 순기는 현행제도와 같으나 계획예산 제도를 위한 회계의 기능을 살피기 위해 서 경비비목별 및 기능별 자원분류 보고를 추가한다.

가. 경비비목(Element of Expense)

경비비목은 어떤 종류의 자원을 얼마나 사용했나를 파악하여 사용전과 사용후의 상태를 정확히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경제 기획원이 요구하는 예산과목과 대동소이 하지만 관리목적상 국방부 실정에 알맞도록 개편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이것은 어디 까지나 시안(試案) 이므로 국방부 산하 각 기관 및 각군의 필요 또는 실정에 맞도록 수정 이 가능하다.

경비비목표

구 분	비 목
1. 인건비	군인급여 정규군속급여 연금 군인수당 정규군속수당 임시군속(잡급고용) 판공비
2.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3.물건비	장비부속 및 부분품비 탄약비 급양비 피복비 의료비 보급품비 연료비 비품비 기타 물건비
4.용역비	대 보수비 장비 수선비 임차료 용역수수료
5. 공공요금	수수료 수도료 전기료 통신료 제세 국내부담금 보험료

6. 기타경비	민간에대한 경상수수료 자치단체 경상이전 해외이전 이자 기타 경상이전
7. 부동산 취득	토지매입비 시설비
8. 제신 취득비	항공기 유도탄 함정 차량 무기 통신장비 교육장비 연구발전장비 의료장비 기타지원장비
9. 기타 투자비	대형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출자금 융자금 상환금 전출금 적립금

나. 기능별 자원분류(Functional Category)

미국에서는 자원이 사용된 목적을 밝히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다.

(1) 임무부대 운영

- (2) 보급운영
- (3) 물자관리 및 유지
- (4) 재산의 처분
- (5) 의무활동
- (6) 해외가족의 교육
- (7) 인사근무
- (8) 기지근무
- (9) 편의시설의 운영
- (10) 부동산의 관리 및 유지
- (11) 소규모 공사
- (12) 기타 공병지원
- (13) 행정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예산제도가 미국과는 다르고 국방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 (1) 임무부대 운영
독립적 주요 계획내 계획요소의 임무 및 목적달성에 직접 투입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 (2) 보급운영 및 재산처분
물자의 조달, 수령, 보관, 불출 및 통제 등의 업무수행에 소비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재산의 처분준비 및 처분에 소요된 경비와 폐품재생 가능품의 분류, 처분, 보관 등에 소비된 비용이 포함된다.
- (3) 물자 및 정비 관리장비의 수리, 부속품의 제조, 부품의 조립 및 그에 관련된 관리, 기술 및 행정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된다.
- (4) 의무 지원
군인, 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무지원 및 그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비된 비용이다.
- (5) 인사 근무
타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군인 및 군속지원을 위한 비용이다.
- (6) 기타 운영 및 지원타 기능별 분류에 속하지 않는 각종 행정 및 군수지원에 소비된 비용이다. 즉 수송대, 급양대, 인입철도 등의 지원 및 그와 관련된 군수활동에 대한 비용이다.
- (7) 부동산 관리부동산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비용 및 그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소비된 비용이 포함된다.

(8) 신영공사

새로운 시설의 건립, 설치 및 조립에 필요한 경비 건설부대 운영비, 기존시설에 대한 추가 확장, 변경 및 대체에 관한 비용이 포함된다.

(9) 행정지원

전술한 기능별 자원분류에 해당되지 않은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즉 작전지휘계통, 관리, 행정, 정보, 검열, 정훈 및 법무 등이 여기에 속한다.

4. 관리구조

국방자원이 계획된 목적에 투입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나를 판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계획구조, 계정과목, 경비비목, 기능별 자원분류 등 필요한 정보를 일련의 부호로서 표시하여 통제와 정보전달이 용이하게끔 한 것이 관리 구조이다. 즉 국방의 전자원을 공통부호화하여 자원의 목적별, 종류별 및 기능별로 재무상태를 분류정리하여 거래 발생부터 사용 후의 책임소재까지를 지정한 것이 관리구조이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관련내용

- (1) 회계연도
- (2) 각 군별 구분
- (3) 계획요소
- (4) 예산과목
- (5) 기능분류
- (6) 계정과목
- (7) 사용부대
- (8) 경비비목

나. 실례

73 21 11206 101
 (회계 연도)(육군)(보병○○사단)(급여)
 01 4001 002 01101

(임무부대) (예산)(○○연대)(군인급여)

5. 보고서의 종류 및 순기

보고서는 국방부 본부및 각군 본부등 회계관리 층의 필요와 통제 목적에 따라 그 종류, 내용 및 순기가 달라지며 증감될 것이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재래의 모든 보고와는 별도로 계획예산 제도에 필요한 회계에 관한 보고만을 다루었다.

가. 보고서의 종류

기본적인 보고서는 재무현황에 관한 보고서, 원가에 관한 보고서, 재무 종합 보고서, 작업 지시서 종합이다. 그 외에 필요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한 최소한의 보고만을 받도록하며 다음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 (1)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소요에 관한 보고
- (2) 계획요소별 예산과 실제 사용결과에 대한 보고
- (3) 계획변경과 변동내용에 관한보고
- (4) 시장에 필요한 정보 및 추가 자원소요에 관한보고
- (5) 현행 실적이 차기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보고이상의 보고들은 물량의 흐름, 또는 인사관계의 보고 등 타분야에 관한 보고와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작성한다.

제 4 절 실시를 위한 고려사항

관리회계제도 실시를 위한 고려 사항은 타분야의 고려사항과 대동소이 하겠으나 몇가지만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방침

미국에서는 계획예산제도 실시 이전에 이미 관리 회계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계획예산 제도를 채택한 후 전체비용의 정확한 파악이 더욱 필요하게 되어 1967년 "Project Prime"이란 명칭하에 이회계제도 분야를 더욱 강화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전술한바 각 군별로 관리 회계제도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으나 국방부 전체로서의 제도를 확립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인바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해야 하겠다. 그러나 현행 예산회계법의 규제 때문에 법정회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직의 하급부대까지 재무관리에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 나. 설정된 원가 중심점에 대해서는 성과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 다. 새로운 보고서를 추가 할 때는 비용을 집계하되 단순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을수 있고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2. 절 차

계획 예산제도를 위한 관리회계 제도를 적용키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

- 가. 국방부에 본 회계제도 실시를 위해서 각군 본부에 필요한 지시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하부조직에 필요한 요원의 확보, 교재의 작성, 필요한 계획의 작성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회계제도 실시 결과가 계획예산제도 최종목표에 부합한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3. 조직 및 편성

탄력성 있고 능률적인 조직과 적격자에 의한 편성은 모든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조건이 겠으나 특히 재정분야는 그 업무대상이 금전이기 때문에 각별한 통제가 요구된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 가. 담당자의 한 사람이 회계 순기를 전부 담당해서는 안된다.
- 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는 종적관계는 물론 횡적 관계까지도 명백히 해야 한다.
- 다. 확실한 권한의 이양과 이양된 권한을 그대로 실시해야 한다.

결 론

1. 조속한 도입의 필요성

미국방성에서 시작된 계획예산제도는 오늘날 미국 연방정부의 타부처나 주정부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서독, 벨기에 등 대부분의 NATO 각국에서도 국방예산에 계획 예산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을 위시한 동남아 각국에서도 본 제도 도입에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방위청은 대장성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1977년도부터 계획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적용할 예정하에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 예산회계 제도의 문제점인 기획과 예산의 유리를 해결하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예산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1976년을 도입 목표연도로 삼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계속 연구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2. 앞으로의 연구과제

가. 특별법의 제정

계획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고려 되어야 하겠다, 예산회계법 등의 약간의 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겠으나 더욱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특별법의 제정이 바람직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나. 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기구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으나 계획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소규모 적인 기구조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 관리정보제도의 조속발전

이 연구에서는 비용정보제도와 성과측정 제도에 관해서는 그 윤곽을 제시한데 불과하다. 앞으로 각군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비용정보와 성과측정의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조속한 제도적 조치가 우선적으로 요망된다.

라. 분석 능력의 향상

앞으로 분석능력의 향상과 축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계획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 과정에 있어서 분석능력 향상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관리정보제도 발전과 훈련된 분석요원의 확보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교양으로서의 독서

정성환
(외국 문학가)

◆ 세계 명언 ◆

○ 승리자 이외에는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자가 없다.

- 실루스타우스 -

○ 평화는 세상을 치료하고 향상시키는 세력이다.

- W·월슨 -

○ 으뜸가는 근본적 자연법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다.

- T·호브즈 -

1. 독서에 대한 태도



독서는 분명히 오락일 수는 없다. 우리가 하루의 일을 끝내고 그 피로를 풀기위해서 책을 대하는 것은 아니다. 독서는 올바른 의미에서는 오락이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가 진정한 정신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즐거운 반면에 피로움이 없는 일인 것이다.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고난 억지로 하는 독서가 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과서를 몇페이지 읽고

그것을 외우지 않으면 안 될때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 것인가. 교과서라도 진정으로 지식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기꺼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요를 당한다는 것은 무슨일에서나 즐거움을 빼앗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읽는데서는 진정한 즐거움을 맛볼 수 없으면서 자유로이 스스로 이 책을 읽으리라 생각할 때는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는 즐거움 —그것은 아는(知) 즐거움이며, 느끼는(感) 즐거움이며, 또한 생각하는(考) 즐거움이다. 책이 없어도 그러한 즐거움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활의 빈약한 경험이란 참으로 제한된 것이다.

아무것도 읽지 않고서 자연의 심오한 원리를 깨우쳐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읽음이 없이 톨스토이나 백남천 처럼 느낄 수는 없다. 인류의 존귀 문화적 유산 즉 고전을 앞이 없이는 인류의 사상이나 감정을 자기의 피와 살로써 이어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책이 우리에게 주는 바 체험으로서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지식이건 감동이건 사색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독서에 의해서 얻어지는 세계체험인 것이다.

우리는 책 속에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는 얻을 수 없는 체험을 자기 것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다. 뛰어난 고전 속에는 수천년의 인류의 체험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적속에 표현된 세계 체험은 그것이 아무리 충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의 산 생활 체험이 비추어 본다면, 요컨대 퇴색해 버린 종이위의 생활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책속에 나타난 체험을 최고의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현실이란 그 어떤 서적도 따를수 없는 생생한 초록빛에 빛나는 것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직업의 여하를 막론하고 또 다 망한 사람이고 한가한 사람이고 간에 현대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교양으로서의 독서는 아무도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괴테는 그 만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교양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타인이 나에게 조화되어 주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무리 한 일이다. 나는 절대로 그러한 기대를 가져본적이 없다. 나는 사람을 제각기 독립된 하나의 개인으로 보며, 사람 사람에 따라서 그 개성을 존중하면서 사귀기를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동정적 동감같은 것을 얻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누구하고도 사귄수가 있었으며, 형형색색의 성격에 통하고 세상에 처함에도 단련을 얻게되었다. 나와 반대되는 여러 성격이 형성하는 사회를 뚫고 나가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여러가지 성질이 자극을 받고 발달하여서 그 결과 어떤 사람을 상대하거나 원만하게 사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사회는 나 한사람의 것이 아니다. 나이가, 직업이, 지식의 정도, 취미, 성질이 모두 다른 사람들의 집단인 것이다. 그러나 타 고난 제멋대로의 천성을 가지고는 사사건건 타인과 충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개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자기의 본성애다가 사회적 훈련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곧 교양이다.

현대인의 교양으로서의 반드시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상식은 가져야 한다. 이 상식을 우리는 독서에서 얻으려하는 것이다.

교양으로서의 독서는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 넓게 읽어야 한다.

독서를 지나친 정신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독서는 휴양과 오락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일한 뒤 책상 앞에 편안히 몸을 던지고 마음 내키는 대로 책을 펼쳐들 때, 바쁘던 하루의 번잡한 노고가 떠나고 마음이 천지사이

를 유유히 노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때의 독서로서는 시서(時書)나 여행기나 수필이 적당하다.

한권을 읽기 시작했을때도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할 필요는 없다. 싫증이 나면 책을 덮고 이것 저것 바꾸어 가면서 읽는 중에 상쾌한 휴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2. 독서에 대한 실제적 방법

독서를 위한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바쁜일의 틈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읽고 싶은 때에 마음대로 읽을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이같은 각박한 생활속에서나마 우리는 독서하지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자기 완성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독서 할 필요는 없다. 독서와 건강의 균형을 바르게 지켜가면서 근시안이 됨을 예방하고, 신경 쇠약이나 폐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다. 독서의 시간과 위생에 대해서는 이만 해 두고 독서술의 본론에 들어가기도 한다.

첫째로 듣고 싶은 것은 넓고 깊게 읽으라는 것이다. 넓고, 알게, 또는 좁고 깊게 읽는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독서의 즐거움」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독서란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그것은 상당히 곤란하고 때로는 고통을 따르게 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이 고통을 극복하는 데서 진실한 독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첫째 넓게 읽으려면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 할까요? 우선 학문이나 예술의 체계와 부문별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이해하고, 기초적인 지식을 일일이 연도록 해야 하겠다.

예컨대 자연과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의 기초적인 지식을 주는 입문서를 읽은 다음에 보다 고도한 것으로 나아가는 게 좋은 것이다.

넓게 읽기 위해서는 자연 다독주의를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독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읽어야 할 고전만 하더라도 굉장한 수요이므로 하는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다독은 좋으나 난독은 피해야 하겠다. 그러자면 계획을 세워 질서있는 독서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독을 하는데는 한 권의 책을 끝낸 다음에 다른 책에 손을 댄다는 방법을 가지고서는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한꺼번에 두 세권 이상의 책을 병행해서 읽도록 함이 좋다. 하나에 싫증이 나거나 골치가 아프게 되면 판것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 권의 책을 병독할 때, 되도록이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을 동시에 읽는 것은 한층 더 유익하다.

이 책에 있는 사항이 다른 책에도 나오면 인상이 더욱 깊어지며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병독법에 의한 다독주의를 택할 때는 어느책이고 끝까지 읽는다는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는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깊게 읽는다 함은 다독과 대립된 의미에서 정독을 말하는 것이다.

정독이란 정해진 몇 권의 책만을 읽는 것, 또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읽는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독과 정독과는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정독이란 띄어져 있는것을 똑바르게 이해하는 독서법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몇 페이지를 읽은 다음이면, 거기에 띄어 있는것을 머리 속에서 되풀이 하고 정리함이 필요하다.

한 권을 전부 읽고 나면 더우기 그렇게 함이 필요하다. 또한 같은책을 때를 격하여 읽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

둘째로 문제의 관련성을 갖게 한다는 중요한 점이 포함된다. 같은 문제를 취급한 책을 두가지 이상 읽고 연결을 짓거나 비교하여 보거나 하는 것은 결코 노력의 낭비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다독이나 정독의 방법에 의해 읽은것을 하나 남김없이 다 기억해 두어야 하느냐 여부냐 하는 문제가 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무엇이나 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독의 방법에 의해 되풀이해 읽는중에는 필연적으로 기억에 남는것이 있게된다.

그 이상으로 기억하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다. 넓고 깊게 읽는다 함은 요컨대 읽으려는 서적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 한다는 것이며, 거기에 띄어져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그릇됨이 없이 파악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독서의 제일보로서, 이해한 것을 해석하고 비판하고 다시 나아가서는 자기 창조 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주어진 서적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책에 대하여 맹목적인 신앙을 품고, 써있는 것을 곧이 곧대로 머리에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힘으로 비판력을 양성해야만 하겠다.

그러면 독서에 있어서의 비판력을 양성하자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판력을 양성하자면 책을 읽을때에 재미나는 대목이나 감동을 준 대목에 줄을 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 이것은 벌써 독서에 대하여 수동적이지 아니라는 태도의 표현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엔 물음표를 적어 놓는다는 등의 방법이다.

또한 독서 노트를 만드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읽은 부분중 훌륭한 대목을 발췌하여 둔다든지, 목차만을 베껴 쓴다든지, 한 길을 더 나아가 그 책에 대한 감상이나 비평을 정리하여 둔다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독서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읽은 책에 대하여 판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자기가 심지 않은 책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것도 유익 하다.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선입견을 가지고 그 책을 대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으니 이 점을 조심해야 한다.

이리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 세계는 더욱 굳건하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면 바쁜틈을 타서 독서의 시간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목적은 책 그것을 읽는데 있다. 적은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자면 불필요한것을 애써서 기억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겠다.

기억하기 위하여 두뇌가 더욱 피곤해지고 그만큼 독서의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체의 기억에 머리를 쓰지않고, 요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생활체험을 쌓고 독서의 공을 쌓음에 따라서 자연히 독서력이 늘게되고 대강을 읽고서도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독자는 독서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가지라고 말했다.

- ① 저자가 말하는것에 정신을 팔지말고, 단적으로 그 말하려는 의도를 파악할 것.
- ② 그 중심되는 논리와 관계없는 논설을 구별할 것.
- ③ 논설의 요지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파악하고, 논설의 경중을 판단할 것.

이 말을 요약하면 「서적의 골자를 찾아내고, 그 밖에 것에는 구애되지 말라」는 것이다.

대개의 책을 그 서문을 보면 거기에 취급된 주제와 저자의 태도를 알 수 있으므로 서론, 본론, 결론의 몇 페이지만 읽으면 전체를 짐작할 수 있다.

독서력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책을 읽어도 능률이 다르다. 서적 종류에 따라서도 여러가지 읽는 방법이 있다. 책에 사로잡히지 말고 독서력과 독서의 목적에 응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취함이 가장 능률을 올린다. 요컨대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되도록 쉽게 읽는 것이 가장 능률적인 독서법이라 하겠다.

3.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책에는 이른바 양서와 악서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선택하는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면 악서를 경계하고 양서를 선택해 내는 표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유행적 인기를 노리는 서적을 되도록 읽지 말 것이며, 불멸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이 누구에게서나 인정되고 있는 고전(古典)을 많이 읽도록 하는 것이다.

고전이라 함은 딱 어려운 의미를 지닌 말이다. 보통의 의미로는 오랜책이라는 말이지만, 그 속에 담겨진 존귀한 것이라든지, 모범으로 삼을만한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긴 역사의 시금석에 걸려 마멸하지 않고 남은 귀중한 사상이나 작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고전은 결코 읽기 쉬운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난해하다고 할 것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이 필요하다. 고전의 일반적인 역사를 알아야 할 것, 다음에 그 고전에 대한 해제(解題)를 읽을 것 등이다.

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의 유래나 내용에 관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대개의 고전에는 모두 붙어있는 것으로 단테·괴테, 셰익스피어 등의 작품에는 몇 백가지의 해제가 달려있다.

그런데 서적 선택의 표준은 고전만 읽으면 그만이나 하면 그렇지도 않다. 학문을 끊임없이 진보 발달하는 것이므로 낡은 서적으로서는 소용없을 때가 많다.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정치·경제의 새 서적도 읽어야 한다. 따라서 언제까지나 「중용」이나 「신곡」이나 「삼국유사」만 읽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새로운 서적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때 안내가 되는 것이 서평이나 평론이다.

이때 어떤 서적에 대해 한 가지 서평만을 읽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다른 것 들도 읽고 비교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유행이나 선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함이 긴요하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독서에도 우선 기초가 되는 서적부터 읽어야 하는 것이다.

각 부문의 독서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 부문 부문의 지금까지 성취되어 온 경과에 대한 역사적인 경관을 통독해 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개론적인 것에 옮기는 것이 다음 단계일 것이다. 이렇게 기초서적을 읽어서 대충 발판을 만들고 난 다음엔 다시 전진하여야 하겠다.

이번에는 예술서적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는데, 이것은 교양으로나 또는 오락으로나 독서에 있어서 가장 풍부한 분야이다.

한 마디로 예술이라고 하지만 그 범위는 매우 넓다. 문학, 연극, 미술, 음악, 영화도 또한 극도 한 것이다. 이것은 곧 실용적인 것이 되지는 않지만 고차적인 의미에서 실용적인 것이며,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정신적 영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독서를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술, 즉 문학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문학에 관해서는 역사의 경우에서처럼, 우선 문학사를 읽고 난 다음에 작품에 옮겨야 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을 필 요는 없다. 도리어 먼저 실물에 부딪쳐 상당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해를 한층 깊게 하기 위하여 개론이나 문학사를 읽는 것이 좋다.

문학에는 우리 한국민족의 문학, 즉 국문학과 외국문학 또는 세계 문학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선은 고전적인 가치가 인정된 것을 읽어야 하겠다. 고전 중에서도 대작(大作)을 정복하도록 권하고 싶다. 대작이란 반드시 양적으로 방대한 것이 아니라 제일류의 작품을 가리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문학작품을 크게 나누어, 소설, 희곡, 시가, 평론으로 한다. 그중 누구에게나 친하기 쉬운 것이 소설일 것이다. 소설에는 장편과 단편과 중편이 있다. 장편의 역작(力作)은 무한히 많으나 생각나는 대로 들여본다면, 브레초의 「마농레스코」 스팅달의 「적과혹」 「녹색의 수렵자」 발작의 「사촌누이 벳트」 유제니 그랑테 등, 프토펬의 「보봐리 부인」 「감정교육」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 「빨라미」 등, 지드의 「배덕자」 「위조화폐 제조자」 그리고 브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등을 들 수 있겠다.

도이취에서는 괴테의 「젊은베르테르의 슬픔」 반헬름 마이스터의 「도제시대·편력시대」는 판독의 서(書)이다.

낭만파인 노발리스의 「파랑꽃」은 좀 난해하지만 전하고 싶은 작품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그 이후는 다눈치보의 작품이 읽을만하고 스페인에서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하나이다. 북유럽에 가면 혹성같은 존재 스트린드베리가 있다.

그의 자전소설이라고 하는 「하녀의 자식」 「어느 혼령의 발전」 「치자의 고백」 등은 꼭 읽어야 할 작품이다.

영국은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데포의 「로빈슨 크루소」 사키리의 「허영의 거리」 프론테의 「폭풍의 언덕」 하디의 단편도 훌륭하며, 디켄즈의 작품도 읽을만 한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푸쉬킨의 「오네긴」 레르몽프트의 「현대의 영웅」 트르게네프의 것으로는 「엽인 일기」 「아버지와 아들」 「도스프에 프스키」 의 것으로는 앞에서 든 작품이외에 「죽음의 집의 기록」 「깃발한 사람들」 톨스토이의 것으로는 앞에서 든 것 이외에 「부활」 그리고 단편소설에 걸작이 많은 체홉을 제쳐놓을 수가 없다.

단편으로는 위에서 말한 모파상과 체홉이 문자 그대로 쌍벽입니다만 미국의 포우와 중국의 노신도 빠뜨릴 수 없는 작가이다.

다음은 희곡 분야에서도 각국이 다 많은 걸작품을 대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셰익스피어가 최대의 작가로 「리어왕」 「맥베스」 「오셀로」 「햄릿」의 사대비극 외에 「베니스의 상인」 「한여름 밤의 꿈」 「헨리 4세」 등이 유명하다.

도이취에서는 괴테의 파우스트 실라의 「발렌슈타인」 프랑스에는 코르네이유·라시네·몰리에르의 3대 고전 작가가 있는데 그중 우리에게 친근한 것은 몰리에르의 「인간기피자」 「통주양」 등이다.

한국의 현대 문학에 있어서는 다음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면 좋을 것이다. 이광수·김동인·염상섭·현진건·나도향·최서해·주요섭·유진오·이효석·채만식·제용목·이주영·박영준·김유정·이 상·김동리·정비석·최정희·김영수·황 순원·이봉구·곽하신·김이석·최인옥·안수길·최태웅·임옥인 등이다.

끝으로 평론인데, 평론에는 문학개론과 문학사도 포함되며, 미학에 관한 저서도 여기에 넣어서 좋을 것이다.

순수한 문학 평론으로서 고전화 된것은 비교적 적다. 그 중에서 실라의 「소박 문학과 감상 문학」 콜러지·쌍뜨부브의 제론, 칼라안의 「의상 철학」 라스킨의 평론등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초보자에게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론 문학을 즐겨 읽을 수 있게 된다면 문학 독서도 꽤 전문적인 단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다.

4. 독서의 궁극적 목표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받아들여더라도 사색함이 없다면 그 독서는 소용이 없다. 사람을 진보하게 하는 것은 사색이다.

사색이 없는 독서도 무의미하지만, 또한 독서 없이 사색이 있을 수도 없다. 이 점을 가리며 주자(朱子)는 「학(學)은 서(書)를 읽음이 아니다. 그러나 서를 읽지 않고서는 학을 하는 소이의 길을 알 수 없다」고 말하였다.

책의 수량이 독서의 목적은 아니겠으나, 사색 때문에 독서의 범위가 한정 된다면 그 사색 또한 편협된 것이 되기 쉽다.

사색하면서 넓은 범위에 걸쳐 독서하기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사고력도 사람마다 다르다. 능력에 따른 독서를 해야 할 것이지만, 자기 능력에만 의지하면 사색이 진전하지 않는다. 보다 높은곳으로 자기 사정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능력 이상의 독서도 감히 할 필요가 있다.

독서술이란 얼마만큼의 도움을 받아가며 생각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독서술은 사색의 기술

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다.

천천히 생각할 것, 천천히 읽을 것, 자기의 사상을 급히 서둘러 정리하려 하지 말고, 또 끊임 없이 자기에게 반대하면서 한계를 지켜나가면서 사색해야 한다.

한계를 지키면서 —또한 끊임없이 저자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읽어야 한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자기 사상의 흐름이 자유롭도록 내맡겨 두어야 하겠다. 조금 후에 가서 그것을 논의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조금도 사색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여 「책은 귀찮지도 않으며, 게으르지도 않으며, 수다스럽지도 않다」고 한다.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생에 대해서 사색하기 위해서이다.

인생을 사색하는 지도자로서, 안내자로서 독서는 무엇보다도 진실되고 친절한 벗인 것이다. 독서에 의하여 선인들이 사고하고 행위한 자취를 더듬어 보는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선인의 사상 속에 자기의 사상을 발견하며, 그들의 행위속에 자기의 행위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여기에 굳건한 인생계획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 의미에서도 인생에 독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투쟁의 상상관

김병로



저녁밥을 먹고 난 포로들은 꾸역꾸역 밖으로 나왔다. 어렵사리 두 시간은 남았을 어둠기까지의 여가를 성그러운 밖에서 보내기 위해서였다.

오월의 초저녁은 차분했다. 그러면서 덥지는 않았다. 낮녘에는 벌써 여름인가 싶게 제법 더 왔는데 저녁에 접어들면서 더위가 가시고 알게 모르게 살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겨우 피어난 포플러 나무잎 하나 제대로 흔들지 못하는 약한 바람이었지만 그런대로 포로들에게 성 그러움을 안겨 주었다.

포로들은 삼삼오오 아무데나 무리 지어 앉았다. 그들 밑을 찾을 필요도 있지않는 잔디밭을 찾을 필요도 없었다. 돌짝 발 위 아무데나 앉아서 장기, 바둑을 두고 이야기의 꽃을 피우면 되는 것이었다.

누리가 시끌썩했다. 포로들이 여기저기서 웃고 떠들고 장난 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시끌썩함까지도 포로들에게 평화의 한 양태로 받아들여졌다. 그만큼 포로수용소 안은 평화로웠다. 그랬다. 평화로웠다. 불안이나 공포의 그들은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루 세때 꼬박 밥을 준다. 입을 옷도 모자라지 않았고 잠자리도 그만했음 되었다. 극성스레 끌고 다니면서 견잡을 수 없게 시리다.

그쳐대던 작업도 인제 거의 없어졌다. 때로 있게되는 작업도

그 분위기가 아주 부드러웠다. 경비병이 국군이건 미군이건 간에 감시를 적당히 했다.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팽개쳐 두는 꼴이었다.

그렇게 해도 수용소로 돌아오기 위해 포로들을 집합시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모여 들었다.

특히 경비병이 국군일 경우에는 포로들은 제멋대로 놀아났다. 민가에 들어가서 장 사하는놈, 음식 먹는놈, 심지어는 계집 맛까지 보며 설치고 돌아다니는 놈까지 있었다.

수용소의 철조망은 열살 미만의 어린이가 힘 안 들이고 슬쩍 넘을 수 있을 정도로 낮았다. 외부와 구획짓기 위해 형식만인 울타릴 쳐 놓고 있었다. 그래도 도망치는 포로는 하나도 없었다. 곧 석방이 될텐데 공연히 서둘렀다가 탄 포로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삼가는 것이었다.

사실, 석방은 코앞에 다가와있는 느낌이었다. 남한 출신 우익포로들은 벌써 따로 뿔었다. 속속 석방을시키고 있었고, 이들 북한 출신 포로들도. 그렇게 적당히 가둬놓고 가족들과 면회를 시킨다. 서신 왕래를 시킨다 하면서 한껏 느긋주고 있었다. 민간인 교사들을 들여보내서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까지 시키는걸로 봐서, 공산사회에서 살던 이들에게 민주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소양을 붙인 뒤에 석방시키려는 속셈인 것 같았다. 또 연고지가 없는 북한 출신 포로들이 석방된 뒤에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여건을 만드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았다.

이들 반공포로들은 석방의 조짐을 거제도에서 있었던 소위 동서(東西)분리 심사 때에 벌써 알아차렸던 것이다. 포로들에게 완전한 자유의사 표시의 기회를 주어서 갈 곳이 남(南)이나 북이나 택일하라고 한 것은 반공포로들을 남한에 석방시키겠다 관리 당국의 의사표시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건 남북(南北)분리(포로들을 남북한 출신별로 분리 수용한 것), 이후에 북한출

신 반공포로들이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적색 포로들과 싸워 이긴데 대한 보상으로 서있어야 마땅한 걸로 여겨지기도 했다.

피의 투쟁의 결과로 동서분리 심사가 이뤄지고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택한 포로들만 육지로 데려올 적에 그들은 기뻐서 미친듯이 날뛰었고, 그 뒤로 관리당국의 감독이 자꾸만 느슨해지는 것을 보면서 석방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했던 것이었다.

이럴 즈음에 대한민국 국방부 의 대변인 격인 사람이 직접 포로수용소에 찾아와서 연설을 통하여, 당성들은 적색포로들과 싸우노라 수고했소. 정말이지 당성들은 포로일 수가 없는 <포로 아닌 포로>들이요 하기까지 했으니 포로들이 석방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믿은건 오히려 당연하다 해야 옳았다.

이렇게 되니까 포로들의 마음은 건공에 등등 뜨게 되었다. 모든 것에도 <임시>니, <잠깐>이니 하는 주를 달게 되었다. 즉, 매사를 너무 맵짜게 생각지 말잔 선입견을 스스로를 가지는 것이었다. 간부들이 부정한 짓을 해도 곧 석방될 텐데 저가 그래봐야 얼마나 더 그러겠는가 하며 모른체 했다. 환경을 미화하자고 해도 곧 나갈텐데 그건 해서 뺏히는가며 하지 않으려 했다. 그저 좋게, 평안히, 어물어물 지나다가 밖으로 나가면 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수용소안은 차분하고 평온해질 수 밖에 없었다. 절기마저 안온한 봄철이어서, 안팎으로 두루 그런 분위기가 감돌았던 것이다.

그날 저녁에도 지극히 평온한 가운데에 해가 그늘고 있었다. 그러면서 푸르름 에 뒤덮힌 우뚝높은 뒷산쪽으로부터 서서히 어둠이 서려오기 시작했다. 바로 그 무렵이었다. 그러니까 포로들이 아직 어둠을 느끼지 못하고 놀이에 열중하고 있을 무렵에 마이크가 울렸다. 「다이나마이트 폭발, 다이나마이트 폭발!」

마이크는 몇차례 거듭해서 이렇게 외치고 잠잠 해졌다. 주위가 수렁거리기 시작했다. 포로들이 놀이를 중지하고 일어나 처마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더러는 가건물의 처마밑에 들어가 선채 시선을 뒷산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늘 그래봐야 별일 없었는데 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

사실, 하루에도 몇차례씩 이렇게 대피를 시키지만 뒷산 중턱에서 미군들이 터뜨리는 다이나마이트로 해서 석편(石片)이 수용소까지 날아온 일은 아주 드물었다. 한두차례 뜻밖에 석편이 날아와 천막을 치는 바람에 놀란 일이 있긴 했지만 대개의 경우 그런일 마저도 없었다. 그래서 포로들은 이 경고를 심드럽히 생각했다. 처음엔 쟁싸게 대피하던 것이 요사인 느릿거리일 쏘였고 그러는 사이에 폭발이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돌박지에 맞아 뒤통(죽을) 사람 이몬 거제도에서 빨갱이넬 한테죽었디, 안기래?」

누군가가 가건물 처마 밑에 몸을 반쯤만 들 이 밀고 서서 이렇게 소리쳤다. 석편 따위에 맞아 죽을 운명이면 여직 살아남지 못했을거란, 그러니까 삶에 자신있단 말이었다.

이건 비단 그 포로의 생각뿐이 아니었다. 모든 반공포로들,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좌익포로들의 악랄한 도전을 막아 이긴 모든 포로들은 그렇게 삶에 대한 자신을 가졌다.

황! 과과황!

굉음이 울렸다. 십여발 연속적으로 울렸다. 뒷산 중턱에 뭉클대는 흙매연의 봉우릴 일으키면서 다이나마이트는 터져 나갔다. 그러나 포로들은 소낙비 굶는 사람도 모양 무표정하게 서있다가 폭발음이 끝나자 주섬주섬 밖으로 다시 나왔다. 이번에도 석편 하나도 수용소안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비웃듯 지껄이며 나왔다.

그들이 밖에 나와 어물렁대는데 수용소 뒤킨 노천 변소쪽에서 포로들의 수렁거리음이 있었다. 만 포로들이 이상해하며 그쪽으로 신경을 집중시키는데 누군가가 <사람 죽었다> 외쳤다. 그 소릴 받아 몇몇이 같은 소릴 외쳤다. 그리고 후다닥 거리며 변소쪽으로 뛰었다. 포로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쭈뼛대다가 끝내 우, 변소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똥싸다 죽었넬다!」

「기래? 기거 폴 한번 더럽게 뺏구나?」

「야야, 죽은 사람이 년대당(연대장)이렌다. 야」

머이? 기거 진짜야?」

변소 언저리에 벌써 헤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포로들이 모여서 서물 대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입을 놀리고 있었다.

기복은 소리한테 연대장이 죽었다 보고를 듣는 순간 야릇한 마음의 충격을 받았다. 그는 쟁싸게 대대본부 사무실을 뛰쳐 나왔다. 그리고 변소 쪽으로 두 주먹을 볼끈 쥐고 뛰었다.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연대장의 죽음을 확인해야겠다는 호기심, 그리고 어서 그래야겠다는 광조(狂躁)중에 사로잡히면서 뛰었다.

현장은 대대장인 그도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겹겹이 사람의 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벽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해서 연대장 강용수의 죽음을 확인해야 했다. 그는 대대장 들어간다고 큰소리치며 포로들의 틈새를 헤집고 힘들게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둥그마니 일정한 공간을 남겨놓고 거게 드문드문 간부들이 서 있었다. 부연대장 서만수를 비롯해서 연대본부의 간부들과 몇몇 대대장이 벌써 와있었다.

「어떻게 된거시오?」.

이렇게 물으며 기복이 부연대장 옆으로 다가섰지만, 부연대장은 변기 옆에 가마니로 덮어놓은 연대장의 시체를 응시하고 있을 뿐 대거릴 않았다. 그러다가 누구에게인지 모르게 의무실 엔 누가 갔는가고 물었다. 부서기장이 갔다고 서기장이 말했다.

이윽고 의무실장이 미군군의 관들과 함께 구급함을 들고 달려왔다. 그는 시체 앞에서 약간 망설대다가 이윽고 가마니 제쳤다. 연대장은 변기통에 앉았다가 석편에 머리 맞고 그대로 나동그라져 있었다. 두발이 아직 변기에 걸려있는 걸로 봐서 그는 석편에 맞는 순간 즉사한 모양이었다. 몸부림 한번 못 치고 즉사한 모양이었다. 피에 엉키어서 분간이 안 되었지만 날카로운 석편에 머리가 와삭 빠개진 모양이었다.

미군 군의관이 의무실장에게 뭐라 했다. 의무실장이 통역해서 말을 했다. 포로들에게 모두 물러가라고 말한다 하였다. 부연대장이 돌아서서 모두 천막으로 돌아가라 하였다.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몇몇만 호명해서 남게하고 모두들 돌려보냈다.

기복도 대대본부로 돌아왔다. 부연대장이 대대장들도 어서 대대에 돌아가서 대대원들 관장 하라 해서 돌아왔던 것이다.

그는 대대본부로 돌아오면서 연대장 강용수가 죽었던 사실을 새삼스레 마음속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었다. 불쌍해서가 아니었다. 두려움에서는 더욱 아니었다. 자기 앞에 벼랑처럼 맞섰던 장애물이 확 넘어지고 출세에로의 길이 확 트인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었다.

출세!

평화시대에 돌입하면서 포로수용소에서의 출세도 매우 힘들게 되었다. 거제도에서 좌익포 로들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는 출세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일 단 평화가 깃들게 되니까 감투의 좃가는 경중 올랐다. 이러나 저러나 감투의 유동이 꼭 막혀 버려서 전진할 여지가 없어지고 말았다.

기복도 거제도에 있을 때에는 겨우 중대장밖에 안 되었지만, 감투 쓴 것을 무척 후회했다. 좌익포로들과 충돌할 때마다 쓰러지는 건 간부들이었다. 백오십 오명이나 반공포로들이 참살을 당했지만 그 대부분이 소대장 이상의 간부들이었다. 그런 관국에서 그는 몇 번이나 자기 신념에 동요를 일으켰던 것이다. 중립을 택한다고만 해도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제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고픈 생각도 간절했지만, 그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지금 반공 청년단 지도위원으로 있는 현인호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는 기복더러 죽어도 자기 신념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격려했다. 그런데, 현인호의 말대로 아득바득 참다보면 좌익포로들에 의한 위기가 고비를 넘곤 했었다.

요사이도 그때 일을 생각할 때마다 기복은 아찔함을 느끼곤 한다. 그때에 만일 중립을 선언 했더라면 지금 살아있더라도 배신자의 누명을 폭 쓰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대대장은 고사하고, 분대장자리 하나도 맡겨지지 않았을 것이라 하였다. 이런걸 생각하면 그는 딱이나 운이 좋았다. 현인호란 고향 사람을 진작부터 만났고 그와 친밀하게 지낸것도 운이 좋았던 탓으로 여겨졌고, 번번이 위기를 벗어나 반공의 주류속에 끼어들곤 한것도 모두 운이 좋았던 탓인것 같았다.

그는 거제도에서 일단 좌익포로들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적에 운이 좋았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손거울을 꺼내서 자기 얼굴을 비쳐봤던 것이다. <두꺼비생관> 이라고 스스로 믿는 얼굴을 확인해 본 것이었다.

동리에 접쟁이 노파가 있었다. 그의 집에서 어머니와 이야기 하다가 그의 얼굴을 보고서 <두꺼비생관>이라고 하면서 운이 뻔친 아이라 했었다. 어려서들은 이야기였지만 그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앙처럼 그걸 믿고 있었다. <두꺼비생관>이니까 운이 뻔친 단 걸 믿고 있었다. 인민군에 끌려가서 전투 중에 어려운 고비를 무수히 만났지만 그는 자기가 죽는단 생각은 하지 않았었다. 남은 맥없이 죽어 넘어졌지만 자기는 살아남을 자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은 보기좋게 들어맞았다. 비록 포로이긴 했지만 안전지대에 살아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 안전지대에 다시 위기가 왔었는데 그것도 거뜰히 극복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거울속에 비친 머리끝이 보족하고 볼이 늘어지면서 안면 중간이 휘옴한, 영남없이 두꺼비의 그것같은 자기 얼굴을 보고 히죽이 만족한 웃음을 웃었다. <두꺼비생관>이 분명하니까 운은 계속 뻔치리라 생각하고서였다.

그는 때로 현인호도 자기와 손을 잡았기 땀에 결들여서 그만큼 운이 뻔했던 생각까지 했다. 그의 반공에 대한 신념이 강하던 사실에 감복하고 그 신념에 영향되어서 자기도 애매한 입장에서 깡그리 벗어났다고 믿고 있었지만, 운,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운은 역시 자기 땀에 생긴것 아닌가 하였다.

운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대대장 자리에까지 오를 수 없단 것도 기복은 자인하고 있었다. 학벌이 국졸(國卒)이요, 인격도 하잘나 위없단걸 자기가 알고 있는 형편인데, 운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렇게 될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

물론 그는 자기의 처세술과 남한테 지지않는 활동력을 내세우기도 했다. 윗사람에겐 철저하니 저자세이면서 아래 사람에겐 지나치게 몰강스레 구는 처세술, 이것땀에 밑에 사람한테 원성도 들었지만 윗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 <비굴한 놈이지만 이용가치는 있다. 인간으로서 혹은 인격으로 대할 사람은 못되지만 아실 때에 부러먹기는 좋은 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까이들 했다. 그런 처세술이 그를 대대장의 자리에까지 끌어 올렸다고 스스로 믿는 것이었다. 활동력도 그랬다. 그는 잠시도 가만있질 못했다. 작고, 아랫배가 나오고, 어깨가 처지고, 다리가 짧아서 몸전체의 윤곽까지도 두꺼비스러웠고 둔해 보이지만 움직이는데는 팽이처럼 날렵했다. 까뚝까뚝 어깨 춤을 추면서 이리저리 마구 쏘다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사정없이 늙적했다. 두꺼비 파리잡아 먹는 꼴이었다. 이렇게 먹은 것을 모아 사윗사람에게 반쳤다. 이것도 그의 출세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모두가 운이 좋기때문에 그렇게 주효했다고 그는 늘 운을 앞세우는 것이었다.

대대본부에 돌아와서 의자에 털석 주저앉은 기복은 <출세!> 하고 혼자 입속으로 뇌었다. 아무래도 이<출세!>란 것이 자기앞에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두꺼비생관>으로 인한 자기의 운이 얼마 동안의 잠복을 깨고 다시 발동을 시작는단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연대장 강

용수가 죽은 건 안 된 노릇이지만 자기 운이 자기를 출세시키려고 뽀 치는 까닭에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기복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물론 연유가 있었다. 출세를 목마르게 바라면서 그는 수용소의 감투에 변화있길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다. 기다리다 못해 그는 오늘과 같은 갑작스런 이변 까지도 은근히 바랐던 것이다. 연예장 강용수가 죽어달라하고 딱히 꼬집어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가 바라는 자리가 그것이었고 보면 결국은 그가 죽길 바란셈이었다. 그래서 못쓴 다고 자신을 타이르곤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랐던 것이다. 그게 오늘 이뤄진 셈이었다.

감투를 쓰잖 연대장은 되어야 했다. 그거라야 감투다운 감투를 썼다고 자타가 공인했다. 반공 청년단 간부들이나 지도위원들은 지위가 연대장의 위에 있긴 했지만 실속은 연대장만 못했다.

연대장은 물자의 총본산인 보급소를 직접 관장했다. 먹을것의 출처인 취사장도 관장했고, 인사권, 작업 동원권, 경비대권 등 모두 한 손아귀에 쥐었다. 뭐든지 나올 수가 있었다. 돈도 옷도 술도 사치품도 나올 수 있었다. 또 뭐든지 할 수 있었다. 포로수용소 안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밖에 나가서 장가라도 들 수 있는 자리가 연대장이란 자리였다.

장가보다도 포로 간부들은 돈을 더 탐냈다. 돈을 모아서 자꾸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었다. 밖에 축 적혀 났다가 석방이 되면 그것 가지고 편히 살자는 것이었다.

기복은 대대장 자리에 그냥 있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즉 돈을 밖에서 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때 그때에 먹고 입고 향락은 할 수 있지만 돈을 밖으로 빼돌렸다가 나중에 살림 밑천을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대대장에겐 보급소도 취사장도 관장할 권한이 없었다. 기껏 사소한 인사권, 작업 동원권이 부여되어 있을 따름이었다. 그걸 아무리 휘둘러 봐야 큰돈은 떨어지지 않았다. 청년단 본부의 간부들이나 연대 본부의 간부들, 그리고 보급 소장이나 취사반장, 심지어는 장사에 눈뜬 평대원들까지도 돈을 벌어서 속속 밖으로 내보내는 판국인데 대대장인 기복은 아무리 몸부림 올려도 그것이 안 되었다. 그래서 은근히 연대장 자리를 탐냈던 것이었다.

아무리 탐이나다 라도 기복은 강용수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오를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만큼 연대에서 강용 수의 지위는 확고 했었다. 남하는 짓거의 다하면서도 그는 대원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다. 통이 크면서 원만한 성격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를 좋아 했었다. 먹을때 먹고, 쓸 때는 쓰면서도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 할 줄 아는 멋을 지니고 있었다. 기복과는 정반대로 위 사람한테는 강하면서 부하들에겐 필요 이상으로 부드러운 사람이기도 했다.

얌튼 강용수는 기복과는 유가 다른 사람이었다. 한쪽은 덤석 크고 한쪽은 꾀죄한 좀팽이라고나할까.....

이런 형편에서, 그냥 밀어내고 연대장 자리에 오를 가망이 없었던 기복은 부득불 갑작스런 이변을 생각해야 했던 것이다. 강용수라고 꼬집진 않았지만 연대장에 게 이변이 생기길 바랐고, 그것이 이변에 실현된 것이었다.그러니까 기회는 온 것이었다. 그 걸 잡느냐 못잡느냐는 두고라도 우선 기회만은 온 것이었다.

기회가 왔음 잡아야 한다고 기복은 생각했다. 바람에 일렁이는 촛불앞에 우뚝히 혼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 운으로 해서 와진 기회인데 남에게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리엔 피뚝 부 연대장의 음험한 얼굴이 떠올랐다. 시골서 쓰는 상여 앞에 나무로 깎아세운 연라대왕의 사자(使者)의 그것같은 차갑고 흉여운 얼굴이었다. 거의 네모지다시피한 멧대다리없는 얼굴에 지나치게 큰 두눈이 데굴거리고, 개발코 앞에 쭉쭉어진 크낙한 입이 그의 음험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올백으로 넘긴 술이 많고 뻗센 머리카락은 그의 거울지고 안하무인 격인 성격을 표방하고 있었다.

장승처럼 흠뻑 높은키에 등을 웅크리고 어기적 어기적 걸으면서 크낙한 눈망울을 굴릴때 밑에 사람들은 저절로 몸이 오그라 들었다. 거제도에서 빨갱이 잡을적에 한몫 본 인 상이라하면 말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복은 이 부연대장이 마음에 걸렸다. 지금쯤 연대장이 죽었으니까 그자리는 으레 자기에 게 돌아올 것이러니 생각하고 있을 그가 마음에 걸렸다.

〈만만찮은 친구지〉

기복은 부연대장을 생각타가 속으로 이렇게 뇌이며 앉 음식을 고쳤다. 밖은 완연히 어두워졌고 멀게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내게 온 기회인데〉

그는 이번엔 이렇게 뇌이며 일렁이는 촛불에 시선을 고착시키고 숨을 죽인 다음 골돌히 생각에 잠겼다

〈단돌이 대결해서는 질 수밖에 없다. 택도 없다. 부연대장의 그 오만한 성격이나 따위는 대변에 깔아 몽개버리려고 할 것이다. 아니, 가소롭다고 상대조차 않으려 들지 모른다. 그럼 어떡하지? 별수 없지. 찾아가는 거다. 현인호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 선물 두둑히 꾸려갖고 찾아가서 애원하는 수밖에 판도리 없어. 아무리 뱃심 좋고 백줄 든든한 부연대장이라 해도 이쯤되면 별수 없을거야〉

기복은 현인호의 불만까지 계산에 넣고 이렇게 뇌었던 것이다.

현인호는 반공청년단 지도위원이면서도 거느린 그룹이 좀 작기 때문에 감 배당할 때마다 만족할만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판 지도위원들은 연대장 아니면 이에 대등한 감투 하나씩

은 배당받고 있었는데, 그는 겨우 기복이 쓰고 있는 대대장 감투하나 배당받고 있었다. 대대장 이하의 감투는 감투로 간주할 수가 없고.....

그게 그의 불만이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불만을 청년단 간부들이나 지도위원들이 잘 알고 있었다. 전에 몇번씩이나 감투를 정하는 자리에서 그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이었다.

기복은 현인호의 이불만을 한껏 자극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이 작은 그룹의 우두머리라고 홀시당하던 울분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하며 그의 불갈 같은 성깔을 자극 시킬 작정이었다.

그날밤 부연대장은 연대장의 시체가 안치된 의무실로 대대장 이상의 간부들을 다시 불러 다 밥샘을 시켰는데 그 자리에서도 기복은 머리속으로 줄곧 현인호에게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강용수의 장례식은 이튿날 있었다. 포로들은 삼일장을 주장했지만 미군 의관들이 안 된다고 우겨서 이틀만에 장례식을 치루고 말았다.

장례식 때엔 청년단장 이하 전 지도위원들이 참석 했다. 물론 현인호도 왔다. 그러나 기복은 남의 시체가 있는 앞에서 감투 이야길할 수가 없 다고 생각되어서 그저 인사만 하고 쉬 한번 찾아가겠다고만 해뒀다.

쉬 찾겠다고 했지만 기복은 장례식이 끝나자 곧 현인호한테 갈 준비를 서둘렀다. 빛을내기까지 해서 두둑한 현금 봉투와 금시계 하나를 마련했다. 그리고 저녁을 마치고 곧 현인호를 만나러갔다.

그럴 줄 알았었다는 듯이 현인호는 헐레벌떡 거리며 나타난 기복을 보고 덤덤한 표 정으로 있었다. 기복은 짹짹 봉투와 시계를 그에게 건네었다. 현인호는 희희 빠르게 도는 눈으로 주위와 기복의 동정을 살피며 안 받는다며 뿌리치는 척하다가 마지못해 받는 식으로 슬쩍 설합속에 봉투와 시계를 아무렇게나 넣어 버렸다. 거제도에서 좌익 포로들과의 투쟁이 한창일적 조그만 부정도 용납 않고 단호히 처단하던, 그야말로 올곧고 불갈 같은 성격의 현인호였는데 육지에 돌아와 사개월 남짓 한 동안에 그렇게 썩어 버렸다. 기복은 봉투와 시계를 받아 넣는 현인호의 뿔뿔치 못한 동작을 보며 정잡을 수 없게 된 때를 생각했다.

「자네가 온 이유를 알아서, 기러니끼니 여기서 여러 말 하디말구 기낭 돌아가라우. 내레 이번만은 절대루 양보 안할 터이니까니 쌍!」 핑을 잡을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매이려고 현인호는 날카로움을 보였다. 매끈하고 예쁘장하기까지 한 얼굴에서 두눈 만이 유난히 날카롭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한가지, 부녀대당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물러설까 하다가 기복은 방금 건넨 뇌물의 값어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한마디 했다.

「알고있어 내레 기린것두 모르는 바본줄 아나?」

현인호는 장 울리는 소릴 질렀다. 못된 성깔이 또 폭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복은 그 고향에 서도 깡기가 쑥 빠져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걸 눈치챘다고 그런 내색을 해서는 그의 비위를 거슬리는 것이라고 기복은 생각했다.

「예, 돌아가갔습네다.」

기복은 군대식으로 자리에서 펴떡 일어나 부동 자세를 취하여 큰 소리로 말했다.

「어서갓!」

현인호는 여전히 카랑카랑한 소릴 질렀다.

기복은 거수경례를 한 다음 현인호의 사무실을 물러 나왔다. 대대본부로 내려오면서 그는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같은 것도 생겼다. 또 자신의 날쎈 행동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다. 아무리 같은 그룹의 보스라곤 하지만 가져다 안기지 않는 한 현인호의 행동에서 적극성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장례식당 일에 찾아간 자신의 행위는 때를 얻었다고 느껴졌다.

청년단 본부에서는 이튿날 지도위원회회가 소집되었다. 물론 강용수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회의 벽두부터 부연대장 서만수와 기복, 둘을 놓고 지도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연대장쯤 되려면 인격과 지식과 패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선 서만수가 기복보다 월등히 나오니까 당연히 그를 내세워야 한다는 측과, 현인호의 주장을 들어서 약한 그룹이라고 너무 홀대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엔 기어이 현인호가 추천하는 사람을 내세워야 앞으로 지도위원들 사이에 타격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측이 맞서서 장시간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쉬 판결이 나질 않았다. 부연대장은 자기가 속해있는 그룹이 약하기만 했음 무난히 뽐냈을텐데, 불운하게도 그는 가장 강한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땀에 그렇게 되질 못했다. 강익강, 약익약의 현상을 빚으면 반공포로 간에 분열 같은 불미스런 현상이 나타날것 같아 대부분의 지도위원들은 서만수를 연대장으로 뽑는데에 주저를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들은 선득 기복을 뽑으려 하지도 않았다. 대부분의 지도위원들은 기복을 연대장감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평대원으로 있어야 마땅할 사람이 어찌다 줄을 타고 대대장 자리까지 올랐는데, 그에겐 그게 한도라고 모두들 말했다. 인격은 고사하고 인간형성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사람, 그렇다고 지식이나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빨나뭀 못된 짓 하는 것만 배워갖고 전체 설치는 사람을 어떻게 연대장 자리에 앉히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현인호는 끝까지 강경했다. 노골적으로 자기가 여태까지 당한 굴욕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까놓으면서 기복을 연대장으로 등용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그는 기복이 가져다준 의외로 많은 액

수가 들은 돈 봉투와 누런 금시계를 생각하며 콧물이 버티는 것이었다. 체면도 서고 돈이랑 금시계를 거리낌 없이 소화시킬 수 있는 길인데 물러설수가 없기도 했다.

지도위원들은 난처해졌다.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데데하게 놀아나는 자를 감투 안배의 원칙에 의해 능적 대응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좌익포로들과 싸울때에는 무슨 의논을 해도 일사천리로 척척 해결을 짓던 사람들인데, 반공 포로끼리가 되면서부터 회의의 분위기는 묘하게 영켜 들곤 했다. 거제도에서 죽을고생 다한 사람들인데 서운찮게 해주어줬던 원칙이 서있기 때문에 지의순준(遲疑巡濬) 언제나 회의가 제대로 진척되질 못했다.

이번 회의도 같은 꼴이었다. 대충 토론을 하고 나서 거수로 가부를 물어버리면 일은 끝나는 건데, 그렇게 단순스레 일을 처리하면 생사를 같이한 동지사이에 타격 이 생긴다고 하여 신중을 기하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기다리다 못해 부연대장을 연대장으로 등용하고, 대신 기복을 부연대장 자리로 끌어 올린 제안은 했다. 그러나 현인호는 그 제안을 일축해 버렸다. 그 정도로 될 문제였으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판사람이 기한부로 하진 제안을 했다. 기복에게 연대장자될 주되 삼개월 정도로 기한을 정하자고 했다. 아무래도 오래오래 연대장직에 둘사람이 못되는 것같으니까 기한부로 등용했다가 임기가 끝나면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한직에 물러앉게 하자고 하였다. 제안자는 이 안도 마다 고하면 결국 무기명투표로 정할 수 밖에 없다고 은근히 일르기까지 했다.

현인호는 그제안에 마음이 솔깃했다. 기한부라는게 치사하고 부끄러운 일이긴 했지만, 기복의 비위라 면 능히 그런거 극복하리라 믿어졌다. 단 그는 기한을 최대한으로 길게 해주도록 노력해야 한 다고 자신에게 타일렸다. 그렇게 해놓기만 하면 곧 있게될 석방때까지 기복이 연대장 자리에 앉아있을수 있겠기 때문이었다.

「어떻소, 현위원! 기한부로 한다는 안 말이에요. 내 생각엔 참 좋은 안 같은데.....」

한사람이 이렇게 현인호의 운을 뚫다. 너무 경솔하게 동의하고 나섰다가 판사람들의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 같아 머뭇대던 현인호는 이때다 싶어서 그 질문 에 선듯 대답을 했다.

「기한부라는게 굴욕적이긴 하디만 여러 위원님네들이 정 기렇다든 어드롭갑니까? 동습니다. 찬성합니다. 한데 기한은 최소한 육개월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나서 그는 썩썩 여러 위원들의 표정을 살폈다. 반대하는 표정이 많지않은 것 같았다. 그런데 기한 문제 때에 또 논쟁이 시작되었다. 육개월은 너무 길다고 했다. 아무리 늦더라도 육개월이 다 되기전에 석방될 텐데, 그럴바에야 굳이 기한부로 할 필요가 뭐겠는가 하였다. 기한부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다음번엔 당선차례요 하고 부연대장 서만수에게 보증수표를 주자는 건데 기간이 육개월이나 된

다면서 만수가 납득을 하겠는가 하였다.

기한은 종래 삼개월로 낙착이 되었다. 제안자의 안내로 삼개월로 하자고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주장했지만 현인호가 하도 강경하게 나오기때에 일개월을 늘려서 낙착지는 것이었다.

현인호는 회의가 끝나자 곧 기복을 불러다 연대장이 됐단 사실을 알렸다. 삼개월 기한부란 말도 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기한부란 말에 기복은 순간적으로 불만의 빛을 보였다. 그러나 삼개월이 다 가기전에 석방이 될거라고 타이르는 현인호의 말에 그는 쉬 수그러졌다.

기복이 연대장이 됐 단소문이 삼시간에 수용소안에 퍼졌다. 거의 모든 포로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하고 놀랐다. 여기저기 무뎅무뎅 모여서 빈정거렸다.

「돈만 있음 개도 명철치 된다더니만, 그 사람 돈으루 벼슬산 모냥이다? 기복이 돈으로 어찌어찌 한 줄 아는 포로들은 이렇게 돈의 위력을 들먹였다. 그런가하면 그의 인격이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포로들은, <훌륭한 사람은 형사하고, 비루한 사람은 살아남아서 출세하누만!> 했다. 전 연대장 강용수를 추키고 또 추모하면서 영터리인 기복이 출세했다고 비웃는 것이었다.

어떤 포로들은 숫세 해학적인 기분이 되어서 말은 앓고 힐힐 웃기만 했다. 웃음도 해학적이었음은 두말 할 나위 없었다.

기복도 주위 사람들 모두가 이런식 이란걸 알았다. 그러나 그는 부러 모른척 했다, 아는 척하면 더 병신이 될 것 같아서였다.

그는 재빨리 붓짐을 꾸려갔고 연대본부로 올라왔다. 부연대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 출영나왔다. 겉으로 들은 반갑단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속은 그게 아닌란 걸 기복은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꾸불꾸불한 성격인 부연대장의 마음이 평온할 리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아무진 결의를 하고 있었기때에 그게 별로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 계획대로 연대장의 직권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철조망 밖에 축적할 돈을 벌거다. 이렇게 속으로 뇌이니까 모두들 체제하는 연대본부 간부들이 되려 가소롭게 보였다.

취임식을 마치고 기복은 우선 인사 이동부터 단행할 생각을 했다. 연대본부의 참모진을 위 시해서 대대와 중대의 간부들까지도 자기의 심복들로 대체할 생각을 했다. 특히 연대본부의 간부중 물자나 돈, 그리고 이권과 관련되는 사람들은 최단 시일내에 자기의 심복들과 교체시키려 했다. 돈줄인 보급소장, 취사반장을 비롯해서 인사권을 쥔 서기장, 작업 동원권을 쥔 동원 부장등을 모조리 바꾸려 했다. 이렇게 일단계 인사이동이 끝난 다음에 대대장급을 손보려했던 것이다.

그런데, 기복이 막상손을 대려 하니가 인사이동이 그렇게 만만찮단 반응이 왔다. 모두 웬만한 백줄들을 붙잡고 있었고, 더우기 부연대장을 중심해서 단단히 결속되어 있기때에 쉬 흔들리

지가 않았다. 사개월 기한부란 사실땀에 모두들 더욱더 부연대장에게 꼭 붙는것같은 인상도 받았다.

아롱든 기복은 크게 당혹했다. 소문만 잔뜩 퍼뜨려놓고 실제론 한사람도 움직이지 못했으니 위신도 말이 아니었다. 그는 모두 바꿔치우진 못해도 보급소장과 취사반장 두사람만은 기어이 바꾸려 했다. 그 자릴 목표로 자기에게 날이 날마다 쫓아와서 애원하는 자기 그룹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둘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돈을 쥐고 앉아서 피만 잔뜩은 사람들인데 맨스러울 턱이 없었다.

둘만은 기어이 짜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둘은 합자해서 기복이 짝짝 놀랄 정도의 선물을 준비했다. 금덩어리였다. 그걸 들고 밤중에 그를 찾아와서 슬쩍 건넨다. 선물꾸러미의 부피가 하도 작기때문에 그는 안 받으려 했지만 그들이 슬쩍 포장을 풀고 누르스름한 금덩어릴 뵈는 바람에 그만 심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 넣었던 것이다. 우선 두꺼비 파리 삼키듯 막고 만 것이었다. 그 파리에 낚시가 끼어 있으리란 걸 번연히 알면서도 에라 먹어버리자 하였던 것이다.

일단 금덩어릴 먹고 나니간 상황은 아주 달라졌다. 둘을 바꿔치운다고 할수가 없게되었다. 그래서 예라, 기왕인데 그들을 심복으로 만들어 버리자 하였다.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것 같았다. 둘은 철저히 부연대장에게 붙어있었다. 특히 보급소장은 동료들에게 참인(讖人)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부연대장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 그는 부연대장에게 사소한 동료들의 비위 사실 까지도 확대해서 고자질하고 있었다. 물론 물건이랑, 돈도 받치면서 겹들려서 그런 간사한 짓을 하고 있었다. 보급소장은 땅딸막한 몸매를 하고 매우 다부지게 굴었다. 또 피로 돌돌 뭉쳐진것 같은 사람이기도 했다. 부정을 가장 많이하고, 자기 실속도 누구보다 많이 차리지만 큰 소리는 혼자 탕탕 쳐댔다. 부연대장 업고서 마구 설치는 것이었다.

취사반장은, 사실, 보급소장의 손아귀에서 놀고 있었다. 더우기 기복한테서 같이 바꿔치우려는 대상이 되면서 둘은 공동운명 이란걸 절감했고, 따라서 피가 앞서는 보급소장에게 취사반장은 자기운명의 모든걸 맡기다시피하고 있었다.

이렇게 놀아나면서 둘은 기복에게는 좀체로 마음을 주지 않았다. 물자나 돈을 요구하면 대뜸 응하긴 하면서도 속은 주지 않고, 되려 그가 물자나 돈을 받았단 사실을 약점삼아 더욱 뻔세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달라면 물자든 돈이든 준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귀찮아서이고 약점을 잡기 위해서이지, 네가 이빠서 그러는건 아니다하는 태도들이었다.

취놓고 보급소장은 마구 입을 놀려댔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떠들어댔다.

기복은 둘이 그런단 사실도 알았다. 하지만 이미 약점을 잡혀버려서 강하게 나올 수가 없었다. 그는 기왕 그렇게 된 바에는 슛제 모른척하고 실컷 그들을 이용이나 하리라 하였다. 눈 딱

잡고 사개월 동안 그들에게서 돈이랑 물건을 긁어 내리라 하였다. 그러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을 것 같았다. 다행히 부연 대장이 전혀 모른척 해줘서 그는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도 너무 한다는 느낌이들 정도로 부정을 감행했다. 해서 밖으로 들고, 나갔다.

밖엔 대대장 때에도 여러 번 나가서 음식도 먹고 생리적인 욕구도 충족시키고 했지만 연대장이 되면서 그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않고 슛제 결혼을 해버린 것이었다. 식을 올린다, 뭐한다 형식은 취하지 않았지만 창녀 하나와 장래를 약속하고 살림을 차린 것 이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거게 다 내다 주는 것이었다. 상대가 창녀인데 너무 그렇게 하지말라고 측근자들이 말리기도 했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그 짓을 계속했다.

재미가 한창일 적에 그는 자기로 하여금 연대장이 되게 한 운명의 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여자와 살며, 장래를 위해 돈을 축적할 수 있게 한 운명의 신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가끔 거울에다 자기 얼굴을 비춰봤다. 감사할 대상이 그것인 듯 하여서였다. 다음은 뒷산 중턱의 다이내마이트 폭발현장을 은근히 살피곤 했다.

주로 밤중에 사무실앞 공터에 나서서 그곳을 살피곤 했다. 그곳도 감사할 대상인 것 같았다. 근데 누군가가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가 다이내마이트 폭발장을 향해 밤마다 깊숙한 절을 한단 소문을 퍼뜨렸다. 해서 말단 대원들까지도 그를 욕했다. 다이내마이트가 석편을 날리고, 그 석편이 전 연대장 강용수의 머리를 때려서 죽게 하였으므로 자기가 연대장이 될수 있었다고 그쪽을 향해 밤마다 절을 하다니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 하였다.

그는 어느새 완전히 고립 되었다.

간부들한테도 대원들한테도 하잘 나위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노인소대에 서들은 그를 두고 혼주(昏主)라고 까지 하였다. 즉, 죽은 연대장을 명군(明君)이었다고 추모 하면서 그는 그렇게 내리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사실들을 모두 알았지만 여전히 모른체를 하였다.

여름은 자꾸만 무르익어 갔다. 포로들은 운동하기도 고되다 하여 날이 날마다 벌이던 배구,

농구, 야구 시합 등을 중지하고 나무 그늘 밑으로 모여 들어서 장기, 바둑, 잡담으로 시간을 보 내고 있었다. 그러나 기복에겐 그런 한가가 없었다. 마음이 바쁘기만 했다. 사개월 임기중 벌써 이개월이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와 앞날을 약속했던 창녀가 자취를 감춰, 버렸다. 여태 가져다 맡긴 돈 몽땅갓고 가뭇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그가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여기저기 딴 창녀들에게 간다고 불평이더니만 그렇게 뺨소닐 치고 말았다.

사실 그는 창녀 하나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건드렸다. 그러면서 돈을 뿌렸다. 하기 땀에 앞날을 약속한 창녀에게 많은 돈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걸 탓하다가 그

녀가 가뭇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는 기가 찼다. 연대장 된 후 두달 동안 악착스레 노력한 결과가 헛것이 되었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그는 주저앉지는 않았다. 거울에 자기 얼굴을 다시 비춰서 <두꺼비 생관>임을 확인하고, 뒷산 중턱의 다이아마이트 폭파 현장을 쳐다보면서 자기 운수를 재인식하고 또 부정을 향해 덤비는 것이었다. 나머지 두 달 동안에 잃은 것을 만회하는 동시에 미리 앞으로 두 달 동안에 뜬이 내기로 계획했던 돈과 물자까지도 그대로 뜬으리라 하였다. 때문에 전보다 갑절이나 바빠 설쳐야 하는 것이었다.

보급소다 취사반이 피멍이 들기 시작했다. 그의 검은 손이 휘정거리면서 그렇게 피해를 자국을 남기는 것이었다. 간부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대원들 모두가 불평불만으로 서물렁대기 시작했다. 그건 일촉즉발의 아슬한 국면에 까지 다다른 것이었다. <임시>니 <잠깐>이니 하여 참아오던 대원들도 그 한계점을 느낀 것 이었다.

이걸 알고 기복은 등골이 오싹했다. 무마책을 강구해야겠다고 서둘렀다.

머칠 생각한 끝에 자기 나름대로 소위 무마책을 세웠다. 먹여보잔 거였다.

즉, 연대 전체에다 회식을 시키자는 것이었다. 비용은 우선 양말 창고의 것들을 끄집어 내어 쓰고 서서히 정리를 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문어 제다리 뜬어 먹은 격으로 대원들이 먹을 양말을 한꺼번에 대량 처분해서 회식을 시켜주고 끼니때마다 줍씩 털 먹어서 정리를 하잔 것이었다. 해서 무마는 무마대로 하고 자기몫도 축내지 않도록 하자는 약은 술책이었다.

그런데, 이 사실도 보급소장과 취사반장의 입을 통해 곧 연대안에 알려지고 말았다. 대원들은 흥분했다. 속임수를 썼다고 알미워했다. 대원뿐만 아니라 부연대장을 위시한 연대의 간부들 모두가 그래선 못 쓴다고 머릴 절레절레 흔들었다.

기복은 이 사실도 알았지만 모르척 했다. 나머지 두 달 동안을 한껏 돈과 물건을 뜬내내면서 이력저력 무사히 넘기자, 그리고 그건 자기의 <두꺼비 생관>이 가능케 하리라 믿으면서 막무가내로 밀고 나갔다.

그 즈음에 연대에 강연회가 있었다. 강사는 윗 수용소에 있는 목사였는데, 반공 청년단이 후원해서 이 목사를 각 연대에 순회시키면서 강연하게 했다. 포로들이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기에 정신 상태가 이완되고 있다 하여서 그걸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연회였다.

근데 강연회장에서 대원들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강사가 노골적으로 간부들의 부패상을 꼬집어 댔는데 그 때마다 대원들이 일제히 시선을 연대장인 기복에게로 돌리며 <바로 너를 두고 하는말이야> 하는 태도로 웃어 대는 것이었다. 도둑질을 한다, 오입질을 한다, 사치를 일삼는다, 돈을 밖으로 도피시킨다. 인사청탁에 금품이 거래된다, 백의 작용이 너무 심하다, 이렇

게 강사가 꼬집을 때마다 대원들은 어김없이 저네 연대장을 쳐다보며 힐힐 비웃는 웃음을 웃었다.

기복은 얼굴이 확확 달았다. 죽땀이 등허리에 죽죽 흘렀다. 공연히 참석했다고 후회를 했다. 하지만 도중에 물러설수는 없었다. 대원들의 태도가 그 모양인데 섯불리 자리에서 일어났다간 무슨일이 생길지 알수 없단 생각이 들었다.

강사는 끝 머리에 가서 철조망이 낮다는 거와 석방과는 관계가 없는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낮아도 철조망은 철조망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철조망 안에 있으면 포로라고 하였다. 면회가 되고 감시가 소홀하다고 해서 반쯤 석방이 된걸로 생 각하면 큰 오해라고 하였다. 우린 당장 평화롭다고 안이하게만 살것이 아니라 이런때 일수록 일단 유사시를 위하여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만에 일이라도 강제로 복송이 되는 날이면 우린 모두 죽는거 아니냐고 하였다. 그런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질 수 있겠는가 하였다. 거제도에서 투쟁하던 시절을 생각해서라도 우린 좀더 경 성하고, 절제하고, 자기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목사의 연설이 마무리 될 때까지 대원들의 눈길은 계속 기복에게 머물러 있었다. 때문에 그는 강연의 마지막 순간 까지 진땀을 흘려야 했다. 강연이 있는 뒤로 대원들의 태도는 전보다 더 흔들리게 되었다. 기복을 봐도 인사도 않는 대원들이 수두룩했다. 뿐만 아니라 되려 그가 지나가면 뒤에서 크게 웃어 제치는 포로들도 있었다. 조소하는 것이었다.

기복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무리 <두꺼비생관>을 믿는대곤 하지만 대원들이 마구 슬렁대는 현실이 마음에 걸렸다. 거제도에서 좌익포로들을 쓰러뜨리던 열화같은 그들의 분노가 자기를 향해 터질 것만 같아 조바 스러웠다. 근대 그 무렵에 급기야 엉뚱한 일이 터지고 만 것이었다.

진작부터 이상한 소문이나 돌긴 했었다. 휴전회담이 한창인데 공산측이 기어이 북한 출신 반공포로까지 합쳐서 포로교환을 하자고 주장하여 유엔군 측의 태도가 이상하게 돌아간단 소문이었다. 그러나 포로들은 설마했던 것이다. 거제도에서 의 반공투쟁, 그리고 동서 분리등을 통해 철저한 반공산주의자 들이란 걸 세계에 나타낸 사람들을 공산지역으로 보내서 죽게 하리만큼 유엔측이 비 인도적 일리는 만무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수용소에는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면회제도가 없어졌다. 작업이 없어지고 변기만 운반해 나가곤 했는데 그때에도 경비가 삼엄해졌다.

경비 임무가 국군으로부터 유엔군 쪽으로 넘어갔다. 밖에서 들어오던 교육하는 문관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가 종래 철조망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2미터나 되게시리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모건 이중으로 쳐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외곽선을 이중 철조망으로 막아버리자. 다음은 내부 를 같은 이중 철조망으로 좁게 구획하기 시작했다. 소단위 수용소로 갈라놓으려는 의도임이 분명했다.

분리 수용한다!

5백명 단위로 갈라 놓는다!

강제 복송할 때에 말생 부릴까봐 그런다! 그 때부터 포로들은 이렇게 떠들며 들끓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정쩡해 있다가 막상 수용소가 작게 쪼개지는 걸 보고 관리당국의 의도를 확연 하게 알아채린 것이었다.

포로들은 울었다!

포로들은 전을했다!

포로들은 절망속에 빠졌다!

포로들은 돈, 색시, 쌀밥, 통조림, 옷 등에서 깡그리 관심을 뺐다.

포로들은 검은 구름이 확덮힌 앞날을 응시하며 탄식만 했다.

이렇게 침울한 공기가 확덮힌 수용소에서 반공청년단 간부들은 각방으로 관리당국의 진의를 캐묻고, 회의를 거듭해서 앞으로 나갈 길을 모색했다. 그들은 만일 관리당국이 자기네를 강제로 복송할 경우에는 모두 무단 탈출을 감행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공산지역에 넘어가기전에 자유의 땅에 시체라도 남긴단 결의를 하고, 그걸 전 대원에게 알리는 동시에 관리당국에 도 통 고했다.

관리당국에서 비로소 5백명 단위로 분리 수용한단 지시를 내렸다. 반공 청년단 본부에 미 군 장교가 나타나서 전했다. 그는 그러는 이유는 자기도 모른다면 어서 구획이된 수용소 안에 5백명씩 넣어 달라고 하였다. 인원이 많이 남을 텐데 그들은 판테로 이동시키겠다 하였다. 수용소가 여러개로 갈리면서 땅이 더많이 필요하게 되어 그렇다 하였다.

5백명 씩 갈린단 소문이 퍼졌을 적에 포로들은 절망 속에서 수련거리기만 했었는데 차차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닫게 되자 이전 어느 수용소에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그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포로되었을 당초의 분위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들은 우왕좌왕 했다.

기복의 연대도 갈리기 시작했다. 대원들이 대대장을 뽑아갖고 5백명씩 무더기 되어 갈려갔다. 대부분 그 수용소 자리에 남았지만 더러는 기차로 판 데에 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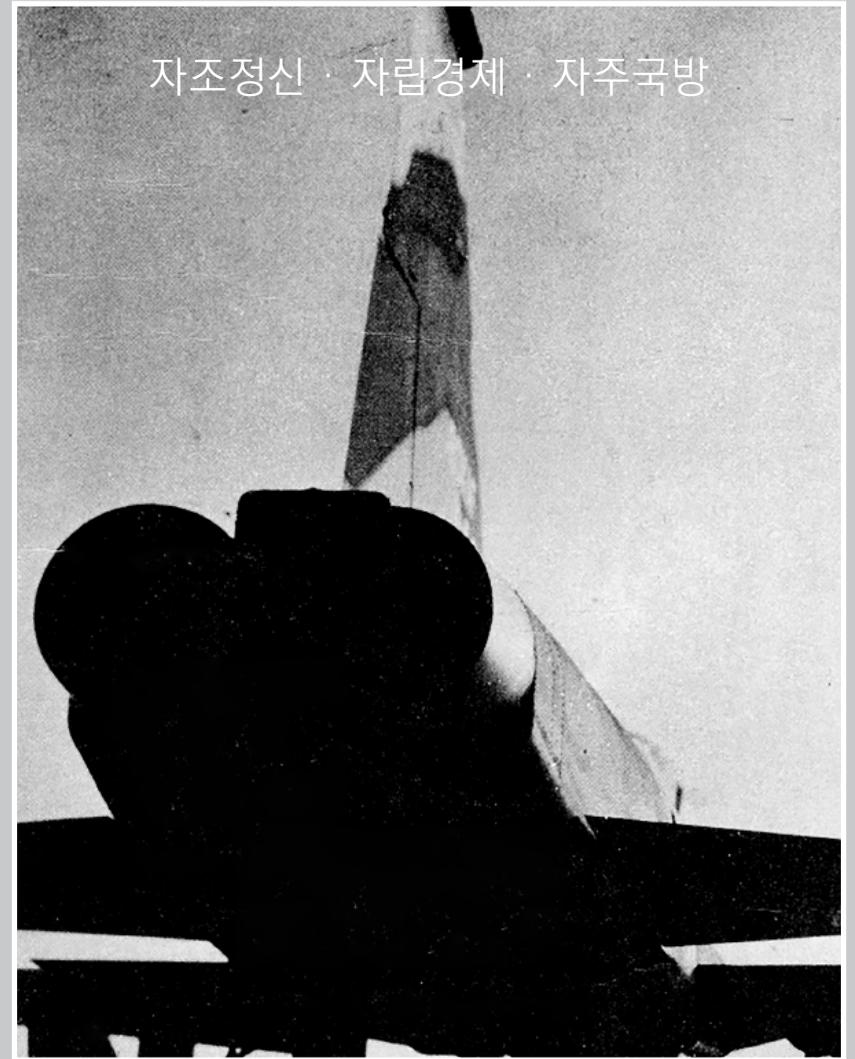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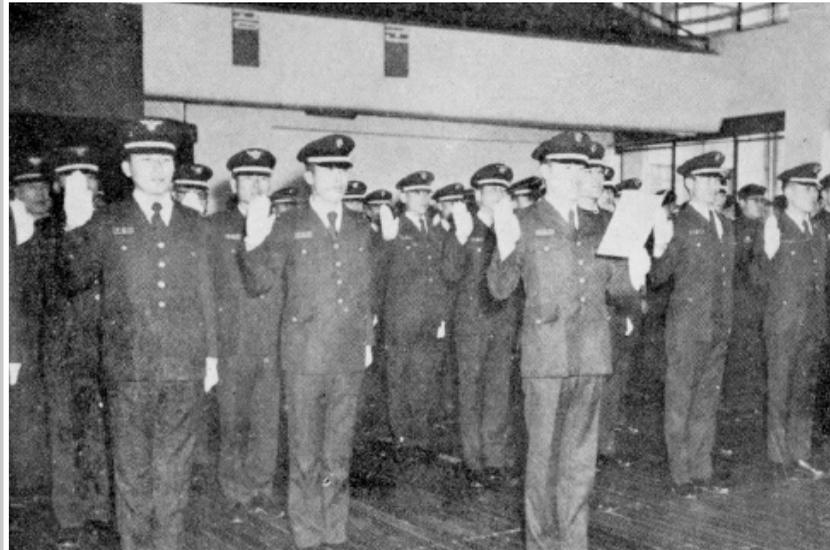
대대장은 아무래도 본래 간부 노릇하던 사람들이 많이 뽑혔다. 대대장급이나 연대본부 참모 중에서 뽑혔다. 근데 기복과 보급소장, 그리고 취사반장은 끝까지 대대장으로 뽑히지 못한 사람들의 틈새에 남아있었다.

마지막으로 천명이 한 울안에 모였다. 여기저기 수용소에서들 대대를 편성하다 남은 포로들을 모아 온 것이었다. 그 가운데에 기복과 보급소장, 취사반장도 끼어 있었다. 그러니까 2 천명 가운데에는 간부로 있다가 밀린 사람들과 5백명만큼 큰 그룹을 이루지 못한 평 대원들이 모여 있었는데 전자의 수는 그리 많지가 않았다. 마지막 천명이 두갈래로 갈려야 했는데 관리 당국에 서는 한 갈래는 기차타고 판 데로 가야 한다고 했다.

대원들이 대대장을 뽑았다. 물론 썩은 간부들은 제외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네 밀이 내 밀이 하면서 썩은 간부들을 자기 대대에 받아들이지도 않으려 했다. 노골적으로 흰눈질 을 하면서 대원들은 썩은 간부들을 싫어했다. 그러다가 그들은 대표를 뽑아 추첨으로 썩은 대 원들을 갈랐다. 기복은 기차타는 대대에 끼었다. 기차에 오른 기복은 화물칸 구석지에 웅크 리고 앉아 담배만 빨고 있었다. 보리밥 대신에 C레이션이 분배되고 자리도 아주 넓어서 초기에 이동할 때 받던 거와는 대우가 판이하게 달랐지만 그는 모든 것이 떨떠름하기만 했다. 물론 <두꺼비 생 관>에 대한 자신도 다이내마이트에 대한 고마움도 이전 그에게 있질 않았다.

제 1기 공군 ROTC 임관

제1기 공군 학생군사교육단(ROTC)임관식이 지난 2월 27일 최광수 국방부차관, 옥만호 공군참모총장과 공군본부 주요 참모, 군 고위장성 그리고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정 예 공 군 되 자